

신라에서  
고려로

### 집필진 (집필순)

조인성 경희대 (권별책임자)  
전기웅 부산대  
조범환 서강대  
김주성 전주교육대  
신호철 충북대  
김갑동 대전대

### 자료제공 (가나다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서울대학교교양각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이한상

# 신라에서 고려로

07

연구총서

### 일러두기

1. 본 총서는 신라의 태동에서부터 고려에 복속된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신라사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렴해서 총론, 시대사, 분류사로 구분·서술하였다.
3. 전문성을 갖춘 일반 교양서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4. 집필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 전임강사 이상, 국가기관의 학예연구관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외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5. 본문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작은 글씨로 병기하였다.
6. 인물에 대해 존칭은 생략하였다.
7. 삼도의 유적 명칭은 지자체명 + 유적명으로 하되, 같은 유적의 명칭이 계속되는 경우 지자체명은 생략하였다.
8. 찾아보기는 장별로 keyword가 될 만한 용어만을 선정하였다.
9. 사진 출처는 권별로 일괄 표기하였고, 필자가 제공한 경우는 출처를 생략하였다.
10. 참고문헌은 단행본을 위주로 하였지만 부득이한 경우 논문도 포함하였다.
11. 각 원고는 권별책임자의 1차 교열, 편집위원회 실무진의 2차 교열을 거친 후 감수위원회의 감수를 거쳤다.

## 발간사

천년왕국 신라는 한민족 최초의 통일대업을 완수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특유의 개방성과 진취성으로 실크로드를 오가며 문물을 교류한 세계국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역사서가 없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터전인 경상북도가 편찬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손으로 민족의 뿌리찾기 사업을 펼친다는 역사적 소명도 함께 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는 가장 큰 규모의 신라사 편찬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신라의 모태가 되었던 사료국의 출현에서부터 고대국가체제로의 발전, 한민족을 아우른 삼국통일의 완성, 고려로 이어진 신라의 전체 역사를 시대적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해를 높였습니다.

천년에 이르는 신라의 역사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연구총서를 집필하고 발간한다는 것은 정말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신라가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는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한 민족의 자산이며 우리 문화의 원류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2011년 ‘신라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학술대회 개최를 시점으로 완성되기까지 장장 5년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국내의 신라사 전문가 136명이 힘을 모은 역작으로 총 30권, 1만 2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는 오로지 편찬위원, 편집위원, 집필진의 지혜와 열정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단순한 과거의 정리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민족사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민족 자존을 되찾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편찬의 성과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세계와 교류했던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수많은 이야기, 신화와 전설, 문화유산은 우리에게 문화콘텐츠의 바탕이 되어 문화 관광산업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암울한 중세를 종식시켰고, 산업혁명이 근대사회를 형성하였다면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의 세계는 문화혁명의 시기입니다. 또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물질문명의 발전이 극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이 첨단 기술혁명의 시대에 ‘우리’라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이야말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가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왔지만 변치않는 역사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미래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미 신라는 오래전 사라진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찾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혼을 찾는 일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경북시대의 힘찬 출발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시기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완성은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북의 여정에 정신적·문화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편찬이 또 다른 시작의 서막이기를 바라며, 국민의 역사의식 함양에 길이 남을 대중 역사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민족사에 길이 남을 사서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열정을 다해주신 집필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편찬사

신라 천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700년 이상은 삼한 열국(列國) 중의 한 나라인 사로국(斯盧國)으로 출발, 일전(一轉)하여 왕국으로 비약한 뒤 선진 고구려·백제와 더불어 정립(鼎立)의 형세를 이룬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기에 삼국통일 이전의 장구(長久)한 한국고대사는 어떤 한 나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삼한 및 삼국 전체의 유기적인 틀 속에서 파악할 때만 비로소 그 진정한 이해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半世紀) 동안 한국고대사의 여러 부문에서 눈부신 연구상의 진전을 보았으므로, 그 풍성한 성과를 편의상 각 나라 별로 총정리·집대성하는 노력이 줄곧 시도되어 왔습니다.

한국사 연구에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북한 당국이 일찍부터 고구려를 삼국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백제와 신라를 그 부용(附庸)국가로 폄하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사 연구에 온갖 힘을 쏟아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쪽에서도 가야사와 백제사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야심찬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말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를 임시로 두어 가야문화권 개발과 정비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수년 간 김해지역의 가야 사적(史蹟) 정비와 더불어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하는 사업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를 추진기관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는 충청남도의 예산지원 아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3년 간에 걸쳐 연구총서 15권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고고학자료를 수록한 『백제문화사대계(大系)』 25권을 발간하여 학계에 비익(裨益)한 바 매우 컸습니다.

이같은 추세와 동향에 비취볼 때 경상북도가 2011년 12월 경북문화재연구원을 책임기관으로 하여 본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사업에 착수한 것은 좁게 보면 경북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지만, 넓게 보면 우리 민족사의 근간(根基)이 되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현단계에서 총정리함으로써 그 빛나는 전통을 재정립(再定立) 하려는 뜻깊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라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고대사 연구의 견인차 구실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대사 연구 자료의 쌍벽(雙璧)

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대개 신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보조사료인 비문(碑文) 등 금석문(金石文)자료도 신라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며 또한 신라사회의 내부 정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목간(木簡)만 하더라도 백제에 못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현재 우리들은 삼국 중 신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신라는 성장 과정에서 정치·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영향을 받은 바가 많았습니다. 이는 역(逆)으로 생각한다면 신라의 문물이나 사회제도를 갖고서 자료가 없어 잘 알기 어려운 고구려·백제의 그것을 유추(類推)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신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고구려·백제·가야 세 나라 역사 이해의 기초를 잡아가는 추세라고 하겠습니까.

본 편찬위원회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연구총서 22권과 자료집 8권, 그 밖에 전체 개요(概要) 2권의 한국어판과 그에 대한 3종의 외국어판을 펴냄에 있어 그것이 한낱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촉발시켜 애향심(愛郷心)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한국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信念)이 사명감에서 편찬에 임했습니다. 다만 140인 가까운 전문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270편의 글을 모은 대부서(大部書)를 엮는 거창한 사업인 만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난관에 부딪혔으며, 이 때문에 경북도청 이전(移轉)사업과 연계되어 있던 본 총서의 출간이 예정보다 2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끝까지 인내(忍耐)해 준 경상북도 당국의 넓은 양해(諒解)에 감사하며 특히 역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서 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한 이주석·주낙영·김현기·김장주 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편찬위원회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반 편찬실무를 훌륭하게 집행한 편집위원회의 노중국·주보돈·이희준 교수와 경북문화재연구원의 이동철 선생의 헌신적인 노고에 편찬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기 동

# 목 차

## 제7권 신라에서 고려로

개 관 010

### 제 1 편 지배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움직임

#### 제1장 지배체제 붕괴의 시작

- 1. 진성여왕대의 혼란 023
- 2. 효공왕대 정치 운영의 한계 046

#### 제2장 박씨 왕실의 등장

- 1. 박씨 왕의 실체 065
- 2. 박씨 신덕왕의 즉위 068
- 3. 박씨 왕대의 정치 상황 077

#### 제3장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

- 1. 농민봉기와 국가재정의 파탄 099
- 2. 호족의 대두와 중앙집권체제의 붕괴 112

#### 제4장 유학자들의 활동과 향배

- 1. 유학자들의 활동 131
- 2. 체제유지 지향의 유학자 136
- 3. 신체제 지향의 유학자 151

#### 제5장 사상계의 새로운 동향

- 1. 선종의 유행과 의의 169

- 2. 교종계의 동향 191
- 3. 불교 신앙의 여러 모습 197
- 4. 풍수지리설과 도참설의 유행 201

### 제 2 편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성립

#### 제1장 후삼국의 정립과 후백제의 멸망

- 1. 후삼국의 정립 209
- 2. 후백제와 태봉의 발전 219
- 3. 고려의 성립과 후백제와의 쟁패 233
- 4. 후백제 멸망 238

#### 제2장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통일

- 1. 경애왕의 친고려 정책과 견훤의 경주 침공 245
- 2.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 귀부 248
- 3. 신라 멸망의 원인 255
- 4. 고려의 후삼국 통일 261
- 5. 멸망 후 신라계 세력의 동향 275

색 인 286

# 개 관

중앙정치의 파행적 전개

지방사회의 이반과 후백제와 고려의 쟁패

비관적 유학자들의 등장과 선종의 유행

신라에서 고려로

## 중앙정치의 파행적 전개

다 아는 바와 같이 중대 말부터 진골귀족들의 정권 다툼이 자주 일어났고, 왕위 다툼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통치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정부는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고, 호족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골품제 하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렸던 진골귀족들 전체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진골귀족들은 호족들의 등장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태세를 갖추었다. 신라는 일견 안정을 되찾은 듯하였고, 헌강왕(875~886)대에 왕경인 금성金城(경주)은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진성여왕(887~897)이 즉위하면서부터 그동안 내연되어 왔던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통일 전의 선덕여왕(632~647), 진덕왕(647~654)을 이어 태종무열왕(654~661)이 즉위한 후에는 진골 남성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일종의 원칙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문왕(861~875)의 아들인 헌강왕(875~886), 정강왕(886~887)에 이어 딸인 만공이 즉위하였으니 바로 진성여왕이었다. 이는 경문왕의 후손들이 왕권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낳은 파행의 결과였다. 888년(진성여왕 2) 경문왕의 동생으로 조카 왕들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위홍魏弘이 죽었다. 그는 여왕과 각별한 사이여서 사실상 부부였다고도 전하는데, 이후 여왕은 용모가 준수한 소년 2~3명을 총애하였고, 그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 권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889년(진성여왕 3)에는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이는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부터 각지에서 호족들이 대두하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중앙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왕과 그 측근들의 실정을 비방하는 글이 나붙기도 하였다. 894년(진성여왕 8)에는 최치원崔致遠이 시무時務 10여조를 올렸다. 내용은 전하지 않지만, 지방 호족이 대두하면서 유명무실해진 도독都督과 태수太守, 현령縣令의 지방 관직을 지주제군사知州諸軍事와 성주城主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 통치체제의 개편안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처럼 개혁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다. 결국 진성여왕은 실정의 책임을 지고, 897년(진성여왕 11) 6월 왕위에서 물러났다.

진성여왕은 후사를 두지 못하였는데, 헌강왕이 사냥을 하러 가던 중 만난 여인과 야합(野合)하여 낳은 아들 요(曺)가 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요는 헌강왕의 서자로서 진골 신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왕은 그를 태자로 삼았고, 요가 왕위에 오르니 곧 효공왕(897~912)이었다. 이때 지주제(軍使-성주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나라는 셋으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900년(효공왕 4)에는 후백제가, 901년(효공왕 5)에는 후고구려가 건국되었던 것이다. 신라의 지배 영역은 경상도의 일부로 축소되었고,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패권을 다투는 형세가 되었다. 효공왕은 말년에 천첩(天妾)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고 하거니와, 국왕으로서의 무기력감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효공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귀족들은 경희(景暉)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가 신덕왕(912~917)인데, 상대(上代) 박씨 왕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달라니사금(154~184)의 먼 후손이었다고 한다. 박씨 왕의 돌발적인 출현과 관련하여 박씨 왕의 실재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신덕왕이 본래는 김씨였는데, 당(唐)의 동성불혼제도를 의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성을 박씨로 바꾸었다고 풀이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고려의 우왕과 창왕을 왕씨의 자손이 아닌 신돈(辛旽)의 자손이라고 하였듯이, 고려 때에 신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김씨를 박씨로 변조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하지만 기록상 명백한 박씨 왕의 출현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경희의 즉위와 관련하여 의부(義父) 예겸(兪兼)이 주목받았다. 헌강왕은 즉위한 후 곧 그를 시중에 임명하였는데, 880년(헌강왕 6)까지 재임하였다. 또 899년(효공왕 3)에는 딸을 왕비로 들였다. 예겸은 헌강왕대로부터 효공왕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실력자였다. 경희가 진성여왕대에 헌강왕의 딸과 혼인하여 왕위계승의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점과 아울러 하필 박씨인 그가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정강왕이 죽은 후 진성여왕, 효공왕으로 이어지는 경문왕 자손들의 무리한 왕위계승과 농민봉기, 호족의 대두, 후삼국의 성립 등 신라의 존망을 가르는 중대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김씨 왕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신덕왕은 즉위와 더불어 태자를 책봉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면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모색하였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신덕왕이 죽은 후 태자 승영(昇英)이 즉위하니 그가 경명왕이었다(917~924). 그는 친동생을 상대등에 임명하는 한편 김유림(金裕廉)을 시중에 임명하여 김씨 진골귀족들을 포섭하려고 하였다. 920년(경명왕 4) 정월 경명왕은 고려와 사신을 교환하며 우호를 맺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견훤왕은 대야성(大耶城(합천))을 무너뜨리고 신라 영역 내로 진격하였다. 왕은 고려에 지원군을 요청하였고, 고려군이 출동하자 후백제군은 퇴각하였다. 양국은 일종의 군사동맹을 맺었던 것이다. 이후 신라는 친고려정책을 고수하였다.

### 지방사회의 이반과 후백제와 고려의 쟁패

889년(진성왕 3) 지방에서 중앙으로 세금을 보내지 않아 국가재정이 모자라게 되자 왕은 세금 납부를 독촉하였다. 이에 저항하여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진성여왕의 즉위를 전후해 발생한 기상이변과 흉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귀족이나 사원이 소유한 대규모 농장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가난한 농민들은 유민이 되거나 노비가 되면서, 남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음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각지에서 등장한 호족들이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임에 따라 농민들이 중앙정부와 호족들에 대해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하대에 당시를 말세로 여기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고, 말세를 구원해 줄 미륵불의 하생에 대한 농민들의 대망이 농민들의 봉기를 부추겼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889년(진성왕 3) 봉기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것은 상주(尙州(상주))에서 일어난 원종(元宗)과 애노(哀奴)의 난이었다. 이들은 국왕이 파견한 진압군의 지휘관이 진격을 망설일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 농민봉기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진성여왕 9년(895) 무렵 해인사(海印寺)에서는 농민봉기군의 공격으로부터 절을 보호하려다 56명의 승군(僧軍)이 전사하였다. 해인사를 습격하였던 농민봉기군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성여왕 10년(896)에는 붉은 바지(赤袴)를 입고, 스스로를 남과 구별하여 적고적이라고 불렀던 도적들이 왕경의 모량리(牟梁里(경주시 건천읍))를 습격하였다. 왕경까지 농민봉기군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세금을 주로 부담하였던 농민들이

곳곳에서 계속 봉기함으로써 신라의 경제적 토대는 무너졌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등장한 호족들은 농민봉기로 혼란해진 상황 속에서 독립적인 태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들의 지위는 대를 이어 세습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호족들은 중앙정부의 조직을 본뜬 별도의 통치기구를 두었다. 대호족들이 당대堂大等, 대등大等을 맡았다. 그 아래 병부兵部, 창부倉部 등의 관부가 설치되었고, 경卿, 낭중郎中 등의 관직을 두었다. 호족들은 성을 쌓고, 자신들의 일족이나 노비, 근처에 사는 농민들과 유민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하였다. 성의 주인으로서 성주, 사병私兵의 지휘관으로서 장군을 자칭하였다. 또 지역 내의 농민들로부터 거둔 조세와 역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지방관들과는 달리 호족들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이었다. 이러한 호족들이 곳곳에서 대두하고, 또 이들이 대거 고려에 귀부함으로써 신라는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농민들이 봉기하고 호족이 대두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견훤왕(900~935)과 궁예왕(901~918)이 차례로 건국하였다. 신라는 셋으로 나뉘어져 이른바 후삼국시대가 되었다. 견훤왕은 상주 호족의 아들이었다. 900년(효공왕 4) 완산주完山州(전주)에서 의자왕(641~660)의 원수를 갚겠다고 선언하고,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왕자 출신이라고 전하는 궁예왕은 901년(효공왕 5) 고구려의 복수를 내걸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그는 904년(효공왕 8)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고, 911년(효공왕 15)에는 다시 태봉으로 바꾸었다. 고려 태조 왕건(918~943)은 송악松嶽(개성)의 호족 출신으로서 궁예왕 밑에서 장군, 시중 등으로 활약하였다. 미륵불을 자칭하면서 신정적神政的 전제주의를 추구하였던 궁예왕은 정변으로 축출되었고, 태조 왕건이 즉위하였다. 그는 나라 이름을 다시 고려로 바꾸었다.

후삼국시대의 주도권을 먼저 잡았던 것은 궁예왕이었다. 904년(효공왕 8) 공주公州 장군 홍기弘奇가 내항하였고, 905년(효공왕 9)에는 평양平壤의 성주·장군 검용黔用 등이 항복하였다. 906년(효공왕 10) 무렵에는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상주 일대를 차지하였다. 909년(효공왕 13)부터는 나주羅州(나주) 일대의 지배권을 두고 후백제와 여러 차례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궁예왕은 전국의 2/3 정도를 차지하였다.

고려가 선 후 한동안은 후백제가 우세를 점했다. 견훤왕은 927년(경애왕 4) 겨울 동화사桐華寺(대구) 인근에서 태조 왕건이 친히 이끌던 고려군을 크게 물리쳤다. 928년(경순왕 2) 5월 후백제군은 강주康州(진주)를 습격하여 점령하였다. 929년(경순왕 3) 무렵에는 궁예왕 이래 고려가 차지하였던 나주 일대에 대한 지배권도 빼앗았다. 태조 왕건은 930년(경순왕 4) 정월 고창古昌(안동) 전투에서 견훤이 몸소 지휘하였던 후백제군을 크게 이김으로써 열세를 만회하였다. 이후 안동 일대의 호족들과 동해안 일대의 호족들이 대거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934년(경순왕 8)에는 고려군이 운주運州(홍성)에서 후백제군에게 대승을 거두자, 웅주熊州(공주) 이북의 30여 성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이로써 전세는 완전히 고려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935년(경순왕 9) 3월 견훤왕의 큰 아들 신검神劍이 두 동생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왕위계승자였던 또 다른 동생 금강金剛을 살해하고, 견훤왕을 금산사金山寺(김제)에 가두었다. 이로써 후백제는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후백제에서 정변이 일어나자 태조 왕건은 유금필庾黔弼을 파견하여 나주 일대의 지배권을 되찾도록 하였고, 이어 935년 6월 견훤왕은 나주를 통해 고려에 항복하였다. 936년(태조 19) 2월에는 순천의 호족으로서 견훤왕의 사위였던 박영규朴英規도 고려에 귀부하였다. 결국 936년(태조 19) 9월 고려군은 일리천-利川(전산)에 후백제군을 크게 이겼고, 신검왕 등이 태조 왕건에게 항복함으로써 후백제는 망하였다.

### 비판적 유학자들의 등장과 선종의 유행

현강왕 때 산신(北岳神)이 나타나 춤을 추며, 지혜로 다스리는 자들이 많이 도망했으므로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뜻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를 보면 당시 신라의 앞날을 비판한 지식인들이 많았고, 그들 중 낙향하였던 자들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888년(진성여왕 2)에는 진성여왕의 실정을 비난하는 글이 왕경의 큰 길에 걸렸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낙망한 문인文人의 소행이라고 의심하여, 대야주大耶州(합천)에 은거하였던 문사 왕거인王巨仁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는 무고함을 하늘에 호소하였고 결국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거니와, 당시의 정치를 비판하는 '재야' 지식인들이 왕경과 지방에 두루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관직에 있으면서 현안을 해결해 보려던 지식인들도 있었다. 894년(진성왕 8) 최치원은 10여 조의 시무책을 진성여왕에게 올렸다. 그 내용은 전하지 않지만, 그는 당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하였으므로 시무책에는 과거제도에 의한 인재의 등용과 같은 주장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귀국하여서는 여러 곳의 지방관을 지낸 바도 있었다. 이로 볼 때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진성왕은 최치원의 시무책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아찬의 관등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개혁안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던 듯하다. 실력에 따라 인재를 뽑자는 주장은 진골귀족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었다. 농민들의 봉기와 호족의 대두도 이미 견잡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해인사에 은거하였다. 신라 말 최치원과 더불어 “나말삼최羅末三崔”라고 하여 이름을 떨쳤던 최승우崔承祐는 후백제에서 벼슬을 하였고, 최언위崔彦攜는 결국 고려에 귀부하였다.

신라 말에는 지방 출신 지식인들이 나타났다. 황주黃州 토산土山(토산군) 출신의 최응崔凝은 경전에 통달하고 문장에 능통하여 궁예왕 밑에서 한림랑翰林郎을 지냈고, 고려에서는 원봉성元奉省의 장관을 지내는 등 문관을 맡았다. 박유朴儒는 광해주光海州(춘천) 출신으로 경전과 역사서에 두루 밝았다. 태봉 때 동궁기실東宮記室을 지냈고, 궁예왕의 폭정을 피해 숨어 살다가 돌아왔는데, 태조 왕건은 그를 얻은 것을 주周 문왕文王이 강태공姜太公을 얻은 것에 비유할 정도였다. 영암靈巖(영암) 출신으로 경사經史에 널리 통달하고 천문天文과 복서卜筮에 정통하였던 최지몽崔知夢도 고려에서 벼슬하였다. 고려 초 청주淸州에는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거니와, 이미 신라 말 5소경이나 9주의 치소治所와 같은 지방의 중요 도시에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낙향한 지식인들도 지방의 유학자를 양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지방의 유학자들은 각지의 호족들이나 새로운 국가를 위해 봉사하였다.

한편 불교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도의선사道義禪師가 821년(헌덕왕 13)에 본격적으로 남종선南宗禪을 전해 온 이후 홍척洪陟과 혜소慧昭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845년(문성왕 7) 부터 시작된 소위 회창폐불會昌廢佛 사건을 전후하여 여러 선사들이 당으로부터 돌아왔다. 왕실에서는 선사들을 왕실로 초빙하고, 국사國師로 삼는 등 적극적

으로 지원하였다. 선사들도 선종의 흥포를 위해 이에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9산 선문禪門을 비롯하여 여러 선문이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선종이 크게 유행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교종 특히 화엄종에서는 의상義湘 이래의 교학 체계를 재정비하고, 왕실과 진골귀족 등의 후원 계층을 재조직하였다. 의상을 비롯한 조사禪師들에 대한 추모 모임을 만들고, 그들의 전기를 편찬하거나, 화엄경을 강론하고, 그것을 베껴 쓰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진성왕대부터 신라 왕실보다는 지방의 호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선승들이 나타났다. 봉림산문鳳林山門의 심희審希는 김해의 호족인 김율희金律熙와 김인광金仁匡의 후원을 받았다. 경명왕이 그를 왕경으로 초대하여 스승으로 모시기도 하였지만, 결국 봉림사로 돌아왔다. 사굴산문闍崛山門의 개청開淸은 명주溟州(강릉)의 호족 김순식金順式 등의 후원을 받았다. 경애왕(924~927)이 사신을 보내어 국사의 예禮를 표하였지만,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선종의 개인주의적 경향은 각지에서 중앙정부에 독립적인 태세를 갖춘 호족들과 어울리는 측면이 있었다. 지방에 근거를 둔 선문의 입장에서 이젠 지방의 실력자로 대두한 호족들의 후원을 받아야 했다. 나아가 동리산문桐裏山門의 경보慶甫는 후백제 견훤왕과 깊이 연고를 맺고 있었다. 수미산문須彌山門의 이엄利嚴을 비롯하여 성주산문聖住山門의 여엄麗嚴, 사자산문獅子山門의 경유慶猷, 가지산문의 형미迺微 등 태조 왕건을 지지하였던 선사들도 많았다.

선종과 함께 호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은 풍수지리설이었다. 원성왕(785~798)대에 이미 풍수지리설의 경전이 수입되어 유통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이고 널리 퍼뜨린 인물은 도선道詵이었다. 그는 불교의 선근공덕사상善根功德思想과 음양오행설 등을 합쳐 나름대로의 이론을 개발하였고, 실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세地勢의 길흉을 점쳤다고 전한다. 각지의 호족들은 풍수지리설에 기대어 자신들의 근거지를 명당明堂으로 선전하면서 호족으로서의 존재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견훤왕, 궁예왕 그리고 태조 왕건과 같은 건국자들도 이를 이용하여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 신라에서 고려로

경명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경애왕은 친고려 정책을 계속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견훤왕은 927년(경애왕 4) 11월 금성을 습격하여 점령하였다. 견훤왕은 군사를 풀어 크게 약탈하고, 경애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뒤 김부<sup>金傅</sup>를 경순왕(927~935)으로 삼았다. 그리고 왕의 아우 효렴<sup>孝廉</sup>과 재상 등 고위 귀족들을 포로로 하고, 각종 보물과 기술자 등을 약탈하여 돌아갔다. 후백제군이 어렵지 않게 왕경을 점령할 수 있었던 점과 관련하여서 박씨 왕실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김씨 세력이 견훤왕과 내통하였으리라는 추측도 있고, 또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여하튼 신라는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태조 왕건은 930년(경순왕 4) 정월 고창<sup>古昌</sup>(안동)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크게 무찌른 뒤, 2월 사신을 보내 경순왕에게 승리를 알렸다. 경순왕은 사신을 보내 답례하고, 만나기를 청하였다. 이 무렵 태조는 일어진<sup>昵於鎭</sup>(포항시 신광면)에 행차하여 성을 쌓고, 신광진<sup>神光鎭</sup>으로 삼았는데, 이는 왕경을 감시하는 군사기지였다. 931년(경순왕 5) 태조는 왕경을 방문하여 수십 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때 경순왕은 태조와 신라의 앞날에 대한 중대한 회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935년(경순왕 9) 10월 경순왕은 국서를 보내 고려 태조에게 귀부를 청하였고, 11월에 왕은 백관을 이끌고 왕경을 떠나 개경으로 향했다. 태조는 장녀 낙랑공주<sup>樂浪公主</sup>를 그에게 시집보내고, 정승공<sup>正丞公</sup>에 봉하여 그 지위를 태자보다 높게 하는 등 경순왕을 크게 우대하였다. 지방의 호족 출신이었던 태조 왕건은 신라 왕실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하면서 적지 않은 왕족과 귀족들이 개경에 왔다. 그 가운데에는 고려 전기에 높은 벼슬을 한 자들이 여럿 있었다. 원성왕<sup>元聖王</sup>의 후예라고 하는 김인윤<sup>金仁允</sup>의 후손들 중에는 고려 전기에 문하시중<sup>門下侍中</sup>(중 1품)을 지낸 인물만 하여도 김원충<sup>金元冲</sup>, 김원정<sup>金元鼎</sup>, 김경용<sup>金景庸</sup> 등 3인이나 되었다. 경순왕의 당제<sup>堂弟</sup> 김유림<sup>金裕廉</sup>의 자손으로 예종(1105~1122) 때에 상서좌복야<sup>尙書左僕射</sup>(중 2품)에 오른 김한충<sup>金漢忠</sup>도 있다. 최언위는 고려에 귀부해서도 문한의 책임을 맡았는데, 그의 손자 최항<sup>崔沆</sup>은 현종(1009~1031) 때에 평장사<sup>平章事</sup>(정 2품)를 지냈다. 성종

(981~997)에게 28조의 시무책을 올린 최승로<sup>崔承老</sup>도 경주 최씨였는데, 현달한 후손으로는 최숙<sup>崔肅</sup>과 최제안<sup>崔齊顔</sup>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주에 남았던 자들도 있었다. 김부식<sup>金富軾</sup>의 증조부인 김위영<sup>金魏英</sup>은 금성을 경주<sup>慶州</sup>로 개편할 때 주장<sup>州長</sup>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과거를 통해 출세하였는데, 김부일<sup>金富倚</sup>, 김부식, 김부의<sup>金富儀</sup>의 3형제가 유명하였다.

신라는 멸망하였지만 경주 김씨, 최씨 등 신라계 가문들 중 일부는 고려 전기의 손꼽히는 문벌귀족 가문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는 왕경인이 아니라 지방인이었다. 신라 말 지방에서 대두한 호족세력은 지방인을 차별하고, 왕경인의 특권을 보장하였던 골품제를 무너뜨렸다. 호족들 가운데 일부는 새 왕조 고려의 새로운 지배세력이 되었다. 또 다른 일부는 향리가 되었지만, 그들도 과거나 군공<sup>軍功</sup> 등을 통해 문벌귀족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제 지방인이 지배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결과 지배세력이 확대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이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권별책임자: 조인성)

## 제 1 편

# 지배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움직임

제1장  
지배체제 붕괴의  
시작

---

제2장  
박씨 왕실의  
등장

---

제3장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

제4장  
유학자들의 활동과  
향배

---

제5장  
사상계의  
새로운 동향

# 제1장

## 지배체제 붕괴의 시작

- 1. 진성여왕대의 혼란
- 2. 효공왕대 정치 운영의 한계

### 1. 진성여왕대의 혼란

#### 진성여왕의 즉위와 경문왕가

##### 진성여왕의 즉위

신라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일까? 이미 해공왕대 김지정의 난으로 비롯된 진골 왕족의 분열과 왕위계승전에서부터 쇠퇴의 조짐이 나타나며, 박 씨 왕가의 마지막 왕인 경애왕이 견훤에 의해 살해된 포석정의 비극을 신라 멸망의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사건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는 889년(진성왕 3)의 농민봉기에 대해 주목한다. 하대 이후 누적된 지방사회의 불만이 이때에 이르러 전국적인 농민반란으로 터져나왔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마침내 후삼국의 분열과 신라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성왕(887~897)이 즉위하기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왕경은 번영하는 대도시의 화려함과 사치스런 생활에 젖은 왕경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삼국사기』 헌강왕 6년(880)조에 묘사된 왕경의 모습은,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기후가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여 솥으로 밥을 지으며 거리에는 밤낮으로 노래와 풍악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왕경은 178,936호에 달하는 대도시였다.

이처럼 번성하던 왕경은 불과 9년 후인 진성왕 3년(889)에 이르면 양상이 돌변한다. “나라 안의 여러 주와 군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오지 않아, 창고가 텅 비어 나라의 살림이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곳곳에서 발떼처럼 일어났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농민의 봉기로 지방에서 유입되던 물자가 끊어지자 거대한 소비도시였던 왕경은 갑작스런 빈곤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왕경의 하층민인 지은<sup>知恩</sup>은 품팔이와 구걸로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이제는 그나마도 여의치 못하여 몸을 팔아 노비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강왕대의 사치와 번영에 비해 진성왕대 왕경의 몰락상은 너무나 급격한 것이어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과연 이 9년 사이에 왕경에서는 도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던 정치적 현상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눈에 띄는 사건은 여왕의 등장이다. 헌강왕이 재위한 지 11년 만에 죽고 동생인 정강왕(886~887)이 왕위를 이었으나 그는 오래 살지 못해 왕위에 머문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이었다. 정강왕은 병이 깊어지자 유조를 남기어 여동생인 민궐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바로 제 51대 진성왕眞聖王이다.

이때 정강왕이 내린 유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이 만은 타고난 자질이 명민하고 골법骨法이 장부와 같으니 경들은 선덕·진덕의 고사에 따라 그를 세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장부와 같다는 골법과 선덕·진덕의 옛일에 따르라는 것이다. 선덕·진덕에 관한 언급은 이보다 앞서 861년(현안왕 5) 현안왕이 남긴 유조에서 “우리나라의 옛일에는 비록 선덕·진덕의 두 여왕의 예가 있지만 이는 새벽에 암탉이 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 법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사위인 응림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종래의 여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문왕가에 이르면 오히려 반대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여왕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 것은 놀랍다.

진성왕은 887년(진성왕 원년) 7월에 즉위하여 10년간 재위하였으며 897년(진성왕 11) 6월 헌강왕의 서자인 조카 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북궁으로 물러나 머물다가 그해 12월에 죽었다. 여왕이 태어난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경문왕이 문의 왕후와 혼인한 것이 860년(현안왕 4)이며 위로 헌강왕과 정강왕 두 오라버니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자녀간 터울을 두 살로 보고 유추한다면 대략 865년(경문왕 5) 이후에서 왕비가 사망한 870년(경문왕 10) 5월 사이에 태어났을 것이다. 유모인 부호부인의 존재로 짐작컨대 만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를 잃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왕이 887년(진성왕 원년)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많아야 스무살 남짓하거나 어찌면 그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다.

### 여왕의 즉위 배경

여왕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는 모두 세 명의 여왕만이 있었으며 그것도 신라에서만 가능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여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하였던 것일까?. 먼저 주목되는 이유로는 정강왕 사후에 왕위를 계승할 만한 왕실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문왕에게는 동생인 위홍과 여동생 단의장공주 형제가 있었으며, 헌강왕, 정강왕, 진성왕의 3자녀를 두었다. 장자인 헌강왕에게는 왕비 소생의 두 딸과, 야합으로 얻은 서자 요(효공왕)가 있었다. 그러나 헌강왕의 두 딸은 모두 어린 나이였으므로 왕위에 오를 만한 연배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 돌이 채 안된 서자 요는 민간에서 머물며 왕실의 일원으로 수용되지도 못하였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왕위계승이 가능한 경문왕의 후손은 진성왕 뿐이었다. 당시에 신라의 진골 남자가 모두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니다. 왕실의 남자 혈통이 없었다는 말은 경문왕 직계의 남자 후손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은 경문왕의 동생인 위홍의 존재이다. 그는 왕위계승자의 후보가 되지 못하였는데, 만약 그가 혈통상 왕위계승자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경문왕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아들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경문왕 이후 왕위계승의 자격 조건은 경문왕의 자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성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점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헌강왕, 정강왕, 진성왕은 모두 경문왕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3형제가 나란히 왕위를 이어간 것이다. 신라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형제에 이어 여동생까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정상적 왕위계승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배경에서 가능하였던 것일까.

신라 하대 이후의 치열한 왕위계승전은 경문왕의 등장 이후 사라지고 이후의 왕위는 모두 경문왕과 그 후손으로 이어졌다. 경문왕가의 왕실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경문왕이 실시하였던 여러 가지 왕권 강화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왕실 혈통의 신성함을 내세움으로써 경문왕가 왕실이 왕위를 독점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는 마치 중고기 성골 왕실의 경우와 유사해 흥미롭다.

진성왕에 앞선 두 여왕, 신라통일기의 선덕여왕과 진덕왕은 성골 남자들이 없는 탓에 성골 여성의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다. 성골이란 신성한 왕가의 혈통을 말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과 할아버지인 진흥왕은 신성한 성골이며 이 신성한 혈통이 선덕여왕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진흥왕이 전륜성왕, 진평왕이 석가모니의 아버지인 백정왕으로 여겨졌던 왕즉불 사상과도 관련

이 있을 것이다. 진평왕은 아들을 얻지 못하였지만, 선덕여왕은 딸이라 하여도 석가 모니불에 비견될 수 있는 신성함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성골이라는 왕실혈통은 여성이라고 하여도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진성왕의 왕위계승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즉 화랑 출신인 경문왕의 즉위 후 왕실지배층의 정신기반으로 고유신앙적 요소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문왕가 왕실이 성골과 비견되는 신성한 혈통임을 내세움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진성왕의 즉위와 함께 『삼대목』이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삼대목』은 향가모음집으로 889년(진성왕 3)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에 의해 왕명으로 편찬되었다. 향가는 화랑도나 승려들에 의해 주로 지어졌고 그 내용에는 종교적, 주술적인 것이 많았다. 여왕의 즉위와 함께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남겨둔 채 향가 수집과 편찬에 힘을 쏟고 있는 데에서 이 편찬사업이 단순한 문화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여왕의 후원자로서 정국운영의 주역이었던 위홍이 그 책임을 맡았으며, 대구화상은 요원랑 등 4인의 화랑에게 경문왕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곡을 짓게 했던 행적으로 보아 화랑과 관계가 있는 인물로서 경문왕가의 왕권 강화에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대목』의 편찬은 진성왕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당시의 왕실은 종교적, 신비적 권위를 강조하는 정신적 토양 위에서 여왕 즉위의 정당성을 경문왕가의 신성한 혈통의 유지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성왕의 왕위계승에는 '골법'이 중요한 요건으로 운위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정강왕의 유조에서 여왕의 즉위 조건으로 거론되었던 골법은 나중에 효공왕의 즉위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진성왕은 민가에서 자란 요巖를 불러들여 그의 등을 어루만져 보고는 “나의 형제자매는 골법이 다른 사람과 다른데 이 아이도 등위에 두 뼈가 솟았으니 참으로 헌강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며 태자로 삼고 곧이어 양위하였다. 경문왕가의 인물들은 보통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신체적 특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골법이란 왕실혈통의 종교적 신성성과 결부된다. 특이한 신체적 특징은 북방계 수렵민의 뼈에 대한 숭배와 재생의 관념과 연결되는 것으로, 시베리아의 샤먼에게 보통사람보다 더 많은 뼈는 신성한 권력의 표상이었고,

동아시아의 샤먼들도 흔히 보통사람과는 다른 특이한 육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신라의 경우 지증왕이나 진평왕과 같이 유독 왕들의 신체적 특징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제왕(司祭王)으로서의 역할과 결부될 수 있다. 경문왕가의 특이한 신체적 특징인 골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조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진성왕의 시호에서 '진眞'은 불교적 권위에 힘입어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중고기 왕실에서 특징적으로 사용하였던 불교식 시호와 상통하고 있다. 시호에 '진'이 사용된 왕은 중고기의 진흥, 진지, 진평, 진덕왕 이외에는 진성왕이 유일한 예이다. '성聖' 또한 뜻 그대로 신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선덕여왕과 유사한 종교적 역할을 여왕에게 기대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혈통과 신성성의 강조는 여왕의 즉위 자체가 갖는 취약성을 보완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며, 경문왕가 왕실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이와 함께 정치의 실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위홍의 도움과 노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조건은 허망한 것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여왕과 위홍

즉위할 당시에 진성왕이 결혼을 한 상태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당시 여성의 혼인 적령을 15세쯤으로 본다면 여왕은 이미 혼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뜻 단정 짓기에는 의문이 있다. 『삼국유사』의 왕력에서는 진성왕의 필필을 위홍이라고 하였다. 위홍은 경문왕의 아우이다. 이에 따르면 진성왕은 숙부와 혼인을 한 셈이 된다. 한편 앞서 선덕여왕의 경우 여왕의 남편은 음갈문왕이었는데, 그는 진평왕의 아우인 백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선덕여왕 또한 자신의 숙부와 혼인한 것이 된다. 숙부라고 하더라도 성골혈통의 유일한 남자라면, 여왕과 혼인을 하였던 것이다. 진덕왕의 경우는 남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진성왕의 경우 위홍이 여왕의 숙부라는 점은 선덕여왕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런데 위홍에게는 이미 부호부인이라는 정식 아내가 있었다. 부호부인은 여왕의 숙모인 동시에 여왕의 유모이기도 하였다. 부호부인은 여왕이 어릴 적에 키워준 존재로서 그 남편 위홍이 죽은 후로 여왕은 그녀에게 의지하려 들었다.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면 여왕이 위홍과 공식적으로 혼인을 해 정식 부부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통이나 정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위홍과 여왕의 관계를 조금 더 유추해보자. 일찍 어머니를 여윈 만은 어려서부터 유모인 부호부인과 함께 살았을 것이며, 따라서 숙부이며 부호부인의 남편인 위홍 또한 한 집에서 어린 만을 함께 돌보며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한편 위홍은 유일한 경문왕가 왕실의 남자이다. 왕가의 혈통을 유지하려면 여왕은 그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는 당시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왕이 숙부와 통정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었다. 위홍을 여왕의 남편이라고 한 것은 일면 이러한 까닭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즉 경문왕의 친동생인 위홍은 당시 최고 정치적 실력자로서 현강왕, 정강왕, 진성왕의 숙부이며, 어렸을 때부터 여왕을 돌본 보호자이자 여왕의 남편으로 불리는 남자이기도 하였다. 위홍이 만을 왕위에 올리는 데 진력하였던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홍은 여왕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인 888년(진성왕 2) 2월에 죽었다. 그후 여왕은 선덕여왕과 마찬가지로 재위 중에는 공식적인 남편을 갖지 않았다.

진성왕은 몸에 병이 많았다. 888년(진성여왕 2) 3월에 여왕은 몸에 병이 깊어 죄인들을 석방하고 60명 승려의 출가를 허락하고서야 나왔다. 그후 897년(진성왕 11) 6월에는 효공왕 요에게 선위를 하고 왕위에서 물러났는데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병을 들고 있다. 경문왕가의 왕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30세 전후에 이르면 모두 병이 들어 사망하였는데 여왕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왕은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거타지 설화에서 '왕의 막내아들인 김양패'라는 기록 때문에 왕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중국에 보내는 사신들이 흔히 왕자를 칭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이다.

진성왕에 대한 종래의 비난은 대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남성우월주의의 편향된 시각에 기인한 바가 많다. 국가 멸망의 원인으로 지배층의 무능과 실책을 드는 것은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여자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거기에 음란과 방탕이라는 울가미까지 씌워 비난하는 것은 가혹하다. 실제로 여왕의 치세에 신라는 분열하였고 여왕과 왕실은 지방사회의 반란에 성공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진성왕에 대한 변명은 훌륭한 군주인데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는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나 오명을 덮어쓴다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좀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신라의 쇠퇴 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 경문왕가와 화랑세력

### 경문왕가 왕들의 특징

신라 몰락의 출발은 889년(진성왕 3)의 지방반란에서 시작된다. 이 시기를 이끌어간 왕실은 경문왕가였다. 경문왕가란 48대 경문왕 응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자녀인 현강왕 정♣, 정강왕 황♣, 진성왕 만, 그리고 경문왕의 손자이며 현강왕의 아들인 효공왕 요까지 5명의 왕을 배출한 신라 하대의 왕실 일가를 지칭한다. 이들은 약 50년 동안 신라를 이끌어 갔다. 그 뒤를 이은 신덕왕은 현강왕의 사위이므로 경문왕가와 관련이 없지 않지만, 스스로 박씨를 칭하며 전대 왕실과의 차별을 내세웠으므로 신덕왕, 그 아들인 경명왕, 경애왕 형제의 3대는 따로 구별하여 박씨 왕가로 부른다. 박씨 왕가는 15년간 왕실을 차지하였으나 경애왕이 견훤에게 피살됨으로써 막을 내리고 다시 김씨인 경순왕 부♣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현강왕의 딸과 혼인한 화랑 출신 효종의 아들이다. 즉 현강왕의 외손인 것이다. 이처럼 경문왕 이후 멸망에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신라를 이끌어간 왕실은 경문왕가의 왕들과 그 인척들이었다.

경문왕가 왕실의 국왕들에게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인다. 그들은 종교적 신이함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고, 골법이라는 특이한 신체적 외형을 가지고 있었다. 대개 30세가 되기 이전의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일찍 사망하였다.

먼저 화랑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경문왕의 경우 그가 신성한 존재였음을 암시하는 설화들이 전한다. 경문왕의 침전에는 저녁마다 무수한 뱀이 모여들었는데 궁인이 쫓아내려고 하니 왕은 "내가 뱀이 없으면 편안히 지지 못하니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뱀들은 혀를 내밀어 왕의 가슴을 덮었다고 하였는데 혀가 사람의 가슴을 덮을 정도라면 그냥 뱀이 아니다. 용과 비견되는 신령한 존재라 할 것이다. 한편 "왕이 왕위에 오르자 귀가 갑자기 길어져서 나귀의 귀와 같았다."라고 하여 왕의 신체적 특질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경문왕의 이 특이한 골법은 왕실의 신성함과 사면적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설화들은 경문왕가의 종교적 권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경문왕의 아들인 헌강왕은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던 남산신의 춤을 홀로 보고 재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왕이 있는 곳에는 북악신, 용왕, 지신 등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 헌강왕은 호국신들의 보좌를 받는 왕이었으며 처용처럼 역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왕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이는 경문왕이 뱀의 수호를 받았던 것과 비교된다. 화랑 출신의 경문왕은 스스로 신비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에 비하여 헌강왕에 대한 기록은 왕과 호국신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헌강왕 또한 신성한 존재였다.

이 신성한 왕가혈통 의식은 '골법'의 강조를 통해 진성여왕과 효공왕의 즉위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문왕가 왕실은 이 신성한 존재인 국왕과 왕실혈통의 강조를 통해 왕위를 독점하고 하대의 왕위 쟁탈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문왕가의 특이한 골법은 그들이 일찍 병에 걸려 30세가 채 되기도 전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처럼 컸다든가, 여왕의 골법이 장부와 같았다든가, 효공왕의 외모가 괴걸하고 등에 두 뺨이 솟아 있었다든가 하는 것이 일면 신비하게 보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 화랑세력과의 관계

한편 경문왕가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화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경문왕은 화랑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다. 진골만이 화랑이 되었으므로 국왕이 화랑 출신이었다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화랑 출신의 왕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지만 어쨌든 경문왕 외에는 사례가 없다. 하대의 화랑과 경문왕가는 정치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경문왕은 화랑이었고 헌강왕 정강왕 진성왕은 화랑의 자녀였다. 헌강왕의 사위인 효종도 화랑이었으며 그 아들인 경순왕도 화랑의 자식이었다. 경문왕가는 곧 화랑가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하대에 이르면 독립적인 군사력을 운용하기에 이른 화랑집단은 점차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찍이 헌덕왕대의 화랑인 명기와 안락은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자 자신의 낭도 무리를 이끌고 진압군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군사적 활동을 보이고 있다. 왕위쟁탈을 둘러싼 귀족간의 분쟁에 화랑들이 스스로 출전할 것을 자원하였던 것은 군사력을 보유한 화랑집단이 권력쟁탈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단서로 이해된다.

화랑과 낭도의 연결은 매우 강건하였고 화랑으로서의 활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화랑 집단은 경문왕가기에 이르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응림은 화랑의 활동 중 하나인 유요를 통해 헌안왕의 인정을 받고 사위가 되었다가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림은 낭도 중의 우두머리인 범고사의 충고에 따라 왕의 장녀와 혼인을 결정하였다. 헌안왕대의 화랑집단이 응림의 지지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문왕대에 들어서면 국선인 요원랑 예 혼랑 계원 숙종랑 등 화랑도의 지도자 4인이 금란에 모여 경문왕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들은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려는 뜻을 가지고 노래 세 수를 짓고 대구화상에게 곡을 만들게 하였는데 경문왕은 크게 기뻐하여 상을 내렸다고 한다. 경문왕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의 화랑세력은 응림의 왕위계승에 도움을 주었고, 국왕을 보필하여 정치에 참여하려는 뜻을 가지고 경문왕을 지지하는 집회를 갖는 등 정치세력으로써의 활동양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헌강왕 이후 진성왕 초까지 정치를 장악하고 정국을 이끌었던 위흥세력과, 여왕의 측근에서 권력을 남용하여 논란이 되었던 소년미장부들도 화랑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경문왕가 왕실을 지지하며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집단은 화랑세력이었다.

이 시기 화랑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진성왕대의 효종이다. 효종과 화랑세력이 정치적으로 크게 부상하는 계기는 효녀지은의 사건이었다. 지은의 구출에는 효종만이 아니라 그의 수천 낭도들이 빠짐없이 함께 참가하였는데, 효종의 낭도들이 보여준 단합과 단결된 힘은 이 시기 화랑세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화랑 효종은 이 일로 헌강왕의 딸과 혼인하게 되고 그 아들은 경순왕이다.

경문왕가 왕실과 화랑의 밀접한 관계는 이 시기 지배층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화랑 출신인 경문왕 응림이 즉위한 이후 화랑세력은 정치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집단의 하나가 되었다. 경문왕과 그 자녀들이 하대 왕실을 장악하면서 화랑과 그 무리는 왕실의 세력기반이 되어 국왕의 측근에서 정치에 간여하기에 이르렀다. 경문왕가는 종교적인 신성함을 국왕 권위의 중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신성한 혈통의 강조는 진성왕의 등장을 가져왔다. 그러면 진성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나타난 정치 사회의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정치 사회의 혼란

### 왕경 귀족의 사치와 부패

하대에 이르면 신라가 쇠퇴하였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사회 통제는 오히려 지나칠 만큼이나 치밀하고 상세하다. 통일신라 전성기에 작성된 「신라촌락문서」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문서는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서원경(청주) 주변의 자연촌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이다. 여기서는 남녀의 성별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고 호구의 증감을 상세히 조사해 3년마다 늘고 준 것을 기록하였다.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말 같은 가축, 심지어는 잣나무 호두나무 같은 경제성이 있는 나무의 수량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었다. 이 자료들은 국가가 지방에 조세와 부역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지방민의 실정을 손바닥처럼 살살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정부가 만약 높은 세금을 강요하거나 과도하게 수탈하려 든다면 지방민은 꿈쩍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왕경인의 삶 또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었다. 834년(흥덕왕 9) 사치를 금지하기 위해 내린 조서에 나타나는 골품에 따른 금령의 내용을 보면 색복, 거기, 기용, 옥사 등 일상생활에 관한 사소한 부분까지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골품에 따른 집 크기를 구체적으로 치수까지 차등하여 정해주고 심지어는 국가가 여성 속옷의 재료로 사용되는 옷감의 종류까지 간여하며 자리갈개 가장자리에 테를 두르는 것을 허용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의 문제까지 규제한다.

이 금령은 왕경인들의 지나친 사치를 방지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왕경의 귀족들은 수탈에 노출되어 있었던 지방민과는 대조적으로 사치와 번영을 구가하며 소비에 젖어 있었다. 금령을 내려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귀족의 사치풍조가 만연하였던 흥덕왕대의 왕경과, 그의 사후에 벌어진 귀족들의 처절한 왕위계승전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들, 경문왕대에 찬란하게 꽃피었던 왕성한 불사와 건축, 헌강왕대 왕경의 사치와 번영 등에 소요된 경비는 모두 지방민의 수탈에 의해 충당된 것이다. 거대 도시인 왕경은 자체의 생산 수단을 갖지 않은 소비도시였다. 소비 물자는 귀족들의 사유지에서이건 국가의 조세이건 어쨌든 지방민이 져야 했던 짐이었다. 지방민의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던 국가가 그들을 수탈하려 들 때 지방민들은 피하고 감출 수도 없이 생존의 최소 뭇까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왕경 귀족에 대한 불만은 이미 경문왕이 즉위할 무렵부터 그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현안왕은 유오에서 돌아온 화랑 응림에게 보고 들은 것을 물었을 때 그는 아름다운 행실로 겸손한 자, 검소한 자, 권력을 함부로 부리지 않는 자를 들었다. 현안왕은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얼른 사위로 삼았는데, 이는 그러한 덕목이 귀족들에게 것처럼 절실한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왕위에 오른 경문왕은 왕권의 안정을 추구해 개혁을 모색하였다. 흩어진 왕경인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불사를 일으키고 왕실의 종교적 권위 구축에 힘썼다. 이는 얼마간 효과를 보아 연이은 진골 귀족들 간의 항쟁은 종식되고 있었으나 경문왕가의 왕권 고착화와 함께 종교적 신이 함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경문왕대의 다양한 불사는 여전히 지방민의 수탈에 의존한 것이었고 헌강왕대에는 비록 기후가 순조로워 연이어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왕경의 귀족들은 이미 지나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경문왕에 관한 설화에서 신비로운 영물이어야 할 뱀이 반갑기보다는 꺼리는 존재로 묘사되거나 경문왕의 커다란 귀가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야 할 흉측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이미 당시의 왕경인들이 경문왕가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헌강왕대에 자주 출현하였던 호국신들은 춤과 노래로 국가의 번영을 축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들은 그것을 국가가 망한다는 경고로 해석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가무에 빠져 있는 지배층을 비난하였다. 처용의 설화에서는 당시 왕경에 역병이 창궐하여 역신을 굴복시키는 주술이 행하여

졌음을 알 수 있다. 현강왕대 왕경의 화려함 속에는 역신에 대한 불안감, 질병의 만연과 같은 어두운 면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 지방민의 저항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진성왕은 가장 먼저 지방민의 조세를 1년간 감면하겠다고 하였다. 이 조치는 민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혹한 수탈에다가 잦은 천재지변으로 흉작에 시달리던 지방민들은 그 다음 해에도 조세를 내지 못하였다. 진성왕의 면세조치가 있었던 즉위년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았으며, 다음 해인 2년 5월에는 가뭄이 있었다. 이미 피폐해진 농민들은 거듭된 천재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렸던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신들을 파견하여 조세를 독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세를 거두려는 관리들과 이를 거부하는 농민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새 정부가 구휼을 베풀기는커녕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려 드는 데에 분노하고 반발하였다. 이 부딪침은 거의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에서는 “진성왕 3년에 온 나라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이런 농민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태를 초래한 데에는 여왕 측근 총신들의 실정이 있었다.

889년(진성왕 3) 조세 독촉을 계기로 하여 시작된 농민의 저항은 수습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기근과 흉년으로 말미암아 지방사회의 이반은 더욱 거세져 갔다. 이 해에 사벌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키니 여왕은 나마 영기에게 명령하여 체포하게 하였으나 영기는 반란군의 보루를 보고 두려워 진군하지 못하였다. 이에 영기를 참수하고 힘껏 싸우다가 전사한 춘주 우련의 어린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관군이 오히려 도적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의 기세는 크고 사나웠던 것이다. 지방 반란은 일개 도적무리의 단계를 벗어나 차츰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갔다. 왕경인은 906년(효공왕 10) 모랑리에까지 이른 적고적의 약탈로 왕경까지 위태로움에 노출되었다.

이전에 신라가 겪었던 분쟁은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를 노리거나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으로 지배층 내부의 대결이었음에 비하여 이 시기에 발생한 반란은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도적과 반란세력이 중앙 귀족의 통치체제를 송두리째 뒤엎는 형태의 도전이었다. 이는 신라의 지배층 전체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위

기를 초래한 여왕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고 왕경의 국민들은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의 개편과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진성왕과 측근 총신들은 후퇴하고 예겸세력이 대두하여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 왕거인 사건과 국민의 비판

진성왕대 왕경의 혼란은 당시의 정국을 이끌던 위홍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홍은 여왕이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인 888년(진성왕 2) 2월에 갑작스레 죽었다. 여왕의 통치가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사망은 순식간에 정치를 혼란에 빠트렸다. 위홍에게 의지하던 여왕은 심신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 같다. 다음 달인 3월에 여왕은 사형 이하의 죄인들을 석방하고 60명 승려의 출가를 허락하였는데, 이는 여왕의 병이 깊어지자 치유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왕의 병환은 위홍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위홍의 사후 여왕은 스스로 통치하지 못하고 소수의 측근 총신들에게 권력을 맡겼다. 그러나 이들은 왕경인들로부터 ‘요직을 차지해 방자하고 뇌물과 상벌을 멋대로 하는 등 정치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치의 구심이었던 위홍이 사라지면서 왕경은 급격한 혼란에 빠지고 왕실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표출되었다. 이 무렵 여왕과 측근의 실정을 비난하는 다라니 벽서가 나붙기에 이르렀다. 이때 권신들은 주모자로 왕거인을 지목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이 왕거인의 투옥 사건은 당시의 동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진성여왕이 임금이 된지 몇 년 만에 유모인 부호부인과 그녀의 남편 위홍, 잡간 등 3, 4명의 총신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정사를 어지럽히니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국민들이 이를 근심하여 다라니의 은어를 지어 길 위에 던졌다. 왕과 권신들이 이것을 얻어 보고 “왕거인이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짓겠는가.”하고는 거인을 옥에 가두었다. 거인이 시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니 하늘이 그 옥에 벼락을 쳐 그를 풀어주었다. (『삼국유사』 권2 기이2 진성여대왕거타지)

도당유학생 출신의 6두품으로 생각되는 왕거인은 뜻을 얻지 못하여 대야주에 은거하고 있었다. 왕경을 멀리 떠나 은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잡아와 옥에 가둔 것은 이미 그가 권신들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표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성여왕 초기의 왕경에서 권신들에 의해 6두품 지식인들이 견제와 탄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왕실의 실정과 지배층의 폐해에 대해 비판하거나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왕경을 떠나 지방에 은거하기에 이른 왕거인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에 의해 비난받은 총신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때 국민들이 유포한 다라니의 글귀는 “남무망국南無亡國 찰니나제剌尼那帝 판니판니 소판니判尼判尼蘇判尼 우우삼아간于三阿干 부이사바하鼻伊娑婆訶”이며 이에 대한 해설은 “찰니나제란 여왕을 가리킨 것이요, 판니판니소판니는 두 소판을 말한 것이다. 소판은 관작의 이름이요, 우우삼아간은 3, 4명의 총신을 말한 것이요, 부이는 부호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로 지목된 당시의 권력자는 두 소판, 3~4 총신, 부호부인이다. 여기서의 소판은 진골귀족의 관직이며 총신은 총애하는 신하라는 일반적 의미의 단어이므로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성격을 알기 어렵지만, 같은 사건을 수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에서는 이들을 ‘소년미장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 소년미장부란 화랑과 관련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다라니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로 진성여왕과 위홍, 위홍의 부인이며 여왕의 유모인 부호부인이 거론되고 있다. 왕경인의 비난은 측근의 권신들뿐만 아니라 여왕과 왕실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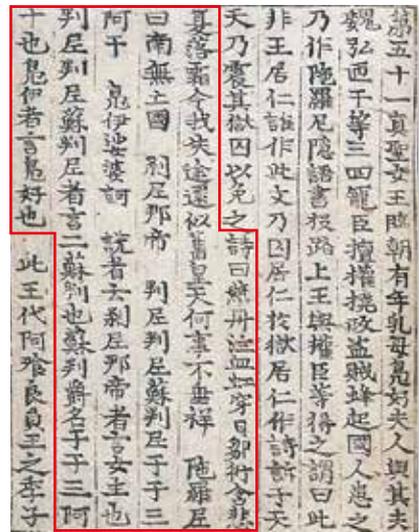


그림 1. 『삼국유사』 진성여왕 거타지조에 보이는 왕거인의 시와 다라니

한편 이들을 비방하는 다라니를 거리에 던진 사람을 ‘국민國人’이라고 하였다. 국민들은 왕위의 결정이나 국가의 중대사에 여론과 중의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이며, 신라 지배층의 중심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이 진성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제 왕실은 왕경인들의 비난과 저항에 부딪히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왕거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신라 왕경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 정치세력의 동향

#### 진성왕대 화랑세력의 동향

진성왕대의 정치 사회를 이끌어간 정치세력은 크게 화랑세력과 예겸세력으로 대표된다. 진성왕 이후의 신라를 이끌어간 정치세력은 이 두 집단이었다. 먼저 이 시기의 화랑세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진성왕대의 대표적인 화랑은 효종이다. 효종은 46대 문성왕의 후손으로 902년(효공왕 6)에는 대야찬으로 시중의 지위에 올랐다. 효종의 아버지는 서발한 인경이다. 인경은 당시에 제 3재상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실력을 갖춘 진골귀족이라고 하겠다. 헌강왕녀와 혼인한 효종은 강력한 왕위계승 후보였으나 효공왕 요의 등장과 신덕왕 경휘와의 경쟁에서 밀려 스스로 왕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헌강왕녀인 계야태후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김부는 경애왕이 견훤에게 살해된 후 그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으니,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다. 또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할 때 고려 태조와 신라 왕실은 서로 혼인하였는데 이때 고려 태조에게 제6비 신성왕후를 납치하였던 지대야군사 김억렴은 효종의 형이다. 그 후 신성왕후가 낳은 안중은 경종비 헌정왕후와 사통하여 대량군을 낳았고, 대량군은 목종을 이어 왕위에 올라 현종이 된다. 효종과 그의 가계가 나팔여초 정치사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왕거인 사건 이후 왕경의 지배층 내부에서는 다양한 변화와 움직임이 나타난다. 위홍의 죽음과 국민들의 비난으로 위축되었던 여왕과 측근들은 왕경인을 달래고 민심을 화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에서의 조세수입이 막히자 왕경인의 처지는 급격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 특히 타격을 입기 쉬운 하층민들은 몸을 팔아 중으

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화랑 효종의 지은 구휼 사건이 생겼다.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던 하층 왕경인과 귀족의 꽃인 화랑과의 사이에서 피어난 미담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은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은은 한기부의 백성인 연권의 딸이다. 나이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품팔이와 구걸로 밥을 얻어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부잣집에 가서 몸을 팔아 종이 되기를 청하여 10여 석을 얻었다. 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날이 저물면 밥을 지어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이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가 통곡하고 딸도 따라 우니 길가는 사람들까지 마음 아파하였다고 하였다.

이 애절한 사정은 포석정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던 화랑 효종에게 알려졌다. 이 포석정의 화랑집회는 국가의식을 고취하는 제의와 관련된 행사로 여겨지는데, 엄숙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몸을 팔기에 이른 가난한 여인의 애처로운 사연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낭도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효종을 비롯한 낭도 무리의 마음을 크게 자극하였다. 효종은 1백 석과 옷가지를 전해주었으며 아울러 그녀의 몸값을 보상해 주고 양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만으로도 지은에게 베푼 은혜는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은에게 쏟아진 은덕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낭도 수천 명이 각각 곡식 1석씩을 모아서 주었다고 하였으니, 그 총액은 수천 석에 이르는 막대한 것이었다.

화랑도의 동향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이 일에 진성왕이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은과 효종의 미담이 국왕에게 전해지니 진성왕은 지은에게 집과 500석을 주고 그 마을을 효양방이라고 하여 당나라에까지 알리는 등 널리 선전하였다. 귀족의 꽃인 화랑과 가난한 효녀와의 사이에 일어난 이 훈훈한 미담은 당시의 흥흥한 민심을 되돌리는 데 크게 유용한 일이었다. 효종과 그의 낭도들은 물론 여왕까지 가담하여 지은에게 베푼 은덕은 놀랄 만큼 풍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지은은 화랑 효종에게 구휼을 받았으나 이러한 처지에 떨어진 왕경인들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효녀 지은 사건은 효종의 정치적 부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은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효종은 미담의 주인공으로 왕경인의 칭송과 사랑을

얻게 되었고 이때 그의 낭도들이 보여준 단합과 강한 결속력은 그의 실력을 드러낸 것이었다. 효종의 부상은 여왕의 인정을 얻고 헌강왕녀와 혼인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다. 진성왕은 지은의 일이 있는 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노성老成함을 볼 수 있다.”고 하며 화랑 효종에게 헌강왕의 딸을 아내로 맞게 하였다. 진성 여왕이 한 이 말은 앞서 현안왕이 화랑 응림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사위인 응림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노성한 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 유조의 내용과 같아서 흥미롭다.

현안왕 당시와 진성왕대 왕실의 상황은 유사한 점이 많다. 현안왕은 두 딸만 있었을 뿐 후사를 이어갈 아들이 없는 처지였으며 진성왕대에도 왕위를 이을 만한 경문왕가 출신의 남자가 없었다. 여왕의 오라버니 정강왕은 후사가 없었고 헌강왕에게는 훗날 효공왕이 되는 요가 있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왕실에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경문왕가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헌강왕의 두 딸뿐이었다. 현안왕이 화랑 응림을 택해 딸과 혼인케 하고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과 진성왕이 화랑 효종에게 헌강왕의 딸과 혼인케 한 것은 서로 닮았다.

따라서 효종과 헌강왕녀와의 혼인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진성왕 이후의 왕위계승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효종은 두 딸 가운데 장녀와 혼인하였을 것이다. 앞서 경문왕 응림이 현안왕의 사위가 될 때에 현안왕의 두 딸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는 문제를 두고 승려인 범교사는 장녀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차녀와 결혼하면 면전에서 죽을 것이라고 협박조의 충언을 하였는데, 그것은 장녀와의 혼인이 왕위계승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성왕이 효종과 헌강왕녀를 혼인케 하였다는 것은 다음 왕위의 후계자로 효종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즉 효종은 지은 사건을 통해 왕위계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왕거인사건으로 위축되었던 화랑세력은 효종의 부상으로써 세력이 유지될 수 있었고 이후 예겸세력과 왕위계승을 둘러싼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

#### 예겸세력과 개혁의 움직임

경문왕가 왕실과 지배층에 대한 불만은 지방에서는 도적의 봉기와 이탈로, 왕경에서

는 왕실과 충신들을 비난하는 왕거인 사건으로 나타났다. 효녀 지은 사건은 왕경인의 몰락상을, 왕거인 사건은 국민들이 왕실에 저항하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화랑 효종의 활동으로 일시적이거나 왕경의 민심을 추스릴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지방에서의 반란은 수습되지 못하고 지방사회의 이반은 더욱 거세져 갔다. 왕경의 내부에서도 불만과 저항은 폭넓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배층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겸의 부상은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하였다.

예겸<sup>義謙</sup>은 일찍이 현강왕 즉위시 시중이 되어 상대등에 임명된 위홍과 함께 현강왕 전반기의 국정에 참여한 바 있었다. 그후 880년(현강왕 6) 2월에 이르러 예겸은 시중에서 물러나고 민공으로 교체되었는데 그의 퇴진은 위홍세력과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그는 위홍의 사망으로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던 진성여왕대에 이르러 정치 사회에 복귀하여 국가의 위기를 대처하면서 정치적 장악력을 높여갔다.

진성왕 후반에 이르러 경휘와 현강왕녀의 혼인이 있었다. 예겸의 의자<sup>義子</sup>였다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자기 기반을 찾을 수 없는 경휘가 현강왕의 딸과 혼인이 가능하였던 것은 예겸의 영향력 때문이라 하겠다. 경휘는 이 혼인으로 왕위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효공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 혼인은 현강왕의 차녀와 성립된 것으로 효종이 장녀와 혼인한지 몇 년 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략 892년(진성왕 6)~893년(진성왕 7) 경의 일로 추정된다. 이때에는 이미 예겸은 자신의 아들과 왕실간의 혼인을 성사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95년(진성왕 9)에 이르러 민간에 머물고 있었던 요를 궁중으로 데려와 태자로 책봉하고 나아가 여왕의 선양으로 즉위케 한 것 또한 이미 정국을 장악한 예겸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성왕은 재위 10년만인 897년 6월 현강왕의 서자인 조카 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정치에서 물러났다. 여왕은 충신들의 실정과 지방사회의 이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다. 최치원이 지은 사사위표의 내용 중에 “지금은 군읍이 모두 도적의 소굴이 되었고 산천이 모두 전장이니, 어찌 하늘의 재앙이 우리에게만 홀러드는 것이냐. 모두 내가 몽매한 탓으로 이 도적들을 부른 것이니 죄는 주륙을 받을 만하고 이치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여 여왕이 퇴위를 결심한 이유를 엿볼 수 있

다. 지방 반란에 대한 지배층의 위기의식은 매우 컸다.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정치세력 집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양위표에 의하면 “근자에 이미 [요에게] 변방의 직무를 맡겨, 국가의 재난을 안정시키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895년(진성왕 9) 요의 태자 책봉 이후부터 여왕은 이미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고 요가 여왕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요는 9~10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그가 위기에 처한 국가의 정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95년(진성왕 9) 무렵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문제는 어린 요에게 맡겨졌다기보다는 그와 결합된 정치세력에게 주어졌던 것이라 하겠다. 이 정치세력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예겸이다. 효공왕 요는 그의 사위이며 신덕왕 경휘는 그의 의자<sup>義子</sup>이다. 진성왕의 뒤를 이은 왕들은 예겸의 지지와 정치적 구도에 의해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예겸은 효공왕이 즉위한 뒤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신라 말의 정치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갔다. 10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효공왕에게 직접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효공왕과 예겸의 관계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은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진성여왕 후반기에서 효공왕대를 거치는 동안 광범위하게 나타난 신라 사회의 변화는 당시 정치 사회를 주도하였던 예겸세력에 의한 것이었다. 효공왕이 즉자 이어 즉위한 것은 예겸의 의자인 신덕왕 경휘였다. 박씨인 경휘를 후원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또한 예겸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겸은 효공왕 말년 무렵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신덕왕에 의해 선성대왕으로 추존되었다.

### 개혁의 지지기반

880년(현강왕 6)에 정치적으로 실각하였던 예겸이 이때에 이르러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위홍에 의해 견제 당한 예겸은 위홍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치에 복귀할 수 없었다. 888년(진성왕 2)에 위홍이 죽고 진성왕이 의지하였던 측근의 충신들은 위홍세력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들이 실정을 거듭하며 왕경인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퇴조하게 되자 새로운 개혁의 담당자로 예겸이 복귀하게 된 것이다.

경문왕 이후 진성왕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화랑 출신의 정치세력은 왕실의 지지기반으로 존재하였다. 헌강왕의 장녀와 혼인한 효종은 왕위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왕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화랑세력이 아직도 강건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예겸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지하는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새로 대두한 예겸세력의 지지기반은 어떤 집단이었을까. 여기에는 권신들을 비판하고 나선 왕경의 국인들, 개혁을 뒷받침 해준 6두품 지식인 계층, 경휘와 연결된 박씨세력, 그리고 사위인 효공왕 요와 의자인 신덕왕 경휘를 비롯하여 준흥·계강 등 정치적 비중이 큰 인물들이 이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국인

먼저 진성왕과 왕실 측근을 비방하는 다라니의 은어를 지어 유포한 자들이 국인이며, 경휘를 지지하여 즉위케 한 세력도 국인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인은 왕경의 중심계층을 형성한 집단이다. 국인은 국왕의 즉위와 퇴위에 간여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일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왕거인 사건에서 보이듯이 진성왕과 측근의 총신들에 대한 불만은 왕경내의 국인들에게 폭넓게 퍼져 있었다. 이들은 다라니의 은어를 빌어 여왕의 실정을 비판하는 글을 짓고 길거리에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때 권신들이 왕거인을 붙잡아 옥에 가둔 것은 국인들의 비판을 억압적 방법으로 탄압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구속되었던 왕거인은 결국 풀려났다. 그가 풀려난 이유는 하늘에서 옥에 벼락을 쳤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왕경인들의 거센 여론과 비판에 대한 설화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권신들은 국인들의 불온한 동향과 비난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효공왕 사후 신덕왕을 추대하였던 국인도 왕거인 사건에서의 국인과 같은 맥락에서 연결된다. 경문왕가 왕실의 복고적 행태와 진성왕의 실정에 불만을 가진 국인은 경문왕가와 밀접하게 연결된 효종보다는 정치와 지방 통치체제의 개혁을 추진한 예겸세력의 경휘를 추대하여 왕위를 차지하게 하였다. 국인은 진성왕 이후 박씨 왕실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변화의 내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신라의 개혁과 변화는 왕경의 폭넓은 국인 계층의 여망과 요구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6두품 출신 도당유학생

다음으로 주목되는 집단은 도당유학생 출신 6두품 지식인 계층이다. 6두품은 신라 정치 사회에서 진골 다음의 계층에 해당한다. 진골귀족들이 최고위직을 독점하여 정책의 결정권을 가진 데 비해 그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의 직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당에 유학하여 선진문물을 습득하고 돌아온 도당유학생 출신의 6두품 지식인들은 유교적 소양과 한문의 문장력을 바탕으로 경문왕가의 정치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889년(진성왕 3) 무렵에 이르면 왕거인 같은 6두품 출신 도당유학생은 권신들에 의해 다라니의 벽서를 지은 자로 선뜻 지목될 정도로 비판적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가 왕경을 떠나 대야주에 은거한 이유는 권신들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일부 6두품 지식인은 당시의 정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탄압과 견제가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비록 왕거인은 풀려났다고 하지만, 6두품 지식인에 대한 의구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도당유학생 출신 6두품 지식인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최치원이 의심과 시기가 많아 용납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이나 이 무렵 왕경을 떠나 태산군 태수로 부임하게 된 것은 그 또한 의혹과 견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다시 중앙으로 복귀해 정치적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은 893년(진성왕 7) 사신으로 당에 파견된 이후의 일이다. 중앙정부는 당에 파견한 병부시랑 김처회가 도중에 익사함으로써 사행에 실패하자 혜성군 태수 김준을 고주사로, 부성군 태수 최치원을 하정사로 삼아 다시 보냈다. 이들은 흉년과 도적들의 창궐로 길이 막히자 견훤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쪽으로 올라가 서해안 뱃길을 이용하여 사행에 성공하였다.

최치원이 사행하였던 당시의 당에서는 지방의 반란이 일시 가라앉고 중흥의 기운이 일고 있었다. 최치원은 당에서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당을 모방하고 당의 도읍을 얻어 신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듯하다. 당의 지방사회 대책과 제도들이 급격히 수용되고 사신의 파견이 급증한 것도 이러한 상황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최치원은 당에서 돌아온 직후인 894년(진성왕 8) 2월 시무10조를 올렸다. 이때는 예겸세력이 부상하여 지방반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과 개

력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시무10조가 가납된 것은 이런 분위기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당시의 지방사회 이탈에 따른 극복이 모색되고 있었을 것이며, 최치원을 비롯한 도당유학생 출신들의 경험과 지식, 그가 겪었던 지방의 사정과 사행에서 얻은 당에서의 견문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시무책이 가납된 이후 최치원의 정치적 활동은 눈부셨다. 진성왕의 선위는 유교적 의례를 따르는 것이라서 유학자들의 힘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유교적 선양이라는 명분은 서자 출신으로 왕위계승에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효공왕의 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당의 승인을 얻는 것은 왕권의 안정에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이 무렵 신라가 당과의 외교에 진력한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된다. 이때 최치원은 8개의 표를 짓는 등 당과의 외교문서를 독점적으로 작성하였으며 특히 진성왕을 대신하여 양위표를, 효공왕이 즉위한 직후에는 다시 사사위표를 짓는 등 여왕의 양위와 효공왕 즉위의 정당성을 당에 전하고 인정을 받는 데 진력하였다. 최치원이 효공왕의 왕위계승과 안정에 이바지한 공로는 결코 적지 않다.

진성왕대의 실정을 비판한 6두품 지식인은 새로 등장한 예겸세력과 결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겸세력이 개혁을 모색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에는 6두품의 영향이 많았다. 최치원의 시무책을 통한 정치적 방향의 제시, 선양이라는 유교적 왕위계승의 방식, 당과 활발한 외교관계의 추진, 효공왕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광범위한 지방사회 통치체제의 변혁에 이르기까지 6두품의 정치적 영향은 곳곳에 미치고 있었다. 신라의 정치 사회 개혁이 예겸의 주도로 진행되는 동안 6두품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겸세력을 지지하고 개혁에 동참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요와 박씨세력

한편 효공왕 요는 헌강왕의 아들이자 왕족의 일원이지만 민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인물이다. 왕자의 신분을 감추고 민간에서 성장하였던 효공왕의 체험은 진골귀족적 성향보다는 일반 민과 가까운 의식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훗날 그가 정치와 왕궁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천천히 빠지게 된 것도 그러한 까닭이 아닐까 한다. 이런 점에서

효공왕은 이전의 경문왕가 출신 국왕들과 구별된다. 예겸도 시중을 역임한 진골귀족이지만 위홍과의 대립으로 핵심에서 밀려나 정치적으로 소외된 경험을 가졌던 인물이다. 예겸의 의자이며 효공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경희는 김씨 진골귀족이 아니라 박씨였다. 경희와 연결된 지지집단은 박씨세력일 것이다. 아달라왕의 원손이라는 그들은 김씨 왕족 중심의 정치 사회에서 하위에 머문 계층인 셈이다. 경희의 아버지인 문원 이간, 조부인 문관 해간 또한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예겸이 주도한 정치적 변화를 지지했던 세력은 왕경의 국민들을 비롯하여 당시 진골귀족에 의해 정치적 진출이 제한된 6두품과 권력의 중심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었던 박씨세력과 같이 최상위의 권력층이 아니라 그 다음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이처럼 경문왕가 김씨 왕실에서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집단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이 진성여왕 후반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위홍의 죽음과 지방사회의 분열, 왕경의 동요라는 위기 상황에 진성왕의 측근집단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왕경인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가능하였다.

한편 이 시기의 정치적 변화가 하대 전반의 왕위계승전과 같이 무력을 동원한 왕위의 찬탈이나 정치세력 간 살육을 가져오는 대결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되어도 좋겠다. 예겸세력의 대두는 진성왕의 측근 권신들을 숙청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식의 격렬한 정변 형태로 확대되지 않았다. 예겸은 여왕으로부터는 선양이라는 형태의 평화로운 퇴위를 이끌어냈고, 헌강왕의 혈육인 요를 즉위케 함으로써 경문왕가 혈통을 유지하려는 왕실의 입장을 충족시켰으며, 아울러 경희와 효종 간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효공왕의 즉위 또한 태자로 책봉되고 2년이 지난 후 선위의 과정을 차분하게 밟았다. 김씨 왕실과 진골귀족들의 반발은 시중 준홍과의 타협을 통해 무마할 수 있었다. 예겸은 효공왕이 즉위한 후에도 일선에 나서지 않은 채 준홍에게 상대등을 양보하고 왕실의 후원자로서 배후에서 정국을 이끌었다. 이러한 점은 예겸의 정치적 능력과 성향을 짐작케 한다. 예겸은 자칫 대결로 치달을 수 있었던 정치적 상황을 평화적으로 순조롭게 수습하고 지방 통치체제의 개편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결코 적지 않은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면서도 기존의 정치세력과 격렬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진성왕 이후 효공왕 대를 거치는 동안 왕경에서는 한 번도 정치적 반란이나 모반 사건은 없었다.

## 2. 효공왕대 정치 운영의 한계

### 효공왕의 왕위계승

#### 요의 태자 책봉과 즉위

농민봉기로 위기를 맞았던 신라의 왕경에서는 급격하고도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6두품 지식인들은 개혁의 방안을 모색하였고 예검세력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지방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종래의 9주 5소경과 도독제 대신 지주제군사, 성주의 군사적 체제가 성립하였다. 이후 지방사회의 전반적 변혁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 변화는 진성여왕 후반부터 시작해 효공왕대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형태가 갖추어져 갔다.

제 52대 효공왕 요(897~912)는 헌강왕의 서자로 태어나 진성왕의 선양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신라에서 서자 출신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국왕이 아직 생존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위禪位의 형식을 빌어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서자인 요의 신분을 진골로 볼 수 없어 골품제에 입각한 왕위계승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민간에서 자라던 요가 갑자기 등장해 태자로 책봉되고 마침내 왕이 되는 과정은 매우 극적이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요의 출생과 왕위계승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요의 탄생과 즉위에 관한 일화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9년 10월에 헌강왕의 서자燕子 요를 태자로 삼았다. 일찍이 헌강왕이 사냥하러 가는 길가에서 자태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뒤따르는 수레에 태우도록 명령하고 유궁帷宮에 이르러 야합하였는데,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신체와 용모가 크고 뛰어나므로 이름을 요라고 하였다. 진성여왕이 이를 듣고는 대궐로 불러들여 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나의 형제자매의 골법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아이는 등에 두 뼈가 솟아 있으니 참으로 헌강왕의 아들이다.”하고 유사에 명하여 예를 갖추어 책봉하고 받들게 하였다.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9년 10월)

이 기록을 통해 효공왕 요의 출생과 성장에 관해 알 수 있다. 요는 헌강왕의 서자라고 하였듯이 정실 소생이 아니다. 헌강왕은 사냥을 하러가던 도중에 길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수레에 태우고 데려가서 유궁에서 야합하였다. 마치 약탈과 같아 왕의 행위로는 거칠다. 유궁이란 임시로 만든 왕의 거처로 장막을 둘러친 천막이다. 아마도 사냥터에 설치했던 헌강왕의 숙소일 것이다. 야합이라 한 데에서 보듯이 정식으로 혼인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후라도 여인에게 적합한 예우가 따랐다면 굳이 야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여인은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효공왕 요라는 것이다.

헌강왕은 길거리에서 만난 이 여인을 궁중으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은 듯하다. 헌강왕과 왕비인 의명부인 사이에서는 두 명의 딸이 있었으나 아들은 없었다. 왕의 아들을 출산하였으므로 빈첩이 되었을 법도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위를 보장할 만한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헌강왕은 요가 채 들어가지 않아 죽었고, 이 여인과 요는 민간에 남겨진 채로 왕실에서 거의 잊혀졌다.

그후 10년이 지난 895년(진성왕 9) 10월에 이르러 여왕은 비로소 이 사실을 듣고 요를 대궐로 불러들였다고 하였다. 요는 대궐이 아니라 민가에서 성장하였으며, 여왕은 이때까지 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의 존재를 여왕에게 알리고 궁중으로 불러들이도록 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요의 탄생을 아무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다. 그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으므로 여왕은 물론 왕실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 하겠다.

헌강왕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숨어 지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왕의 서자로 태어났던 궁예는 갓난아이 때에 살해의 위기를 겪고 도망

하여 숨어 지내야 했다. 왕위계승의 각축이 치열한 상황에서 서자는 경쟁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 궁예는 왕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한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요의 경우도 사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유사한 출생과 성장과정을 겪었던 궁예의 예를 통해 볼 때, 요 또한 존재가 알려지는 것 자체가 위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서자 출신 왕자는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궁예는 끝까지 신라 왕실의 일원으로 수용되지 못한 채 반란과 창업의 길을 걸었지만, 요는 왕궁으로 돌아와 태자의 책봉을 얻고 여왕의 뒤를 이어 즉위할 수 있었다.

요의 존재가 알려진 895년(진성왕 9) 무렵은 헌강왕의 두 딸과 각기 혼인한 효종과 경휘가 왕위계승자로서의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다. 두 사람 모두 헌강왕의 사위 자격으로 왕위를 노리던 상황에서 아들인 요가 나타난 것은 왕위계승권을 가름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때 진성여왕은 그를 헌강왕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자신의 출생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불안했던 요의 운명은 여왕의 인정 여하에 달려 있었다고 하겠다. 왕위의 계승을 노리던 경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왕은 요의 등을 어루만지며 “나의 형제자매의 골법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아이는 등에 두 뼈가 솟아 있으니 참으로 헌강왕의 아들이다.”라고 공표하고는 예를 갖춰 태자로 책봉하고 받들 것을 명령하였다. 이로써 요는 왕위계승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진성여왕이 요를 헌강왕의 아들로 인정하고 태자로 삼은 근거는 등에 솟은 두 개의 뼈이다. 남다른 골법이 바로 경문왕가 왕실의 혈통임을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요는 ‘등에 두개의 뼈가 솟아있다,’ ‘신체와 용모가 뛰어나고 크다’라고 하여 그 형상이 특이했음을 알 수 있다. 진성왕은 ‘골법이 장부와 같다’라 하여 마치 사내와도 같은 건장한 체구였으며, 경문왕은 귀가 당나귀의 귀처럼 컸다고 하였듯이 경문왕가의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신체적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 진성왕의 장부 같은 골법은 정강왕의 유조에서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으며, 등뼈가 솟아오른 요의 골법도 헌강왕의 아들로 인정받고 왕위를 계승하는 근거가 되었다. 왕위계승이 걸린 중대한 결정의 근거가 왕가의 골법이라는 신체적 표징이라는 것은 놀랍지만 경문왕가에서 골법이 차지하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요가 태자로 책봉되고 2년이 지난 897년(진성왕 11) 6월에 여왕은 태자 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하였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신라의 왕위계승은 국왕이 죽으면 그와 동시에 계승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형태로서 예외 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때에 이르러 여왕이 생존 중 선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그것이 출생과 신분에 약점이 있는 요의 왕위계승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일 터이다.

최치원은 양위표와 사사위표에서 이때의 정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왕이 퇴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군과 읍이 도적의 소굴이 되고 산천이 모두 전쟁터”가 되기에 이른 지방사회의 혼란이었다. 이는 자신이 “중도中道를 지키는 길을 잃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방법이 틀린 까닭”이라 하고 “모두 내가 몽매한 탓으로 이 도적들을 부른 것이니, 죄는 주륙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여 국가의 환란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백관과 왕족들은 울며 말렸음에도 여왕은 퇴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위의 유시가 열 번이 넘고, 사양하는 예가 세 번을 지났다.”고 하여 유교적 선양禪讓의 형태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효공왕 또한 여왕의 뜻이 간절해 양위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왕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 효공왕의 즉위 배경과 예겸 세력

여왕의 퇴위가 선양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유교의 이상적 왕위계승 방식으로 선양이 선택된 것은 유학자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최치원을 비롯한 6두품 유학자들은 진성왕의 퇴위에 선양이라는 유교적 형태의 방식을 제시하였고 여왕이 이를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왕위계승의 명분과 방법을 제시할 정도로 이 시기 6두품 지식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효공왕의 나이는 불과 12세 정도였다. 어지러워진 국가를 수습할 책임을 넘기기에 너무도 어려웠다. 민간에서 성장하여 왕궁의 분위기를 제대로 익히기에도 힘겨웠을 요가 정치적 수련이나 식견을 가질 여력이 있었을 리도 없다. 그런 요에게 위기에 처한 국가를 맡긴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의 배후에는 어린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고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정치세력의 존재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왕의 퇴위가 어떤 압력에 의해 강요

된 것이라든가 정치세력과의 타협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렇다면 당시 정치세력 간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효공왕 요의 갑작스런 등장과 여왕의 선위는 정치 사회의 중대한 변화와 충격을 안겨준 것이었다. 이미 진성왕대에는 헌강왕녀와 혼인함으로써 왕위계승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효종과 경휘가 있었다. 효종은 헌강왕의 장녀와 혼인하여 왕위계승자로서 유리한 지위를 얻었다. 경휘는 예겸의 외자로서 헌강왕의 차녀와 혼인하였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왕위계승 경쟁에서 더 유리한 쪽은 효종이었다. 지은사건으로 명망을 얻은 그는 문성왕의 후손으로 아버지 인경은 당시의 실력자였으며 조부인 민공은 헌강왕대의 시중으로 위홍과 함께 헌강왕 후반의 정국을 담당하였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종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헌강왕의 아들인 요가 나타남에 따라 경문왕가의 직접 혈통이 아닌 효종은 왕위계승에서 밀려났던 것이다. 이로써 경문왕가 왕실의 가장 믿을 만한 후원세력인 화랑 출신 인물의 왕위계승은 가로막히고 말았다. 요의 등장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며 어떤 책략이 작용하였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경휘 역시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경휘의 입장에서 보면 요의 등장은 일단 또 한 번 왕위에 도전할 기회를 기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요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효종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경휘는 예겸의 친아들이 아니며, 본래의 출신은 박씨이다. 출생과 신분에 있어서 김씨 진골귀족보다 취약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헌강왕의 사위라는 사실은 그에게 왕위계승의 조건이기는 하였지만, 좀 더 우월한 지위는 장녀와 결혼한 효종에게 있었다. 따라서 그는 왕위계승의 서열상 효종에게 밀려났을 것이다.

한편 경문왕가 왕실의 입장에서는 요가 비록 서자였다고 하더라도 경문왕가 혈통을 이었다는 점이 먼저 고려되었다. 왕실은 헌강왕이 죽은 후 동생인 정강왕, 여동생인 진성왕으로 이어가면서까지 경문왕가의 혈통을 유지하고자 고심하였던 처지이다. 헌강왕녀와 혼인한 효종과 경휘가 있다고 하더라도 왕실은 직계혈통으로 왕위를 이어야한다는 입장에서 요를 환영하였다.

그러면 민가에서 자라던 요를 불러와 여왕에게 알리고 태자 책봉과 선위를

이끌어 냈던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그는 여왕을 움직이고 정국을 요리할 만큼의 정치적 능력을 갖춘 실력자이며, 화랑세력인 효종의 왕위계승을 바라지 않았던 경쟁세력에 해당하며, 요의 왕위계승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요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일 것이다. 이 모든 조건에 합당한 인물은 예겸이다. 경휘가 효종에게 밀려 왕위계승에 실패할 것을 짐작하고 숨어있던 요를 불러내어 왕실에 알리고 '골법'의 확인을 얻어 태자의 지위를 얻도록 한 배후의 인물은 예겸이 아닐까. 예겸은 899년(효공왕 3)에 자신의 딸을 왕과 혼인케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한 그는 정국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 효공왕을 둘러싼 의문들

효공왕에 관한 기록에는 몇 가지 점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요의 출생 시기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이 전해진다. 『삼국사기』 권11, 887년(진성왕 원년) 조에 제주<sub>細註</sub>로서 수록된 최치원의 납정절표에는 헌강왕 사망 시에 요는 아직 돌이 채 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요의 출생은 885년(헌강왕 11) 7월~886년(헌강왕 12) 6월 사이의 일이 된다. 그런데 『삼국사기』 897년(진성왕 11) 6월 조에 인용된 최치원의 양위표에서는 당시 요의 나이가 지학<sub>志學</sub>, 즉 15세에 가깝다고 표현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883년(헌강왕 9) 무렵에 태어난 셈이 되므로 앞의 기록과 3년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두 기록 모두 최치원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그런데 효공왕이 왕비를 맞이한 것은 899년(효공왕 3)의 일이었다. 즉위 후 바로 왕비를 맞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나 3년이 지나도록 혼인을 미룬 것은 그가 결혼연령에 해당하는 15세에 이르기까지 기다렸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양위표는 여왕 퇴위의 명분과 신왕 즉위의 타당성을 강조하여 당의 인정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외교적 문서이므로 실제로는 10여 세를 갓 넘긴 요의 나이를 지학에 가깝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두 기록 가운데 어느 한 편을 택한다면 납정절표에 따르는 것이 옳겠다. 그러므로 요가 태어난 것은 885년(헌강왕 11)~6년경으로, 야합한 후 곧 임신하였다고 하였으니 헌강왕과 여인이 만난 것은 884년(헌강왕 10)~885년(헌강왕

11)으로 비정해도 무방하겠다. 요가 태자가 된 895년(진성왕 9)에 그의 나이는 9~10세 정도였으며 897년(효공왕 원년) 왕위에 올랐을 때는 11~12세 정도였다.

다음으로는 효공왕의 생모生母에 대한 의문이다. 요의 생모에 대해서는 최치원이 작성한 '왕비 김씨'에 대한 원문顯文들을 근거로 진골귀족의 딸로서 요를 낳고서는 왕비를 칭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추정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론이 강력하다. 생모의 지위가 왕비였다면 서자라고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왕실의 일원으로 당당히 태자가 되었지 895년(진성왕 9)에 비로소 인증을 거쳐 책봉했을 리 없다. 문인인 최치원이 남긴 글을 근거로 역사서인 『삼국사기』의 기사를 부정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은 생모의 존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삼국사기』 권12, 897년(효공왕 원년) 조에서는 효공왕의 어머니를 김씨라고 하고, 이 김씨는 효공왕이 즉위한 다음 해인 898년(효공왕 2) 정월에 의명왕태후라는 존호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의 기록은 주의가 필요하다. 효공왕을 낳은 생모와 이 어머니 의명왕태후 김씨가 동일인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왕태후는 왕실의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위로서 새로 즉위한 국왕이 어렸을 경우에는 섭정을 하기도 하였다. 12세쯤의 어린 효공왕이라면 의명왕태후의 섭정도 가능한 일이다. 왕실의 어른인 선왕비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머물다가 요와 함께 나타났을 생모가 왕실의 최고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때 올린 의명왕태후라는 존호도 의문이다. 의명은 현강왕비의 호칭이다. 의명왕후는 40대에 이르지 못한 나이로 추산되므로 생존해 있었을 것이다. 효공왕이 자신의 생모에게 아버지 현강왕의 정비인 의명부인과 같은 존호를 부여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국사기』에서의 '어머니 김씨'는 요의 생모가 아니라 현강왕의 정비였던 의명왕후일 가능성이 크며, 그가 효공왕의 즉위 후 왕태후로 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요의 생모는 이미 사망하였거나 왕실의 일원으로 수용되지 못하였으며, 대신 요는 아버지 현강왕의 정비인 의명왕후를 어머니로 모시고 즉위 후에 왕태후로 존호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 경우가 가장 타당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요의 미약한 출생과 서자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상쇄시킬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은 현강왕비가 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효공왕의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골품제의 존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서자이며 비진골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요는 골품제의 구성 원리로 볼 때 진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골품제가 신라의 전 기간 동안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고 믿는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비진골왕의 등장이라는 이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골품제의 적용 유무보다는 새로운 정치 사회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추구되어야 하겠다. 경문왕 이후 왕위계승은 경문왕가 혈통이라는 조건이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준이었다. 신덕왕 이후 박씨 왕가의 출현은 김씨의 신라 왕통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경순왕은 견훤 침입의 결과로 왕위에 올랐다. 이 모두는 이미 골품제 원리와는 상관이 없다. 사회가 변화하면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다. 신라 말에 이르면 과거의 잣대로 썰 수 없는 양상들이 분출하고 있다. 골품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밖에도 진성왕의 즉위는 어린 요가 성장할 때까지 임시로 왕위를 맡았다는 추측이나, 요를 처용설화의 주인공인 처용에 비정하려고 한다든가, 요의 태자 책봉을 진성왕이 꾸민 정치적 이벤트로 해석한다든가 등의 여러 가지 추측성 견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혼란된 사료의 해석이나 역사상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하는 데서 빚어진 오해이다.

### 효공왕대 정치 사회와 개혁

효공왕의 즉위는 그 자체가 신라 정치 사회의 커다란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진성왕의 퇴위는 측근 총신들의 후퇴를 동반한 것으로서 정치세력의 교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왕경 내부의 비판과 압력에 기인한 바가 컸다. 왕경의 여론은 국왕을 퇴위시킬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자 출신인 효공왕의 신분은 왕위계승의 원리를 거스른 것이었다. 진성왕의 퇴위와 함께 경문왕가 왕실을 유지해오던 신성한 혈통의식과 상대 복고적 정신의 가치와 기준은 퇴색하여 박씨 왕실의 등장으로 이어지면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위홍세력을 이어 새롭게 대두한 예겸과 경휘·계강 등 신진세력은 왕경의 국인, 6두품 지식인 계층의 지지와 도움을 얻어 정국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정치세

력의 교체는 무력적 충돌 없이 이루어졌다. 여왕의 은퇴는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왕실과 가까운 준홍과 효종은 이후에도 중요한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였다. 효공왕대는 김씨 왕실의 세력들과 신진세력이 공존하며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채 진행되었다.

효공왕은 즉위 후 대사면을 실시하고 문무백관의 관작을 1급씩 올려주었다. 신왕의 즉위에 따른 시혜인 셈이다. 898년(효공왕 2) 정월에는 서불한 준홍(俊興)을 상대등으로, 아찬 계강을 시중으로 삼았고 다음해인 899년(효공왕 3) 3월에는 이찬 예겸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이 3인은 효공왕 초기의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생각된다.

이때 상대등이 된 준홍은 일찍이 정강왕대에 시중을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정강왕이 즉위한지 한 달 만인 8월에 시중이 되었는데 이때 그는 이찬의 관등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해 5월 병이 깊은 정강왕은 특히 준홍에게 유조를 내려 만을 왕위에 오르도록 당부하였다. 그는 위홍과 함께 진성왕의 즉위에 힘썼을 것이다. 진성왕대에는 시중의 임면 기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준홍이 시중직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홍 사후의 정국에서도 그의 정치적 비중은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효공왕대에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 898년(효공왕 2) 정월에 상대등이 되어 906년(효공왕 10) 정월에 파진찬 김성이 그 뒤를 이을 때까지 8년간 재임하였다. 준홍이 시중과 상대등으로 있었던 기간은 886년(정강왕 원년)에서 906년(효공왕 10)에 이르기까지 모두 20년간이다. 이는 당사가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매우 길었다고 하겠다.

준홍이 정강왕대에 시중이 되고 위홍과 함께 진성왕의 즉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여왕대의 정국을 이끌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경문왕가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효공왕의 즉위 후 바로 상대등의 위치에 오른 것을 보면 요의 즉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경문왕가 혈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왕실의 입장에서 요의 즉위에 동조한 인물로 생각된다. 준홍이 예겸세력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승진한 것은 그와 예겸 사이에 정치적 타협 또는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요의 즉위는 두 사람의 협력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다.

계강(繼康)은 898년(효공왕 2) 상대등으로 자리를 옮긴 준홍의 뒤를 이어 시중

이 되었다. 4년 후인 902년(효공왕 6) 2월에는 서리가 내렸다는 기사에 이어 효종이 시중으로 임명되고 있어서 천재지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무렵 천재는 거의 해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는 2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정도로 시중이 면책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보다는 이 무렵 효종세력의 대두 때문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계강은 신덕왕이 즉위하자 곧 상대등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으므로 경휘와 가까운 인물로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공헌한 것은 아닐까 한다. 계강은 예겸세력과 연결된 인물이며 효종세력과는 경쟁적 입장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는 917년(경명왕 원년) 8월에 이르러 왕제인 위웅에게 상대등의 직위를 넘겨주었다.

효공왕 초기의 정국은 김씨 왕실과 밀접하였던 준홍이 상대등을, 예겸세력에 해당하는 계강이 시중을 담당하며 양 세력이 조화와 견제를 이룬 가운데 진행되었다. 준홍은 김씨 왕실의 귀족세력들을 무마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고 개혁의 추진은 계강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예겸의 힘이었다고 하겠다.

### 효종의 활동

초기의 정국은 902년(효공왕 6)에 이르러 계강이 물러나고 화랑 출신의 효종이 시중으로 임명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때 효종세력의 대두는 대야성의 전투에서 후백제 견훤의 공격을 막아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견훤은 901년(효공왕 5) 8월에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대야성은 왕경으로 향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며 이 성의 함락은 신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었다. 왕경의 관심은 이 대야성전투에 집중되었을 것이다. 이때 그곳을 수비한 책임자는 지대야군사 김억림이었다. 그는 효종의 형이며 경순왕의 백부로서 훗날 고려 태조의 비부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서발한 인경이며 조부는 헌강왕대의 시중이었던 민공으로 이 일족은 진골귀족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대야성을 방어한 신라군 중에는 김억림 일가의 사적 군사력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며, 효종이 이끌던 화랑세력도 이 전투에 참여하여 함께 싸웠을 것이다. 이들의 저항은 지방의 성주들과는 달리 왕경의 군사력이 동원된 강력한 것이었다.

견훤은 마침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금성 연변 부락들을 약탈하고는 돌아갔다.

신라가 거둔 대야성의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야성을 둘러싼 공방전은 신라와 후백제 양국이 정면으로 대결한 첫 번째의 대규모 전투였다. 견훤이 직접 이끌었던 후백제군과 싸워 거둔 승리는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밀리기만 했던 왕경인들에게 안도와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다. 김억렴은 916년(신덕왕 5)에 또한 차례의 공격을 막아냈고, 920년(경명왕 4) 대야성이 함락될 때까지 견훤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김억렴과 그 일가의 전공은 효종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이때의 승리로 왕경인의 신망을 얻은 그는 시중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906년(효공왕 10)에는 파진찬 김성이 준홍의 뒤를 이어 상대등이 되었다. 그는 신덕왕의 즉위와 함께 계강으로 교체되고 있어서 경휘의 지지세력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그렇다면 준홍과 같이 김씨 왕실과 가까운 성향의 인물로 보아도 좋겠다. 아마도 연로한 준홍이 사망하였거나 은퇴하면서 후임을 맡은 것은 아닐까 한다. 그는 시중 효종과 함께 효공왕대 후반의 정국을 이끌었을 것이다. 그후 김성은 919년(경명왕 3) 상대등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 전년에 있었던 현승의 반란 진압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효공왕대의 정치 사회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은 무척 소략하다. 906년(효공왕 10) 3월의 당에서 급제한 김문울의 귀국 기사 외에는 궁예와 견훤의 왕성한 활동만이 나타날 뿐이다.

### 궁예와 견훤의 위협

효공왕대의 신라는 궁예와 견훤에 의해 양면에서 침공을 받아 위협이 가시화되는 시기였다. 궁예는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해 898년(효공왕 2) 7월에는 패서도와 한산주 관내의 30여 성을 공취하고 송악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해 11월에는 최치원이 죄를 입고 면직되었는데 그것은 “계림황엽鷄林黃葉 곡령청송鶴嶺青松”이라는 글귀가 문제가 된 까닭이었다. 이 일로 최치원은 은퇴하여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 않았다.

다음 해인 899년(효공왕 3) 7월에 궁예는 국원 등 10여 성주와 함께 공격해 온 북원 양길의 군사를 비뢰성에서 무찔렀고, 900년(효공왕 4) 10월에는 국원과 청주 괴양의 적수 청길 신훤 등이 성을 들어 궁예에게 투항하였다. 이로써 신라의 북

쪽 지역 대부분을 장악한 궁예는 901년(효공왕 5) 왕을 칭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후백제의 견훤도 신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901년(효공왕 5)의 대야성 공격은 그 시작이었다. 신라의 대야성 방어로 견훤의 진출은 일단 주춤하였다가 907년(효공왕 11)에는 일선군 이남의 10여 성을 빼앗고, 916년(신덕왕 5) 다시 대야성을 공격하였으나 역시 이기지 못하였다.

대야성에 가로막힌 견훤이 주춤하는 동안 이미 강성해진 궁예는 신라를 압박하였다. 904년(효공왕 8) 궁예는 백관을 설치하고 국호를 마진, 연호를 무태라고 하였다. 이때 패서도의 10여 주현이 궁예에 투항하였다. 도읍을 철원으로 옮긴 궁예는 905년(효공왕 9) 8월에 신라를 공격하여 죽령의 동북쪽에 이르렀다. 이처럼 압박해 오는 양국의 공세에 신라는 대처할 방법이 없이 다만 성주들에게 나아가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키라고 할 뿐이었다.

도적의 봉기와 지방민의 이반, 궁예와 견훤의 공격에 시달리던 신라는 기후의 불순마저 겹치면서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효공왕대 후반의 왕경은 계속되는 이상 기후와 천재지변으로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진성왕 이후 『삼국사기』에 보이는 기후 이변과 재해의 기록을 보면, 887년(진성왕 원년)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고 다음해인 888년(진성왕 2) 5월에 가뭄이 들었으며 890년(진성왕 4) 정월에는 햇무리가 다섯 겹으로 나타났다. 그후 기후 이변의 기사는 뜸하다가 효공왕, 신덕왕 무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905년(효공왕 9) 이후 천재지변과 기상 이변이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905년(효공왕 9) 3월에는 성운이 비처럼 쏟아졌고, 4월에는 서리가 내렸으며, 906년(효공왕 10) 4월부터 5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고, 907년(효공왕 11)에도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908년(효공왕 12) 2월에는 동쪽에 혜성이 나타나고, 3월에는 서리가, 4월에는 우박이 쏟아졌다. 911년(효공왕 15) 1월에도 일식이 나타나는 등 해마다 기후 이변이 잇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사는 주로 왕경과 그 주변의 현상을 기록한 것이라 하겠는데 계속되는 천재지변으로 신라의 경제 전반은 어려움에 처하고 민심이 흉흉하였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무렵 예겸이 사망하였다. 신덕왕은 즉위 다음 달 예겸을 선성대왕으로 추존하였는데 이로부터 예겸이 효공왕대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효공왕이

정사에 뜻을 잃은 것과 예겸의 죽음이 관련 있어 보이므로 15년 이전의 멀지 않은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준흥도 고령으로 은퇴하였거나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준흥은 886년(정강왕 원년)에 시중이 되었는데 이때의 관등은 이찬이었다. 이찬에 이른 그의 연령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후 20년 동안 시중과 상대등을 역임하였다. 888년(효공왕 2)에는 최고의 관등인 서불한으로 상대등이 되었는데 그가 물러난 906년(효공왕 10) 즈음에는 이미 상당한 고령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효종 또한 이후 어떠한 활동도 찾을 수 없으므로 생존 여부에 의문이 있다. 효공왕을 보호하고 정국을 이끌던 원로 중신들의 죽음과 은퇴는 정치의 공백을 초래하고 효공왕의 통치에도 일정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궁예와 견훤의 공략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거듭된 재해와 예겸의 죽음으로 왕경의 활기는 사라지고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효공왕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왕의 무기력은 당시의 지배층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듯하다. 911년(효공왕 15) 대신 은영의 천첩 살해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효공왕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천첩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천첩이라 한 것은 그 신분이 낮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 은영은 자신의 간언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왕이 총애하는 첩을 잡아 죽였다. 정치적 혼란과 위기에 처한 시기에 정사에 뜻을 잃고 천첩에 빠진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국왕에 대한 대신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왕이 정사에 소홀하였다 하더라도 신하가 제멋대로 국왕의 첩을 죽인다는 것은 이미 효공왕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추락하였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효공왕 말기의 신라는 다시 무기력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효공왕이 정치에서 도피하려 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 때문일 것이다. 국왕의 애첩을 잡아 죽인 은영의 행위 또한 스스로 난국을 헤쳐 나가지 못하는 대신의 무기력함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신라는 다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지도자를 필요로 하였다. 효공왕은 그 다음해 4월에 죽었다. 왕의 후사가 없었으므로 국인은 경휘를 추대해 즉위케 하니 그가 신덕왕으로 이로써 이후 경명왕 경애왕까지 3대에 이르는 박씨 왕가가 열리게 된다.

### 지방 통치체제의 개혁

여왕의 측근들을 대신해 정치 사회를 장악한 예겸세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당시의 가장 중대한 당면문제는 지방사회의 반란에 대한 대응 방안의 수립과 실행이었다. 정치적으로 여왕과 측근을 구축한 이들은 지방의 반란으로 야기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체제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것은 종전의 9주 5소경과 도독 중심의 지방체제를 대신하는 군사적 대응체제인 지주제군사(知州諸軍事)와 성주제(城主制)로의 전환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지방 통치체제의 개혁은 894년(진성왕 8) 최치원의 시무 10조가 제시되고 요가 등장하는 894년(진성왕 8)~895년(진성왕 9) 무렵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효공왕대를 거치며 정착되었다.

### 성주제의 등장

이 무렵 지방통치의 단위는 군현을 대신하여 새롭게 성(城)이 나타나고 있으며 종래 태수·현령 등 군현 지방관의 명칭과 함께 성주라는 칭호가 대두하였다. 이는 지방반란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역할이 요구된 지방관들이 군사지휘관의 임무를 띠게 됨에 따른 변화라 하겠다. 본래 성주라는 명칭은 성의 주인으로 방위의 거점인 성을 지키고 전투에 대응하던 지휘관의 칭호이다. 성과 성주는 통일전이 끝난 중대 이후 잘 보이지 않다가 효공왕 즉위를 전후한 시기에 다시 등장한다. 즉 『삼국사기』 888년(효공왕 2) 7월조에는 “궁예가 패서도와 한산주 관내의 30여 성을 얻었다.”고 하여 이때에 이미 도와 주의 관내에는 많은 성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성주는 899년(효공왕 3) 7월에 “북원의 적수 양길이가 궁예를 꺼리어 국원 등 10여 성주와 함께 궁예를 공격하려고 도모하였다.”고 하여 국원 등 이 지역의 담당자들이 이미 성주의 칭호로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05년(효공왕 9)에 국왕은 각 성주들에게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다. 일찍이 819년(헌덕왕 11) 3월에는 국왕이 주·군의 도독·태수에게 명령을 내려 초적을 포착케 하고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미 국왕의 명령을 수행하며 전투를 수행하는 지방통치의 담당자가 종래의 도독제하의 도독·태수·현령 등이 아니라 성주라는 명칭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관으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성주는

지방 반란이 확산됨에 따라 종래의 태수·현령을 대치하면서 신라의 지방 통치체제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이후 계속 확산되어 갔다. 930년(경순왕 4) 무렵의 경북지방에서는 30여 개의 군현과 아울러 명주에서 흥례부에 이르는 지역에는 110개의 성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세를 관망하다가 고려에 투항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점차 약화되고 지방 통치체제가 와해되면서 지방세력가들이 성주를 자칭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후삼국의 성립과 각축으로 공약을 당한 신라가 지역의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지방세력가들이 지방관을 대신하거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스스로 성주를 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종래의 학설 가운데 호족들의 활동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성주와 장군의 칭호를 호족들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으나 본래는 신라의 지방제도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 지주제군사제의 성립

지주제군사의 성립도 성주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의 비문에 의하면 무주에는 890년(진성왕 4)경에 소판 김일이 도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무위사선각대사편광탑비」의 비문에 의하면 905년(효공왕 9)의 무주에는 왕지본이 무주의 지주知州, 즉 지주제군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주의 통치는 종래의 도독에서 지주제군사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김일이 통치하던 무주 지역은 892년(진성왕 6)에 이르러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자 무주의 동남군현이 투항하면서 신라의 지방통치는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이 지역에 군사력을 갖춘 지방세력가인 왕지본이 무주를 장악하게 되니 신라에서는 그에게 지주제군사의 직책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다. 이 사례를 통하여 견훤의 후백제가 건국된 892년(진성왕 6) 이후에서 905년(효공왕 9)에 이르는 동안의 어느 시기에 지주제군사가 도독의 지위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효공왕 이후의 각 지방에서는 무주의 왕지본 뿐만이 아니라 김해의 김인광·소총자·소윤희, 기주의 강공훤, 아주의 김행도, 명주의 왕순식, 강주의 왕봉규, 대야의 김억렴 등이 지주제군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지주제군사는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명칭 자체가 군사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인광은 명의장군, 소

총지는 성주장군, 소윤희는 영군, 왕순식은 명주장군, 왕봉규는 회화대장군 등 각기 장군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또 기목진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태조의 대전투마다 활약한 대장군 강공훤, 응주·운주 등의 이반을 아주에서 대치한 동남도초토사 김행도, 후백제의 침입으로부터 두 차례나 대야성을 방어한 김억렴 등 모두가 군사적 실력을 갖춘 인물들이었다. 이미 지방사회를 장악할 능력을 상실한 신라정부는 궁예와 견훤 같이 정부체제를 갖춘 대세력이 왕을 칭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해진 도독제 대신에 당의 경우를 참고해 지주제군사 체제를 수립한 것이다.

지주제군사에 직접적 모델이 된 것은 당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지주군주사로 생각된다. 최치원은 당에서 고변의 종사관으로 머물던 때에 지주군주사의 임명을 칭하는 장문들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최치원은 당의 지주군주사에 대한 상세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의 장문에 나타나는 지주군주사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왕실을 보호하며 순무하는데 뛰어난’ 충용을 겸비한 인물, ‘군사를 운용하는 데는 의로 하고 절개를 지키는 데는 충으로 한다.’거나 ‘오랫동안 군사들을 조련시켰던’ 인물들이다. 이들에게 요구된 것은 군사적 능력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다. 당말 지방세력의 발호와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당의 노력은 종래의 절도사·자사에 대신하여 긴밀한 관계와 협조를 추구하려는 지주군주사의 형태로 나타났다. 신라의 경우에도 당과 마찬가지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지주제군사에게는 당의 지주군주사와 같이 군사적 능력과 국가에의 충성이 요구되었고, 신라의 외곽지역에서 신라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신라정부의 지주제군사 및 성주에 대한 기본 방침은 이미 그들이 획득한 경제적·군사적 독립성과 지역민에 대한 지배권의 일부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왕실의 보호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이는 889년(진성왕 3)의 조세 독촉과 같은 지방에 대한 강압책과 비교할 때 현저한 변화라 하겠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진골 신분에게 해당하는 존재이며 지방세력가 출신이더라도 귀족과 다름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지주제군사 제도는 지방세력가들의 화유와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지방의 독립적 세력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신라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신라의 변병으로서 활동한 친신라적 세력이었던 것이다.

신라정부는 종래의 지방관, 새로이 주치를 장악하게 된 지방세력가, 지방관의 유고 등의 이유로 그 뒤를 이은 자 등 군권을 장악한 지역의 실력자에게 그 지위를 인정하고 지주제군사 성주, 장군, 등의 관직을 부여하였다. 또 소관 왕지본, 잡간 소총자, 한찬 김행도 등 지방세력가로서 지주제군사가 되었던 인물들에게 진골에 해당하는 위계를 수여하는 등 회유와 타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일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호족들이 신라정부의 인정을 얻음으로써 지위를 공고히 하고 마침내는 독립세력으로 자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주제군사나 성주의 성립은 신라 지방 통치체제의 전반적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 지금까지 신라 지방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9주와 5소경이 여러 주·부로 개편되어 사라졌으며 일부 군현 지역들도 군이나 현의 호칭을 대신하여 주를 사용하였다. 즉 소경 가운데 김해소경이 금주 또는 김해부로, 중원경이 충주로, 서원경이 청주로 각기 전환하였으며, 지방 반란의 근거지인 사벌주·죽주·완산주 등과 왕봉규의 천주, 강공훤의 기주 등 지주제군사의 각 주에서 보듯이 지방의 주요 지역에는 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 지방세력가의 위계 승격

다음으로 이 시기에 주목되는 변화 중에는 지방세력이 소유한 위계의 승격을 들 수 있다. 이 무렵 제작된 선사들의 비문과 금석문에는 지방사회 인물들의 관등과 위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세력가로서 지주제군사가 되었던 인물들이 진골에 해당하는 위계를 갖고 있었으며, 종래 4·5두품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던 촌주들이 이미 대나마·급간·사간·삼중사간 등의 위계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래 진촌주, 차촌주의 4·5두품에 해당하였던 촌주들이 6두품 위계를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하대에 이르러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골품체제하의 신분질서가 동요하는 점과 관련이 되겠는데, 지방사회에서는 중앙 위계의 승격이, 한편으로 중앙에서는 도당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의 문산계가 쓰이기도 하여 지방과 중앙을 막론하고 위계의 변화가 나팔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 통치체제의 변화는 전반적이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신라 정부의 광범위한 지방사회 개편은 크게 당의 제도를 수용하려는 경향과 지방세력의 반발에 대응하려는 군사적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은 당의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도당유학생들과 새롭게 부상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던 예겸의 정치세력들이었다. 이들의 노력은 신라의 권위와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효공왕의 즉위 후에도 궁예와 견훤의 공격은 치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그 후로 30여 년을 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920년대 이후 격렬해진 후백제와 고려의 신라 쟁탈전 과정에서 지주제군사와 성주들이 차례로 넘어가면서 마침내 신라는 몰락하였다.

(전기웅)

### 참고

### 문헌

- 권영오, 2011, 『신라시대 정치사 연구』, 해안.
- 김창경, 2003, 『신라시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 장일규, 2008,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 전기웅, 1996, 『나말여초의 정치사회와 문인지식층』, 해안.
- 전기웅, 2010,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해안.
- 조범환, 2000,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 조범환, 200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푸른역사.

## 제2장

# 박씨 왕실의 등장

1. 박씨 왕의 실체
2. 박씨 신덕왕의 즉위
3. 박씨 왕대의 정치 상황

## 1. 박씨 왕의 실체

### 박씨 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

신라 말 박씨 왕들의 등장은 신라하대 정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7대 나물왕 이후 왕위는 줄곧 김씨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는데, 신라 말에 이르러 갑자기 박씨성을 가진 임금이 나타나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 골품제의 원리에 입각한 왕위계승의 원리를 존중하는 입장에 따른다면 신라 말 박씨 왕의 존재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말 갑작스런 박씨 왕의 등장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일찍이 신라 하대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박씨 왕실은 그 존재 자체가 의심받기도 하여 논란이 있었다.

신라 말에 갑자기 등장한 박씨 왕의 존재에 대하여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인 연구자들이었다. 대체로 그들은 박씨 왕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925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박씨로 왕위에 오른 신덕·경명·경에 3대의 재위 15년간 그들의 계통을 상고 박씨 왕계와 연결시킨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즉 상고시대의 박씨 왕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고, 신라 말에 등장한 박씨 왕이 상고의 세계를 조작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결국 신라 말 박씨 왕의 존재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194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박성<sup>林姓</sup> 3왕이 재위시 가<sup>家</sup>격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그 세계를 상고에 연장하여 삼성교립<sup>三姓交立</sup>의 설화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덕왕이 명백히 성을 바꾼 왕이었다고 하였다. 원래는 김씨였으나 어떤 이유로 박씨로 성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1954년 발표된 논문에서도 『삼국유사』에 근거하여 신덕왕이 박씨를 칭한 것은 외가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본래의 성은 김씨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196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제39대 소성왕<sup>昭聖王</sup> 이후 왕비·왕모의 성을 당에서 책봉 받았기 때문에 당의 동성불혼<sup>同姓不婚</sup>의 제도를 받아들였던 신라왕조는 수시로 왕비·왕모의 성을 조작했으며, 그 중에서

박씨를 칭한 것이 비교적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덕왕의 자매가 효공왕의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신덕왕도 박씨를 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 후삼국의 항쟁시대를 맞이하여 하나의 새로운 돌과구를 노렸던 것이 개성改姓의 이유라 하였다. 결국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의 공통점은 박씨 왕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인 연구자의 연구를 이어 받은 몇몇 한국인 연구자들은 신라 말 박씨 왕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1990년 발표된 논문을 보면 신덕왕 박경휘의 성씨가 중국측의 사서에서 김씨라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들어 그의 친가나 외가가 모두 김씨였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리고 김씨 왕족만이 진골왕족이며 이들은 족내혼을 하였기 때문에 박씨 왕비나 하대 박씨 왕은 김씨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씨 왕조는 김씨 왕조와 하등 구별되지 않았고 역성혁명이나 찬탈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즉위와 계승이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곧 이는 신라 말 박씨 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2008년에 신라 말 박씨 왕과 관련된 논문을 보면 수백년 동안 지속되던 김씨 왕조가 아무런 투쟁이나 갈등 없이 박씨에게로 넘어간 것은 동서양 왕조시대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박씨 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비록 박씨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라 하대 박씨세력의 존재양태를 살펴보면 중견 관료와 지방의 소호족 정도여서 신라 왕실을 차지할 정도의 세력은 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신덕왕의 가계를 들여다보면 그의 실제 성은 박씨가 아니라 김씨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신덕왕이 즉위한 다음 정치 쇄신이나 정국 혁신을 위하여 성을 김씨에서 박씨로 바꾸었을 개연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대인들도 박씨 왕실을 김씨 왕실과 다른 역성왕조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에 이르러 왕조개창의 명분과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김씨에서 박씨로 변조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내놓았다.

### 박씨 왕의 존재를 긍정하는 견해

이상에서 신라 말 박씨 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박씨 왕의 실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연구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1975년에 박씨 왕과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에서 “신덕왕의 성이 박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반증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며 김씨에서 박씨로 성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인들이 성을 바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필두로 하여 70~80년대 국내에서 신라 하대의 정치사의 전개 과정을 다루면서 대체로 박씨 왕의 존재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덕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신덕왕이 헌강왕의 여서로서 선계적選系的 계승을 하게 된 것으로 보거나, 신덕왕이 효공왕의 누이를 비로 맞이하였으므로 효공왕과 신덕왕은 서로 누이바꿈을 한 것이고 이는 결국 신덕왕이 헌강왕의 여서로서보다 효공왕의 처남 겸 매부로서 즉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신덕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효공왕이 아들이 없고 헌강왕의 여서였으므로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이후 연구가 더욱 진척되면서 신덕왕의 왕위계승이 가능하였던 것은 첫째로 그의 부인이 49대 헌강왕의 딸이라는 점과, 둘째 효공왕에게 아들이 없었던 점, 셋째로 국민들이 추대하여 왕이 되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리고 그는 부연 설명을 통하여 경문왕계의 김씨 왕들은 효공왕을 마지막으로 대가 끊기게 되었고 자연 그들 집단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이었던 헌강왕의 딸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남편이 되는 신덕왕을 왕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원성왕계 김씨족들은 수차례에 걸친 왕위계승전을 거치면서 상대세력을 계속 제거하여 나갔기에 신라말에 이르게 되면 그 세력집단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에 비해 국초의 신라 왕족이었던 박씨족 중에는 신라하대까지 지배세력으로 남아 진골 신분을 가진 집단이 있었고 이들 집단의 실력은 분열된 김씨족 못지 않은 것이었기에 그들 중에서 왕을 배출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신라 말 박씨 왕의 등장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역사학 이론이나 사회학적 이론 적용에서 벗어나 하대 정치 사회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짚어나가는 과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1년에 ‘신라말 박씨 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박씨 신덕왕은 당시의 정치적 실권자들과 결합하여 김효종을 누르고 효공왕을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덕왕과 그를 이은 경명왕은 박씨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고려 왕건과 수호동맹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신라 왕실의 권위를 대내외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

다. 경명왕을 이어 즉위한 경애왕은 고려와의 수호동맹에 주력하였으나 이러한 외교 정책이 결국은 김부 세력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마침내 견훤과 결탁한 김부 세력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와 유사한 글이 또 발표되었는데, 당시 왕족들은 효공왕의 정치에 불신을 가져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덕왕을 즉위시켰다고 하였다. 또 신덕왕 경위는 진성왕 이후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예겸의 의자가 되어 헌강왕녀와 혼인하고 예겸 세력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신덕왕의 왕권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으로 왕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씨 왕실의 표방은 이전의 왕실과 차별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기왕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일본인 연구자들은 박씨 왕의 존재를 부인하였고 그것은 결국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의 부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면에 대다수 한국인 연구자들의 경우 박씨 왕의 존재를 인정된 상태에서 여러 각도에서 신덕왕의 즉위와 더불어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된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2. 박씨 신덕왕의 즉위

### 신덕왕의 즉위 배경

신라 말 첫 박씨 왕인 신덕왕의 즉위는 어떠한 정치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을까. 신덕왕 바로 전의 왕인 효공왕(52대)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그것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덕왕의 성은 박씨이고 이름은 경휘(景暉)라고 하였다. 그리고 효공왕(孝恭王)이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국민들에게 추대되어 즉위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신덕왕 박경휘는 효공왕이 후사 없이 돌아가자 국민(國人)들의 추대에 의하여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당장에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전왕인 효공왕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왕

이 비천한 첩에게 빠져서 나라의 정치를 돌보지 않자 대신 은영(殷影)이 간언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으므로, 은영이 그 첩을 잡아 죽였다고 한다. 그리고 912년(신덕왕 원년)에 왕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왕이 죽자 시호를 효공이라 하고 사자사(師子寺) 북쪽에 장사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효공왕의 죽음에는 어떤 내막이 깔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911년(효공왕 15)에 일어난 은영의 천첩살해사건과 다음 해 효공왕의 갑작스런 죽음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효공왕의 죽음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효공왕의 뒤를 이은 신덕왕의 왕위계승은 특수한 상황이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효공왕은 헌강왕의 서자(庶子)로서 진성왕의 양위(讓位)를 받아 왕위를 계승하였다. 서자 출신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신라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국왕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한 것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약 15세 무렵에 진성왕을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16년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그의 치세는 진성왕대부터 사망에서 세력을 떨쳤던 호족 세력들이 궁예(弓裔)와 견훤(甄萱)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후삼국(後三國)의 정립을 가져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900년(효공왕 4)에 궁예는 충주, 청주, 괴산 지방을 장악하였고, 906년(효공왕 10) 무렵에는 상주 일대에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왕 907년(효공왕 11)에는 견훤의 세력이 더욱 성장하여 선산 이남의 10여 성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신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또 905년(효공왕 9) 이후 천재지변과 기상의 이변이 거의 해마다 발생하였다. 905년(효공왕 9) 2월에는 별이 비오듯이 떨어졌고, 4월에는 서리가 내렸으며, 906년(효공왕 10) 4월부터 5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고, 907년(효공왕 11)에도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908년(효공왕 12) 2월에는 동쪽에 혜성이 나타나고, 3월에는 서리가, 4월에는 우박이 내렸다. 911년(효공왕 15) 1월에도 일식이 나타나는 등 해마다 기후 이변이 잇따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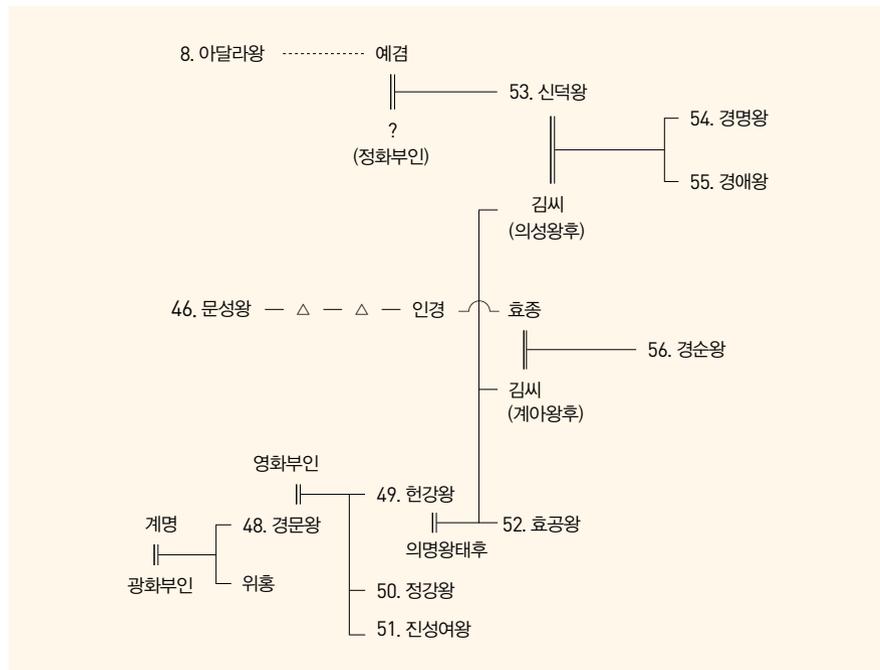
국내외의 사정이 이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공왕이 비천한 첩을 가까이 하고 정치를 그르치고 있었으므로 왕실은 분열의 상태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신

은영이 효공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자 친척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에 왕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래도 대신이 함부로 왕이 총애하는 친척을 살해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왕권이 강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또 대신 은영이 왕이 총애하는 친척을 마음대로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서도 왕권이 바닥에 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효공왕 사후 박경휘가 어떻게 왕위를 계승해 신덕왕이 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표 1>은 신라 48대 경문왕 이후 어떻게 왕위계승이 이루어졌는지 알려주고 있다.

아래의 왕위계승도에 나타나 있듯이, 박경휘는 49대 헌강왕의 사위이면서 효공왕과는 처남·매부 사이였다. 그는 김씨 왕실과 밀접한 혈연 관계에 있었음을 알

표 1. 신라시대 경문왕 이후 왕위계승표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래에는 신덕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로 김씨 왕실의 혈연적 측면, 즉 헌강왕의 여사(女孀)였다는 점만 강조하였다. 그러나 신덕왕과 똑같은 조건을 갖춘 효종(孝宗)의 존재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의 왕위계승표에서 보듯이 효종은 46대 문성왕의 후손이었다.(註1) 따라서 그는 김씨임에 틀림이 없다. 또 그는 헌강왕의 사위이며 효공왕과는 처남·매부 사이였다. 결국 박경휘와 김효종은 헌강왕의 여사이면서 효공왕과는 처남·매부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두 사람의 사이는 동서간이다. 그러므로 김씨 왕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김효종은 박경휘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같은 김씨라는 친연성마저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김효종은 적어도 문성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박경휘보다는 왕실과 혈연적인 측면에서 그 위치가 앞서 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그는 당시 인경 서발한의 아들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우세한 위치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박경휘가 왕실과 혈연적으로 가까웠다고 해서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혈연 이외의 문제, 즉 정치적 경력이라든가 군사적·경제적 배경 등을 통해 왕위계승의 실제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박경휘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이유를 검토하기 전에 효종이 왜 왕위계승에서 밀려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면 신덕왕의 왕위계승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효종의 활동과 관련하여 재미난 기사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효종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효종이 화랑으로 활동할 당시 왕경의 한기부에 평민의 신분을 가진 연권의 딸이 있었는데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나이가 32살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눈먼 노모를 봉양하였다. 봉양할 것이 없으면 때로는 품팔이도 하고 또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다가 봉양하였다. 그러한 날이 오래되어 고달픔을 이기지 못해 지은은 부자집에 몸을 팔아 노비가 되기로 하고 쌀 10여 섬을 마련하였다. 온 종일 그 주인 집에 가서 일을 해 주고 저녁에는 밥을 지어 가지고 와서 봉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안 노모가 “나 때문에 너가 남의 집 노비가 되었구나.” 하고 크게 우니

딸도 울어 그 슬픔이 길 가는 사람을 감동시켰다. 효종왕이 놀러 나갔다가 지은과 그의 어머니가 끌어 안고 우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청하여 집의 곡식 100섬과 옷가지를 실어다 주었다. 또 종으로 산 주인에게 보상하고 양인으로 만들어 주니 그의 낭도 수천 명이 각각 곡식 한 섬씩을 내어 도와주었다. 진성왕眞聖王이 말하기를 “그는 비록 어린 나이라고는 하지만 문득 인격이 완성된 어른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곧 자기의 형 헌강왕憲康王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

또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는 『삼국사기』의 내용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효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즉 효종왕이 남산의 포석정에서 놀 때 문객들이 매우 급하게 달려왔는데, 유독 두 사람만이 늦었다. 효종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말하기를, “분황사의 동쪽 마을에 나이가 스무 살 전후인 여자가 눈먼 어머니를 껴안고 서로 부르며 울고 있어서 같은 마을 사람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이 여자의 집은 가난하여 걸식하며 어머니를 봉양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금년은 흉년이 들어 문전에서 걸식하기도 어려워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곡식 30섬을 받아 부엌 집에 맡겨 놓고 일을 하였습니다. 해가 지면 쌀을 싸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지어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자고 새벽이면 부엌집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지 며칠만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전일에 거친 음식은 마음이 편안하더니 요사이 좋은 음식은 가슴을 찌르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딸이 사실대로 말하였더니 어머니가 통곡하고 딸은 자기가 단지 입과 배를 봉양할 줄만 알고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른 것을 한탄하여 서로 붙잡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느라고 늦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효종왕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곡식 1천 말을 보냈고, 효종왕의 부모도 의복 1습을 보냈으며, 효종왕의 많은 무리들도 조 1천 섬을 거두어 보냈다.

효종은 진성왕대 화랑으로 활동하면서 낭도 일천여 명을 이끌었다고 한다. 이는 그의 군사적 기반이 대단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화랑도의 경우 진흥왕대 처음 설치할 때와는 달리 신라 하대에 이르면 사병私兵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왕위쟁탈전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왕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도는 개인의 군사적 실력을 뒷받침하는 무리가 되었다. 어쨌든

그는 효녀 지은을 돕는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진성왕의 총애를 받고 헌강왕의 딸과 혼인할 수 있었다. 또 효종의 아버지는 당시 제3재상으로 이름은 인경仁慶이었다. 그러므로 그 정치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으리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김효종은 박경휘보다 왕위계승상의 서열에서 앞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신덕왕의 지지세력

그렇지만 신덕왕 박경휘는 효종을 물리치고 임금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인國人的 도움으로 가능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국인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다면 신덕왕의 왕위계승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인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박경휘가 임금이 된 다음 취한 조치를 통해 국인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다. 우선 박경휘는 즉위하자 계강繼康을 상대등上大等으로 임명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대등은 진골귀족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계강이 상대등이 되었다는 것은 신덕왕 즉위에 큰 공을 세운 대가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짐작이 가능한 것은 계강이 898년(효공왕 2)에 시중侍中이 되어 활동하다가 902년(효공왕 6)에 효종이 시중이 되자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 시중은 원래 상대등보다는 정치적 지위가 아래 있지만 신라 하대에 이르게 되면 상대등에 버금가는 현실적 권력을 가졌다. 따라서 계강이 효공왕대 시중으로 임명될 수 있었음을 보아 나름대로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중직을 통해서 그는 세력을 형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효종이 효공왕의 신임을 얻어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계강은 박경휘와 더불어 세력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902년(효공왕 6) 시중에서 물러났는데, 퇴임 이유를 천재지변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효종의 정치적 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효공왕이 그의 매부인 김효종을 시중에 임명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계강을 시중직에서 면직시켰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강은 효공왕과 효종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계강이 신덕왕대 상대등에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효공왕이 돌아가자 박경휘는 김효종과 실력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효공왕대에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졌던 세력을 포섭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박경휘는 왕위를 계승하는 데 계강 등의 정치적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신덕왕이 왕위를 계승한 직후 그를 상대등에 임명한 사실은 당시 왕위계승 과정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예겸(義兼)으로 대표되는 세력을 주목할 수 있다. 예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록이 주목된다. 우선 『삼국사기』에서는 박경휘의 성이 박씨이고 휘는 경휘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달라왕(阿達羅王)의 먼 자손으로 아버지는 예겸(또는 銳謙이라고도 하였다)인데, 정강대왕(定康大王)을 섬겨 대야찬이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정화부인(貞和夫人)이고, 왕비는 김씨로 현강대왕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삼국유사』에 보이는 기록은 그와 차이가 난다. 박경휘의 아버지는 문원(文元) 이간이었는데 돌아간 후에 흥림대왕(興廉大王)으로 추봉되었고, 할아버지는 문관(文官) 해간(海干)이며, 의부(義父)는 예겸(禮謙) 각간이니 선성대왕(宣成大王)으로 추봉되었다. 어머니는 정화부인으로 어머니의 아버지인 순홍(順弘) 각간을 성호대왕(成虎大王)으로 추시하였다. 왕비는 자성왕후(資成王后)로 또는 의성(懿成)·효자(孝資)라고도 한다. 임신년(912)에 즉위하여 5년간 다스렸다. 화장하여 뼈는 잠현(咸峴) 남쪽에 안장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차이 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전자를 보완할 수 있게 해 준다. 우선 신덕왕은 박씨로 아달라왕의 먼 후손으로 되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지만 적어도 아달라왕의 후손이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신덕왕은 자신의 조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그것이 본인에게까지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기록에는 아달라왕은 후손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달라왕 이후에는 박씨가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박씨에 대한 기록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달라왕의 후손이라고 한 것을 보면 신덕왕은 그의 조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삼국유사』에서 그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문관이고 관등이 해

간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기록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삼국사기』에서는 예겸을 친부라 한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의부라 하였다. 이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좀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만 따른다면 신덕왕의 아버지는 이름이 예겸이고 어머니는 정화부인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 박경휘가 태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그의 집안을 서술하고 있다. 즉 『삼국사기』의 기록과 달리 친부가 있고 또한 의부가 있는 것이다. 후자를 합부로 버릴 상황이 아니므로 의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의부는 문자 그대로 의붓아버지이다. 예겸이 박경휘의 의붓아버지라고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박경휘의 어머니가 재가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의 친아버지 문원이 사망하자 어머니 정화부인이 예겸과 다시 혼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삼국유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였지만, 『삼국사기』에서는 박경휘와 관련된 사료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친부로 기록하였던 것 같다.

다음으로는 박경휘와 예겸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록 서로 피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의부와 의자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 의자와 의부 관계가 유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두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성은 다르지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에서 굳이 이러한 사실을 밝힌 것은 신덕왕의 가계가 복잡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눈여겨 볼 사실은 신덕왕의 외조부인 순홍을 성호대왕으로 추존하였다고 하는 사실이다. 외조부까지 대왕으로 추봉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무래도 그가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 외가 쪽에서 크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박경휘가 현강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겸이 시중이었던 기간 동안이거나 늦어도 효공왕을 사위로 삼고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았을 때가

아닐까 한다. 예겸은 본인의 딸을 효공왕에게 시집보냈으므로 그의 장인이 되었다. 사실 그는 현강왕이 즉위하자 시중이 되어 상대등 위홍과 함께 현강왕 전반기의 국정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880년(현강왕 6)에 시중에서 물러났으므로 6년 남짓 재임했다. 그가 퇴임한 이유는 천재지변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879년(현강왕 5)에 일길찬 신흥의 모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상대등 위홍 세력과 의 알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비록 시중에서는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지위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899년(효공왕 3) 봄 3월에 그의 딸을 납비했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물러나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겸은 현강왕 이후 정강왕이 등장하고 또 진성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고 짐작된다. 그가 강왕대 시중에서 물러난 이유가 위홍과의 알력 때문이라고 한다면 888년(진성왕 2) 위홍이 죽은 이후에는 정치적 복귀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진성왕을 이어 효공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도 그의 영향력 덕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그의 딸을 효공왕에게 납비한 것도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그는 효공왕의 장인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적 지위를 가진 예겸을 박경휘가 의부로 삼은 것은 어쩌면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박경휘는 현강왕의 사위가 되면서 신라 왕실 내에서의 그의 위치를 부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경휘는 당시 예겸이 가진 정치적인 세력을 발판으로 다른 귀족들을 포섭하여 효공왕 사후에 신덕왕으로서 추대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까닭에 박경휘는 왕위를 계승하자 의부인 예겸을 선성대왕으로 추봉한 것으로 보여진다. 친부도 아닌 의부를 대왕으로 추봉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박경휘가 왕에 오르는 데 있어 예겸이 정치적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박경휘가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모계의 세력도 중요한 지지 세력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덕왕 박경휘는 효공왕 사후 왕위계승을 두고 김효종의 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함으로써 왕위에 올랐다고 믿어진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은 곧 계강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과 의부인 예겸의 정치적 세력 그리고 모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 등 박경휘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들에 동조하였던 귀족들을 의미한 것으로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이 세력들의 추대에 의하여 박경휘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박경휘 자체의 세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원성왕계 김씨족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왕위 계승전으로 인해 신라 말에 이르게 되면 그 세력 집단이 크게 축소된 반면에 박씨족 중에는 신라 하대까지 지배세력으로 남아 분열된 김씨족 못지 않은 세력을 가진 집단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박경휘의 정치적 경력이나 군사적·경제적 배경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는 917년(신덕왕 6) 되던 해 7월에 사망하였다. 그런 다음 그의 아들이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승하였다. 그 동안 김씨들만이 차지하던 왕위를 박씨인 그가 차지하였고 이후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었다.

### 3. 박씨 왕대의 정치 상황

#### 신덕왕대의 정치적 상황

신덕왕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죽은 아버지를 선성대왕으로 추봉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정화태후로, 왕비를 의성왕후로, 아들 승영(昇英)을 왕태자로 삼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박씨 왕권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들 승영을 태자로 삼아 그의 사후 왕위계승에 대비한 것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당시 진골귀족들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서 앞으로 김씨가 아닌 박씨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또 그러한 조치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실 그는 국민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그에 불만을 가진 세력도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 그를 추대한 귀족들의 존재는 신덕왕의 즉위 초 일정 기간 동안 왕권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약적인 측

면도 드러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신덕왕의 왕위계승이 가지는 일정한 한계라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그의 왕위계승에 불만을 가진 세력과 비록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잠재적 불만 세력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계강 등 지지세력은 신덕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왕권을 제약하는 정치세력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당시 상대등은 귀족세력의 대표자였으므로 왕권 강화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신덕왕은 김씨가 아닌 박씨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기반이 강하지는 못하였음이 틀림없었다. 적어도 김씨 성을 가진 진골귀족들은 그를 달가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효종을 따르던 무리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씨 신덕왕에게 위협적 세력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러하자 신덕왕은 자신의 가계를 신라 상대 8대왕인 아달라왕과 연결시킴으로써 왕통의 정통성을 나타내었다. 기록에 따르면 아달라왕에게는 후손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신덕왕이 아달라왕과 계보를 연결시킨 것으로 볼 때 그의 가계가 박씨 가운데서도 상대 박씨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그는 아버지를 대왕으로 추봉하고, 심지어 의부인 예겸과 외조부까지 대왕으로 추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그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덕왕의 조치는 신라 하대를 실질적으로 열었던 제 38대 원성왕이 왕위를 계승하고서 자신의 가계를 나물왕계와 연결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성왕은 임금이 된 이후 왕의 고조부와 증조부 그리고 할아버지 및 아버지를 전부 대왕으로 추봉하였다. 또 시조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 할아버지 흥평대왕, 아버지 명덕대왕을 5묘로 삼았다. 이러한 조치는 왕위의 정통성을 드러내려는 조치였다. 신덕왕도 박씨 왕계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박씨 왕권의 기반은 점차 구축되어 갔다고 생각된다. 아달라왕의 원손이라는 표현은 박씨 왕실 가족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덕왕은 6년간 재위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신덕왕의 재위 기간 동안 특징적인 현상은 천재지변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2년부터 4년까지

3년 동안 매해 봄마다 서리가 내렸고, 4년에는 해일이, 2년과 5년에는 지진이, 6년에는 금성이 달을 침범하는 이변을 비롯해 여러 번의 재난이 일어났다. 이는 자연재해가 매우 심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신덕왕대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후변화는 신덕왕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당시에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덕왕 즉위 4년째 되던 해 올해에 영묘사 내 행랑에 까치집이 34개, 까마귀 집이 40개가 있었다는 전승과 6월에 참포의 물이 바닷물결과 3일 동안 서로 싸웠다고 하는 전승이 주목된다. 이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신덕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그의 반대 세력과의 대립에서 생겨난 상징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영묘사는 635년(선덕여왕 4) 성신<sup>聖神</sup>을 제사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리고 중대에는 왕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사원 가운데 하나였고 또한 성전사원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신성한 곳에 까마귀와 까치의 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정치 세력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까마귀와 까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대표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박씨 세력과 그와 경쟁하였던 귀족세력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까치와 까마귀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새이므로 34개와 40개의 집이 같은 곳에 한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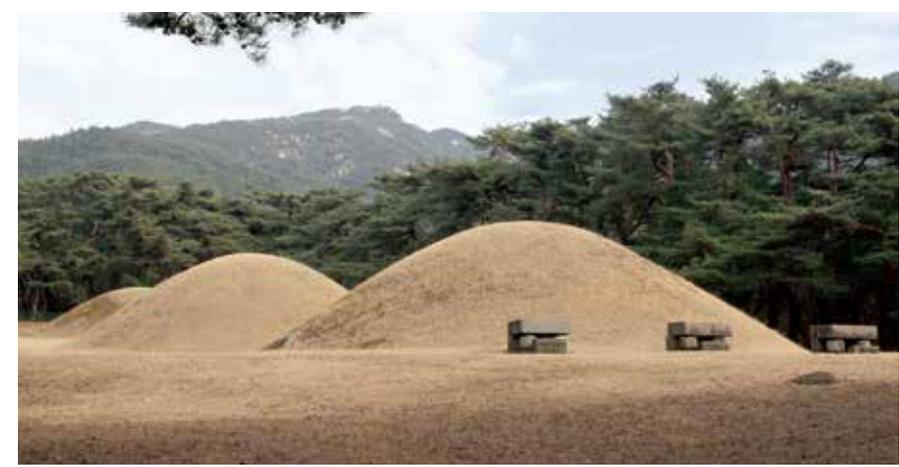


그림 1. 경주 삼릉계 박씨 왕릉

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세력이 서로 비슷하였음을 암시한다. 즉 두 세력이 서로 비슷한 크기로 힘을 겨루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참포의 물과 바닷물이 3일 동안 서로 싸웠다고 하는 것도 각 세력의 대립이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음을 암시한다. 어느 쪽이 박씨 세력을 대표하는지 알 수 없으나 3일 만에 그쳤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신덕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짐작된다.

신덕왕은 6년간 재위하는 동안 궁예와 견훤은 그들이 자리 잡은 곳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왕이라 칭하였다. 궁예는 911년(효공왕 15)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 다음 미륵불을 자칭하였고, 914년(신덕왕 3)에는 연호 수덕만세를 정개로 고쳤다. 916년(신덕왕 5) 견훤은 대야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당시 대야성의 성주는 김억렴(金億廉)이었다. 그는 효종의 형이며, 경순왕의 백부로서 훗날 고려 태조의 비부(妃父)가 되었던 인물이다. 대야성을 방어진 신라군 중에는 김억렴 일가의 사적인 군사력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왕경의 군사력이 동원된 전투였다. 견훤이 성을 함락하지 못한 것을 보아 신라의 승리였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대야성전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컸다. 신라가 920년(경명왕 4)에 이르러 대야성을 상실할 때까지 견훤의 신라 진출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의 승리는 왕경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계속해서 견훤의 침공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음을 보여준 전투였다. 어쨌든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효종의 아들 김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신덕왕은 견훤이나 궁예의 세력을 반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가 혹은 그들의 힘을 빌린다는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신덕왕은 당시 유명한 선승(禪僧)들을 초빙하였는데, 당시 김해부에 머물던 낭공 선사 행적(行寂)(832~916)을 왕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914년(신덕왕 4)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에 왕은 경주 남산에 있던 실제사(實際寺)에 머물게 하였다. 이 절은 신덕왕이 임금으로 즉위하기 전에 거처하였던 집이었다. 즉위한 뒤 회사하여 그곳을 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 곳에 행적 선사를 머물게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존중하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그보다 앞선 왕들의 경우에 그가 살던 집을 회사하여 절로 삼고 그곳을 선승에게 머물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신덕왕이 당시 교종 승려보다는 선승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행적선사는 굴산문 출신으로 범일 선사의 제자이다.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신라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굴산문에 잠시 머물렀으나 906년(효공왕 10)에 서울로 와서 왕을 만난 뒤 국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907년(효공왕 11)에는 서울을 떠나 김해부로 가서 머물고 있었다. 신덕왕이 행적선사를 다시 서울로 불러 올린 이유는 정신적 가르침도 필요하였지만 그를 통하여 김해부의 호족 세력과 유기적 관계를 원하였던 데 있다고 하겠다. 행적선사가 국사로 활동하면서 김해부에 갔다가 다시 왕실에 오게 된 것은 신덕왕의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당시 신라 지역의 여러 호족 세력들이 신라 왕실에 대하여 존왕(尊王)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때로는 반신라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에 신덕왕은 경주와 가까운 김해부의 호족 세력과 가깝게 지낸 행적선사를 불렀고 그를 통해 이들을 친신라적 세력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김해부의 호족 세력은 선승들을 매우 높이 받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그의 조치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당시 유명한 선사들이 왕실에 대하여 탄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만큼 그를 통해 선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들의 동향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왕권을 신장하고 호족 세력에 대처하던 신덕왕은 6년 재위 만에 돌아갔다. 그의 시호를 신덕이라 하고 죽성(竹城)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유사』 왕력편에 따르면 신덕왕을 화장하여 잠현(蟻峴)의 남쪽에 묻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배동 73-1번에 있는 배리(拜里) 3릉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원형봉토분이 신덕왕릉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고분은 산록에 위치하며 내부구조가 천정이 높은 횡혈식석실분인 점, 그리고 분구의 규모와 호석의 축적 상태가 통일 전후 시기의 형식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덕왕릉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 경명왕의 왕권 강화와 대외 정책

선왕인 신덕왕이 사망하자 경명왕(54대)이 그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다. 그는 신덕왕이 즉위하자 곧바로 태자에 책봉된 인물이다. 그의 왕위계승은 매우 순조롭게 이

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신덕왕이 즉위하자 곧바로 그를 태자로 임명하였던 만큼 왕위계승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경명왕에게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점은 혼인 관계이다. 『삼국사기』에서는 경명왕의 혼인이나 그 왕비에 대해 아무런 사실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왕비가 장사택(長沙宅)으로 대존(大尊) 각간, 추봉된 성희대왕(聖僖大王)의 자식이며, 대존은 곧 수증 이간의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큰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사택은 이른바 35금입택 중의 하나이다. 금입택(金入宅)은 대체로 신라 중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신라 말기에 이르러 전성 시대를 구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금입택들은 경주의 지형으로 미루어 월성(月城) 맞은편 언덕과 남천(南川)의 양쪽 언덕, 그리고 낭산 중턱 및 산록, 북천 북쪽 언덕, 서천 맞은편 언덕 등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지대에 자리 잡았다고 추정되고 있다. 또 금입택주는 경제력이 대단해 불교 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9세기 말경의 금석문 자료인 장흥 보림사(寶林寺)의 「보조선사창성탑비」에는, 860년(현안왕 4)경에 금입택인 ‘수망택’과 ‘이남택’의 두 택주가 금 160푼(分)과 조곡(租穀) 2,000곡(斛)을 보림사에 기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금입택은 통일신라시대 진골귀족들의 막대한 재력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반영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미루어 볼 때 장사택주는 극히 유력한 진골귀족이었다. 경명왕은 유력한 진골 가문의 딸과 혼인한 셈이었다. 그런데 경명왕비의 조부로 기록되어 있는 수증(水宗)은 현안왕(47대)과 가까운 왕족이었다. 김수증은 858년(현안왕 2)에 장흥 보림사에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주조하는 데 많은 시주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김수증의 아들인 대존도 역시 대단한 경제력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실과 가까운 진골귀족 출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경명왕은 장사택 출신 딸과의 혼인을 통하여 경제적 정치적 후원을 입었을 가능성이 컸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경명왕이 신덕왕 생존시에 혼인을 하였다면, 그 혼인은 김씨 세력의 포섭을 목적으로 한 정략 결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결혼은 신덕왕과 경명왕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경명왕은 왕위를 계승하자 박씨 왕권의 신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혁신적 조치를 취하였다. 즉 그는 동모제를 상대등에 임명하였다. 경명왕은 박씨 왕권에 대

한 도전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 세력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이에 동모제를 상대등에 임명함으로써 박씨 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림(裕廉)을 시중으로 삼았음이 주목된다. 유림은 경순왕의 당제로 효종의 조카가 되는 인물이다. 시중을 효종계의 인물에게 할애한 까닭은 무엇일까? 당시 효종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효종을 중심으로 결집되었던 세력은 그의 아들인 김부(金傅)(후일 경순왕)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들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김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경명왕은 유림에게 시중직을 할애함으로써 김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일부를 포섭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918년(경명왕 2)에는 새로운 정치적 문제가 도래했다. 즉 일길찬(逸善) 현승(玄昇)이 반란을 꾀하였으나 복주된 것이다. 현승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기록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박씨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도 박씨 왕권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이 반란 사건은 현승이 주모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김부 일파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즉 유림이 시중에 있으면서 박씨 왕권의 불만 세력을 규합하고 현승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반란 사건 다음 해인 919년(경명왕 3) 상대등과 시중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등에는 김성(金成)이, 시중에는 언옹(彦翁)이 각각 임명되었다. 상대등과 시중의 전원 교체가 가져오는 의미는 현승의 모반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림을 시중에서 해임함으로써 김부 일파의 정치적 세력을 약화시키고 경명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취한 조치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새로 임명된 상대등인 김성과 시중인 언옹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의 인물이었으며 경명왕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궁금하다. 우선 김성의 정치적 경력을 살펴보면, 그는 906년(효공왕 10)에 파진찬으로 상대등에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효공왕 사후 신덕왕이 비상한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하자 정계에서 물러난 것

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김성이 박씨 왕권의 불만 세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덕왕대 정치적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박씨 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물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경명왕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박씨 왕권의 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므로 상대등에는 그의 반대 세력을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경명왕은 현승이 반란을 일으키자 김성의 세력을 포섭하여 그를 제압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반란이 성공적으로 진압되자 김성을 상대등에 임명한 것은 아닐까 한다. 시중에 임명된 사찬 언응도 현승의 반란 진압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찬의 관등을 가진 자가 시중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도 대체로 경명왕권에 협조한 인물이라 믿어진다.

한편 경명왕은 당시 선승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두었다. 918년(경명왕 2)에 봉림산문을 개창한 진경선사 심희(855~923)를 초청하였다. 그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12월 4일에 과인이 면류관과 옷을 단정하여 다소나마 생각을 맑게 하고 궁궐에 맞아드려 경건하게 궁전에 모시고, 스승에 대한 예의를 특별히 나타내며 대사의 덕을 숭양하는 의례를 공손히 하였다. 대사는 범복을 높이 떨치며 곧바로 승탑繩榻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법과 승려들을 귀의하고 … 하는 방도를 폈다. 과인은 즐거이 자비로운 얼굴을 우러러 보고 직접 오묘한 뜻을 들으니 감격하여 거듭 자리를 피해 앉았으며 기뻐서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이날 대사를 따라 궁전에 오른 사람은 80인이었다. 그 중 수제자인 경질선사景質禪師가 우러러 종을 쳐서 올리니 가만히 거울같은 지혜를 품었다. 대사가 … 을 치니 소리가 조용하여 새벽해가 못 산을 비추고 맑은 바람이 온갖 소리를 조화시키는 듯 하였다. 조용히 법을 설함에 두루 공췌와 유유의 치우친 견해를 벗어났고, 강개하여 선禪을 말할 때는 실로 속세의 법을 벗어나 그 끝을 알 수 없으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겠는가. 다음날 드디어 백관에게 명하여 (선사가) 머물고

있는 곳에 나아가 함께 줄을 지어 칭송하게 하고, 이어서 고관을 보내어 존호를 올려 범옹대사法膺大師라 하였다. 이는 모두가 사표師表로 삼아 덕의 높음을 항상 우르리고 큰 이름을 공손히 드러내어 현묘한 가르침을 빛낸 것이다. (「봉림사진경대사월능공탑비」)

이와 같이 볼 때 심희는 경명왕을 위하여 국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심희 선사가 신라 왕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당시 후백제에서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심희 선사는 신라 왕실이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왕에게 건의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심희 선사는 신라 왕실 내의 정치적 문제와 관련한 의견도 제시하였던 것 같다. 심희가 경명왕의 부촉을 받고 신라 왕실로 온 해에 모반 사건이 있었고 왕이 그를 물리쳤다. 그러므로 경명왕은 반란을 진압한 이후 정치적 안정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따라서 심희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명왕은 심희 선사를 불러 정치적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 김해 지방에서는 김윤희 등이 일찍부터 독자적으로 당과 무역하면서 독립적인 세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김해 출신인 심희 선사를 통해 호족 세력과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것은 신덕왕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명왕은 심희 선사가 입적하자 그를 위해 직접 비문을 찬술하고 비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가 신라 왕실에 대하여 한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경명왕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초기의 정치적 혼란은 상대등과 시중의 교체를 통해서 일단락되었으며, 왕실 내의 정치적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경명왕은 당시 호족과 연결된 선승들을 불렀고 그들을 통하여 호족 세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이 설정하고자 하였다.

920년(경명왕 4)에 견훤이 군사를 일으켜 보병과 기병을 포함해 1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진례성으로 나아가니 경명왕은 아찬 김율金律을 고려



그림 2. 창원 봉림사 진경선사비

에 파견하여 왕건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왕건은 곧 군사를 내어 그를 구원케 하자 견훤은 그 소식을 듣고 퇴각하였다. 이에 견훤은 왕건과 겹으로는 서로 부드럽게 하는 체하면서도 속으로는 상극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런데 경명왕이 왕건에게 견훤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한 진례성의 구원을 요청했던 사실이 주목된다. 사실 그곳은 이미 호족 김윤희의 독자적인 세력권이었다. 김윤희는 호족과 같은 존재였는데 경명왕이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곳에 대한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김윤희의 동의가 전제되었을 때 가

능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례성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있었거나 최소한 친신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견훤의 진례성 공격에 직면한 경명왕이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은 우선적으로 신라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신라적 성향을 보였던 김윤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왕건의 진례성의 구원은 경명왕과 맺은 동맹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왕건이 견훤의 침략에 직면한 진례성을 구원했다는 것은 경명왕이 요청한 결과였다. 경명왕은 견훤의 침략에 직면한 신라의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왕건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례성이 이때 김윤희의 독자적인 세력권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경명왕이 김윤희에 대한 보호까지 생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경명왕이 재위 4년(920)째 되던 해에 고려에 사신을 파견해 친선관계를 맺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명왕이 반란 세력인 왕건

에게 사신을 보낸 점이다. 그들은 고려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도리어 신라 왕실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하였던 듯하다. 신라와 고려 양국을 군신 관계로 상정한다면, 신라는 임금으로, 고려는 신하의 위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실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고 보인다. 아울러 신라 측에서는 고려를 끌어들이므로써 견훤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였던 것 같다. 나아가 고려를 통하여 후백제의 군사적 위협도 견제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의 지나친 고려 편향 외교정책은 삼국간의 세력 균형을 깨뜨린 셈이었다. 경명왕이 추구한 친고려 반후백제 외교정책은 고려를 이용하여 후백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삼국간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견제와 대립을 하는 가운데 균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신라가 고려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 균형이 깨어졌던 것이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사실상 경명왕의 외교정책상의 실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경명왕의 이러한 친고려 일변도의 외교 정책은 변경 유력세력들의 움직임에 큰 변화를 불러 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고려로 귀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920년(경명왕 4) 강주의 윤옹을 시발로 922년(경명왕 6)에는 하지성의 원봉(元逢), 명주의 순식(順式), 진보성의 홍술(洪述), 923년(경명왕 7)에는 명지성의 성달, 경산부의 양문 등이 차례로 고려로 귀부하였다. 경명왕이 후백제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취한 친고려 정책은 단기적인 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아 신라의 지방세력가들이 고려로 귀부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제 신라는 천 년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울어가는 나라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였던 것이다.

한편 경명왕이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 왕건은 신라 사신 김울에게 “신라 3보는 장육존상과 황룡사구층목탑, 성대(聖臺)라고 하는데, 불상은 있는 줄 알겠으나, 성대는 지금도 있느냐?”고 물었다. 성대는 이른바 진평왕이 떠었다는 ‘천사옥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김울은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고려에서 돌아와 그러한 사실을 아뢰었다. 왕은 군신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역시 알지 못했다. 국왕과 신하들이 신라의 삼보 가운데 하나인 성대에 대

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황룡사에 거주하는 노승의 도움으로 진평왕이 착용하였던 성대가 남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고의 문을 열었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날을 잡은 뒤 제사를 지내고서야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장육존상은 호국불교의 상징이다. 그리고 황룡사구층목탑 또한 국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진평왕대의 성대는 신라 성골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물이다. 삼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상징적 기능을 한 것이었다. 변경의 새로운 호족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나라를 세운 왕건이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는 데 비하여 신라 왕실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이채롭다.

경명왕이 삼보의 존재를 알고 난 이후에 성대를 고려에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라 왕실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와의 우호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신덕왕대와 달리 천재지변과 재난 등이 잦아든 것으로 볼 때 경명왕은 삼보를 매우 중요시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명왕이 즉위한 뒤 거의 매년 황룡사와 사천왕사에서 재이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사천왕사의 흙으로 만든 불상이 쥐고 있던 활시위가 저절로 끊어지고, 벽에 그린 개가 소리를 냈는데 짚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또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울므로 사흘 동안 불경을 강설 풀이하여 이것을 물리쳤더니 한나절이 채 안되어 또 울었다고 한다. 또 황룡사탑 그림자가 금모사지의 집 뜰 안에 한 달이나 거꾸로 서 있었고, 또 같은 해 10월에는 사천왕사 오방신의 활줄이 모두 끊어졌고, 벽화의 개가 뜰로 쫓아 나왔다가 다시 벽화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경명왕대의 정치적 불안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박씨가 왕위를 계승한 데 따른 신라 지배층의 내부 분열과 후삼국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황룡사는 호국 사찰로 매우 중시되었고 사천왕사도 황룡사만큼 중시된 사찰이면서 호국의 상징이었다. 그러한 사찰의 벽화에서 개가 울거나 또는 뛰어나왔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위기가 도래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황룡사구층탑의 그림자가 하급 관리의 집 뜰에 거꾸로 서 있었다고 하는 것도 경명왕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

다. 이에 경명왕은 신덕왕과 달리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동생을 상대등에 임명한 것이라든가 반대 세력을 회유하여 조정의 안정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경명왕의 노력으로 재위 5년째부터는 황룡사와 사천왕사에서 즉위 이후 발생하였던 것과 같은 재이 현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가 삼보에 대해 주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그와 박씨 왕실의 입지를 다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명왕이 천사옥대를 찾은 바로 그 해에 흥륜사에 제석천이 내려와 망가진 흥륜사의 수리를 도왔다는 사실 역시 왕권 강화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흥륜사는 경명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로 그가 흥륜사의 상좌 언람을 통해 심회를 초청하였음은 이를 잘 말해 준다.

한편, 경명왕은 나려동맹을 맺은 이후에는 우호관계에 있었던 후당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 왕은 창부시랑 김락<sup>金樂</sup>과 녹사참군 김유경<sup>金幼卿</sup>을 후당<sup>後唐</sup>에 보내어 조회하고 토산물을 바치니 장종<sup>莊宗</sup>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또 이듬해 조산대부 창부시랑 김익<sup>金益</sup>을 후당에 보내니, 장종이 조의대부 시위위경의 관작을 주었다고 한다.

후당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것도 아니고 무역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는 당시 신라 왕실 내의 정치적 변동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경명왕은 박씨 왕권의 정통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후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신덕왕이 왕위를 계승하고서 사신을 후당에 파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명왕은 그의 치세 말년에 후당에 계속해서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박씨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강주(현재 진주)의 왕봉규도 후당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전하였다. 따라서 신라가 후당에 사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왕봉규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왕봉규는 천주절도사를 칭하였으므로 독자적 지방세력가로 상정할 수 있는데, 신라는 그가 후당 외교에 협력한 바가 큰 것을 인정하여 권지강주사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박씨 왕실의 등장에 대해 불만을 품은 왕경의 일부 귀족들은 불안한 앞날에 대하여 살길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지방에 불사를 하였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였으며 심지어 지방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경명왕은 재위 8년째 되던 해인 924년 8월에 죽었다. 『삼국사기』에서는 황복사 북쪽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 경주 낭산 동북쪽 기슭에 그 절터가 남아 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 의하면, 경명왕을 황복사에서 화장하여 그 뼈를 성등잉산(省等仍山) 서쪽에 뿌렸다고 한다. 경명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왕건은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 경애왕과 박씨 왕계의 몰락

경명왕이 돌아가자 그를 이어 경애왕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경애왕은 신라 말 마지막 박씨 왕으로 후백제의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제 그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으며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경애왕은 형인 경명왕을 이어 924년(경애왕 원년) 9월에 즉위하였다. 경애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가 경명왕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바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는 경명왕이 죽었을 때 왕건이 사신을 보내어 조문한 데에 대한 답례의 의미라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경명왕대 고려와 맺은 수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야 하겠다. 그리고 신라 왕실에서 왕의 교체는 있었지만 고려와의 친선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이후 경애왕은 거의 매년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925년(경애왕 2)에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과 질자 교환을 하자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926년(경애왕 3)에 고려와 후백제 간의 화친관계가 깨어지자, 신라에서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후백제에 대한 공격을 바라기도 하였다. 이 무렵 그 동안 왕건이 신라와 맺었던 동맹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음 해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하자 경애왕은 직접 군대를 보내어 왕건을 돕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즉 고려가 신라를 보호하는 형태였던 기왕의 방어동맹과 달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의 공수동맹을 맺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와 그 주변의 호족들에 대한 영

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견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애왕의 이러한 조치는 그의 죽음과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경애왕은 대외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내적 문제도 관심을 쏟았다. 경애왕은 원년(924)에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베풀어 불경을 풀이하고 선종과 교종의 승려 삼백여 명에게 음식을 베풀고 이것으로 선교를 통솔했다고 한다. 이것은 백좌강설을 통하여 선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종교적 일면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의 강설이라는 사상적 통일을 통하여 정치적인 화해를 모색했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황룡사는 진흥왕대 창건 이후 신라 불교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찰로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 위상에 큰 변함이 없었다. 특히 하대에는 더욱 그 위상이 높았다. 경문왕과 진성왕 그리고 효공왕이 그곳을 다녀갔으며 경애왕도 그곳에서 백좌강회를 베풀었던 것이다. 이는 황룡사를 통하여 민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경명왕이 그러하였듯이 경애왕도 황룡사를 매우 중시하였다.

또 그는 즉위한 다음 달인 10월에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왕이 직접 신궁에 나가 제사를 지낸 것은 조상의 음덕을 통해 박씨 왕실을 계속 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궁은 소지왕대에 처음 설치되었고 지증왕이 신궁에서 처음으로 즉위 의례를 행한 이후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즉위 다음 해나 그 이듬해에 신궁에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 신궁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혁거세왕을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신궁제사는 국가 및 왕실의 최고 제사이자 신왕의 즉위 의례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특정 왕계의 혈연적 계보관념에 의한 직계 조상이 아니라 전 국가적 '시조'왕을 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중대와 하대에도 계속해서 왕들이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신라 하대 경문왕이 신궁에서 제사를 지낸 이후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경애왕이 제사를 지냈다. 매우 주목되는 사실로 그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하였기 때문이다.

경애왕은 신덕왕이나 경명왕이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명한 선승을 초빙하였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정진대사 공양(878~956)에게 편지를 보내어 왕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그에게 보낸 편지는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답비에 잘 드러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대사께서는 일찍이 큰 바다를 건너 멀리 조계에 가서, 마음 속의 깨달음을 전해 받고 턱밑의 밝은 구슬을 찾았으며, 지혜의 햇빛을 계속 비추어 널리 미혹한 무리들의 길을 인도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강물과 같은 넓은 선禪은 날로 넘치고, 산과 같이 높은 법은 높고 높다고 합니다. 계령의 오묘한 바람이 경주의 먼 땅에까지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한 나라가 의지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편지를 받은 공양은 몸을 일으켜 왕정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경명왕은 그를 봉중대사라 봉하였다. 공양 선사는 경애왕의 뜻을 잘 이해하고 왕실의 안정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아무래도 경애왕은 신덕왕이 행적 선사를, 또 경명왕이 심희 선사를 대하였던 것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선사를 통한 대내외적 안정을 기대하였고 그 선사들이 또한 그들의 의도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경애왕도 공양 선사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을 것이다.

2월에는 병부시랑兵部侍郎 장분張芬 등을 후당에 보내 조공하자 후당에서는 장분에게 검교공부상서檢校工部尙書를, 부사副使 병부낭중兵部郎中 박술홍朴術洪에게 겸어사중승兼御史中丞을, 판관判官 장부원외랑倉部員外郎 이충식李忠式에게 겸시어사兼侍御史를 주었다. 후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중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으려 한 것이었다.

경애왕의 이러한 대내외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견훤의 침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더구나 경애왕이 견훤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위가 김효종의 아들인 김부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효종이 신덕왕과의 왕위계승 쟁탈전에서 밀려났던 인물임은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면 이것은 관심을 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우선 경애왕이 견훤에 의해 시해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기왕의 연구에서는 견훤의 입장에서 경애왕의 죽음을 설명하려는 견해가 있다. 즉 고려와 결합하여 견훤 정권에 대항하려는 경애왕을 제거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경애왕이 후삼국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견훤이 경애왕을 제거하고 경순왕을 옹립한 이유까지도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김씨 왕족들의 희

망 내지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자 했다. 이러한 견해는 견훤에 의한 경순왕의 왕위계승을 설명하는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덕왕 등장 이후로 박씨 왕권은 계속 안정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정권의 핵심부에서 밀려난 김부를 중심으로 모였던 세력들은 점점 정치적으로 소외 당하는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김부의 당제였던 유림이 경명왕 때 시중직에서 물러난 것은 김부를 따르던 세력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점차 상실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로 인하여 김부 일파는 박씨 세력을 누르고 왕위를 되찾기 위한 독자적 힘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경애왕 때 박씨 왕권이 김부로 대표되는 세력보다 여전히 강하였음은 다음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경애왕은 927년(경애왕 4) 되던 해 정월에 고려의 왕건이 후백제를 공략하기 위해서 출동하자 군대를 내어 도왔다. 고려군을 돕기 위하여 군대를 출동시켰다는 것은 경애왕이 상당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더구나 이 군사들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도 여전히 경애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애왕의 군사적·경제적 배경을 통하여 볼 때 김부 일파는 박씨 정권을 전복시키기에는 자신들의 힘이 부족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김부 일파는 왕위를 되찾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을까. 다음의 사실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난 번에 재상 김웅림金雄廉 등이 장차 그대를 불러 서울에 들어오게 한 것은 (중략) 산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종묘 사직을 폐허로 만들 것 이므로 제가 먼저 조적祖繼의 채찍을 잡고 홀로 한월韓鐵을 휘둘러 못 신료에게 밝은 해를 두고 서약하며 6부(경주)를 올바른 법도로써 타일렀 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간신들은 도망치고 임금은 변을 당하여 죽었으므로 드디어 경명왕의 외사촌이고 헌강왕의 외손을 받들어 권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여 위태로운 나라를 재생시켜 주었으며, 임금을 잃은 나라에 임금을 갖게 한 것이 이번 걸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삼국사기』 권50 열전 10 견훤)

위의 사실은 견훤이 왕건에게 보내는 국서 중의 일부로 경순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이유를 적고 있다. 그런데 김웅림 등이 왕건을 경주로 불러들이려 노력하였다면 이것은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훤이 먼저 왕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신라왕실 내에서 견훤과 비밀리에 협조한 세력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견훤에 의한 경순왕의 왕위계승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김부 일파는 국상 김웅림 등이 왕건을 신라 왕도에 불러들이려는 것을 미리 알고 견훤에게 비밀리에 이 소식을 전했다고 보인다. 예컨대 왕건이 왕도를 다녀갈 경우 박씨 왕권의 또 하나의 지지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김부 일파 측은 왕위계승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김부 일파는 비밀리에 견훤과 밀약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927년(경애왕 4) 9월에 견훤이 고을부까지 들어와 군사적 시위를 벌인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경애왕도 견훤의 군사적 행동에 위협을 느껴 고려에 구원을 청하였고 고려도 신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대를 파병하였다. 이에 김부 일파는 왕건의 파병을 염려해 견훤의 군대를 먼저 신라의 왕도로 불러들인 것은 아닐까. 그리고 포석정 연회를 결정적 계기로 삼아 경애왕을 제거하고 박씨 왕권을 전복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신라왕은 왕비, 궁녀, 종실들과 함께 포석정에 나가 연회를 차려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은 부인과 함께 달아나서 성 남쪽 별궁에 숨어 있었다. 시종한 신하들과 악공들과 궁녀들은 다 붙들렸다. 견훤은 군사들을 놓아서 약탈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자신은 왕궁에 들어 앉아 측근들로 하여금 왕을 찾아내어 군사들 가운데서 협박해 자살하게 하였으며 자기는 왕비를 강간하고 그 부하들을 시켜서 궁녀들을 간음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라왕의 외종제 김부를 왕으로 세우고 왕의 아우 효렴과 재상 영경 등을 포로로 잡아 자녀들과 각종 장인들과 병기, 보배들을 모조리 취하여 가지고 돌아갔다. (『고려사』 태조 10년 정해년 9월)



그림 3. 경주 포석정



그림 4. 경주 포석정출토 '포석사' 명문 기와

위의 기록을 보면 경애왕은 포석정에서 왕비와 궁녀 그리고 종실 등과 함께 연회를 차려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견훤의 군대가 들이닥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결과 경애왕은 견훤 앞에서 자살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에는 견훤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애왕이 연회에 정신이 빠져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결국 비극적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이러한 이해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연회를 개최한 것은 유희를 즐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국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애왕이 죽던 해인 927년(경애왕 4) 9월에 견훤이 고을부에서 신라의 군사를 공격하였다. 고을부는 현재 경북 영천으로 경주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경애왕은 견훤의 침공으로 위협에 처하게 되자 왕건에게 사신을 보냈다. 왕건이 군대를 이끌고 미처 도착하기 전인 11월에 갑자기 견훤의 군대가 경주에 들이닥친 것이다. 11월의 한겨울 추위에 경애왕이 왕비와 비빈들과 더불어 포석정에서 연회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유상곡수를 즐겼다고 하는데, 이때면 물이 얼어 유상곡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애왕이 유희를 즐긴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애왕은 신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석정에서 호국신에게 국가를 지켜주길 부탁하는 제사를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종의 아들인 김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박씨 왕실에 반감을 가진 김씨 진골귀족들의 목인을 이끌어 내고 고을부에 도착한 견훤에게 연락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처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견훤의 군대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자 경애왕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견훤이 신라를 병합하지 않은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는 이제 후백제의 괴뢰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존재로 전락되었기에 견훤은 신라의 병합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리고 경순왕의 왕위계승이 견훤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발 없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반대파들이 거의 제거되었던 때문일 것이다. 또 그가 왕실과 혈연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박씨 세력과 진골 김씨 세력과의 대립, 갈등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지 이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 사료가 보이지 않는다. 또 경순왕은 전왕인 경애왕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전왕의 시신을 서당西堂에 안치하고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통곡했다고 기록에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순왕은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 왕들과 마찬가지로 친견훤 정책이 아닌 친왕건 정책을 썼다. 즉 그는 즉위하자마자 왕건이 보내온 조문 사절을 받아들였으며 930년(경순왕 4) 고창군古昌郡 전투에서 왕건이 견훤을 격파한 후 승첩을 고해오자 그도 사절을 보내 서로 만나 볼 것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경순왕이 견훤을 끌어들이 경애왕을 살해하였다면 고려가 조문 사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혹 보냈다 하더라도 신라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순왕과 왕건이 적대적 관계였다면 왕건이 고창군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승첩을 보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왕건이 승첩을 신라에 보내온 것은 그 이전부터 고려와 신라가 화친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견훤의 경주 침공과 경애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실상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경애왕의 친고려정책이 견훤의 경주 침공을 불러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박씨 경애왕이 죽고, 견훤이 경순왕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왕통은 박씨에서 다시 김씨에게로 넘어 갔는데, 왕통의 변화가 신라왕실 내의 자체적 해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란집단反亂集團’인 견훤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라 왕실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애왕을 이어 즉위한 경순왕은 전왕의 시신을 들어서 서당西堂에 모셔두고 여러 신하들과 함께 통곡하고 시호를 올려 경애라 하였으며 남산 해목령蟹目嶺에 장사지냈다. 해목령은 경주 남산의 서봉 서쪽 봉우리로 윤을곡潤乙谷과 포석계鮑石溪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런데 배동의 남산 삼릉 계곡 입구에 있는 단독 원형 봉토분을 경애왕릉으로 추정하여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남산 해목령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기록과 현재의 고분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박씨 왕가가 몰락하게 된 것은 그들만의 새로운 개혁이나 혁신을 피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겨우 호국사찰에서 불교행사를 거행하고 남산의 산신에게 나라를 지켜줄 것을 기도하는 제의적인 행위에 열중하였을 뿐이다. 다만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래 경명왕과 경애왕이 고려와의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역학 구도는 도리어 후백제 견훤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포석정에서 경애왕의 죽음으로 박씨 왕실은 끝을 맺었다. 그리고 다시금 김씨 왕실의 복구를 가져왔다.

(조범환)

---

## 참고

## 문헌

- 이명식, 2006, 「신라말 박씨 왕대의 전개와 몰락」, 『대구사학』 83.
- 이기동, 2006,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신라의 종언 - 내란기 신라 조정의 내부사정 -」, 『신라문화』 27.
- 전기용, 2010,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해안.
- 정선용, 2009, 「고려태조의 대신라동맹 체결과 그 운영 - 신라 경명왕 · 경애왕과의 교섭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탐구』 3.
- 조범환, 1991, 「신라말 박씨 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 129.

## 제3장

#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

- 1. 농민봉기와 국가재정의 파탄
- 2. 호족의 대두와 중앙집권체제의 붕괴

### 1. 농민봉기와 국가재정의 파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935년(경순왕 9)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나라를 들어 귀순함으로써 신라는 마침내 종말을 고하였다. 그런데 신라가 망하게 된 계기는 889년(진성왕 3), 곧 진성왕 3년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전국을 휩쓴 농민봉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곳곳에서 떼를 이룬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개미처럼 모여들었다”는 기록 그대로 농민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다. 조세 독촉에 항거하면서 시작되었던 봉기는 한 해에 그치지 않았고, 이후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나라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였던 농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는 천년왕국 신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중대 말부터 진골귀족들이 정권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하대에는 왕위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하였다. 822년(헌덕왕 14) 웅천주熊川州의 도독都督 김현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의 전국이 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836년(흥덕왕 11) 12월 흥덕왕이 죽은 후부터 839년(신무왕 원년) 윤 정월까지 2년 남짓한 동안 진골귀족들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격렬하게 싸웠다. 중앙정부의 지방지배력은 약해졌고, 호족이라고 부르는 지방세력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왕이 파견한 지방관을 대신해 지방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호족들 가운데에는 신라에 충성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았다. “왕기王基 밖의 주현들로 배반하여 적에게 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서로 반반”이었다고 표현될 정도였다. 호족의 대두는 농민들의 봉기와 더불어 신라의 존망을 가르는 사건이었다.

#### 왕경의 번영과 백성들의 곤궁한 삶

신문왕(681~692)은 바다의 용(海龍)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天神)이 된 김유신金庾信이 보냈다는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불면 적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비가 개이며, 바람과 물결도 잠잠해졌다고 한다. 이 영험한 피리는 모든 어려움을 그치게 한다는 의미로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고 불렸다. 이 설화는 오랜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신라 지배층의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고 풀이

된다. 진골귀족을 중심으로 한 신라의 지배층은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백성들을 기반으로 풍요를 누렸다. 이들이 모여 살았던 왕경, 곧 금성金城(경주)은 9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았다.

880년(현강왕 6) 9월 9일 왕은 측근 신하들과 함께 월상루月上樓라는 누각에 올랐다. 음력 9월 9일은 9가 두 번 겹치므로 중구절重九節이라고도 하고, 양陽의 수인 홀수가 두 번 겹친다고 하여 중앙절重陽節이라고도 한다. 설(1월 1일)·삼짇날(3월 3일)·단오(5월 5일)·칠석(7월 7일) 등과 같이 좋은 날(吉日) 중의 하루다. 이 날을 즐기는 풍습은 중국 한漢 나라 이래로 찾을 수 있는데, 국화를 감상하고, 높은 데 올라 시를 짓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보다 한 달 전쯤인 8월 어느 날에는 지방에서 상서로운 비이삭을 현강왕에게 올렸다고 하거니와, 왕은 가을걷이가 마무리된 후 느긋한 마음으로 신하들과 더불어 누각에 올라 시도 짓고, 술도 한잔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월상루에 올라 보니 민가가 서로 잇닿았고, 노래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왕경의 번영을 내려다보며 신하는 왕의 성덕을 찬양하고, 왕은 공功을 신하들에게 돌렸다.

현강왕대 왕경은 수십만이 모여 사는 거대도시였다. 그 중에서 궁궐, 사원과 더불어 돋보였던 건물은 금입택이었다. 금과 은 혹은 도금으로 장식한 호화 대저택인 금입택의 주인들은 부와 권력을 장악하였던 유력한 진골귀족들이었다. 834년(흥덕왕 9) 흥덕왕은 당시 만연하였던 사치 풍조를 규제하기 위해 신분에 따라 집(屋舍), 의복(色服), 수레와 말(車騎), 그릇(器用)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진골귀족의 집(室)은 길이와 너비가 24척尺을 넘을 수 없었다. 지방에 막새기와(唐瓦)를 얹지 못하며, 금(金), 은(銀), 황금 같은 빛이 나는 황동(鑰石)이나 단청(五彩)을 이용해 꾸미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도 마치 조선시대의 최상류 건물인 창덕궁昌德宮 연경당演慶堂과 흡사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거니와, 왕권이 약해지면서 그나마 있던 규제마저 유명무실해졌다. 그리하여 현강왕대 왕경 여기저기에는 금입택이 들어서 위용을 뽐냈다. 지금 39개 금입택의 이름이 전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아서 40여택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금입택으로 상징되는 왕경의 번영 뒤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도 있었다. 한기부韓歧部 백성 연권連權의 딸 지은知恩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32세가 되도록 시집가지 않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따라서 지은네의 경제 형편은 좋을 수가 없었다. 지은은 몸을 팔거나 구걸하여 먹을 것을 구하다가 결국 쌀 10여 섬에 몸을 팔아 부잣집의 종이 되고 말았다. 진성왕대 화랑 효종랑孝宗郎과 그의 낭도들이 지은을 도왔다고 하는데, 현강왕이 월상루에서 왕경의 번영을 흐뭇해할 무렵 그 뒤에는 지은과 그 어머니처럼 겨우 연명이나 하는 처지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은네보다는 조금 사정이 낫지만 그래도 하루살이를 걱정해야 했던 백성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왕경의 풍요로움을 뒷받침하였던 것은 주로 지방의 농민들이었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거두었다. 왕실과 귀족들이 소유한 녹읍이나 농장에 속한 농민들은 토지 소유주에 대해 갖가지 부담을 져야 했다. 당시 지방 농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예는 찾기 어려운데, 조신調信의 꿈 이야기가 흥미롭다. 그는 영월에 있었던 세달사世達寺의 승려로서 사원 소속 농장의 책임자(知莊)였다. 그는 농장이 있던 곳의 태수로 근무하였던 김흔金昕의 딸을 사모하였는데, 그녀와 결혼하여 함께 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조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며, 자녀 다섯을 두었다. 하지만 집은 다만 네 벽뿐이요, 나물죽으로도 끼니를 잊지 못하였다. 두 사람은 입에 풀칠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10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사방을 떠돌아다녔는데, 옷은 찢어져 몸을 가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명주溟州의 해현령蟹岬嶺(현재 위치는 알 수 없음)을 지날 때 십오 세 된 큰아이가 굶어 죽었다. 남은 네 자녀를 거느리고 우곡현羽曲縣(강릉시 옥계면)에 이르러 길가에 띠 풀을 묶어 집삼아 살았다. 부부는 늙고 병들고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열 살짜리 딸아이가 밥을 빌러 돌아다니다가 마을의 개에게 물려 아픔을 호소하니, 부모가 목이 메어 흐느껴 울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부부가 아이 둘씩을 나누어 헤어지려 할 때 꿈에서 깨어났다.

김흔은 822년(현덕왕 14) 당 나라에 들어가 숙위하였으며, 귀국하여서는 남원

南原 태수에 임명되었다. 여러 번 승진하여 강주康州 대도독이 되었고, 얼마 뒤 이찬伊濱 겸 상국相國의 벼슬을 더하였다. 김흔이라는 실존 인물이 나오고, 명주의 해현령, 우곡현 등 구체적 지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조신의 꿈 이야기를 허황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816년(헌덕왕 8)에 굶주린 백성 170명이 당나라의 절동浙東(지금 중국 절강성의 동부 지역)에까지 건너가 먹을 것을 구하였고, 821년(헌덕왕 13)에는 자손을 팔아 연명(自活)하는 자들조차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꿈 이야기에는 신라 하대 지방 농민들의 비참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왕경의 변영 뒤에는 가난에 신음하던 지방 농민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 889년의 봉기와 원인

『삼국사기』는 889년(진성왕 3) “나라 안의 여러 지방(州郡)에서 세금(貢賦)을 보내지 않아 서울의 창고(府庫)는 텅텅 비고, 나라의 쓰임(國用)이 몹시 모자라게 되었다. 이에 왕이 사신을 보내 세금 낼 것을 독촉하자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전한다. 물론, 이전에도 농민들이 봉기하였던 적이 있었다. 하대로만 한정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예들을 찾을 수 있다.

815년(헌덕왕 7) 8월 서쪽 주군에 기근이 심하여 도적이 봉기하자 군사를 내어 토벌하였다. 819년(헌덕왕 11) 3월에는 이름 없는 소규모 도적들(草賊)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도독, 태수 등 지방관들로 하여금 그들을 잡도록 하였다. 832년(흥덕왕 7) 8월 기근으로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10월에는 사신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때 도적이 발생하였던 것은 흉년과 그로 인한 굶주림 때문이었다. 819년(헌덕왕 11)의 초적들도 816년(헌덕왕 8)과 817년(헌덕왕 9)의 흉년, 기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흉년이 들면 농민들 가운데에서도 소작농이나 품팔이꾼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농민들이 먼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로 이들이 도적이 되어 무리를 짓고, 재화를 약탈하는 등 불법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889년(진성왕 3)의 농민봉기는 전과는 달리 납세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농민들 중에서도 세금을 주로 냈던 자들은 자신의 농토를 경작하면서 그런대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던 자영농이었다. 즉 889년(진성왕 3) 봉기에는 자영농들이 대거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들보다 더 많은 소작농이나 품팔이꾼들이 봉기에 가담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라의 경제적 토대를 맡고 있었던, 또 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높아 대체로 보수적이었을 자영농들이 반란의 대열에 동참하였다는 점을 주목하려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889년(진성왕 3) 사벌주沙伐州에서 원종元宗·애노哀奴 등이 주도한 봉기가 소개되어 있다. 왕은 나마奈麻 영기命奇에게 명령해 봉기를 진압하도록 하였는데, 영기는 적의 보루堡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사벌주 농민봉기군의 위세가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대오를 정비하였으며, 무기도 어느 정도 갖추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봉기군을 이끌었다면 원종과 애노는 그만큼의 식견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품팔이꾼이나 소작농 같은 가난한 농민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한다. 원종과 애노는 본래 사벌주 혹은 그 부근에 살던 자영농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인물들이지 않았을까. 이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어서 좀처럼 봉기에 가담하지 않았을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가난하고, 또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은 농민들을 이끌고 봉기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사벌주는 상주의 다른 이름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주州는 9주 5소경의 주처럼 지금의 도道와 같은 광역의 행정단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도청 소재지와 같은 광역 주의 행정중심지(州治)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에서의 사벌주 곧 상주는 9주 가운데 하나인 상주의 행정중심지인 지금의 상주이다. 이곳은 이미 첨해왕(247~262)대에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나 백제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한편으로 신라가 북쪽으로 영역을 늘려 나가는 전초 기지로서 중시되었다. 통일신라에서는 상주를 거점으로 광역의 상주를 설정하였다. 상주는 지방의 중요 도시였거니와, 이런 곳에서 농민들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은 889년(진성왕 3) 농민봉기의 또 다른 심각성을 알려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덕왕은 여러 주군의 도독, 태수들로 하여금 도적들을 잡도록 한 적이 있었다. 이와 달리 진성왕이 영기를 파견하였던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상주의 농민봉기를 위중한 사태로 인식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영기가 겁을 먹고

진격하지 못하였던 반면 농민봉기군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것은 촌주村主 우련祐連이었다. 상주의 토착세력가였던 그가 이끌었던 병력은 자기 집안의 노비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농민들로 조직한 자신의 군대, 즉 사병私兵이었을 것이다. 관군이 힘을 쓰지 못했던 반면 토착세력가와 그의 사병이 선봉에 섰다. 중앙정부의 무능함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정부의 권위는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진성여왕은 영기의 목을 베고, 전사한 우련을 대신해 10여 세에 불과한 그의 아들을 촌주로 삼는 등 일종의 논공행상을 하였다. 이로 보건대, 우여곡절 끝에 원종과 애노의 농민봉기는 진압되었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이제 곳곳에서 일어난 농민봉기군을 무찌르는 데에 관군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전의 농민봉기가 대체로 그해에 그치고 말았던 것과 달리 889년(진성왕 3) 일어난 전국적인 농민봉기는 이후에도 걸잡을 수 없이 번져 갔다.

889년(진성왕 3) 농민들이 봉기한 것은 세금 납부 독촉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는 그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지나치게 무거웠음을 알려 준다. 그 직접적 원인으로 그 무렵의 재해와 흉년을 지목하는 견해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강왕이 즉위했던 886년(정강왕 원년) 8월 서쪽 지방에 가뭄이 들었다. 진성왕이 즉위했던 887년(진성왕 원년)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았고, 이듬해 5월에는 가뭄이 들었다. 여왕의 즉위를 전후한 시기에 자연 재해가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로 인한 흉년이 심각하였던 모양이다. 진성왕은 즉위하면서 1년의 조세를 면제하였다. 이는 즉위를 즈음해 민심을 얻고, 아울러 흉년으로 고통을 받던 농민들을 구휼하려는 조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889년(진성왕 3) 지방에서 중앙 정부에 세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면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흉년으로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는 농민들이 여전히 많았던 듯하다. 한편 1년의 조세를 면제해 준 데 이어 다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자 국가재정은 궁핍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사신을 보내 세금 납부를 독촉하게 되었고, 이에 저항해 농민들이 곳곳에서 봉기하였던 것이다.

한편 좀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녹읍제祿邑制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757년(경덕왕 16) 녹읍이 부활된 후 촌락사회는 녹읍을 매개로 한 귀족 관리들의 사적 지배와 지방관의 공적 지배를 받았는데, 중앙집권력이 약

화되면서 사적인 지배가 강화되고 자의적이고 과중한 수취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농민층의 경제적 처지가 열악해지면서 유민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녹읍민도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남아 있는 녹읍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강요함으로써 농민층의 항쟁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촌락 공동체를 기본단위로 운용된 연수유전담제烟受有田畝制의 구조적 한계에서 농민봉기의 원인을 찾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세금(田租)은 각 촌에서 실제 경작한 연수유전담의 면적과 관계없이 촌락문서에 파악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되었고, 그 납부는 촌락 내 농민들의 공동 책임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층의 계급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촌락을 떠나는 농민들이 늘게 되면서 촌에 남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유민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으며, 결국 과중한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이 봉기하였다는 것이다.

신라 하대에 귀족들은 농장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사원도 농토를 기증받거나 사들였고, 때로는 겸병하기도 하였다. 이것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처지가 열악해 흉년이라도 들면 그들 중 일부는 유민이 되기도 하였다. 일부는 고리대 때문에 혹은 생계를 잇기 위해 자진해서 귀족이나 사원의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농민들은 감소하고, 이로 말미암아 남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은 커졌던 것이 농민봉기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농민봉기의 원인을 이 무렵 등장하였던 호족들과 연관하여 파악해볼 여지도 있다. 호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가령 건훤왕甄萱王의 아버지 아자개阿慈介는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自活), “광계光啓 연간에 사불성沙弗城, 지금의 상주尙州에 웅거해 스스로 장군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광계는 당 나라 희종僖宗의 연호 중 하나로 885년(헌강왕 11)~887년(진성왕 원년)에 사용되었다. 신라 말 호족들은 스스로 성주, 장군 등을 칭하였다. 아자개는 늦어도 887년(진성왕 원년) 상주 사불성의 호족으로 등장하였거니와, 호족들은 지방관을 대신해 지방사회를 지배하였다. 호족들이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이를 중앙정부에 올려 보내지 않고 자

신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세금 독촉의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농민봉기의 배경으로 농민들의 세계관을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신라 하대에는 당시를 말세로 여기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말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져 버린 세상이고, 그때가 되면 전쟁, 기근, 질병 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한다.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던 농민들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자신들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한편, 미륵불은 본래 아주 먼 훗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말세의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미륵불의 하생뿐이라고 믿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말세의식이 깊어지면서 미륵불의 하생에 대한 바람도 널리 퍼졌을 것이다. 중대에 하층민들 사이에 유행하였던 아미타 정토신앙은 염세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현실도피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현실을 개혁하려는 것은 아니다. 반면 미륵불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부처이므로 자연 미륵하생신앙은 현실에 대한 개혁과 연관될 소지가 크다. 말세의식의 심화와 미륵불 하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신라 말 농민들을 봉기로 이끈 배경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 농민봉기의 전개

신라 말 고려 초에 활동하였던 승려들의 비문에서 그들이 도적을 만났던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예컨대 흥녕사興寧寺(영월)의 징효대사澄曉大師 절중折中은 전쟁이 흥녕사에 닥칠 것을 예감하고 891년(진성왕 5)에 상주의 남쪽 조령鳥嶺 부근으로 피난하였는데, 과연 흥녕사는 전쟁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고 한다. 농민봉기군이 흥녕사를 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절중은 남쪽으로 가던 중 진례군進禮郡(김해) 근처에서 도적떼를 만났으나 다행히 화를 면하였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초적草賊이 출몰해 조용한 곳이 없음을 한탄하였다고 한다.

농민들은 처음 중앙정부의 세금 납부 독촉에 항거하면서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 부자들이나 혹은 같은 처지의 농민들을 공격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흥녕사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의 사원들도 농민봉기군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 이들 가운

데에는 왕실이나 귀족으로부터 토지나 불사佛事に 필요한 물품들을 기증받아 부유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에서 나왔지만, 세달사와 같이 본사와 떨어진 곳에 농장을 두고 승려를 보내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화엄종의 10대 사원(華嚴十刹)의 하나로 유명한 해인사海印寺(합천)는 802년(애장왕 3) 8월 창건되었다. 창건 때 애장왕의 할머니(聖穆太后)가 시주를 많이 하였다고도 하고, 왕비의 난치병 치유가 인연이 되어 애장왕이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전한다. 해인사에 대한 왕실의 지원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조선 초의 학자이자 관리였던 조위曹偉(1454~1503)는 9세기 말 작성된 해인사의 토지문서(田券)를 보았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을사년 이전에는 해인사가 “북궁해인수北宮海印藪”라고 불리다가, 경술년 이후에는 “혜성대왕원당惠成大王願堂”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수藪’는 덩굴, 숲을 말하는데, 사원을 가리키기도 한다. 을사년은 885년(헌강왕 11)이고, 진성왕은 즉위 전 북궁에 거주하면서 북궁장공주北宮長公主라고 불렸다. 그녀가 이미 공주 때부터 해인사를 후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888년(진성왕 2) 위홍魏弘이 죽자 왕은 그를 혜성대왕으로 추봉하였다. 경술년은 890년(진성왕 4)이므로 아마도 3년 상을 치룬 다음 그를 해인사에 모셨던 모양인데, 그로부터 해인사는 위홍의 명복을 비는 원당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왕실의 후원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43건의 토지문서는 878년(헌강왕 4)에서 895년(진성왕 9)에 걸쳐 해인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문서라고 한다. 왕실이 나 귀족들이 기증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리라는 추측도 있다.

1966년 해인사 일주문一柱門 앞에 있는 길상탑吉祥塔에서 도굴되었던 4매의 탑지誌가 회수되었다. 그 중 「해인사 묘길상탑기」는 최치원이 895년(진성왕 9) 7월에 운양대雲陽臺에 길상탑을 세우게 된 경위를 적은 것인데,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당唐 19대 황제가 중흥中興을 이룰 때에 전쟁과 흉년의 두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어 동쪽에 와서, 나쁜 것들 중에 더욱 나쁜 것이 없는 곳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널렸다.” 당 제19대 황제는 소종昭宗(888~904)이다. 서쪽은 당, 동쪽은 신라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889년 곧 진성왕 3년부터 흉년과 농민봉기 때문에 곳곳이 전쟁터가 된 신라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인사 승려(別大德)였던 승훈僧訓이 이러한 상황을 애통해 하면서 역



그림 1. 합천 해인사 길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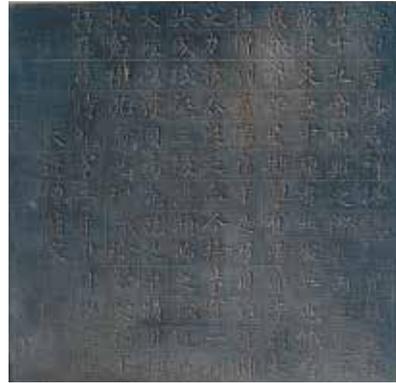


그림 2. 합천 해인사 묘길상탑기



그림 3. 오대산사길상탑사

울하게 죽은 영혼을 위해 이 탑을 세웠다고 한다.

다음, 「오대산사길상탑사」에 따르면 이 탑도 895년(진성왕 9) 7월에 세워졌다고 한다. 글을 지은 이는 윤양대 길상탑 건립을 주도하였던 해인사 승려 승훈이었다. 그러므로 오대산사는 강원도의 오대산에 있는 절이 아니고, 해인사 근처에 있었을 터인데, 청량사(淸涼寺)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많다. 곧 언급할 백성산사(百城山寺)도 해인사 인근에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본사는 해인사이고, 다른 두 곳은 그 부속 사원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승훈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기유년에서 을묘년까지 7년 동안 세상은 난리로 어지러워 들판이 전쟁터가 되었다.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행동이 사나운 짐승과 같았고, 나라가 기울어질 듯하고 재앙이 절에까지 이르렀다. 나라와 삼보를 지키려는 승려들의 바람은 같은데 칼날이 수풀에 낭자하고 몸은 바윗등에서 잃었구나.” 기유년은 889년(진성왕 3)이고, 을묘년은 895년(진성왕 9)이다. 그동안 있었다는 난리와 전쟁은 889년(진성왕 3) 전국에 걸쳐 계속되었던 농민들의 봉기와 약탈, 그것을 막으려는 관군이나 호족의 군대와 농민봉기군 사이에서 벌어

진 전투 따위를 가리킨다. 재앙이 사원에까지 미쳤고, 이를 지키려다 승려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면 해인사가 농민봉기군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었고, 여러 승려들이 목숨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탑지의 뒷면(陰)에는 승훈이 지은 「승군(僧軍)을 꼭꺾함」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해인사에 사원을 지킬 승군이 조직되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전사하였던 것이다. 「해인사 호국삼보(護國三寶) 전망치소(戰亡緇素) 옥자(玉字)」라는 탑지에는 해인사에 난리(濁世)가 일어났을 때 나라와 불교를 지키려고 싸우다 죽은 승려와 일반인 5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이 곧 전사한 승군이었을 것이다. 백성산사 앞 언덕(臺地)에 세워진 길상탑 안에 넣었던 신성한 물건(法眼)에 관해 기록한 탑지도 있다. 이 물건들은 전사한 승군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탑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봉기군의 습격으로 56명의 승군이 전사하였다면, 더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해인사를 습격하였던 농민봉기군들의 숫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896년(진성왕 10)에는 적고적(赤袴賊)이라는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 지방에서 일

어났다. 이들은 붉은 바지(袴)를 입어 스스로를 남들과 구분하였기 때문에 적고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마치 중국 후한 말 머리에 누런 두건을 쓰고 반란을 일으켰던 황건적(黃巾賊)이나 원나라 말에 붉은 두건을 머리에 쓰고 봉기하여, 고려에도 쳐들어왔던 홍건적(紅巾賊)을 떠올리게 한다. 적고적은 두건 대신 붉은 바지를, 자신들과 남들을 구별하는 표지로 삼았던 것인데, 이들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적고적은 여러 주현을 약탈하면서 동쪽으로 진격해 왕경의 모량리(牟梁里, 경주시 건천읍)에 나타나 재물을 빼앗고 사라졌다. 흥덕왕 때 모량리 사람 손순(孫順)이 자신이 살던 집을 회사하여 홍효사(弘孝寺)라는 절로 삼고, 땅 속에서 발견한 석종(石鐘)을 거기에 두었는데, 이때 종은 없어지고, 절은 남았다고 한다. 이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노략질을 일삼았고, 왕경의 마을까지 습격하였던 점 등을 보면 그 위세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남해를 지키는 부대의 장교(裨將)였던 견훤은 농민봉기를 틈타 반란을 일으켜 여러 주현들을 공격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호응하는 자들이 있어 한 달 만에 5천명을 모았다. 양길(梁吉)의 부하로 명주 일대의 군현을 습격하였던 궁예(弓裔)도 894년(진성왕 8) 명주(강릉)에서 병력을 크게 늘렸다. 적고적도 가는 곳마다 봉기한 농민들이나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농민들을 끌어 모아 세력을 키웠을 것이다.

그런데 적고적을 백제의 횡포한 도적이라고 표현한 기록도 있다. 신라의 서남쪽 지방은 옛 백제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는 옛 백제 지역에서 일어난 횡포한 도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백제의 후예를 자처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견훤이 백제왕을 자칭하고 관부와 관직을 설치하였던 것은 900년(효공왕 4)의 일이었다. 이때 그는 백제의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즉 완산주(完山州, 전주)에 행차한 견훤은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이 흙먼지를 날리며 황산(黃山)을 거쳐 사비(泗水)에 이르러 당 나라 군사와 협세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오래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옛 백제에 대한 기억을 이용해 백제를 건국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삼국시대의 백제와 구별하여 후백제라고 부르고 있다. 궁예도 901년(효공왕 5) “지난날 신라가 당 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다. 그런 까닭에 평양 옛 도읍은 무성한 잡초로 짝 차 있다.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여, 고구려의 복수

를 내걸고 고려(후고구려라고 함)를 건국하였다. 만약 적고적이 백제의 후예를 자처하였다면 그들은 일면 견훤왕이나 궁예왕의 선구라고 할 수 있겠다. 해인사를 습격하였던 농민봉기군에 비해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던 예로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97년(진성왕 11) 6월 진성여왕은 조카 요(曺, 효공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하였다. 이 사실을 당 나라에 알리는 외교 문서(讓位表, 崔致遠 代作)에서 당시의 상황을 “도적(綠林)이 무리를 이루어 다투어 광기(狂氣)를 풍겨, 다스리는 모든 곳(九州百郡)이 다 도적의 불난리를 만나서 큰 불의 잿더미를 보는 것 같고, 더욱이 사람 죽이기를 풀(麻) 베는 것처럼 하여 내던진 백골(白骨)은 숲처럼 쌓여 (중략) 어진 나라가 변해서 병든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절망적으로 묘사하였다. 또 다른 외교문서(謝嗣位表, 崔致遠 代作)에서는 “지금 큰 흉년이 들어 좁도둑이 사방에서 일어나 처음에는 늑대와 이리와 같이 탐욕을 부리더니 차츰 크고 높은 뜻을 자랑하며, 처음엔 쥐같이 숨어서 살살 뒤주를 뒤지고 주머니를 더듬다가, 형세를 타 별떼가 나는 듯 하여 문득 성(城)을 파괴하고 고을을 노략질하여 (중략) 지금 온 고을이 모두 도적의 소굴이 되었고 산천이 모두 전쟁터이니, 어찌 하늘의 재앙이 우리나라(海東)에만 흘러드는 것인가”라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889년, 곧 진성왕 3년 시작된 농민들의 봉기는 시간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고 이후 전국적으로 계속되어 중앙 정부로서도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진성왕이 생전에 왕위를 내놓고 은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계속되는 농민봉기였던 것이다.

### 농민봉기의 의의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889년(진성왕 3)에 농민들, 심지어 그런대로 먹고살 만하고 따라서 보수적 성향을 가졌을 자영농들까지 봉기에 가담하였다. 봉기는 나라 안 곳곳에서 일어났고, 또 889년(진성왕 3)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로써 신라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졌다. 신라는 경순왕이 935년(경순왕 9) 고려에 귀부함으로써 망하였지만 그 실질적 종말은 889년(진성왕 3)의 농민봉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견훤은 농민봉기로 인한 혼란을 이용하여 반기를 들었다. 이후 세력을 키워 892년(진성왕 6)에는 무진주(武珍州, 광주)를 점령하고, 왕 노

를 하였다. 세달사 승려 공예도 891년(진성왕 5) 사원을 떠나 반신라적 지방세력가 기원(箕畝)의 부하가 되었다. 공예는 농민봉기로 어지러운 틈을 이용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농민봉기는 후삼국이 정립하는 단초를 열었다.

이와 같이 농민봉기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신라의 종말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농민들이 새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던 것은 아니다. 비록 그러하였지만 농민봉기는 농민들이 국가의 경제적 토대임을 재인식시키는 데에는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고려 태조는 농민들에 대한 수취를 신중히 해야 할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였다. 918년(태조 원년) 세금이 무거워 백성들의 유망이 끊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천하통법(天下通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이는 수확량의 1/10을 세금으로 걷는 1/10세법을 시행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934년(태조 17) 예산진(禮山鎭, 예산)에서 내린 조서에서는 신라 말부터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아왔음을 지적하면서 신하들에게 녹읍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로부터 과중하게 거두지 말 것을 강경한 어조로 명령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 대사헌(大司憲) 조준(趙浚)의 상서에 따르면 태조는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1경(頃) 당 6석(石)이었던 조세를 1부(負) 당 3승(升), 즉 1경 당 2석으로 줄이고, 3년의 조세를 면제하였다고 한다. 1/10세법의 시행으로 조세의 부담을 1/3로 줄였다는 것이다. 조준은 태조의 이러한 정책이, 삼국이 정립하고 군웅들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백성들을 구휼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 2. 호족의 대두와 중앙집권체제의 붕괴

### 중앙집권체제의 동요

신라는 통일 후 지방통치를 위해 9주와 5소경을 두었다. 이것은 685년(신문왕 5)에 정비되었는데, 주는 일반 행정 구역이었고, 소경은 왕경에 대응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었다. 주에는 군(郡)과 현(縣)이 설치되었는데, 군은 120개(혹은 117개), 현은 305개(혹

은 293개)였다. 중앙정부는 군에는 태수(太守), 현에는 소수(少守, 制守라고도 함) 혹은 현령(縣令)을 파견하였다. 이들 지방관들은 소속된 촌의 촌주를 통제하고 이의 보좌를 받아 지방을 다스렸다. 중앙정부는 지방관들을 감찰하기 위한 외사정(外司正)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국을 약 420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백성들을 통치하였다는 것은 당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전국 곳곳에 두루 미쳤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대 말부터 진골귀족들의 정권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지배력은 약화되었다.

785년(원성왕 원년) 선덕왕이 죽은 후에 김주원(金周元)과 김경신(金敬信)이 왕위를 다투었는데, 김경신이 승리하여 왕이 되었다(원성왕). 822년(헌덕왕 14) 3월에는 김주원의 아들 김현창이 웅천주(공주)를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고 한다.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慶雲)이라고 하는 등 신라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표방하였다. 이 난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진압되었지만 전국 대부분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825년(헌덕왕 17) 정월에는 김현창의 아들 범문(梵文)이 고달산적(高達山賊) 수신(壽神) 등 백여 명과 함께 모반하여 평양(平壤, 서울)에 도읍을 세우려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도독 총명(聰明)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평정하였다. 이로써 김현창 부자의 난은 종결되었다.

836년(흥덕왕 11) 12월 흥덕왕이 죽은 후 왕위 다툼이 크게 벌어졌다. 유력한 왕위계승자였던 김균정(金均貞)이 살해되었고, 김제룡(金梯隆)이 즉위하였다. 그가 희강왕이었다. 희강왕은 838년(희강왕 3) 정월 김명(金明)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자살하였다. 이어 김명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민애왕이었다. 839년(신무왕 원년) 윤 정월 김균정의 아들 김우정(金祐徵)이 김양(金陽)과 더불어 장보고(張保皋)의 군대 5천을 빌려 왕군(王軍)을 격파하였다. 민애왕은 병사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고, 김우정이 왕위에 올랐다(신무왕). 왕위는 혈통만이 아니라 군사력의 우열에 의해 결정되었거니와, 이 왕위 다툼을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장보고였다.

828년(흥덕왕 3)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1만의 군사를 주어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중앙정부에서 이런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상

황은 아니었다. 완도 부근에서 1만 명에 달하는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장보고에게 주었던 것이 이렇게 표현되었거나, 그가 이미 확보한 1만의 병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일 수도 있겠다. 요컨대 청해진 대사<sup>大使</sup> 장보고는 완도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지방세력가로서, 왕위다툼을 끝내는 데 동원한 병력도 그의 사병<sup>私兵</sup>이었던 것이다.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즉위한 신무왕과 그의 아들 문성왕은 그를 크게 우대하였다. 문성왕은 그의 딸을 차비<sup>次妃</sup>로 맞으려고 하였다. 이는 지방 출신인 장보고가 중앙 정계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은 장보고가 “섬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의 딸을 차비로 삼을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장보고는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꾀하다가 암살당하였다. 851년(문성왕 13)에는 청해진이 폐지되고, 그 백성들은 벽골군<sup>碧骨郡</sup>(김제)으로 옮겨졌다.

문성왕 이후에도 여러 차례 모반 사건이 있었지만, 전과 같이 심각한 왕위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진골귀족들은 장보고와 같은 지방세력가들의 등장에 대해

#### 호족이라는 용어

신라 말에 등장하여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지방에서 일정한 영역을 지배하였던 세력가들을 흔히 호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용어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1960년대 한 일본인 학자가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른 이후부터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사용한 호족은 일본이나 중국사에서 씨족 공동체 이후 등장하는 고대적 성격의 지방세력가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 신라 말 고려 초부터 중세 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학설이 유력하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는 것이다. 또 호족은 혈연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나말여초에 등장하였던 지방세력가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족 대신 호부<sup>豪富</sup>·富豪, 향호<sup>鄕豪</sup>·土豪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미 1930년대에 신라 말의 지방세력가들을 진골귀족 등 왕경의 골품 귀족들에 대비시켜 “지방세력의 대표적인 일련의 신지주적 호족군(群)”이라고 규정하는 견해가 나왔고, 그 후 여러 학자들이 나말여초에 지방에서 등장한 세력가들을 호족이라고 불렀다. 지금 사용하는 호족이라는 용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혈연집단이 당시 등장하였던 지방세력가들의 유력한 기반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인정된다. 대안으로 사용하는 호부는 지방세력의 다양한 성격 중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고, 향호나 토호는 지방의 호족이라는 뜻이므로 호족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당시 금석문에서 호족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 있다. 요컨대 1930년대 이래 신라 말 고려 초의 지방세력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던 호족을 굳이 다른 용어로 대체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고 일종의 연립 태세를 갖추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던 아자개와 같이, 성<sup>城</sup>의 지배자이자 사병의 지휘관으로서 성주 혹은 장군을 칭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르거나, 이들은 889년(진성왕 3)부터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고, 중앙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자, 사병을 동원해 자신들 영역 내의 농민들을 보호하였다. 이로써 호족들의 독립성은 보다 강해졌다.

### 출신별 유형

#### 중앙귀족

정권 다툼이나 왕위 다툼에 가담하였다가 패배한 귀족들 중 일부는 낙향하였다. 관직에 나아가기 힘들거나 더 이상 출세하기 어렵게 된 귀족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

김경신과 왕위 다툼을 벌이다 패배한 김주원은 명주(강릉)로 퇴거<sup>退居</sup>하였다. 786년(원성왕 2) 원성왕은 김주원을 명주군왕<sup>溟州郡王</sup>으로 봉하고, 명주·익령<sup>翼嶺</sup>(양양)·삼척<sup>三陟</sup>(삼척)·근을<sup>斤乙</sup>於(평해)·울진<sup>蔚珍</sup>(울진) 등을 식읍으로 주었다. 이는 자손들에게 이어졌다. 왕경에 남았던 김주원의 아들 종기<sup>宗基</sup>는 명원군왕<sup>溟源郡王</sup>, 손자인 정여<sup>貞茹</sup>는 명원공<sup>溟源公</sup>에 각각 봉해졌다. 증손인 김양<sup>金陽</sup>은 명주군왕에 추봉<sup>追封</sup>되었다. 김주원을 따라 명주에 도착하였던 후손들은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 말 고려 초에 김순식<sup>金順式</sup>(후에 태조 왕건으로부터 왕씨 성을 받아 王順式이라고 함)은 명주장군으로서 명주 일대를 지배하였다. 김순식이 김주원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하튼 그는 김주원 후손들의 세력을 기반으로 호족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김예<sup>金乂</sup>(왕씨 성을 받아 王乂라고 함)라는 호족도 있었다. 940년(태조 23) 그는 명주의 도령<sup>都令</sup>으로서 좌승<sup>佐丞</sup>의 관등을 갖고 있었고, 휘하에 여러 관직자들을 거느렸다. 김예는 김순식의 뒤를 이어 명주의 지배자로 등장하였는데, 그는 김주원의 후손이었다.

908년(효공왕 12) 수창군<sup>壽昌郡</sup>(대구) 호국의영도장<sup>護國義營都將</sup> 중알찬<sup>重關鑾</sup> 이 재<sup>才</sup>는 나라를 위해 팔각등루<sup>八角登樓</sup>를 세웠다. 그는 높은 곳에 성을 쌓고, 10년 동

안 지역을 다스렸다고 한다. 이제는 수창군을 지배하는 호족이었다. 889년(진성왕 3) 전국에 걸쳐 농민들이 봉기하였을 때 성주로서 영역 내의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세력을 키웠을 것이다. 중앙찬은 곧 중아찬(重阿湊)으로서 대아찬으로 승진할 수 없었던 6두품들이 받았던 관등이다(重位). 이제는 6두품 출신으로 수창군에 낙향하여 호족이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신분의 한계를 느껴 낙향하였을 직하다. '호국'이라는 칭호나 팔각등루를 세운 목적을 볼 때 이제는 신라 정부에 충성하는 호족이었다. 단, 비록 그러하였더라도 그는 수창군에 대해 독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소경 등 지방의 주요 지역에 왕경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신라 말에 호족이 되었다. 그들 가운데 청주(淸州)의 호족세력이 유명하거나,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호족의 지배구조를 다루면서 알아보기로 한다.

#### 지방토착세력 : 촌주와 이훤

촌주는 지방의 토착세력가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해 세금을 거두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등 촌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유사시에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지방 관부에서 말단 행정을 맡았던 이훤도 촌주와 같은 토착세력가들이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상수리(上守吏) 제도였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이는 주리(州吏) 중 한 사람을 왕경에 불러들여 여러 관부를 지키게 하는 제도였는데, 아마도 촌주들도 그 대상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그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 갔다.

앞서 889년(진성왕 3) 원종과 애노 등이 이끈 농민봉기를 소개하였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국왕이 파견한 영기는 봉기군의 위세에 눌려 진격하지 못하였던 반면 촌주 우련은 힘써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련이 이처럼 공격에 앞장섰던 이유 중의 하나는 농민봉기군으로부터 자신의 토착 기반을 보호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왕은 우련의 어린 아들로 하여금 촌주의 지위를 잇도록 하였거니와, 889년(진성왕 3)의 농민봉기는 촌주와 이훤과 같은 지방 토착세력가들이 호족으로 변신하거나 혹은 호족으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충언(李忠言)은 신라 말 벽진군(碧珍郡) (성주)을 보전(保全)하였는데, 도적들이 사방에

가득 차자 성벽을 튼튼히 하고 굳게 지켜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벽진군을 습격하였던 도적들이란 889년(진성왕 3) 이후 곳곳에서 봉기하였던 농민들을 가리킬 것이다. 이충언은 성을 중심으로 농민봉기군의 공격을 막았던 것이다. 이충언은 벽진군의 성주였고, 또 사병을 거느린 장군으로서 벽진군 일대를 지배하던 호족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일신라 때 군의 장관은 태수였다. 그런데 이충언의 구체적 직명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로 보아, 그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이었던기보다는 아마도 벽진군의 촌주거나 이훤 출신이 아니었을까 헤아려본다. 한편 태조 왕건은 이충언에게 벽진군 장군(本邑將軍)의 직책을 내리는 등 여러 모로 우대하였다. 고려는 벽진군에 대한 이충언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한편, 그의 충성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 군진세력

신라에서는 변경의 수비를 위해 군진을 설치하였다. 782년(선덕왕 3) 서북방으로부터의 침공을 막기 위해 황해도 평산에 설치하였던 패강진(溟江鎭)이 대표적이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안이나 섬에도 군진을 설치하였는데, 청해진이 유명하다. 장보고가 지방세력가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패강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신라는 735년(성덕왕 34) 당으로부터 대동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에 대한 개척이 시작되었고, 그리하여 설치된 군진이 패강진이었다. 패강은 예성강의 다른 이름이고, 패강진의 명칭은 이에서 비롯되었다. 패강진의 장관은 두상대감(頭上大監)이었는데, 후에는 도호(都護)라고 하였다. 그 밑에 대감, 제감(弟監), 보감(步監), 소감(少監) 등이 있었는데, 모두 군관직(軍官職)이었다. 패강진의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농민이었다가 유사시에는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屯田兵).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패강진의 지휘관들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호족으로 변신하였다. 패강진의 본영이 있었던 평산을 본관으로 하는 평산 박씨는 본래 박혁거세의 후손이었는데, 대모달(大毛達) 직윤(直胤)이 평주(平州) (평산)에 옮겨 살면서 평주인이 되었다고 한다. 박직윤은 평산 박씨의 실질적 시조가 되는 셈인데, 대모달을 칭하였음이 주목된다. 대모달은 고구려의 대모달(大模達)로서, 이는 중국의 장군에 비견되는 무관직이었다. 신라 말 호족들이 장군을 자칭하였음을 떠

올리면 그가 평주의 호족으로 대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군이 아니라 하필 대모달을 칭하였던 것은 고구려의 옛 땅에 살던 고구려 계통의 주민들을 의식한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배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신라 하대의 선사<sup>禪師</sup> 도윤<sup>道允</sup>은 패강진 소속의 휴암현<sup>鶴巖縣</sup>(봉산) 출신이었다. 그의 집안은 여러 대에 걸쳐 호족이었고, 조부가 벼슬을 살았는데 군보<sup>郡譜</sup>에 자세하다고 하였다. 도윤의 법을 이은 절중<sup>折中</sup>도 역시 휴암현 출신이었다. 그의 선조는 모성<sup>牟城</sup>(위치불명)에서 벼슬하다가 군족<sup>郡族</sup>이 되었으며, 아버지는 궁술과 기마에 뛰어났다고 한다. 신라 말의 선사인 순지<sup>順之</sup>는 패강인이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변경의 장수를 지낸 집안 출신이었다고 한다. 이들 선사들의 조상은 패강진의 군관이었다가 호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패강진, 청해진 외에도 육군이 주둔하였던 삼척의 북진<sup>北鎭</sup>, 해군이 주둔하였던 강화의 혈구진<sup>穴口鎭</sup>, 화성의 당성진<sup>唐城鎭</sup> 등이 있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 걸쳐 이름이 전하지 않는 군진이 더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군진들의 지휘관들 중 일부도 호족으로 변신하였을 것이다.

### 해상세력

청해진은 해체되었지만, 이후 서해안과 남해안의 여러 곳에서 해상세력가들이 등장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호족이 되었는데, 몇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화에 따르면 태조 왕건의 조부 작제건<sup>作帝建</sup>은 아버지인 당 나라 황제를 만나기 위해 상선을 타고 서해를 향해하던 중 서해 용왕의 딸과 결혼하고 7가지 보물을 얻어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예성강과 한강 하구 일대 4개주 3개현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영안성<sup>永安城</sup>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고 한다. 이 설화는 작제건이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송악<sup>松嶽</sup>(개성) 일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갔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작제건의 아들 왕룡<sup>王隆</sup>은 896년(진성왕 10) 송악군의 사찬<sup>沙烝</sup>으로서 “군<sup>郡</sup>을 들어 궁예에게 귀부”하였는데, 궁예는 그를 금성군<sup>金城郡</sup>(김화) 태수로 삼았다. 이 무렵 왕룡은 송악의 호족 내지는 그에 버금가는

존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주<sup>貞州</sup>(개풍)의 유천궁<sup>柳天弓</sup>은 태조 왕건의 첫째 왕비 신혜왕후<sup>神惠王后</sup> 유씨의 아버지였다. 그는 궁예왕의 명을 받고 원정을 나선 왕건의 군사 모두를 배불리 먹일 정도로 큰 부자였다고 한다. 정주는 태봉과 고려의 수군 기지였다. 유천궁의 집안은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대두하였던 정주의 호족이었을 것이다. 태조 왕건의 둘째 왕비는 나주 출신 장화왕후<sup>莊和王后</sup> 오씨였다.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 하구 일대는 당나라와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부돈<sup>富頓</sup>이었는데, 부돈은 부자를 뜻한다고 한다. 아버지 다련군<sup>多憐君</sup>은 사간<sup>沙干</sup>(사찬) 연위<sup>連位</sup>의 딸 덕교<sup>德交</sup>와 혼인해 왕후를 낳았다고 한다. 연위는 왕룡처럼 호족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존재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련군 역시 그에 준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나주 오씨 집안도 해상무역을 통해 얻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세력을 키워 나주의 호족으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봉규<sup>王逢規</sup>는 924년(경명왕 8)에 천주절도사<sup>泉州節度使</sup>로서 후당<sup>後唐</sup>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927년(경애왕 4) 3월에는 후당의 명종<sup>明宗</sup>이 권지강주사<sup>權知康州事</sup> 왕봉규를 회화대장군<sup>懷化大將軍</sup>으로 삼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지강주사<sup>知康州事</sup> 왕봉규가 임언<sup>林彦</sup>을 보내 조공했는데, 명종이 그를 중흥전<sup>中興殿</sup>에서 불러 보고, 물건을 하사하였다. 천주는 경남 의령이고, 절도사는 지방의 군사행정을 맡던 당 나라의 관직이다. 강주는 지금의 진주이고, 지사는 당의 지방 장관이었던 지주제군사<sup>知州諸軍事</sup>의 줄임말인 듯하다. 왕봉규는 절도사나 지사를 자칭하던 호족이었는데, 후당과 조공무역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을 것이다.

### 농민봉기군

앞에서 잠시 소개하였던 견훤왕의 아버지 아자개는 농민 출신 호족이었다. 그가 들에서 일할 때 부인이 식사를 날라다 주었다고 한 것을 보면 아자개가 부농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보다는 소규모 자영농이었을 것으로 헤아려지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본래 살던 가은현<sup>加恩縣</sup>(문경시 가은읍)을 떠나 상주 사벌성의 장군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한편 농민봉기군이 일정한 지역을 장악하

고 호족으로 변신하였다고 여겨지는 예들을 찾을 수 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9세기 중반부터 신라 해적들이 여러 차례 일본의 큐슈 등지에 출몰하였다고 한다. 894년(진성왕 8) 9월에는 신라 해적들이 45척의 배를 타고 대마도를 습격하였는데, 일본군과 격돌하여 302명이 목숨을 잃고, 11척의 배와 각종 무기를 빼앗긴 채 퇴각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사로잡힌 현춘(顯春)은, 당시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창고가 텅 비게 되자 왕이 곡식과 비단을 빼앗아 오도록 명하였으므로, 배를 타고 습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재지에는 크고 작은 배 100척이 있고, 총 인원은 2,500명이며, 자신들을 지휘하는 장군 3인 가운데 한 사람은 당 나라 사람이라고 조직에 대해 털어 놓았다.

현춘이 왕명에 따랐다고 했고, 그 집단의 규모 등을 볼 때 이들이 신라 국왕의 명에 따라 일본을 습격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당시 신라에서 이런 규모의 해군력을 갖기 어려웠으리라는 면에서 이들이 무진주에 웅거하면서 왕 노릇을 하였던 견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집단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현춘 등이 대마도를 습격한 그 해, 즉 894년(진성왕 8)에 궁예는 명주에서 3,500명에 달하는 병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14개의 부대로 나누었으며, 각 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하고 자신은 장군이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현춘은, 정부의 세금 납부 독촉에 항거하여 일어난 농민들 혹은 어민들을 모아 신라의 해안가 혹은 섬을 근거지로 대두한 호족의 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곧 이어 언급할 능창(能昌)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905년(효공왕 9) 평양(平壤)의 성주·장군 검용(黔用)과 평양 인근 증성(甞城) (증산군)의 적의(赤衣)·황의적(黃衣賊) 명귀(明貴) 등이 궁예왕에게 귀부하였다. 검용이 성주·장군이었던 반면 명귀 등은 도적이라고 나온다. 명귀 등이 붉은 옷과 누런 옷을 표지로 하였다는 점에서 붉은 바지를 표지로 하였던 적고적과 통한다. 적고적이나 적의·황의적은 모두 봉기한 농민들로 이루어졌는데, 전자가 일정한 근거지를 갖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약탈하다가 소멸하였다면, 후자는 증성에 정착해 호족화하였던 것으로 짐작해본다.

압해현(壓海縣) (신안 압해도)의 도적 우두머리(賊帥) 능창은 섬에서 입신하였는데, 수전(水戰)에 능하여 수달이라고 불렸으며, 도망자들(亡命)을 불러 모아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909년(효공왕 13) 그는 인근 섬의 다른 도적들(小賊)과 연합해 궁예왕이 보

낸 왕건과 그의 군대를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붙잡혀 왕에게 압송되었다. 궁예왕은 “해적(海賊)들이 너를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는데 이제 포로가 되었다”고 그를 비웃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능창은 신안 일대의 섬을 중심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명성을 떨쳤던 듯하다. 기록에 능창을 도적 혹은 해적이라고 하였고, 그가 도망자들을 불러 모아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면, 능창은 889년(진성왕 3) 농민봉기 이래 떠돌이가 된 농민들, 어민들을 규합하여 압해현을 지배하는 호족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지배구조

925년(경애왕 2) 고을부(高鬱府) (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사졸들을 거느리고 고려에 귀부하였다. 이 때 시랑(侍郞)과 대감(大監)의 관직자들이 그를 수행하였다. 능문은 후대 기록에 나오는 골화현(骨火縣) (영천) 금강성(金剛城) 장군 황보능장(皇甫能長)과 동일 인물로 여겨진다. 태조 왕건은 황보능장에게 좌승(佐丞)의 관계를 수여하였다. 좌승은 고려 초 16관계(官階) 중 제 6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관계였다. 능문은 고을부를 지배하는 대호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시랑은 집사성(執事省)의 차관, 대감은 병부(兵部), 시위부(侍衛府) 등의 차관에 해당하는 관직이었다. 능문의 통치기구에 차관급 관직을 갖고 참여하였던 인물들 중에는 능문의 일족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중소호족 출신도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소개하였던 것처럼 명주의 김예(왕예)는 940년(태조 23) 명

#### '적'과 호족

성주나 장군이라는 칭호를 가진 지방세력가들을 호족으로 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비해 '적' 혹은 '도' 등으로 표현된 세력은 문자 그대로 도적집단 혹은 토착적 기반이 없는 농민봉기군이라고 하여 호족과 구별해 보기도 한다. 그런데 '적'이 재물을 노리는 도적들이나 봉기한 농민들만을 지칭하였던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에 “완산적(完山賊) 견훤이 주수에 웅거하여, 후백제를 자칭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적'은 신라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견훤왕이나 궁예왕과 연고된 호족들은 '적'으로 표현되었던 예가 있는 반면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던 호족들은 성주나 장군으로 표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죽주(竹州) (안성시 죽산면)의 적괴(賊魁) 기훤이나 북원(北原) (원주)의 적수(賊帥) 양길(梁吉)의 경우 그 출신이나 세력의 성격을 확실히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양길은 899년(효공왕 3) 국원(國原) (충주) 등 30여성(혹은 10여 성이라고도 한다)의 성주들과 더불어 궁예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 무렵 양길은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호족이었을 것이다.

주의 도령으로서 좌승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집사낭중執事郎中, 원외랑員外郎, 색 집사色執事 등의 관직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김예가 대호족이었다고 한다면 그 휘하의 관직자들은 그의 일족이거나 중소호족 출신으로서 그의 통치기구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고을부나 명주의 예처럼, 일정 지역에는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대호족이 있고, 그 아래에 중소호족들이 있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962년(광종 14) 철로 만든 당간幢竿과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돌로 만든 지주支柱가 청주 용두사龍頭寺 터에 남아 있다. 당간에는 그것을 제작하게 된 경위, 이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 관한 정보가 새겨져 있다. 처음 당간 만들기를 발원하였던 인물은 당대등堂大等 김예종金芮宗이었는데, 그가 죽자 사촌형(從兄)이었던 당대등 김희일金希一이 이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참여하였던 인물들은 승려와 일반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인들은 다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김희일을 비롯하여 대등 김수△金守△, 김석희金釋希, 김관겸金寬謙 등 “단월겸령檀越兼令”을 맡았던 자들이 있다. 다음으로, 전前 시랑 손희孫熙, 전 병부경兵部卿 경주홍慶柱洪, 학원경學院卿 한명식韓明寔, 전 사창司倉 경기준慶奇俊, 학원낭중學院郎中 손인겸孫仁謙 등은 감사監司를 맡았다. 이외에도 글을 짓고, 썼던 전前 한림학생翰林學生 김원金遠과 글자를 새겼던 손석孫錫이 있다.



그림 4.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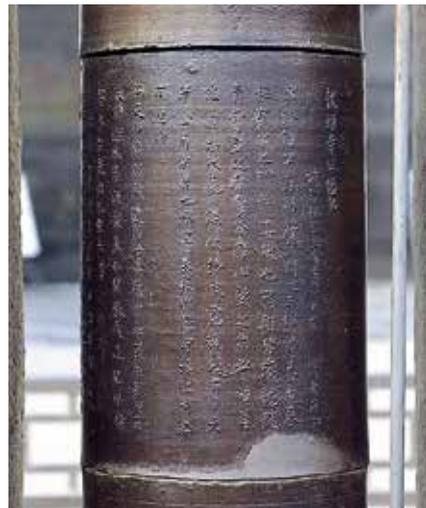


그림 5.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명문 ©문화재청

단월은 사원의 후원자를 일컫는 말이므로 김희일 등이 당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또 공사의 전체적인 지휘, 감독(令)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당대등과 대등은 화백의 상대등과 대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인데, 죽은 김예종이나 김희일, 김수△ 등은 이를 자칭하였을 것이다. 김예종은 “고을의 큰 가문(州里豪家)이요 지방의 손꼽히는 집안(鄉閭冠族)” 출신이었다고 한다. 그의 사촌 김희일은 물론이고, 다른 김씨들도 그와 같은 집안이었거나, 그렇지 않은더라도 그와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집안 출신이었을 것이다. 당간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던 김씨들은 당시 청주의 대호족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청주가 통일신라대 서원경西原京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원경에 옮겨 살게 하였던(徙民) 진골귀족의 후예였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원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이다.

한편, 감사는 건립의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물품을 조달하는 등의 실무를 감독하는 직책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이를 맡았던 전현직 관리들의 관직은 신라의 차관급이거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또, 이들은 대나마, 나마 혹은 대사의 관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신라 17관등 중에서 각각 제 10등, 제 11등, 제 12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하위의 관등이었다. 이들은 청주의 중소호족 출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손씨는 이른바 신라 6부성部姓 가운데 하나였다. 6부성을 가진 자들은 본래 6두품이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손희, 손인겸 그리고 손석은 왕경에서 서원경으로 사민되었던 6두품 귀족들의 후예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경주홍, 경기준, 한명식 등은 청주 지역에 뿌리를 둔 집안 출신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호족들은 일종의 연합을 이루어 일정 지역을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지위 내지는 지배권은 세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더라도 같은 혈연집단 안에서 그 지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혹 다른 족단族團에서 그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타협의 산물이거나 실력대결의 결과였을 것이다. 이와 달리, 지방관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오래 재임하면서 그 지역 토착세력과 결탁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중앙 정부에서 외사정을

파견하여 지방관을 감시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 호족과 지방관의 큰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983년(성종 2) 성종은 州·부府·군·현의 이직吏職을 고쳤다. 이를 '이직개편' 혹은 '향직개편'이라고 한다. 호족들의 통치기구와 관직의 명칭을 격하함으로써 그 지위를 떨어뜨리려는 조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대 등은 호장戶長으로, 대등은 부호장副戶長으로 고쳤다. 낭중을 호정戶正으로, 원외랑員外郎을 부호정副戶正으로, 집사執事를 사史로 바꾸었다. 병부를 사병司兵으로 변경하고, 병부경을 병정兵正으로, 연상筵上을 부병정副兵正으로, 유내維乃를 병사兵史로 고쳤다. 창부倉部를 사창으로 고치고, 창부경倉部卿을 창정倉正으로 바꾸었다.

청주의 예에서 보았듯이 당대등, 대등은 대호족의 유력자들이 맡았다. 이들은 일종의 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의 중요 현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낭중·원외랑·집사가 소속되었을 호부를 상정하기도 하고, 이와 달리 이들 관직이 당대등-대등에 직속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호부 혹은 낭중 이하의 관직자들은 수취 등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병부에는 병부경·연상·유나를 두어 군인의 동원 등 군역에 관한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창부는 수취한 각종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출입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창부경이 그 책임자였다.

한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을부에는 장군 밑에 시랑, 대감 등의 관직이 있었다. 명주에서는 도령 아래로 집사낭중, 원외랑, 색집사 등의 관직을 찾을 수 있다. 청주의 당간 건립에는 당대등과 대등 외에도 시랑, 병부경, 학원경, 사창, 학원낭중 등의 전현직 관직자가 참여하였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통치기구는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이며, 시기에 따른 차이도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호족들도 대호족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통치기구를 갖추었을 가능성도 있다.

호족들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을 모방하여 통치기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하여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거나 노동력을 징발하였는데, 이는 호족들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사용되었다. 호족들은 노비를 무장시키거나 유민을 불러 모아 사병을 양성하였다. 유사시에는 농민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지방관은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중앙정부에 올리거나 중앙정부의 명에 따라 그들

을 역역에 동원하였다.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단이나 지방군을 동원해 그 지방에 대한 치안의 책임을 졌다. 이점 호족과 지방관의 또 다른 차이였다. 호족들은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이었던 것이다.

### 호족의 항배와 의의

894년(진성왕 8)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올렸다. 왕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嘉納), 그에게 아찬의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무 10여조의 내용은 전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시무책이란 당시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은 건의안을 말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신라 말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최치원은 894년(진성왕 8) 이전에 대산군大山郡(태인), 천령군天嶺郡(함양), 부성군富城郡(서산) 등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그런 만큼 그는 당시 지방사회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최치원의 시무책에는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족들이 활거하고 견훤과 같은 대세력가가 등장한 상황에서, 최치원처럼 당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6두품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유명무실해진 도둑제를 대신하여 당의 지주제군사제知州諸軍事制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도둑을 대신해 주치州治를 장악한 지방세력가, 지방관의 유고 등의 이유로 그 뒤를 이은 자 등 지방에서 군권을 장악한 실력자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경제적, 군사적 독립성과 지역민에 대한 지배권을 일부 인정해 지주제군사의 관직을 부여하고, 대신 왕실에 대한 충성과 왕실의 보호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있다. 지주제군사를 칭하였던 자들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이를 자칭하였다고 여겨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견훤은 세력을 모아 무진주를 점령한 다음 “전무공등주제군사武公等州軍事”를 칭하였는데, 이는 그 스스로 서명(自署)할 때에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 보건대 호족들이 자칭하였던 지주제군사의 칭호를 중앙정부에서 묵인하였거나 뒤에 가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을 경우도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주제군사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그것은 여하튼 신라

에 충성하는 호족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905년(효공왕 9) 궁예왕의 군대가 죽령 동북에까지 이르렀다. 효공왕은 국토가 날로 줄어들 것을 매우 걱정하였지만, 막을 힘이 없으므로 여러 성주들에게 나가 싸우지 말고 성벽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삼국시대에 군정적인 성격이 강했던 지방의 수령들을 성주라고 하였다. 이 점에서 신라 말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태수와 현령 등 지방관의 명칭을 성주라고 고쳤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자개는 887년(진성왕 원년) 이전에 이미 사불성의 장군이 되었다고 한다. 호국의영도장 이재도 889년(진성왕 3)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무렵에는 수창군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효공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성주들 중 일부는 호족들이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문제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905년(효공왕 10) 무렵 신라의 지배권은 경상도 일대로 한정된 듯하다. 그 밖의 지역의 호족들은 신라 왕실에 등을 돌렸거나 독립적인 태세를 취하였다고 짐작된다.

906년(효공왕 11) 궁예왕의 명을 받은 왕건이 사화진沙火鎭을 공격해 견훤왕과 여러 차례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사화는 사벌沙伐의 다른 표기이다. ‘화火’는 ‘벌伐’, 곧 불의 뜻을 취한 것이다. ‘진’은 ‘성’과 의미가 통한다. 사화진은 사벌성으로 아자개의 근거지였던 사불성 그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예왕은 소백산맥을 넘어 상주 일대를 차지함으로써 왕경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신라를 병탄하려는 뜻을 갖고, 신라(금성)를 멸도滅都라고 부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한편 궁예왕의 상주 진출에 대응해 견훤왕은 907년(효공왕 12) 일선군一善郡(선산) 이남 10여 성을 차지하였다. 경상북도의 서북지역은 마진과 후백제의 차지가 되었고, 이 지역의 호족들은 두 나라에 의해 정복되었거나 혹은 두 나라에 귀부하였을 것이다.

920년(경명왕 4) 정월 경명왕은 사신을 파견해 고려와 국교를 맺었다. 이는 고려를 반란세력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신라와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이때 양국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은 듯하다. 신라와 고려가 우호관계를 맺자 견훤왕은 920년(경명왕 4) 대야성大耶城(합천)을 점령하고, 이어 진례성進禮城(김해시 진례면)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신라는 고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조 왕건은 즉시 군대를 파견하였고, 견훤왕은 군사를 돌렸다. 921년(경명왕 5)에는 삭주朔州(춘

천)를 지키던 고려의 장군 견권堅權이 신라로 향하던 달고적達姑狄의 침입을 물리쳤고, 경명왕은 태조 왕건에게 편지를 보내 고마움을 표하였다.

이처럼 신라가 고려를 국가로 인정하고, 고려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되자 고려에 귀부하는 호족들이 증가하였다.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맺고 얼마 지나지 않은 920년(경명왕 4) 2월 강주장군 윤웅閔雄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922년(경명왕 6)에는 하지성下枝城(안동 풍산) 장군 원봉元逢, 명주장군 순식, 진보성眞寶城(청송 진보) 장군 홍술洪述이, 923년(경명왕 7)에는 명지성命旨城(포천) 장군 성달城達과 경산부京山府(성주) 장군 양문良文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신라는 친고려 정책을 견지하면서 후백제의 위협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왕경의 울타리 노릇을 해왔던 경상도 일원의 호족들마저 대거 고려로 이탈하였다. 925년(경애왕 2)에는 앞서 보았던 고을부 장군 능문이 사졸들을 거느리고 고려에 귀부하였다. 태조 왕건은 고을부가 신라 왕경에 가깝다고 하여 능문은 돌려보내고 부하들만 머무르게 하였다. 고을부는 지금의 영천으로서 왕경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는데, 그 곳의 호족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930년(경순왕 4) 정월 고창군古昌郡(안동) 병산瓶山에서 후백제군과 고려군이 격돌하였다. 고려군이 크게 이겼는데, 고창군 성주 김선평金宣平을 비롯한 권행權行, 장길張吉 등 안동 일대 호족들의 귀부가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고창전투가 고려의 승리로 끝나자 안동 부근의 영안永安(안동 풍산), 하곡河曲(안동 임하), 직명直明(안동 일직), 송생松生(청송 송생) 등 30여 군현이 차례로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이어 명주에서 흥례부興禮府(울산)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연안의 110여 성이 역시 귀부하였는데, 박윤웅朴允雄이 울산 일대 호족들의 귀부에 공을 세웠다. 이 해 2월 태조 왕건은 일어진岬於鎭(포항시 신광면)에 행차하여 성을 쌓고, 신광진神光鎭으로 이름을 고치고 백성을 이주시켰다. 신광진은 신라의 왕경을 감시하는 고려의 군사기지였다. 이 때 포항의 북미질부성주北彌秩夫城主 환달萱達이 남미질부성주南彌秩夫城主와 함께 태조 왕건에게 투항하였다.

이렇게 고을부, 흥례부, 남북미질부성 등을 비롯하여 왕경을 둘러싼 경상도

일대의 호족들이 고려에 귀부함으로써 신라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고, 고려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 이제 신라는 더 이상을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 말 전국 각지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호족들이 대두하였다. 후삼국 통일의 관건은 이들을 누가 많이 포섭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견훤왕과 태조 왕건 중 효과적으로 호족들을 끌어들이던 태조 왕건이 결국 후삼국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신라 사회를 규정하는 원리는 골품제였다. 골품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차등이 있었다. 그런데 골품제는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적은 수의 왕경출신 귀족들이 그들보다 훨씬 많은 지방인들을 지배하도록 고안된 신분제가 바로 골품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방 호족들이 왕경의 골품귀족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

고려 전기의 지배세력은 흔히 문벌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신라 말 호족의 후신으로서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 비록 신라의 왕족, 귀족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들도 지방인이었다. 이 점은 왕경의 귀족들, 그 가운데에서도 진골귀족들이 지배권을 오로지 하였던 신라 사회와는 크게 다른 점이었다.

한편, 더 많은 호족들은 지방에 그대로 남아 향리(長吏)가 되었다. 향리들은 지방에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의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선군(選軍)을 통해 군인이 되었다가 무신으로 출세하는 경우도 있었고, 군공을 세워 출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향리가 중앙의 귀족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던 것은 양자 모두가 호족 출신이라는 공통성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점도 신라와는 크게 달랐다.

(조인성)

---

## 참고

## 문헌

신호철, 2002, 『후삼국시대 호족연구』, 개신.

전덕재, 1994, 『신라 하대의 농민항쟁』, 『한국사 4 :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2』, 한길사.

정청주, 1996, 『신라말 고려초 호족연구』, 일조각.

조인성, 2007, 『신라 하대 · 후삼국』,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 제4장

# 유학자들의 활동과 향배

1. 유학자들의 활동
2. 체제유지 지향의 유학자
3. 신체제 지향의 유학자

### 1. 유학자들의 활동

신라에서 고려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의 주도세력이었던 호족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족들은 신라로부터 독립된 통치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무너져가는 국권을 최소한으로나마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을 것이다. 이때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사이군'의 가치를 중시 여겼던 유학자들은 신라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 그러나 역사는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고려라는 새 왕조의 탄생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유학자들이 이러한 급변의 시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 도당유학생의 증가와 빈공과 합격자 증가

도당유학생은 당으로 건너가 공부한 학생이다. 하대에 이르러 도당유학생은 어느 정도였을까. 837년(희강왕 2) 3월 당시 당의 국학에서 수학중이던 학생이 모두 216명이었으며, 840년(문성왕 2)에는 수학 연한이 10년 경과한 숙위학생 105명은 당 문종의 칙명에 의해 집단 귀국당한 일까지 있었다. 기히 9세기 신라에서 도당유학은 열풍에 가까웠다고 하겠다. 희강왕대와 문성왕대는 주지하다시피 대외무역으로 신라의 명성을 떨친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였다. 장보고의 성공적 활동으로 당과 신라의 심리적 거리감이 무척이나 좁혀지게 되었다. 당시 향해 과정을 일기로 남겨놓은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가 있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당의 적산포에서 847년(문성왕 9) 9월 2일 정오에 출발한 엔닌이 충남 서해안에 도달한 것이 9월 4일 새벽이었다. 채 이들이 걸리지 않는 시간에 신라에 도착한 것이다. 심지어 최치원의 경우 12세에 도당 유학하였으니, 당시 신라인들이 도당을 그렇게 무척 위협하고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당의 빈공과에 합격해 관리로 지내거나, 귀국하여 신라에서 관리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빈공과는 당에서 외국인(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른 과거였다. 지금까지는 당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과가 따로 과거의 한 분야로 독립되어 있었던 것

로 여겼으나, 최근 진사과에 합격한 외국인들을 구분해 반공진사라고 불렀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9세기 신라인들의 도당 열풍은 '서학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서학은 당의 발달된 학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악·문장이었다. 이를 잘 배우기 위하여 도당유학의 길을 택했다. 당의 주변국 중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파견한 나라가 신라였다. 당연히 신라는 빈공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 같다. 특히 당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던 발해와는 경쟁이 상당하였다. 875년(현강왕 1) 이동이 빈공과에 합격했을 때 발해의 오소도가 수석을 차지했다. 이를 최치원은 국가의 수치로 여겼다고 한다. 906년(효공왕 10) 최언위가 발해 오소도의 아들인 오광찬을 제치고 상위로 합격하자, 이번에는 거꾸로 오소도가 이에 항의했다고 한다. 이처럼 신라는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군자국'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당에서도 이를 의식해 유학과 문장에 뛰어난 엘리트 학자나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유능한 관료를 신라에 파견하였다고 한다.

표 1. 신라 하대 도당 유학생

성명	재당 활동	국내 활동	기타
자옥(子玉)	당 국학에서 수학	양근현 소수(少守)	관직 임용 논란
양열(梁悅)	덕종 시종, 숙위, 우찬선대부	두힐현 소수(少守)	
김운경(金雲卿)	빈공 급제, 우감문위술부병조참군, 연주(兗州)도독부사마, 치주장사, 선위부사, 책봉사		
최리정(崔利貞)	빈공 급제		김흔을 따라 귀국
김숙정(金叔貞)	빈공 급제		김흔을 따라 귀국
박계업(朴季業)	빈공 급제		김흔을 따라 귀국
박처사(朴處士)	당 문인 고비웅(顧非雄)과 교유		
김윤부(金允夫)	빈공 급제, 시광록경, 선위 책립부사		김흔을 따라 입당
김립지(金立之)	빈공 급제	한림랑 추성군태수, 창림사무후정탐원기 · 성주사사적비문 찬술	김흔을 따라 입당
박량지(朴亮之)	빈공 급제		김흔을 따라 입당
박산인1(朴山人)	당 문인 마대(馬戴)와 교유		
박산인2(朴山人)	당 승려 무가(無可)와 교유		
김간중(金簡中)	빈공 급제, 태자통사사인, 고애검조제책립(弔祭册立)부사		유산포를 거쳐 신라에 도래
김가기(金可紀)	빈공 급제, 종남산에서 평생을 기거, 도교 신봉		귀국 후 재입당

성명	재당 활동	국내 활동	기타
김이어(金夷魚(吾))	빈공 급제, 당 문인 장교(張喬)와 교유		
박충(朴充)	빈공 급제, 시어사, 당 문인 장교와 교유		
박구(朴球)	기대조(碁待詔), 당 문인 장교(張喬)와 교유		
배광(裴光(匡))	빈공 급제, 광록주부 감찰어사, 책봉부사		당의 책봉사 호귀후와 신라 내왕
박거물(朴居勿)	빈공 급제	시독 우군대감 겸 성공	
최하(崔賀)	빈공 급제	한림랑, 사은 겸 숙위판관	
김준(金俊)	빈공 급제	해성군 태수, 서원경 소윤, 고주사	
최치원(崔致遠)	빈공 급제, 율수현위, 승무랑시어사내공봉, 회남절도사 종사관, 도통순관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사, 부성군 · 대산군 태수, 하정사	해인사에 은거
왕거인(王巨(居)仁)	빈공 급제	시정 비방, 투옥	대아주 사람
이동(李同)	빈공 급제		김윤을 따라 입당
박인범(朴仁範)	빈공 급제	한림학사, 서서(瑞書)학사, 수예부시랑	
김악(金渥(岳))	빈공 급제, 조의대부 시위위경	조산대부 창부시랑, 견당사	고려에서 학사, 태상, 수병부령 역임
김장(金裝)	빈공 급제, 해주 자사		
박옹(朴翁)	빈공 급제	시독한림랑, 서서원직학사	
김인규(金仁圭)	빈공 급제	입회남사, 검교창부원외랑, 수한림랑	
김영(金穎)	빈공 급제, 조청랑, 수정변부사마	하정사, 보조선사탑비명 찬술	
김원(金蓮)	빈공 급제	수무주공미현령, 수병부랑중 겸 승문관직학사	
김근(金謹)	빈공 급제	시전중감, 경하부사	
김소유(金紹游)	빈공 급제, 태학박사		수학 만기로 귀국
최원(崔元)	빈공 급제	검교사부랑중, 하등극사 판관	
최승우(崔承祐)	빈공 급제	후백제 봉사, 『사육집』과 『호본집』 저술	
김무선(金茂先)	빈공 급제		김영을 따라 귀국
양영(楊穎)	빈공 급제		김영을 따라 귀국
최환(崔渙)	빈공 급제		김영을 따라 귀국
최광유(崔匡裕)	빈공 급제		김영을 따라 귀국
최영(崔羹)	빈공 급제		최원을 따라 입당
김문울(金文蔚)	빈공 급제, 공부원외랑기왕부자의참군(沂王府諮議參軍), 책명사		
최신지(연위)(崔愼之(彦孺))	빈공 급제	집사시랑, 서서원학사, 원랑대사탑비명과 법경대사탑비명 찬술	고려에서 대상, 원봉성대학사, 한림원령, 평장사 역임
김곡(金鶻)	빈공 급제, 숙위 학생		김장의 아들, 당에서 출생, 김영을 따라 입당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당유학생들의 각고의 노력이 숨어있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이들의 유학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되었을까? 여기에서 숙위학생에 대해 살펴보자. 숙위학생은 숙위를 하기 위해 파견된 학생을 말한다. 숙위의 본래 뜻은 궁정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병을 의미했으나, 점차로 의미가 변색되어 도당유학생을 의미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숙위의 대가로 당으로부터 책값과 식량 등을 지급받았다. 숙위의 의미가 변질된 이후에도 그런 관행은 계속되어 도당유학생들은 당으로부터 학비와 체류비를 지급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비유학생의 존재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사비로 당에 유학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당의 국자감에 들어가 공부하기 위해서나 당에 입국하여 여행하기가 공험을 받기 위해서는 당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므로 사비유학생의 존재를 상정하기에는 무리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도당유학생의 수학연한은 10년이였다. 10년 내에 빈공과에 합격하여 당에서 관리생활을 하거나 귀국하는 것이 일반적이였다. 10년안에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 840년(문성왕 2)에는 105명이 한꺼번에 귀국당하는 일도 있었다. 유학생들은 10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빈공과에 합격해야 된다는 강박감과 고향을 그리는 외로움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빈공과에 합격해 귀국한 유학생들은 신라에서 관직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직을 얻었던 도당유학생의 신분에 대해서는 크게 진골 출신이 많았으리라는 견해와 6두품 출신이 많았으리라는 견해로 나뉘어진다. 도당유학생 중 김씨와 박씨를 상당수 찾을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진골 출신이 많았으리라 주장하기도 하고, 관직을 바라고 이런 어려움을 겪기에는 진골들로서는 매력적이라는 점을 들어 6두품 출신이 많았으리라 주장하기도 한다. 아마도 초기 숙위로 파견된 사람들은 진골 출신이 많았으나, 점차 숙위학생의 기능이 변질되면서 6두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 도당유학생의 귀국 후 활동

도당유학생은 귀국 후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라는 문제가 상당히 궁금하다. 그들이 당에서 배운 지식을 신라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했을까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귀국한 도당유학생들은 신분이 주로 6두품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최고위직에 까지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식견과 경험을 살려 대당관계에 나섰다. 최치원은 당에 파견되는 하정사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며, 진성왕의 선양과 효공왕 즉위시 문한기관인 서서원의 장으로 있으면서 「사사위표」를 비롯한 8개의 외교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884년(현강왕 10) 보조선사비문을 지으면서 자신의 관직을 당의 '수정변부사마'라고 한 김영은 빈공과 출신으로 897년(진성왕 11) 하정사로 재입당하였다. 대안사적인선사비문을 지은 최하 역시 빈공과 출신으로 869년(경문왕 9) 사은사 김윤을 도와 재입당하였다. 최치원 은거 이후 신라의 문명을 장악한 박인범 역시 황소의 난을 겪고 있던 당의 실정을 파악하고자 소위 탐후사로 재입당하였다.

다음으로 도당유학생들은 신라의 정계에서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에서 활동하였다. 최치원은 진성왕에게 신라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무10여조를 바쳤으며, 최언위는 한림학사와 서서원의 지사 및 병부시랑과 집사시랑을 역임하였다. 앞서 든 김영과 최하 역시 왕명으로 선사들의 비문을 작성하였다. 김입지는 한림랑으로 성주사비문을 썼다. 박거물은 '시독우군대감'으로 황룡사목탑찰주본기와 삼랑사비문을 썼다.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에서 국왕과 대면할 기회가 많았던 그들이었지만, 신라 사회를 개혁할 만한 힘을 갖지는 못하였다. 당시 최고위직을 장악하였던 진골은 때로는 국왕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왕위를 넘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골품제 자체를 배격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골품제 체제하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위로는 진골의 견제를, 아래로는 일반 민들의 질시를 받아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겠다.

## 지방 지식인의 등장과 활동

신라하대에 이르러 지방세력이 점차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방세력은 왕위쟁탈전으로 인한 중앙정계의 혼란으로 지방통치가 이완된 틈을 타 점차로 독립된 세력으로 성장

해 갔다. 중앙의 혼란과 함께 지방세력 자체의 성장도 주목되어야 한다. 당시 장보고가 비싼 외래품을 수입해 경주의 귀족에게만 팔았던 것이 아니라 지방의 유력자들에게도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당시 지방세력 중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자들도 등장하였다. 이들이 889년(진성왕 3) 원종·애노의 난을 계기로 점차 독립된 세력으로 발돋움해 갔다.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른다.

이 호족들이 중앙의 권력을 대신하여 지방민들을 통치하게 되었다. 지방민들은 갑자기 충성의 대상이 바뀐 상황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호족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 지식인들로 하여금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 지식인들은 새로이 유행한 풍수설을 이용해 호족들의 땅을 명당이라고 주장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경주의 지덕 때문이었다. 이를 원용하면 작금의 혼란이 일어난 것은 경주의 지덕이 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의 지덕이 이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으니 장차 삼한의 혼란을 수습할 성인이 출현할 곳은 호족이 살고 있는 이곳이라고 선전하였다. 아울러 경주의 지덕을 이어받은 호족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성인으로서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였음을 암시하였다. 자연 지방 지식인들은 호족을 도와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신라로부터 독립된 권력을 합리화하게끔 하였다.

## 2. 체제유지 지향의 유학자

신라말 유학자들이 취할 수 있었던 태도를 크게 3가지로 상정해볼 수 있겠다. 먼저 신라가 계속 존속되기를 희망하는 부류이다.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이 부류에 속했다. 이들은 아무래도 신라의 골품체제하에서 혜택을 향유했던 상위계층 사람들로서 결코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공부했던 유학의 기본적 속성상 왕조를 바꾸어 가면서 충성을 바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용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라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

어 자신들의 이상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보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후백제의 최승우와 함께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하며 유학과 함께 노장사상, 풍수지리설을 공부했던 지방 지식인들이 이 부류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부류의 중간 입장을 취했을 사람들이다. 신라의 존속여부에는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꿈꾸었던 사람들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 부류를 다루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를 언급할 것이다.

### 최치원

#### 최치원의 도당과 귀국

최치원은 857년(헌안왕 원년)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최견일이다. 최견일은 862년(경문왕 2)부터 송복사 중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친형으로 신라말 해인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현준이 있으며, 최인연과 최서원은 사촌 내지 6촌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의 가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만 알려져 있어 불분명한 점이 많으나, 6두품 출신인 것만큼은 확실하다.

최치원은 12살인 868년(경문왕 8)에 도당 유학을 떠났다. 그때 아버지는 “10년 안에 급제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힘쓰도록 하라.”라고 당부하였다. 최치원은 최초의 조기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버지의 당부는 당에서의 10년 한도 내에서 빈공과 급제를 못할 경우 강제로 귀국시킬 수 있었던 당시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최치원이 사비로 유학을 갔을까 아니면 국비로 유학을 갔을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비유학생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견해를 받아들여 국비유학생으로 보고자 한다.

최치원은 도당유학 6년째인 18살인 874년(경문왕 14) 7월 이전 예부시랑 배찬의 아래에서 빈공과에 합격했다. 이때 그는 외국인 중에서는 수석이었던 듯하다. 그 후 2년 뒤인 876년(헌강왕 2) 최치원은 지방관 중에서는 가장 말단인 종9품하의 선주 율수현위에 임명되었다. 다시 1년 만인 877년(헌강왕 3) 그는 현위를 사직하고 좀 더 높은 관료로의 진출을 꿈꿀 수 있는 박학평사과를 보고자 하였다. 박학평사과는 현직관료 출신들이 좀 더 높은 관직으로 승진하기 위해 보는 과거시험이었다.

당연 이 시험은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장안에서 최종 시험을 치루었다. 통상 그 합격자도 3명 정도였다고 한다. 최치원이 이 시험을 응시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당은 황소의 난으로 매우 어지러운 시절이었으며, 더구나 880년(현강왕 6) 황소는 마침내 수도 장안을 점령해 '대제'라는 국호를 선포한 상태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박학평사과는 879년(현강왕 5) 중단되고 말았다. 박학평사과에 응시하지 못한 최치원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만만치 않아 친구 고운(顧雲)을 통해 고변의 휘하에 투탁했다. 당시 880년(현강왕 6) 3월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으로 임명된 고변은 회남절도사로서 황소난을 진압하는 정부군의 사령관이자 국가재정의 근간인 염철을 운송하는 책임자였다. 회남은 회수와 양자강을 이어주는 영통거 유역에 자리잡은 교통의 요지로 당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최치원은 이런 지역의 최고사령관의 서신을 도맡아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때 작성한 글들을 귀국 초기에 묶은 것이 『신당서』 예문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계원필경』이다.

『계원필경』 11권에 실린 881년(현강왕 7) 7월 초에 지은 '격황소서(擊黃巢書)'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고변의 막료로 활동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승무랑(承務郎) 중시(殿中侍御史) 내공(內供奉)'을 제수받아 자금어대(紫金魚袋)를 착용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 관직은 종6품하에 해당되는데, 실직이 아닌 임시직인 검교직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귀국 후에 여러 승려들의 비문에서 이 품계와 관직을 자랑스럽게 사용하였다.

희종은 882년(현강왕 8) 정월 고변을 해임하고 대신 왕탁(王鐸)을 제도행영병마도통에 임명하였다. 고변이 희종의 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병력 출동을 늦추었기 때문이다. 비록 최치원은 그 뒤에도 고변의 휘하에 남아 있었으나, 고변이 도교를 흑신하자 귀국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였다. 황소의 난도 884년(현강왕 10) 7월 평정되었다. 이제 고변의 휘하를 떠날 확실한 명분이 생겼다. 마침 884년(현강왕 10) 회남지방으로 파견되었던 김인규가 최치원의 당제인 최서원과 함께 양주에 이르렀다. 이때 최서원으로부터 오랫동안 궁금했던 집안 사정을 들었다. 그는 884년(현강왕 10) 10월 귀국원을 황제에게 제출했다. 당 조정은 신라 사신 김인규 일행과 함께 최치원의 귀국을 허락하였다. 884년

말 최치원은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날씨 때문에 산동반도 등주에서 겨울을 보낸 뒤인 885년(현강왕 11) 3월 경주에 도착하였다. 29살의 나이에 17년 만의 금의환향이었다.

### 귀국 후의 활동

최치원의 활동 중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문은 아무래도 그가 귀국한 이후 어떤 활동을 했을까일 것이다. 당에서 황소의 난을 겪으면서 여러 절도사들의 봉기도 목격한 그가 신라 사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았을까.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그는 귀국 후 '시독검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사를 맡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관직을 동시에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마도 기록된 순서에 따라 역임했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최치원은 시독검한림학사를 역임했을 것 같다. 시독이란 문자 그대로 국왕의 곁에서 경연을 담당했던 관직일 것이다. 한림학사는 한림대의 학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최치원은 현강왕의 측근에서 국왕을 보좌하였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그는 그의 유명한 사산비문 중에서 낭혜화상비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비문을 현강왕의 부름을 받고 이때 작성하였다. 이렇게 국왕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현강왕은 최치원이 귀국한 지 1년 4개월 만인 886년(현강왕 12) 7월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국왕 보좌정책이 얼마만큼 실현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현강왕의 사망 이후 그의 행적은 모호한 점이 있지만,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던 것 같다. 대산군과 부성군 태수가 그것이다. 대산군은 부여군내의 홍산면 일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정읍 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다. 부성군은 지금의 서산이다. 그가 변경의 지방관으로 밀려난 것은 그의 열전에 쓰여진 대로 그를 의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수병부시랑을 역임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지중대사비에는 그가 전수병부시랑 충서서원학사로 되어 있다. 지중대사는 882년(현강왕 8) 입적하였다. 현강왕은 885년(현강왕 11) 최치원의 나이 29세에 그의 비문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이 비문의 완성시기에 대해서는 893년(진성왕 7)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참고로 이 비가 건립된 시기는 이로부터 31년이 지난 924년(경명왕 8)이다. 893년(진성왕 7)에 이르러 최치원은 수병부시랑직을 그만 두고 서서원학사에 임명되었다고 하겠다. 문한직을 주로 담당했었던 최치원이 병부시랑직을 역임했다는 것이 조금은 어

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병부가 국왕의 권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하등 이상할 것은 없다. 최치원은 886년(헌강왕 12) 7월 헌강왕이 사망하자 대신군 태수로 부임하였다가 곧 중앙으로 올라가 수병부시랑직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다시 부산군 태수로 부임하였다가 893년(진성왕 7)에 서서원학사로 임명되었으며, 또 같은 해 당에 파견되는 하정사에 임명되었다.



그림 1. 하동 쌍계사진감선사비

최치원은 귀국 후 어느 때가 하정사로 다시 당을 방문했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

다. 그런데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897년(효공왕 원년) 효공왕이 즉위하자 고주사로 입당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897년(효공왕 원년) 무렵 하정사 김영의 수행원인 학생수령으로 입당하였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치원이 시무10여조를 894년(진성왕 8) 2월에 올렸다는 사실에 주목해보면 그의 입당시기는 893년(진성왕 7)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는 893년(진성왕 7)에 부성군 태수로 재직 중이었다. 이때 하정사로 임명되었으나, 계속된 흉년으로 도적이 횡행하여 길이 막혀 입당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해 그는 재차 입당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던 것 같다. 이는 893년(진성왕 7) 비문 작성의 명을 받은 지 8년 만에 탈고한 지증대사비문에 최치원의 직함을 ‘입조하정점영봉황화등사入朝賀正兼迎奉皇花等使’라고 하였던 사실에서 추정되고 있다. 하정사로 재차 입당했다 귀국한 그는 894년(진성왕 8) 2월에 시무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본다면 최치원은 시무10여조에 당시 신라가 처한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담았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당에서는 황실의 친위대를 증강시키며 황실의 권위를 지켜보려고 했던 중흥의 군주인 소종이 재위하고

있었다. 똑같이 지방세력의 발호로 중앙권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었던 까닭에 당의 사정은 신라의 위기 극복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가 역임한 지서서감사에 대해 알아보자. 서서원은 주지하듯이 한림대의 후신이다. 한림대는 국왕의 경연과 교서작성, 때로는 외교사행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의 서서감은 아무래도 서서원을 의미할 것이다. 지서서원사는 서서원의 장이다. 최치원은 894년(진성왕 8) 시무10여조를 바친 이후 아찬으로 승진하였다. 아무래도 그가 서서원의 장에 임명된 것은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는 그 자리를 해인사에 은거하기까지 역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897년(효공왕 원년) 진성왕의 선양과 효공왕의 즉위 시 그는 당으로 보낸 「사사위표」를 비롯한 8개의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아마 그가 서서원의 장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결국 해인사로 은거하고 말았다. 898년(효공왕 2)에 그는 「신라가야산해인사결계장기」를 썼다. 이 무렵 이미 관직을 그만 두고 해인사에 은거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열전에는 해인사로 은거하기 전 여러 곳을 방랑하였다고 한다. 경주의 남산, 강주의 빙산, 합천의 청량사, 지리산 쌍계사, 합포현의 교의 등지가 그 대상지이다. 그러면 898년(효공왕 2) 그는 먼저 해인사에 들른 이후 여러 곳을 방랑하다가 다시 해인사에 정착하였다고 하겠다. 900년(효공왕 4) 12월경에는 해인사에 정착하였다고 여겨진다. 그가 해인사에 관련된 두 번째 글인 900년(효공왕 4) 12월에 쓴 「해인사선안주원벽기」를 통해서 유추된다.

### 최치원의 개혁사상

최치원이 바라던 이상적 국가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모든 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요순이 통치하던 시대를 이상으로 삼았다. 요순은 군주 자신이 수양을 하여 인덕을 쌓고 예를 바로 세운 인물로 상정된다. 최치원은 군주가 먼저 바로 서면, 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당연 요순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주의 자질 문제를 중요시하였다. 군왕은 인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치원의 대승복사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왕자가 조종의 덕을 기본으로 하여, 후손을 위한 계책을 준엄히 할 적에 정치는 인으로써 근본을 삼고, 예교는 효로써 우선을 삼는다 하니, '인'으로써 대중을 구제하는 정성을 보이고, '효'로써 아버지를 높이는 전례를 거행하며, 「홍범」에서 '치우침이 없는 것'을 본받지 않음이 없고, 「주서」에서 '효자가 다하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따르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초월산 대승복사비명」)

군왕은 조상의 덕을 이어받고, 인으로 대중을 다스려 구제한다고 하였다. 대중을 다스리기 위해 항상 불편부당하여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벌을 명확하게 하여 국가 근본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은전을 베풀어 스스로 귀부하게끔 하는 것이 왕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규범이다. 예의 근본을 효에 두고 '효리孝理'와 '효치孝治'를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의 표본이라고 하였다.

군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요순의 덕화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인재를 추천하여 등용시킴으로써 가능하다. 현명한 인재는 또한 군주의 부름에 응하여 도를 실현시켜야 한다. 소부와 허유처럼 은자의 삶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해인사에 우거하면서도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요,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고 하였다. 도를 이루고 넓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최치원은 군주의 덕화정치 실행과 신하의 도 구현을 밀접히 관련지었다.

어떤 인재를 등용해야 할까? 그것은 이미 818년 헌덕왕대에 집사시랑에 올랐던 녹진에 의해 제기되었다. 능력에 맞는 성실한 인물을 선발·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로부터 70여년 뒤의 헌강왕대(875~886)에 낭해가 건의한 '능관인' 정책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능관인' 정책은 능력있는 인물을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어떤 인물이 능력있는 인물일까? 그것은 도당유학을 해 예·악·문장에 능한 인물과 함께 신라 국내의 국학에서 수학한 인물을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6두품출신들이다. 그러니까 6두품을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바로 유학의 정명론이다. 이 정명론은 경덕왕대의 충담사가 유었다는 안민가에도 인용될 정도로 신라 사회에서는 이미 널리 인식되었던 논리이다. 정명론은 군왕은 군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안민가에서는 군왕은 아버지요, 신하는 어머니요, 민은 자식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국가를 가정에 비유해 군왕은 모든 가족을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존재로, 민은 군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존재로, 신하는 군왕과 자식을 사랑하여 항상 화목을 도모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정명론은 이름을 바르게 정하면서 이름값을 행하도록 하는 논리이다. 자연 이름에 따른 명분이 뒤따르게 된다.

명분론이 드러나는 것은 834년(흥덕왕 9)의 개혁조서에서이다. 이에 의하면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는 준비가 있다."고 하였다. 흥덕왕은 무너져가고 있는 신분질서, 즉 골품제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개혁조서를 발표하였다. 6두품은 진골 바로 아래 신분이다. 6두품을 진골이 차지하였던 관직에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능관인 정책은 최치원으로 대표되는 하대의 6두품을 진골 관직에 임명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최치원을 비롯한 도당유학생들이 받았던 관직은 모두 시랑직으로 6두품이 받을 수 있는 관직을 차지한 것이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6두품의 건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하대에 이르러 진골들도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6두품이 차지해야 할 관직조차 진골들이 담당했던 현실을 타개하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이 6두품으로 하여금 도당유학의 위험을 무릅쓰게 한 요인이며, 빈공과 합격을 위한 재당시절의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게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최치원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어떤 사회를 이룩하려고 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가 진성여왕에게 건의했다고 하는 시무10여조에 잘 담겨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현존하지가 않는다.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의 이상을 실현시켜 보려는 구체적 방안과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떤 사회가 형성될 것인가였을 것이다. 시무10여조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최치원이 염원했던 사회상으로 자주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나름 흥미로운 점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최치원은 유명한 '강남녀'에서 '아침 내내 베틀에서 북을 놀린다고 / 이웃집 딸

을 도리어 비웃나니/비록 베를 짜노라 몸을 괴롭혀도/마침내 비단옷은 너에게 안간다고라고 묘사하였다. 이 시는 그가 남긴 여타에 비하면 상당히 사회성이 넘치는 몇 편 안되는 시에 해당된다. 이 시에서 자신이 입지도 못할 비단옷을 짜는 여자를 비웃고 있는 강남녀를 소재로 삼고 있다. 얼굴이 예뻐 좋은 집에 시집가 부자로 살면 될 것을 힘들게 베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이웃집 딸을 비웃는 내용이다. 힘들게 일하는 가난한 이웃을 비웃으면서, 강남녀 자신은 예쁜 얼굴과 치장으로 부자를 꿈꾼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당시 권력과 빈부 차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비록 당의 사정이라고 하지만, 신라도 당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최치원 역시 귀국 이후 이러한 권력과 빈부 차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지 못했을 까닭이 없다.

이런 극심한 빈부 차이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은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연상시킨다.

내가 듣건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수입이 고르지 않은 것을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불안한 것을 근심한다. 대체로 수입이 고르면 가난함이 없을 것이고, 화락하면 백성이 적지 않게 될 것이고, 안정하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계씨편」)

정치의 핵심인 백성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빈부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최치원의 이러한 생각은 진골이나 다른 유력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바는 아니었다. 결국 이는 최치원이 자신을 의심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을 피해 은신했던 까닭 중의 하나였다고 여겨진다. 그는 마지막까지 신라를 사랑했지만, 신라인들은 그를 받아들이는 데 너무 인색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홀연히 짚신짚만 남기고 사라졌다는 기록은 최치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며, 당시의 진골 지배계층이 바랐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최치원의 이상적 생각은 후학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치원

의 뒤를 이은 최언위를 보면 그런 점이 드러난다. 최언위는 선사들의 비문을 많이 작성하였다. 그곳에 그의 정치적 이상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쉽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는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 궁중의 건축명을 짓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한다. 그는 그러한 언어적 감각을 비문에서도 발휘하여 정치 현실을 기술하기보다는 선사의 사상을 기술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그런 최언위였지만,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담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교화를 논하니’ 라고 하여 요순의 이상정치를 논하고 있다. 후대의 예이지만, 고려 광종대 손소가 지은 「대안사광자대사비」에서 ‘태조께서는 위엄이 양나라 원제와 같아 정사에 임함에 도가 하늘과 땅에 화합하고, 덕업은 순임금보다 뛰어나 백성을 다스림에 사악한 무리가 없게 하였다.’ 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유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이기는 하지만, 최치원을 비롯한 하대 유학자들의 이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학자들이 바랐던 요순시대의 이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 바로 백성들의 생활이다. 요순시대에는 백성들이 누구나 걱정없이 살았기 때문에 국왕이 누구인지도 알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학자들은 당연 백성들의 삶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당시 당 후기의 유학자들은 자신들의 시에서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환관과 절도사들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두순학, 온정균, 두목, 이상은 등이 특히 유명하다. 두순학의 대표작인 「산중과부」를 소개하면서 당시 고달팠던 민중들의 삶을 느껴보자.

장부는 전란으로 인하여 죽고 자신은 부서진 집에서 홀로 남았다.

몸에는 조잡한 마로 만든 옷을 입고 머리털은 그을렸다.

뽕나무는 모두 베어졌는데 도리어 세금을 내라하고, 농지가 황폐해진 후에도 씨앗세금을 내라 하는구나.

수시로 들판의 풀과 뿌리를 삶아 먹었는데 지금은 뽕나무 잎사귀까지 살고 있다.

설령 깊은 산 깊은 곳에 가더라도 당연히 부세와 요역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당에서 공부한 도당유학생들은 이들의 시를 보았을 터이다. 아마도 도당유학생들도 충분히 공감했을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당유학생들에게서 이러한 풍의 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아마도 남아 있는 시는 거의 없고 당시의 관념으로 문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들만이 우연하게 선택되어 동문선에 전해지는 것이 -물론 이것은 이미 이전의 십초시에서 선택된 것이라고 한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설마 이런 사회상에 눈을 돌리고 요순을 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타하면서 소극적으로나마 좀 더 나은 정치를 요구했을 것이다.

## 최언위

### 생애

최언위는 신라말 고려초의 선사비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그만큼 그의 문명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최언위는 최치원이 입당한 868년(경문왕 8)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최치원과는 12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는 18세에 입당하였다고도 하고, 30세에 입당하였다고도 한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및 『삼국사기』에는 모두 그가 18세에 입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기록에 18세라고 기록되어 의심할 바 없는 듯하다. 그런데 기록 하나가 말썽이다. 바로 최치원이 지은 「전숙위학생수령등입조장」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최신지 등 8명의 숙위학생은 하정사 김영을 따라 당에 갔다고 한다. 최신지는 『고려사』에 의하면 최언위의 처음 이름이라고 한다. 김영이 하정사로 파견된 때는 897년(효공왕 원년)이다. 그러면 최언위가 당에 간 시기는 897년(효공왕 원년)으로 30세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사』와 『삼국사기』에 어떻게 해서 18세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치원이 찬한 글은 당대에 편찬된 것이고, 당에 올리는 글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더 있다.

다음으로 최언위가 고려에 귀부한 시기가 불명확하다. 『고려사』에 의하면 최언위는 태조가 918년(태조 원년) 즉위하자 고려에 귀부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고려사절요』는 그가 935년(경순왕 9) 신라가 망하자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서 활동하였다

고 한다. 과연 어느 기록을 믿어야 할까. 두 개의 기록이 대비되는 경우 다른 3자의 자료로써 규명할 수 밖에 없다. 최언위가 남겨놓은 기록은 선사비문이 전부이다. 선사비문에 남은 흔적을 찾아보면, 그는 최소한 924년(경애왕 원년)까지는 신라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924년(경애왕 원년) 그는 「홍녕사징효대사비」에 '수집사시랑'이라고 하였다. 924년 신라의 집사시랑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924년(경애왕 원년) 같은 해에 세워진 봉림사진경대사비에는 최언위가 '전수집사시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징효대사비는 924년(경애왕 원년) 4월 15일 비문이 완성되었지만, 사정상 944년(혜종 1) 6월에 비가 세워졌다. 진경대사비는 경명왕이 찬수해, 924년(경애왕 원년) 4월 1일 비가 세워졌다. 진경대사비가 징효대사비보다 먼저 찬수되고 세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언위의 관직표기는 징효대사비에는 현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수집사시랑'이라고 표기되었으며, 먼저 찬수되고 세워진 진경대사비에는 전직인 '전수집사시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두 개의 선사비문의 표기는 최언위의 신라관직 수행시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최언위의 고려 귀부 시기는 남아있는 자료상으로는 아직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927년(경애왕 4) 12월 견훤은 왕건에게 국서를 보냈다. 그 답장을 최언위가 썼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언위가 935년(경순왕 9) 경순왕과 함께 고려에 귀부했다면 928년(경순왕 2) 정월 왕건의 답서는 최언위가 작성할 수가 없다. 이에 최언위가 왕건의 답서를 쓴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그가 927년(경순왕 원년) 12월 이전에 고려에 귀부하였다고 추정할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최언위는 그의 문명에 비해 생애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이는 그의 신라에서의 활동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897년(효공왕 원년)에 도당한 최언위는 9년만인 906년(효공왕 10) 당의 설정규가 시험관이었던 과거에 합격하였다. 이때 발해의 재상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보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마침 입당사절로 와있었던 오소도가 항의하였다고 하나, 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급제 3년 후 최언위는 42세 되던 909년(효공왕 13)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 당은 907년(효공왕 11) 주전충에 의하여 멸망되고, 후량이 들어섰다. 최언위는 당이라는 대국의 멸망

을 목격하였으며,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설정규가 후량 건국 직후인 907년(효공왕 11) 10월 어사사헌이 되던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신라도 멸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왕조에 입사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언위는 귀환 후 906년(효공왕 10) 죽었다고 추정되는 박인범의 뒤를 이어 한림학사직과 아울러 서서원의 지사 및 병부시랑과 집사시랑을 역임하였다. 그는 문한직을 수행하면서 국왕과 수시로 만날 기회를 가졌을 것이지만, 장관이 아닌 차관직인 시랑직에 머물렀던 것으로 미루어 중앙의 요직에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6두품으로서의 그의 신분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현실인식

최언위의 현실인식은 흥미롭다. 그는 「홍녕사 징효대사 보인탑비」에서 9세기 말엽 정강왕대와 진성왕대를 “이 무렵의 운수는 혼란기를 맞아 시절이 어려웠으며, 왕실이 위태롭기가 달걀을 썬아 놓은 것 같아, 곳곳에 불타는 연기와 말달리는 먼지가 갑자기 일어나니 요사스런 기운이 절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파악하였다. 곧 이어 그는 “세상이 모두 혼탁하며 시절이 오래도록 혼미합니다. 햇불로는 한밤중의 어둠을 제거할 수 없으며, 아교로는 황하의 탁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항상 어두운 현실을 보니 실로 삶의 길이 싫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징효대사의 현실인식이지만, 최언위의 인식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907년 당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그는 현실사회의 혼란을 막을 인위적 방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방도를 택하였던 것 같다.

941년(태조 23)에 죽어 943년(태조 25)에 세워진 「정토사 법경대사자등탑비」에서 그는 법경 현휘가 924년(경애왕 원년)에 귀국한 동기를 “가만히 듣건대 지금 본국本國에는 전쟁의 안개가 걷히고 바다에는 점차 파도가 사라져서 외난外難은 모두 소멸되고 다시 중흥中興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924년(경애왕 원년)이던 왕건과 견훤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을 중흥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은 후삼국을 통일한 직후 왕건의 즉위 시기를 바라보는 인식의 결과였을 것이다.

최언위는 「오룡사법경대사보조혜광탑비」에서 궁예를 폭군의 상징인 걸주보다 더 폭정이 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무너뜨린 탕왕과 무왕을 정당화시킨 맹자의 ‘군왕을 죽인 것이 아닌 독부獨夫를 죽인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궁예를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즉 왕건의 즉위를 군주를 죽인 것이 아닌 독부를 죽인 혁명으로 보는 것이다. 9세기 말엽의 인식과 10세기 인식이 자못 다르다. 70이 넘는 최언위의 인식이 이런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는 것이다. 그는 다가오는 현실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하겠다.

### 박인범

박인범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그의 행적을 밝히기가 힘들다. 심지어 그의 생몰년도도 모르고 있다. 단지 그가 남긴 시에 의해 몇가지 행적을 더듬어볼 수 있다. 그는 당나라 의종 시기에 당에서 활동했던 듯싶다. 그의 시 ‘인도로 돌아가는 염상인을 전송하며’라는 시 마지막 구절에 ‘당나라 함통이란 연호를 손수 써 보이소.’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함통(860~873)은 의종의 연호이다. 그는 876년(헌강왕 2)에 예부시랑 고상高湘 아래에서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상당히 들었다고 여겨진다. 그의 시 ‘향암산 예상인에게 부침’에 의하면 ‘소나무 사이 달 아래에서 글 짓던 일 벌써 십년이네, 나루를 못찾아 쉼 아래 의지한 내 신세 가엾어라.’라고 하였다. 그가 도당유학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나루를 못 찾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시인 ‘강가로 가면서 장준 수재에게 드림’에서는 ‘나그네 신세 함께 서러워 나이조차 늙었으니, 품은 생각 말할 때마다 눈물만 글썽이네.’라고 하였다. 품은 생각을 표현할 때마다 눈물만 나오는 것은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이미 나이가 늙었다고 하였다. 그는 나이가 상당히 과거에 합격했음을 알 수 있다. 귀국한 시기 역시 불명확하지만, 『계원필경』 권10에 의하면 박인범이 882년(헌강왕 8)에 황소의 반란군과 당 조정의 동향을 살피는 탐후사探候使 자격으로 신라 국왕의 서신을 갖고 회남 초주의 산양에 이르러 회종을 배알하기 위해 최치원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882년(헌강왕 8) 이전에 그는 귀국한 것이다.

이규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인으로 박인범과 최치원·박인량을 들면서 이 세 사람에게 이르러 비로소 우리의 문명이 중국에 알려졌다고 할 정도로 박인범은 시의 대가였다. 최치원이 관직을 떠난 후 그가 문병을 장악하다가 900년(효공왕 4) 경에 이르러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겨진다. 900년(효공왕 4) 3월 징효대사가 죽자, 왕은 박인범에게 비문을 지을 것을 요청했는데, 비문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였다. 그가 900년(효공왕 4) 무렵에 죽었음을 알려 준다.

### 최광유

최광유 역시 거의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생몰년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를 살펴보는 이유는 최치원·최승우·박인범 등과 함께 당에서 신라십현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당의 빈공과에 합격했는지의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한치윤은 그의 『해동역사』에서 명대의 저작인 『광여기』의 ‘최치원과 최광유 두 사람은 중국에 유학하여 서로 이어 진사가 되었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최광유가 빈공과에 합격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897년(효공왕 원년) 최치원이 쓴 「주청숙위학생환변장奏請宿衛學生還蕃狀」에는 최광유가 수학 연한인 10년 만기가 되었으므로 귀환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어 등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최치원이 쓴 같은 글에서 그는 885년(현강왕 11) 도당하여 12년 만에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897년(효공왕 원년) 귀환한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빈공과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로 귀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여 강제로 귀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앞의 최치원 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글 속에 보이는 전반적 분위기에 의하면 신라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최광유와 최환·김무선 등을 귀환시켜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서 882년(현강왕 8) 돌아온 태학박사 김소유의 예를 들면서 이들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다. 태학박사라는 직책으로 미루어 볼 때 김소유는 빈공과에 합격한 인물이다. 그런 김소유를 예로 들었다면 최광유를 비롯한 2인도 빈공급제자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최광유의 시 「어구御溝」를 보면 이것이 한층 확

실하게 드러난다. ‘새벽엔 지새는 달과 함께 성 밖으로 흘러가고, 밤중에 쇠잔한 종소리 띠고 금중에서 나오네.’라고 하는 「어구」는 궁궐내의 맑고 깨끗한 도랑인 어구를 소재로 읊은 시이다. 그런 만큼 이 구절은 도랑의 물이 새벽에 흘러들어 왔다가 저녁 늦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이것은 시 작자가 궁궐의 관리로 힘든 하루 일을 보내는 출퇴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해석에 따라 그가 궁궐의 관리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그는 빈공과에 합격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열거한 빈공제자 22인 중에도 들어가 있다.

최광유의 작품은 『십초시』와 『동문선』에 동일 작품 7언 율시 10수가 실려 있다. 그의 시는 과거 급제를 못한 안타까운 심경과 이방인의 외롭고 고통스런 삶을 화려하고 고운 여성적 이미지로 형상화된 대상 경물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귀국 후의 행적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 3. 신체제 지향의 유학자

### 신라에 대한 미련 – 은거 지식인 왕거인

앞 장에서는 신라국가권력이 존속되어 그 권위의 비호하에 자신들의 신분적 특권을 유지하면서 신라 사회가 새롭게 재편되기를 바라는 6두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신라국가의 권력에 맞서면서 국가가 사라져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반신라적 호족을 사상적으로 보좌해 주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들 중에는 그래도 신라가 여전히 존속되는 것을 원한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도 있다. 바로 왕거인으로 대표되는 은거 지식인들이다. 먼저 이들을 살펴보고 뒤이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들을 다루기로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하대의 왕위쟁탈전은 흥덕왕 이후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문성왕대에 이르러 점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경문왕계가 50여 년 간(861~912) 집권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왕위쟁탈전을 비롯한 진골들의 반란도 종전에 비해 상

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사료상에 드러나는 이 시기 신라의 모습은 상당히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느낌이다. 『삼국유사』에 처용가가 소개되고 있다. 처용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서역인으로 파악한 견해가 주목된다. 서역인이 와서 거주할 정도로 신라의 번성한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처용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기사에 더욱 흥미있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헌강왕(875~886)대 경주 시내에는 초가가 없고 지붕을 기와로 얹었으며, 밥을 짓는 데 땀나무를 쓰지 않고 솥을 사용하며, 풍우가 순조로워 풍악과 노래가 길거리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주의 풍요로움이 절로 느껴지며, 당시의 경주인들이 얼마나 삶을 즐기며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처용가에서도 그런 모습이 상상된다. 밤늦게 처용이 술을 마시었다거나, 돌아와 보니 부인이 누군가와 같이 있었으며, 역신이 다시는 당신 모습이 보이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전체 글 맥락에서 당시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이를 풍요로운 도시의 병폐현상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 실제로 농민반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889년(진성왕 3)보다 거의 10여 년 앞서는 시절에 보이는 이런 풍요로움은 지방의 농민들의 삶을 피폐시킨 희생의 댓가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건전한 생산력 발전으로 이룩된 풍요로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피폐하고 병든 도시의 모습을 상상케 해준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보인다.

이런 피폐한 도시의 모습에서 유학자들이 추구하던 건강한 예禮를 찾을 수는 없다. 예는 원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 출발한 것이다. 예가 쇠퇴하고 있으면서 악樂과 문장이 발달하고 있다. 이 시기 사료상에 악樂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은 흥미롭다. 처용가를 비롯한 지리다도파와 현금포곡·대도곡·문군곡, 다라니어로 된 풍자시, 왕거인의 분원시 등이 전해진다. 이 중에서 현금포곡·대도곡·문군곡 등은 경문왕대 국선 화랑 4명이 금관(지금의 강원도 통천)을 유람하면서 임금과 도와 나라를 다스리려는 뜻을 담은 노래라고 한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지리다도파는 경주의 남산의 신, 금강령의 북악신, 동례전의 지신 등이 나와 헌강왕에게 춤을 추면서 불러 주었다는 노래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지리다도파智理多都波’의 의미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미리 알고 많이 도망하여 도읍이 장차 파한다는 뜻이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이런 의미의 해석이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때부터 신라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의식이 싹터났다고 하는 것은 흥미롭다고 하겠다.

결국 다라니어로 된 풍자시와 왕거인의 분원시도 이런 맥락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라니어로 된 풍자시를 『삼국유사』에서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 “찰나나제는 여왕을 가리킨 것이고, 판니판니소판니는 두 소판을 말한 것이며, 우우삼아간은 서너 사람의 총신을 말하고, 부이는 부호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진성왕과 소판 2명, 아간 총신 3~4인, 각각 위홍의 부인인 부호부인이 국가를 망국으로 이끈다는 뜻이다. 역시 『삼국유사』에서는 실제로 이 노래가 지어진 배경을 “제 51대 진성왕이 임금이 된 지 몇 해만에 유모 부호부인과 그의 남편 잠간 등 서너 명의 총신들이 권세를 잡고 정사를 휘두르자 도적들이 별떼처럼 일어났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권력을 풍자한 은어시는 구체적 한 개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면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그만큼 내용이 사실에 가까울 확률도 높다. 진성왕의 즉위와 측근들의 권력남용으로 일반 민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났다. 이는 실은 진성왕 즉위 이전부터 형성되어온 것이 즉위와 더불어 끓어터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강왕이 사망하고, 이어 즉위한 정강왕이 1년여 만에 죽자 진성왕이 뒤를 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가 급속하게 혼란해진 것이다. 이것을 최언위는 「홍녕사징효대사보인탑비」에서 ‘왕실이 위태롭기가 달걀을 썬아 놓은 것 같아 곳곳에 불타는 연기와 말달리는 먼지가 갑자기 일어나니’라고 표현하였다. 진성왕 즉위 이전부터 곳곳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를 개탄한 사람들은 왕도를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지리다도파’의 의미이다.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가 유명한 왕거인이었다.

왕거인은 성이 왕씨였고, 이름이 거인巨仁이었다. 그의 이름에서부터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다. 그는 당시에 반정권적 인물로 경주에서 합천으로 이주해간 인물이었다. 당시 대단한 유학자로 누구나가 인정하는 대학자였다. 앞에서 살펴본 다라니 은어로 작성된 풍자시가 널리 유행하자, 이것을 지은 사람은 바로 왕거인밖에 없다고 지목될 정도로 그는 반정권적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쓴 분원

시가 남아 있다. 『삼국사기』에는

우공<sub>于公</sub>이 통곡하자 3년동안 가물었고  
추연<sub>鄒衍</sub>이 슬픔을 머금으니 5월에 서리가 내렸도다.  
지금 이내 가슴 속 깊이 품은 근심은 옛날과 비슷한데  
하늘은 아무 말 없이 다만 푸르기만 하구나.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이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다.

연단<sub>燕丹</sub>의 피어린 눈물, 무지개로 해를 뚫고  
추연<sub>鄒衍</sub>의 머금은 슬픔 여름에도 서리를 내린다.  
지금 이내 시름 그와 같도다.  
아 황천이여 어찌해 아무 표시도 없는가.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대체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다. 우공<sub>于公</sub>은 한나라 때 동해군 사람으로 군의 관리로 재판을 공정히 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때 동해군의 한 효부가 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 우공이 그 며느리를 열심히 변호하였으나,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 그때 우공이 슬픔을 참지 못하고 크게 통곡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3년 동안 동해군에는 큰 가뭄이 들었다. 후임 태수가 부임하여 억울한 죽음을 달래자 겨우 가뭄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우공은 힘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죽음을 만든 사람이다. 『삼국유사』에 보이는 연단은 전국 7웅 중의 하나인 연왕의 아들로서 태자였다.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병합하려는 의지를 알아내고 형가로 하여금 진왕을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였다. 이에 진은 군대를 보내 연을 치게 하니 왕희는 요동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요동으로 간 왕희는 진과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태자 단을 베어 진에 바쳤다. 그러나 3년 후 진은 연의 요동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태자 연단은 억울한 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추연은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연 소왕의 사부였으나, 소왕

이 죽고 혜왕이 즉위하여 거짓 참소를 믿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자 추연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자 여름 5월이었는데도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

우공과 연단, 추연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혔던 인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상징적 인물들이다. 이들의 일이 곧 하늘을 감동시켜 이상한 징조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왕거인도 옥에 갇히게 되자 이 분원시를 써 옥벽에 붙였다. 그러자 하늘이 벼락을 치고 우박을 내려 왕이 두려워 풀어주었다고 한다.

왕거인의 분원시가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억울한 왕거인의 편을 들어 하늘의 징조를 기록하고 있다. 왕거인은 당시 은거한 6두품의 대표로 여겨지고 있다. 왕거인이 은거한 것은 최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를 의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왕거인 나름의 사회적 병폐를 치유해보려는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 은거했다고 여겨진다. 두 사서에서 이구동성으로 왕거인의 입장에서 서술해 주고 있는 것은 풍자시를 누가 지었는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병폐의 책임은 풍자시에 드러나듯이 국왕 측근의 세력들이었다. 국왕 측근의 세력은 풍자시를 빌미로 사회적 병폐의 책임을 은거한 왕거인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보인다. 결국 하늘의 결정이 왕거인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국왕과 그 측근세력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풍자시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해에 국고가 비자, 국가는 세금을 독촉하는 사자를 파견하였다. 이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 신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풍자시는 신라 혼란을 미리 예견해주는 사건이었으며, 그 중심에 왕거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학자이면서 6두품인 왕거인이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으나, 당시 여론은 그를 지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6두품은 학문과 지성으로 국왕을 보좌하던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터운 진골층의 벽을 뚫지 못하고 실패한 6두품은 어쩔 수 없이 은거한 세력으로 상징된다. 최치원이 말년에 해인사로 들어간 것도 같은 사례이다. 6두품은 신라를 개혁해 보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진골들의 세력으로 어찌지 못한 모습이 상상된다.

## 새로운 사회로의 적극적 참여

### 후백제의 지식인

#### ① 최승우

최치원·최언위·최승우는 신라말 3최로 불리우는 유명한 유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경주 최씨로 6두품 출신이었다. 경주 최씨 중 최치원은 유달리 6두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였다. 그가 낭혜화상비에서 6두품을 '득난<sup>得難</sup>', 즉 얻기 어려운 신분이라고 표현한 데 비하여, 4·5두품에 대해서는 '족히 말할 바가 못된다' 라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득난을 6두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진골과 6두품 사이에 새로운 신분으로 등장한 계층으로 보는 견해도 등장했다. 그러나 아직은 득난을 6두품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최치원은 진성여왕 이후 더욱 강력하게 등장한 호족들도 비하시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주 최씨였던 최승우는 왜 견훤의 휘하에 있었을까. 경주 최씨로 같은 6두품이면서 최승우는 왜 신라가 아닌 후백제를 택했을까가 궁금하다. 최승우는 890년(진성왕 4) 도당하여 893년(진성왕 7) 예부시랑 양섭 밑에서 빈공에 급제한 뒤 관직에 나아갔다가 귀국하였다. 그의 귀국 시기는 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901년(효공왕 5) 이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승우가 남긴 10수의 시 중에 '나부산으로 들어가는 진사 조송을 보내며'라는 시가 있다. 조송(830~901)이 진사가 된 때는 901년(효공왕 5)이다. 당시 예부시랑 두상덕이 70세 넘는 노인 5인을 진사로 뽑을 때인 901년(효공왕 5)에 조송은 비로소 진사로 뽑혀 교서랑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곧바로 죽었다. 최승우가 남긴 시에 진사 조송이라고 했으니, 최승우는 901년(효공왕 5) 당시까지는 최소한 당에 머물고 있었던 셈이다. 그 이후 927년(경순왕 원년)까지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고, 귀국 시기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당의 절도사의 막하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이러한 경험이 견훤의 휘하에서 일하는 직접적 계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문선』 권12에는 최승우의 작품으로 「경호<sup>鏡湖</sup>」를 비롯한 칠언율시 10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당나라 말기의 재상 위소도<sup>韋昭度</sup>와 중서사인<sup>中書舍人</sup> 이

모<sup>李某</sup> 또는 진사 조송<sup>曹松</sup>·진책<sup>陳策</sup> 등에게 주는 형식으로 된 점에서 볼 때, 당나라에 있는 동안 그의 교제 범위가 최치원 못지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특히, 문장에 능해 사륙집<sup>四六集</sup> 5권을 저술하여 『호본집<sup>湖本集</sup>』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책은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호본집』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써온 책'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겸손하게 붙여진 책명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정도의 글을 썼다는 자부심 넘치는 책명이라고 해야 할까?

927년(경순왕 원년) 12월 최승우는 왕건에게 보내는 격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928년(경순왕 2) 정월 왕건은 답신을 보냈다. 양측에서 오고간 외교문서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사절요』 및 『동문선』에 각각 전해지고 있다. 왕건이 보낸 서신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언위라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그가 경순왕과 함께 귀부했다면 연대가 문제된다. 한편으로는 최옹이 작성했다는 설도 있다. 왕복 외교문서를 통해 당시 견훤과 왕건의 신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왕복문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인식은 존왕<sup>尊王</sup>과 존주<sup>尊周</sup> 그리고 사대의식이다. 존왕과 존주는 신라를 춘추전국시대의 주나라로 의식한 것이며, 사대는 10국 중의 오월국을 의식한 말이다. 이러한 것이 단순히 양국의 명분을 찾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여 경순왕을 세우고 퇴각하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한편 견훤은 평양문루에 활을 걸어 '나의 말에게 대동강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하였다. 당시의 적대세력인 고려를 제거한다는 의미이지만, 존왕양이의 양이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견훤의 이러한 시대인식은 결국 최승우의 시대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최승우는 907년(효공왕 11) 당이 주전충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며, 나아가 주전충이 세운 후량도 결국 923년 후당에 의해 망하는 것도 보았다. 주전충이 멸망한 것을 존왕양이의 역사인식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최승우는 주전충에 의해 당은 멸망했으나 곧 다시 당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한 셈이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존왕양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와 같은 의식을 견훤과 최승우가 가지게 된 사정을 살펴보자. 당시 신라는 겨우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신라를 병합한다고 할지라도 경상도 일대의 호족들을 장악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상도 일대의 호족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견훤은 존왕양이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견훤의 노력도 엿보인다. 견훤은 당시 발간된 많은 서적을 수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후대의 사료이지만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오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서적이 분실된 가장 큰 사건으로 고구려의 점령 이후 이적이 모든 서적을 평양에 모아 불살라 버렸다는 것과 고려의 후백제 점령 이후 견훤이 전주에 모아 놓은 모든 서적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견훤이 당시 유폐되었던 서적을 널리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집에 견훤과 함께 최승우의 노력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존왕양이의 논리를 구성하게 되고, 이것을 대의명분으로 삼아 삼한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 ② 김악

최승우와 비슷하게 견훤의 휘하에서 찾을 수 있는 문인이 있다. 김악<sup>金濼</sup> 바로 그 사람이다. 견훤 휘하의 김악은 923년(경명왕 7) 신라의 창부시랑으로서 후당에 조공사로 파견되었으며, 924년(경명왕 8)에도 역시 조산대부 창부시랑으로서 후당에 파견되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견훤의 휘하에 들어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외교사절로 활동하다가 후백제 측에 나포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후 그는 930년 고창전투에서 왕건에게 포로로 잡혀 학사로 중용되었다. 그는 943년(태조 25) 5월 태조의 임종시에 유언의 틀을 작성하였으며, 그해 6월에는 그 유언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953년(광종 4) 김악은 「문경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비」에 의하면 광종의 명을 받아 정진대사에게 증공대사<sup>證空大師</sup>라는 존호를 바치는 글을 작성하였다.

김악은 신라에서 활동하다가 후백제로, 다시 고려로 전향한 인물이었다. 고려에서도 그를 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학덕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명이인으로 왕건에게 귀부한 김악도 보인다. 이 김악은 박인범과 함께 876년(현

강왕 2) 예부시랑 고상의 아래에서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876년 빈공과 합격자인 김악이 953년(광종 4)까지 생존해 있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명이인으로 파악된다. 876년에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이 953년까지 거의 100살을 넘긴 시점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태봉과 고려의 지식인

왕건이 궁예를 무너뜨린 뒤 불과 4일 만에 환선길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왕건은 내전에서 학사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한다. 왕건과 함께 국정을 논의한 학사들이 다름 아닌 문인 지식인들이었다. 왕건의 쿠데타 직후인 만큼 이때의 학사는 궁예 정권 시절부터 왕건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왕건과 국정을 논의했다는 것은 고려의 기본정치구조를 구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궁예와 왕건을 도와 그들의 통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방 지식인이었다. 이제 이들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① 왕유(박유)

왕유는 원래 박유였는데 왕성<sup>王姓</sup>을 하사받았다. 그는 광해주인으로 경서와 사서에 모두 능통했다고 한다. 궁예 정권 시절 동궁기실을 역임했으나, 그의 패륜 때문에 출가해서 산곡간에 숨어 살았다가 왕건의 즉위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왕건이 왕유를 맞이하면서 “다스림의 길은 곧 어진 사람을 구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경이 나를 찾아왔으니, 나는 부암 위빈의 사를 얻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부암은 은나라의 고종이 부열을 찾은 곳이며, 위암은 주 문왕이 강태공을 찾은 곳을 말한다. 부열을 만나 고종은 은나라를 부강시켰으며, 강태공은 주 문왕의 아들 무왕을 도와 마침내 은의 폭군 걸왕을 토벌하였다. 이후 왕유는 고려에서 활동하였다. 922년(경명왕 6)에는 진보성주 홍술을 회유하였으며, 932년(경순왕 6)에는 후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고 그 공로로 딸을 태조 18비인 예화부인으로 납비하였다. 932년(경순왕 6)의 「진철대사비문」과 944년(혜종 1)의 「법경대사비문」에 의하면 그는 당시의 일급 공신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어 그의 역할과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 ② 태평

태평은 염주(연안)출신으로 사서를 널리 섭렵하고 행정에 밝아 염주 적수인 유궁순의 기실이 되었다. 유궁순이 궁예에게 항복하자 그는 오랫동안 복종을 거부해 일개 병사로 강등되었다. 한편 유궁순 휘하에 같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윤선은 궁예의 정복 이후 골암성으로 도망하였다. 윤선은 병법에 능통했다고 한다. 염주 적수 유궁순은 단순한 도적이 아닌 태평과 윤선 같은 지방 지식인을 거느리고 일정한 관반을 편성해 거느린 호족이었다. 태평은 왕건이 즉위하자 귀부하여 순군낭중이 되었다. 일개 병졸에서 순군낭중으로 기용된 것은 왕건에 대한 충성과 태평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었다.

## ③ 최응

최응은 황주 토산인으로 오경에 통달하고 문장에 능통하였다. 최응은 고려 태조로부터 “경은 학문이 높고 풍부하며 재식이 높은데다 겸하여 자신을 다스리고 나라를 근심하고 공공에 봉사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다하니 옛적의 명신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학식과 인덕을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궁예 밑에서는 한림랑으로 왕명을 기초하였으며, 고려에서는 원봉성의 장으로 문한을 장악하였다. 그는 왕건이 궁예의 의심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해준 인연이 있었다. 왕건의 즉위 후에도 원봉성의 장관·광평랑중·내봉경·광평시랑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932년(태조 15) 35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왕건과의 짧은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건국 초기 그 이념을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보인다. 왕건이 최응을 내봉경에서 곧 이어 광평시랑으로 삼으려 하자, 그는 동료 윤봉이 10년 연상임을 들어 먼저 승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왕건은 이에 대해 “능히 예양으로써 하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옛적에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보겠구나.”라고 칭찬하였다. 이것은 최응의 뜻을 받아들여 승급 서열과 원칙을 세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④ 송함홍·백탁·허원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록이 거의 없다. 단지 궁예 휘하에서 문인으로 활동하였음이 알려져 있다. 이들에게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하게 획득한 거울에 쓰여진 명

문을 해석하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들은 거울의 문구를 왕건이 궁예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삼한을 통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사실대로 알릴 경우 해가 자신들과 왕건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여 거짓으로 궁예에게 고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문인으로 명문 해독을 담당하였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후 이들이 왕건을 따라 고려에 종사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송함홍은 928년(경순왕 2) 9월에 발해 사람 은계종(隱繼宗) 등이 귀화하여 천덕전(天德殿)에서 왕에게 세 번 절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은 실례라고 하자 패망한 나라 사람은 세 번 절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들은 새로운 예법을 정리해 가는 역할을 맡았다.

## ⑤ 임언

경주인으로 지방호족의 휘하에 있었던 인물로는 임언을 들 수 있다. 임언은 왕건의 11비인 천안부원부인 임씨의 아버지이다. 『고려사』에 그는 경주인 태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출신이 경주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라의 중앙인으로 6두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927년(경순왕 원년) 4월 강주지사였던 왕봉규의 사신과 함께 후당에 파견되었다. 대외관계를 담당하고 있었다면 그는 문인으로 당대의 유학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927년 4월 고려는 강주 소속이었던 전이산, 노포, 평산, 돌산 등 4개 지역을 점령하고, 이어 8월에는 왕건이 강주를 순행하자 고사같이성 성주 홍달이 귀부하였다. 고려에 의해 강주가 점령되자, 임언은 927년 고려 태조의 사신으로 후당에 다시 파견되었다. 그러니까 임언은 경주인으로 왕봉규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다시 고려로 귀화하였던 것이다.

## 중소호족과 지방 지식인

### 지방 지식인의 존재

신라 말에는 각지에 호족이 산재해 있었다. 이 호족들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던 인민과 생산물을 중앙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호족들은 각기 나름의 통치기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앞서 든 태평은 염주의 유궁순의 기실이였다. 유궁순은 염주에서 일정한 지배기구를 갖추고 있었다.

청주지방의 호족들도 나름의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이 청주용두사당간기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런 조직을 통해 벽진군의 이충언은 도적 때를 방어했을 것이며, 수창군의 이재도 그러했을 것이다. 「규흥시종명」에 의하면 현령 휘하에 상촌주·제2촌주·제3촌주 등 여러 명이 서열을 갖추 존재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군과 주 단위로 확장하여 설정해 볼 수도 있다. 「경청선원 자적선사비」에 나오는 보주관반과 현관반, 그리고 「진공대사비」 읍기에 나오는 주관이 그것이다.

이런 각 급 행정단위의 조직은 아무래도 신라시대 지방관사의 조직을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관사는 지방관과 함께 각 지방의 유력자들로 구성된 행정 실무 조직인 리<sup>里</sup>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리 계층은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만이 아닌 유학을 비롯한 노장사상, 불교 등에 소박하나마 나름의 이해를 갖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여러 선사 비문에서 찾아지는 지방 지식인들의 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다.

여러 선사비문에 보이는 지방 지식인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선사의 이름은 대통<sup>大通</sup>이고 자<sup>字</sup>는 태융<sup>太融</sup>, 성<sup>姓</sup>은 박씨<sup>朴氏</sup>이며 통화부<sup>通化府</sup> 중정리<sup>仲停里</sup> 출신이다. 대대로 벼슬하는 영화를 멀리하였으며 가까운 조상은 소박한 ... 을 이었다. 증조부와 할아버지는 ... (6자 결락)씨족<sup>씨族</sup>인데 본래는 취성군<sup>取城郡</sup>(황해도 황주) 사람이었다. (중략) (선사의) 총명함은 (글을) 한번에 다섯 줄씩 읽어 내릴 정도이고 명민함은 한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서 제자백가<sup>諸子百家</sup>의 여러 책을 두루 통달하였고 천<sup>千</sup>가지 경전<sup>經典</sup>과 만<sup>萬</sup> 가지 논소<sup>論疏</sup>의 내용들을 다 깨달을 수 있었다. (「월광사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

대사의 휘는 공양<sup>公讓</sup>이요, 속성은 왕씨<sup>王氏</sup>로 공주 출신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숙장<sup>淑長</sup>이고, 아버지는 양길<sup>亮吉</sup>이니, (중략) 공무<sup>公務</sup>를 봉직함에는 사심<sup>私心</sup>없이 노력하였고, 청렴결백함은 비길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리<sup>州里</sup>에서 장자<sup>長者</sup>라는 이름으로 존경하였고, 원근<sup>遠近</sup>에는 현인<sup>賢人</sup>군자<sup>君子</sup>라는 칭송이 자자하였다. 고조와 증조부 때부터 모두 군읍<sup>郡邑</sup>의 토

호로서 집집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 그들의 행적은 여기에 신지 않는다. (중략) 글방에서 공부할 나이가 되어서는 날마다 경<sup>經</sup>을 손에 들고 읽었다. 시<sup>詩</sup>와 예<sup>禮</sup>는 이정<sup>鯉庭</sup>에서 배웠고, 강론<sup>講論</sup>은 전사<sup>鱣肆</sup>에서 들었다. 자못 절묘하게 뛰어난 세 가지 분야인 삼절<sup>三絶</sup>에 정통하여 그 이름이 모든 학파<sup>學派</sup>, 곧 구류<sup>九流</sup>에 가득하였다. (「봉암사정진대사 원오탑비」)

선사의 이름은 혜철<sup>慧徹</sup>, 자는 체공<sup>體空</sup>, 속성은 박씨<sup>朴氏</sup>이고 경주사람이다. 그 선조는 젊어서는 공자<sup>孔子</sup>의 발자취를 찾았고 장년에는 노장<sup>老莊</sup>의 말을 익혔으며, 얻고 잃음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명리를 세상에서 떨쳐버려, 어떤 때는 높은데 올라 멀리 바라보고 어떤 때는 붓으로 회포를 읊을 따름이었다. 그 할아버지도 그 일을 고상히 여겨 관직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삭주<sup>朔州</sup> 선곡현<sup>善谷縣</sup>에 한가로이 거처하면서 곧 태백산 남쪽 연기와 남기가 서로 어우러지고 좌우에 소나무와 바위가 있는 곳에서 가야금과 술잔 하나로 스스로를 벗하는 사람이었다.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

위 비문은 신라말 고려초의 선사들의 비문에서 선택한 것이다. 대통선사는 신라의 경주와는 멀리 떨어진 통화부(철원) 출신이고, 공양은 공주 출신이다. 이들은 지방 출신이다. 그리고 혜철은 원래는 경주 출신인데 삭주 선곡현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원래는 경주 출신이었으나 후에 지방으로 낙향하여 세거했던 사람들을 중앙인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지방인이라고 해야 하나? 박경산의 선조는 원래 경주인이었으나 평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평주로 이동한 직후부터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경주인이 아닌 평주인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런 박경산의 예를 통해볼 때 선사 비문 중에 보이는 낙향한 인물들은 지방인이라고 인식되었을 것이다. 선사비문에 의하면 때로는 중국에서 이주해왔다고 하는 가계도 있다. 중국으로 부터의 이주는 아마도 그들의 가계를 과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지방사회에서 관직을 갖기도 하고 혹은 은자적 생활태도를 즐겼으며, 유학과 도덕경을 즐겨 찾아 읽고, 예와 악

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지방에서 현자나 장자로 불리웠으며, 군읍의 토호로 군림하고 있었다. 이들을 지방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 지식인은 신라말 전국에 걸쳐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로 범경 경유, 선각 형미, 낭공 행정, 법인 탄문, 진철 이엄, 낭원 개칭, 진공 충심, 자적 홍준 등을 더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하대에 들어 각 지방에서 학문을 도야하고 행정실무에 밝은 사람들이 나타났던 배경이 궁급해진다. 신라는 주지하듯이 중앙의 진골 중심 사회로 지방민들은 골품제 바깥에 놓인 대상이었다. 하대에 이르러 지방민들이 무예가 아닌 문예를 통해 출세를 노렸다면 문예를 익힐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갖추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 지방 교육기관

하대 지방민들이 문예를 익힐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지방사회에 학교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청주의 용두사 철당간기에는 청주에 학원 경 한명식이 있었다고 전해 준다. 이를 통하여 고려 초에 지방에 학교가 있었고, 이 학교는 신라 말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오경과 문선, 제자백가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주는 주지하듯이 서원경으로 중앙 경주와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아닌 다른 지방사회에도 학교가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치원에게서 학문을 전수받은 일군의 사람들을 문인(門人)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들은 경주에서만이 아닌 그가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던 곳에서도 교육활동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당유학생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던 시절이 있어, 그들의 지방관 시절에 역시 교육활동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방사회에 지식인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방학교만이 아닌 사적 전수를 통해 학문을 익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선사들은 자신들의 조부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았던 경우가 많았다. 한편 최지몽은 영암군 사람이었는데 대광 현일에게서 학문을 배웠다고 했으며, 최지몽도 왕건에게 귀부한 이후 사사를 통해 학문전수를 했다고 한다. 이들을 통해 볼 때 사사는 당시 널리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 지방 지식인과 풍수지리설

이들은 유학적 지식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풍수지리설에도 밝았다고 한다. 당시 호족들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신장하기도 하였다. 풍수지리설은 명당을 상정하고 그 명당의 땅 기운을 받아 삼한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풍수설은 음택이 아닌 양택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풍수설이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택의 지정으로 바뀌어져 갔다. 풍수설의 대표자인 도선은 삼국도를 그렸다고 한다. 도선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산수의 형세를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왕건이나 견훤 중심으로 재배치된 전국토의 모습을 형상화시켰으리라 상정된다. 지방 지식인들도 풍수설을 학습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명당으로 삼한의 혼란을 수습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천안의 왕자성에서 전해지는 '오룡이 여의주를 다투는 지역이라는 설화가 바로 그것이다. 풍수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병법에도 이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왕건이 오늘의 청도지방에 있는 견성을 공격할 때 운문사의 보양으로부터 '개가 밤에는 지키나 낮에는 지키지 않으며, 앞은 수비하나 뒤는 수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밤에 뒤쪽으로부터 공격할 것을 건의하였다. 당시는 전란의 시기였던 만큼 풍수설을 했던 사람이나 보양처럼 스님도 풍수설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 주어 호족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지방 지식인들은 유학자로서의 역할도 크게 하였다. 호족들은 일정 지역의 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는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도 아닌 호족들이 거두어들이니 더구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명분이 필요했다. 세금만이 아니다. 때로는 잦은 전란에 병사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투 참가는 더욱 많은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 지식인들은 지방민들에게 호족들이 삼한의 혼란을 수습하고,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준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했다. 앞에서 살펴본 풍수지리가로서의 역할도 다름 아니다. 호족들이 통치하는 이 지역이 당시의 명당으로, 지기를 받아 다른 호족들을 제압하고 마침내 삼한을 통합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아달라는 것이다. 유학을 공부한 지식인들은 풍수설을 받아들이면서 호족들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성군정치를 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어야 했다.

## 고려 통일 이후 지방 지식인의 동향

지방 지식인들은 호족의 항배에 따라 자신의 출세가 크게 좌우되었다. 유궁순의 기실이었던 태평을 예로 들어 보자. 유궁순이 궁예에 항복하자 태평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랐다. 그러나 태평은 궁예에게 협조하지 않아 일개 군졸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태평은 자신을 알아주는 왕건을 만나 순군낭중에 임명되었다. 순군낭중은 당시의 병권을 장악한 순군부의 차관급이라고 하겠다. 일개 군졸에서 순군낭중으로 발탁된 것은 자신을 알아주는 권력자를 만난 덕분이었다. 936년(태조 18) 왕건은 후삼국의 혼란을 통합하였다. 왕건의 통일은 물론 후삼국의 정권을 소멸하는 정도였다. 정권을 뒷받침해주었던 각 지방의 호족들이 여전히 건재해 있었다. 왕건의 주요 과제는 당연히 각 지방의 호족들을 어떻게 고려 왕조의 공권력 안으로 편제할 것인가였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건은 이를 위해 호족과 혼인정책을 취하였다. 호족의 딸과 자신이 직접 혼인을 한다거나 가까운 친인척이 호족과 혼인관계를 맺어 적어도 고려에 반왕조적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호족들에게 왕씨를 사성하여 의제적 친척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 호족들의 자제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여 인질로 삼는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또 사심관제도를 실시하여 중앙의 관리가 자신의 출신지 호족을 감독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실시로 왕건대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으나, 그의 사후 자식들을 둘러싼 외척 간의 왕위쟁탈전까지는 막지 못하였다. 이에 혜종과 정종이 짧은 재위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마침내 광종대에 들어 호족들의 세력을 어느 정도 제압하여 성종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방의 호족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호족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권한을 점차로 중앙에 빼앗기면서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거나, 지방의 이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의 권한을 유지해 보려는 노력으로 토성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자신의 지방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꾀하였다. 그것이 밖으로 형상화된 것을 성황신앙이라고 보고 있다. 성황신은 그 고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 기원을 찾아보면 호족과 연결되고 있어 흥미롭다. 김홍술은 의성지방의 호족이었다. 그는 929년 견훤의 침공에 의성을 지키다가 전사하였다. 그는 고려 현종대에 이미 의성의 성황

신으로 추대되고 있었다. 김충의 경우도 그러하다. 김충은 순천과 여수 지방의 호족으로 견훤을 도왔던 인물이다. 그가 견훤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가별감을 지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견훤의 심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죽어서 고려 후기인 충정왕대에 여수와 순천의 성황신이 되었다. 비록 고려 후기이지만 전반기부터 지속되어온 그의 영향력이 작용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고려 초기 지방세력들이 자신의 조상을 성황신으로 배양하여 지역세력권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였고, 이것이 곧 성황사의 건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호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방의 독자적 권력을 점차로 잃어 가면서 호족을 보좌하였던 지방 지식인들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호족의 거주지를 명당으로 칭하면서 삼한의 혼란을 수습할 영웅의 탄생을 예고했던 지방 지식인들이었다. 그러나 고려 태조는 함부로 사찰과 사탑을 지어 지덕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이제 풍수설도 왕실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되었다. 호족들에게 권위의 정당성을 지켜주었던 의식도 더 이상 내세울 수가 없었다. 지방 지식인들은 이제 다시 지방의 이직자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주성)

---

## 참고

## 문헌

- 이기동, 1980,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한국연구원.
- 장일규, 2008, 『최치원의 사회사상연구』, 신서원.
- 전기용, 1996, 『나말여초의 정치사회와 문인지식층』, 해안.
-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역주 나말여초 금석문(하)』, 해안.

## 제5장

# 사상계의 새로운 동향

1. 선종의 유행과 의의
2. 교종계의 동향
3. 불교 신앙의 여러 모습
4. 풍수지리설과 도참설의 유행

## 1. 선종의 유행과 의의

### 왕실과 선승

신라 하대에 들어서 사상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사상계의 변화 바람은 불교계에서 새로운 모색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이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교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에 선종이 들어오면서 교종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적 혼란은 민중들이 더욱 아미타신앙과 미륵신앙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풍수지리설과 도참설의 유행은 결국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불러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 하대 사상계는 큰 변화의 바람이 일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사상계의 새로운 사조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신라 하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승려들이 고국에 선종을 전하였다. 처음에는 제대로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점차 왕실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선승이 왕의 부름을 받아 왕실을 방문하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왕실을 방문하였던 선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실상산문을 개창한 홍척<sup>洪陟</sup>선사와 그 제자인 수철화상, 역성사의 이관<sup>利觀</sup>(811?~880)선사, 성주산문의 무염<sup>無染</sup>화상, 회양산문의 도현선사, 옥룡사의 도선<sup>道詵</sup>국사 등이다. 홍척선사는 흥덕왕과 대면하였으며 수철선사와 무염선사는 경문왕대와 현강왕대에 각각 왕실을 방문하였고, 도현선사와 도선국사 그리고 이관선사가 현강왕대에 왕실을 방문하였다. 이렇게 보면 홍척선사를 제외하고 경문왕대와 현강왕대에 선사들과 국왕과의 만남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홍척선사와 수철화상

홍척선사는 830년 무렵 흥덕왕과 선강태자의 부름을 받아 왕실을 방문하였다. 흥덕

왕과 선강태자가 홍척선사에게 귀의를 하게 된 것은 선종의 혁명적 성격에 공감을 느끼게 되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선종이 교종과 달리 청빈한 생활과 더불어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로써 왕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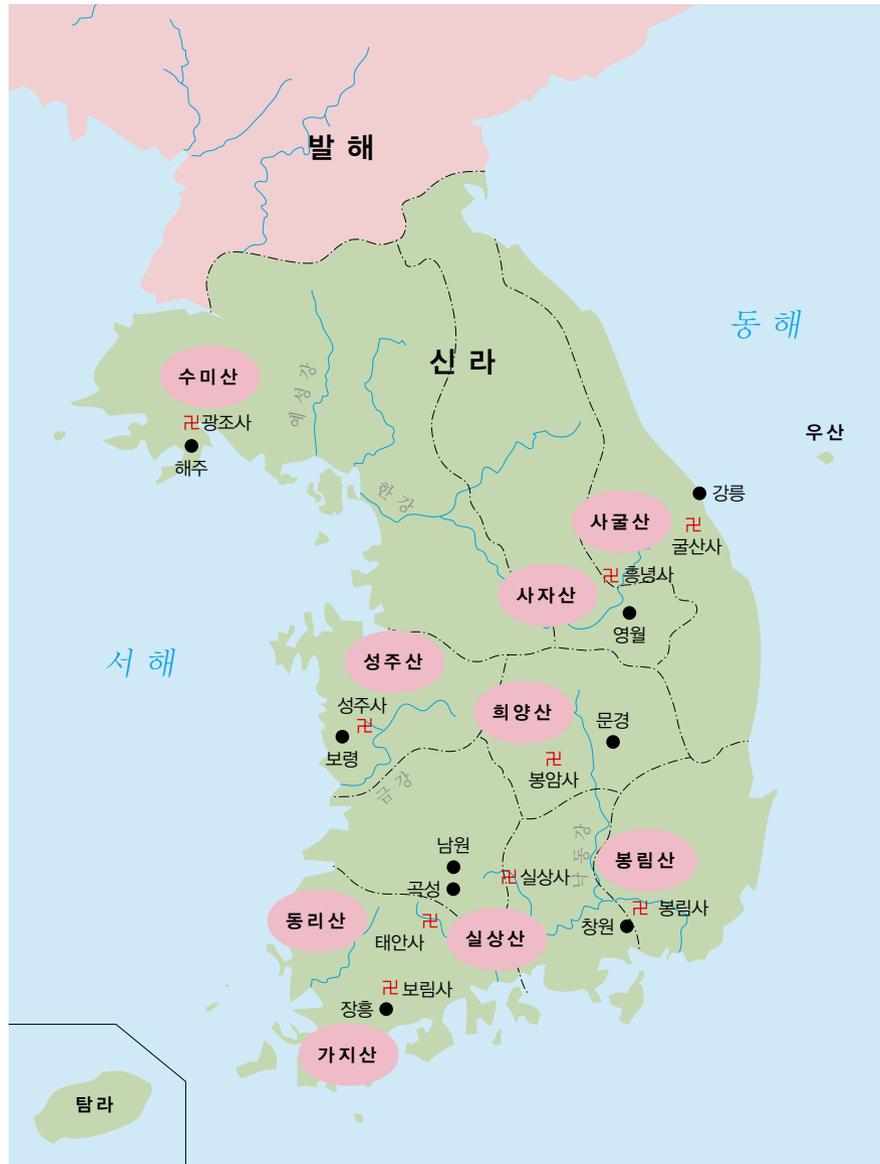


그림 1. 선종 9산문

때문이다. 또 흥덕왕과 선강태자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정치 개혁에 선종을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려 했다. 그래서 834년(흥덕왕 9) 국왕의 교서에 의복의 사치에 대한 규제 조항이 포함된 것도 허식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바로 선사상과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또 다른 견해로는 흥덕왕이 화엄사상과 선사상의 융화를 꾀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홍척선사가 왕의 초청에 응한 것은 당시 불교계가 직면한 교학의 문제점을 선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왕실에서도 교학 불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홍척선사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더 나아가 선을 홍보하기 위해 왕실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그의 제자인 수철화상이 왕실에 들어가 경문왕에게 ‘선교동이(禪敎同異)’ 즉 선종과 교종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점에 대해 말하였다고 한다. 이는 실상산문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창조와 그 제자가 계속해서 왕의 부름에 응한 사실이다. 이를 두고 실상산문과 왕실이 매우 밀접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철화상의 의도일 것이다. 홍척선사는 선을 홍보하기 위해 왕실에 갔는데 수철화상의 경우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도 좋을 까 하는 점이다. 그가 왕실에 들어가 왕에게 선과 교의 같고 다름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결국은 선과 교의 차별성보다는 불교라는 전체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어떨까 싶다. 이렇게 하고 돌아간 그는 헌강왕이 부르자 다시 왕실로 갔다. 그는 두 번이나 왕실을 방문한 것인데 아마도 경문왕대와 헌강왕대의 개혁적인 면에 공감한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무염화상

다음으로 경문왕의 대면 요청을 받은 성주산문의 무염화상(낭혜)이 왕실로 갔다. 그가 왕실로 간 것은 경문왕의 개혁정책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무염선사는 경문왕의 국정 수행 방식이 전대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대면을 통해 선종의 전파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왕실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불법의 흥포에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 보령 성주사 낭해화상탑비

무염선사는 헌강왕대에 다시 왕실을 방문하였으며 왕이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요청하자 하상지何尙之(382~460)가 송 문제에게 올린 상서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상지의 상서문은 개혁을 주장한 것인데, 이로 보아 무염선사가 경문왕과 헌강왕의 부름에 응한 것은 두 왕의 개혁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선종의 흥포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 이관선사

한편 이관선사는 헌강왕대에 왕실을 방문하였다. 헌강왕의 초빙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왕실로 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몇 개 남지 않은 비편으로 그의 의도를 헤아리기는 힘들다. 그런데 당시 이관선사는 선림원禪林院에 주석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염거화상의 제자로 도의선사의 법맥을 이었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오늘날 강원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선승이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 헌강왕이 그를 초빙한 이유가 바로 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를 통해 명주 지역의 불교 세력을 왕실로 포섭하려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관선사가 왕실을 방문하기 이전에 경문왕과 헌강왕은 당시 굴산문의 개창자인 범일梵日(810~889)선사를 왕실로 초빙하였으나 만나보지 못하였다. 경문왕과 헌강왕이 범일선사를 초빙한 것도 당시 명주 지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일선사는 왕실의 청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범일선사가 왕의 초빙을 거절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선 신라 왕실의 선종 불교 정책에 대하여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가 신라 왕실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라 왕실 내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

를 지키고자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헌강왕은 당시 염거화상의 제자로 도의선사의 법맥을 이은 이관선사를 초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헌강왕이 그를 초빙한 것은 강원도 지역의 불교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헤아려진다.

왕실의 의도를 헤아렸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이관선사가 헌강왕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도의선사의 선사상을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명주 지역에서 굴산문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그런 만큼 도의선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고 있던 이관선사는 왕실의 부름에 응함으로써 도의선사의 선사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도의선사는 신라에 남종선을 처음으로 들여온 인물이지만 왕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관선사는 도의선사의 선사상과 그의 선종계 내에서의 위치를 알리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도현선사

한편 도현선사도 헌강왕대에 왕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그는 경문왕대의 왕실 초빙에는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그가 헌강왕과 대면하였으니 이는 결국 왕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치원이 찬술한 지증선사(도현)의 비문에 잘 드러나 있다.

도현선사는 헌강왕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였는데, 왕의 요청에 응한 이유는 헌강왕의 적극적 요청이 있었던 데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왕실에 들어가 헌강왕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달을 보고서 그것이 곧 마음이라 하였으며 헌강왕도 그가 말한 뜻을 이해하였다고 한다. 두 사람의 대화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현선사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중시하라고 말한 것 같다. 즉 당시 헌강왕대의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문제들을 순리대로 해결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도현선사는 경문왕대의 정치적 문제나 선종 불교계에 대한 왕실의 태도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헌강왕이 부르자 대면을 한 것인데, 아마도 경문왕대부터 시작된 일련의 정책이 헌강왕대

까지 이어지자 자신의 위상과 불법의 흥포를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으로 보면, 홍척선사를 제외하고는 경문왕과 헌강왕대에 선사들이 집중적으로 왕실을 방문하고 있다. 이로써 당시 선승들이 경문왕계의 왕실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추출해 보면 물론 불법의 흥포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방문을 한 사실은 선승들이 왕실에 대해 탄력적 대응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기왕에 말하는 것처럼 선승들이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거나 왕실과 마지못해 결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면만을 본 해석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혜철선사

다음으로 하대 선승들 가운데 혜철선사는 왕의 요청에 응해 약간의 봉사封事를 올렸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혜철선사와 왕실의 친소親疎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세한 분석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 알기 위해 혜철선사의 귀국 이후 활동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혜철선사는 839년(신무왕 원년)에 귀국한 이후 무주 쌍봉사에 머물렀다. 그는 그곳에서 이적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다가 장보고張保皋가 염장閔長에 의해 피살된 이후 현재 동리산 태안사로 자리를 옮겼다. 혜철선사는 쌍봉사에서 활동할 때 장보고의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러던 가운데 장보고가 죽고 청해진이 염장의 휘하에 들어가자 그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태안사로 이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안사에 머무는 동안 문성왕이 국가의 요체가 될 만한 것을 말해 달라고 하자 그는 약간의 봉사를 올렸으며 내용은 당시 정치에 급하게 힘써야 될 일이었다고 한다.

혜철선사가 왕에게 봉사를 전달했다는 것을 들어 시대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시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그 내용은 장보고의 죽음 이후 무진주 지역의 동향과 불만 세력들을 어떻게 회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체적 요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렇게 보면 문

성왕이 혜철선사에게 봉사를 요청한 것은 비록 그가 쌍봉사를 떠나 태안사로 이거하였지만 무주 지역에서 가졌던 그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혜철선사가 올린 봉사의 내용은 왕실의 무진주 지역 통치에 대한 자신의 대안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성왕과 혜철선사는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 왕실의 개혁정책 추진과 선사

#### 체징선사

다음으로 헌강왕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정치의 득실이 될 만한 것을 자문하였는데 무염선사도 그에 답해 하상지가 송나라 문제에게 바친 말로써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는 송이 '오계십선五戒十善'을 통한 통치로 태평성대에 이를 수 있었듯이 헌강왕대에 이러한 통치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섯 가지 불교 계율과 열 가지 착한 것을 통해 세상을 통치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신라 왕실에서 선승들에게 정치의 요체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시무와 관련된 것을 요구한 것은 이들이 당대 지식인이었으며 이들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승려들이 이런 왕실의 요구에 응한 것은 적어도 당시 왕실의 개혁 의지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왕실의 개혁 움직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시의 변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는 데



그림 3.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비

일조하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하대 왕실에서는 몇몇 선승들에게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정해 주었다. 앞서 살펴본 혜소선사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또 현안왕대의 체징선사와 경문왕대의 무염선사, 도윤선사, 현옥선사 그리고 현강왕대의 절중선사도 떠올릴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체징선사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현안왕은 체징선사에게 가지산사로 이거해 머물러 주도록 요청하였다. 「보림사 보조선사(체징) 비문」에 따르면, 현안왕은 859년(현안왕 3) 10월에 도속사(道俗使)인 영암군 승정 연훈(連訓) 법사와 왕의 교지를 받든 풍선(馮瑄) 등을 황학난야의 체징선사에게 보내어 가지산사로 이거토록 청하였다. 체징선사는 현안왕의 이러한 청을 받아들여 가지산사로 옮겨 주석하였다. 그러면 현안왕이 만나자는 요청에 처음에는 거부의 뜻을 보이던 체징선사가 가지산사, 즉 보림사로 이거해 주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림사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체징선사가 왕의 명령으로 주석하게 되었던 보림사는 원표대덕(元表大德)이 창건하고 머물렀던 화엄종 사찰이다. 원표대덕은 경덕왕대 화엄종 승려였으며 법력으로써 왕정에 협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지산사에는 759년(경덕왕 18)에 국왕의 명으로 세워진 장생표주가 있었다. 이것은 가지산사에 대한 면세 및 면역의 특권을 인정해 주는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면세 및 면역의 특권은 884년(현강왕 10)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체징선사가 왕의 명령으로 이거한 보림사는 당시 화엄종 사찰이었다. 그럼에도 체징선사가 왕의 뜻에 따라 보림사로 이거한 것이 관심을 끈다. 체징선사가 보림사가 화엄종 사찰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곳으로 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표 이후 보림사와 신라 왕실의 관계에 대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덕왕의 한화정책에 원표의 역할이 컸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법력으로써 왕정에 협력하였다고 한다. 경덕왕 사후 신라 왕실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기는 했지만 보림사는 그 위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당나라에서 공부한 선승들이 귀국하면서 무진주 지역은 남종선을 익히고 돌아온 선승들이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신라 왕실에서는 보림사를 계속해서 화엄종 사찰로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는 영향력 있는 선승을 보림사에 보내는 쪽이 왕실로서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왕실의 입장에서는 지방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선승을 특정 사찰에 보내어 선사와 사원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한결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해석으로 보면 체징선사가 보림사에 간 이유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그는 황학난야에 머물면서 보림사에 대한 사정, 즉 보림사의 위상이나 화엄승들의 활동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보림사는 화엄종 사찰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징선사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체징선사는 선승이 화엄종 사찰에 주석할 경우 화엄 승려들과의 관계도 예상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점은 화엄종과 선종의 사상적 유사성이 화엄종에서 선종으로의 전향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체징선사가 머물고 있던 황학난야는 선종 사찰이기는 해도 그가 그곳을 주도하거나 종신토록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황학난야를 책임진 승려가 있었을 것이고 체징선사는 단지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사상을 펴는 것에 주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는 자신의 선사상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곳과 종신토록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체징선사가 보림사로 이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도 보림사의 경제적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황학난야의 경우 단월이 누구이며 경제적 기반이 어떠한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보림사의 경우 앞서도 보았듯이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결국 체징선사는 마지막으로 주석할 수 있는 주석처를 정함과 아울러 가지산문의 발전을 위해서 가지산사로 이거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무염선사

다음으로 경문왕은 왕실에 도착한 무염선사에게 상주의 심묘사를 정해 주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경문왕은 무염선사가 성주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만류하고 경

주와 가까운 곳인 상주 심묘사를 정해 그곳에 주석하도록 한 것이다. 경문왕의 의도는 상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유력자들을 무염선사를 통해 신라 왕실과 연결하고자 한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후일 헌강왕이 심묘사에 무염선사를 위한 비를 세웠는데 그 내용 가운데 '세속을 진정시키고 마구니를 항복시킨 위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헌강왕이 무염선사의 활동을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수도 있지만 상주 지역에서 무염선사의 활동이 적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염선사가 왕의 요청에 응해 심묘사에 갔던 이유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염화상이 심묘사로 간 이유를 알려 줄 만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 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경문왕의 의도로만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무염화상은 왕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가 그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은 그가 경문왕으로부터 국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국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상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로는 상주 지역이 교통상의 요지였다는 점이다. 교통상의 요지는 많은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고 새로운 사상이 전파되기 쉬운 이점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무염선사는 심묘사에 머물면서 자신의 선사상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무염선사가 왕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왕의 강제 때문이 아니었다. 또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가 국사가 되었다는 것과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고 선종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 철감선사

한편 경문왕은 철감선사 도윤을 쌍봉사에 주석케 하였다. 도윤선사는 825년(헌덕왕 17)입당하여 남전南泉선사 보원普願(748~834)에게서 법을 받았으며 선사가 열반에 든 이후에도 약 13년 동안 당나라에 머물러 있다가 847년(문성왕 9) 귀국하였다. 당나라의 폐불 사태 때문에 외국 승려들이 추방당하던 상황에서도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대단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말해 준다. 도윤선사는 귀국해서 금강산 장담사에 주석하다가 경문왕이 귀의하여 받들 무렵에는 쌍봉사

로 이거하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도윤선사가 경문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쌍봉사로 이거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마 도윤선사에게도 그가 마지막으로 주석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나주의 회진항으로 귀국하였다면 그때 쌍봉사나 실상사에 들렀을 수도 있다. 즉 도윤선사는 쌍봉사나 실상산문과는 이미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쌍봉사가 승주 지역의 박씨 세력을 단위로 하여 성장하였다고 볼 때, 속성이 박씨인 도윤선사가 쌍봉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 절중선사

이제 헌강왕이 절중선사를 곡산사에 주석케 한 이유와 절중선사가 그것을 수용한 데에 대하여 살펴보자. 헌강왕은 절중선사가 주석처 없이 떠돌아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곡산사에 주석케 하였다. 절중선사가 헌강왕의 뜻을 받아들인 이유는 헌강왕의 개혁 정치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는 얼마 후 곡산사를 떠났다. 그 구체적 이유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으나 적어도 신라 왕실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대 선승들 가운데 왕실이 정해준 곳에 머물거나 혹은 머문 이후 그곳을 떠난 이유는 왕실과 탄력적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왕실과 아주 밀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실에 대해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당시의 정치적 사정과 불교계의 동향 등 여러 측면이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국사책봉

한편 하대 선승들 가운데 왕실에서 국사로 삼은 선승들이 여럿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왕의 연구 가운데는 『조당집』의 기록을 들어 현욱선사나 범일선사도 국사에 보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이 국사로 임명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현욱선사는 사자의 예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그를 국사로 삼았다고 해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범일선사는 왕실에서

국사로 삼고자 하였지만 본인이 거절하였다. 따라서 현옥선사나 범일선사는 실제 국사직을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선승들 가운데 최초로 국사에 임명된 이는 무염선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염화상 이전에 국사에 임명된 승려들은 모두 화엄종 승려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선승이 국사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이는 왕실의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국왕이 선승에게 국사 자리를 제수한 것은 선종 세력을 포섭하려 한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제 무염화상이 국사직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무염선사는 경문왕대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경문왕대는 문성왕이나 현안왕대와는 달리 왕실의 권위가 높아진 시기였다. 왕권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여러 차례 반란도 있었지만 경문왕은 모두 해결하였다. 따라서 무염선사가 경문왕의 부름에 응한 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비록 범일선사와 같이 끝까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선승도 있기는 하였지만 무염선사는 그와는 다른 선택을 하였다. 경문왕이 앞의 두 왕과는 다른 정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경문왕은 당나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혁 정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경문왕의 이러한 개혁 정치를 주도한 인물들은 육두품의 지식층이었다. 따라서 무염선사에게는 경문왕의 국정 운영이 새롭게 보였을 것이다. 이에 무염선사는 비록 국사직이 실권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종선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무염선사의 노력도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무염선사가 왕실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도(道)가 장차 행해지려 하는 데 때를 잃을 수 없으니 (부처님의) 부촉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리.’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선종 불교를 널리 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왕실을 방문하여 왕을 만나고 국사직을 수락한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문왕과 현강왕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선승들이 진성여왕 이후부터는 점차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선승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이유는 지

방세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것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징효대사탑비에는 당시의 사정에 대해 왕실이 위태롭기가 마치 달걀을 썬아 놓은 것과 같다고 할 정도였다. 사정이 이러하였던 만큼 무염선사도 더 이상 왕실로 가는 것을 꺼려하였다. 더구나 진성왕이 왕위를 계승한 다음 정치적 혼란이 지방에까지 퍼지자 선승들은 왕실보다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섰다.

봉림산문의 심희선사는 진성왕이 부르자 거절하였다. 그는 조업(祖業)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는데, 이는 더 이상 왕실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진성왕은 선종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무염선사가 열반에 들자 그를 위해 부도뿐만 아니라 무염화상비(낭혜화상비)까지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염의 비문 찬술을 당시 최고의 문장가인 최치원에게 맡긴 것은 웅천주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성주산문의 세력을 왕실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 월광사 원량선사의 비를 세우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진성여왕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선사들은 중앙보다는 지방세력에게 더 눈을 돌리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았으나 진성왕을 이은 효공왕도 계속해서 선사들을 초빙하려는 노력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태자사의 낭공대사를 불렀다. 이에 행적선사는 도를 높이 숭상함에는 복희씨와 현원씨와 관련된 고사를 말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풍도(風度)를 일러주었다고 한다. 이는 효공왕이 행적선사에 대하여 정치적 자문을 요청하였고 선사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효공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박씨 신덕왕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선승들을 초빙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당시 김해부에 머물던 낭공선사(행적선사) 행적(行寂, 832~916)을 왕실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하였다. 행적선사는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914년(신덕왕 3)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에 왕은 경주 남산에 있는 실제사(實際寺)에 머물게 하였다. 이 절은 신덕왕이 임금으로 즉위하기 전에 거처한 집이었다. 이후 그가 즉위하자 그곳을 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 곳에 행적 선사를 머물게 한 것은 그만큼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그보다 앞선 왕들의 경우에 그가

살던 집을 희사해 절로 삼고 그곳을 선승이 머물게 배려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당시 교종 승려보다는 선승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었음을 알려준다.

행적선사는 굴산문 출신으로 범일선사의 제자이다.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였고 신라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굴산문에 잠시 머물렀으나 906년(효공왕 10)에 서울에 와서 왕을 만난 다음에 국사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907년(효공왕 11)에는 서울을 떠나 김해부에 머물고 있었다. 신덕왕이 행적선사를 다시 서울로 불러 올린 것은 정신적 가르침도 필요하였지만 그를 통해 김해부의 호족 세력과 유기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적선사가 국사로 활동하면서 김해부에 갔다가 다시 왕실에 오게 된 것은 신덕왕의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즉 당시 신라 지역의 여러 호족 세력들은 왕실에 대해 존왕尊王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때로는 반신라적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신덕왕은 경주와 가까운 김해부의 호족 세력과 가깝게 지냈던 행적 선사를 불렀고 그를 통해 이들을 친신라적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김해부의 호족 세력은 선승들을 매우 높이 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조치는 상당히 유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선사들이 왕실에 대해 탄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만큼 행적선사를 통해 다른 선사들의 동향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신덕왕을 이은 경명왕도 선승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선승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두었다. 918년(경명왕 2)에 봉림산문을 개창한 진경선사 심희(855~923)를 초청하였다. 심희는 경명왕을 위해 국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심희선사가 신라 왕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당시 후백제에서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심희선사는 신라 왕실이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왕에게 건의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심희선사는 신라 왕실 내의 정치적 문제와 관련한 의견도 제시하였다고 추정된다. 심희가 경명왕의 부촉을 받고 신라 왕실로 온 해에 신라 왕실에서는 모반 사건이 있었고 왕이 이를 물리쳤다. 그러므로 경명왕은 반란을 진압한 이후 왕실의

정치적 안정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심희가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명왕은 심희선사를 불러 정치적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중국과의 해상교통의 요지 중 하나인 김해 지방에서는 김윤희 등이 일찍부터 당과 무역하면서 독립적 세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경명왕은 김해 출신인 심희선사를 통해 김해의 호족 세력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것은 신덕왕이 한 것과 같은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경명왕은 심희선사가 입적하자 그를 위해 직접 비문을 찬술하고 비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가 신라 왕실에 대하여 한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그는 신덕왕이나 경명왕이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명한 선승을 초빙하였다.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정진대사 공양(878~956)에게 편지를 보내어 왕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이에 공양은 몸을 일으켜 신라 왕실에 도착하였다. 공양 선사가 왕실에 도착하자 경명왕은 그를 봉중대사라 봉하였다. 공양 선사는 경애왕의 뜻을 잘 이해하고 왕실의 안정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경애왕은 신덕왕이 행적 선사를 대하였던 것과 경명왕이 심희선사를 대하였던 사실을 잘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직접 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선사를 통해 대내외적 안정을 기대하였고 그 선사들이 또한 자신의 의도를 충실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경애왕도 공양선사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다.

## 호족과 선종

### 선승의 안거와 호족

신라에 남종선이 전래된 것은 흥덕왕대 무렵이다. 선종이 전래된 이후 선승들은 왕실로부터 후원을 받아 각 지역에 선종 산문을 개창하였다. 그리고 왕실의 부름을 받아 국사에 임명되기도 하였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진성왕 이후가 되면 선승들은 중앙보다는 지방 호족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당시 왕실의 권위는 실추하였고 신라 조정은 사실상 경주 일대를 지배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지방 호족세력들이 더 강성해졌고 그들의 영향력이

더 커졌던 것이다. 진성여왕 이후 선종 산문을 지원한 세력이 왕실보다는 지방의 호족들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진성왕 이후 후삼국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선승들은 신라 왕실로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자 호족들과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독립적 지배권을 주장하며 등장한 호족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란이 발생하였고 선승들의 경우 수도하는 장소가 습격을 당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사라졌다. 수도와 노동에 전념하던 선승들은 전란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았고 그 결과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게 되었다.

이엄선사의 경우 911년(효공왕 15)에 귀국해 김해의 호족인 소율희의 도움을 받았다. 소율희는 승광산의 절을 이엄선사에게 제공하였는데, 귀국하여 머물 데를 찾지 못한 데다가 전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편안히 수행할 수 있는 사원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비문에 의하면 전에 머물고 있었던 곳이 도적의 소굴과 가까운 곳에 있어 수도에 안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봉림산문의 개창자인 심희선사의 경우 김해에 정착하기 이전에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다.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설악산으로, 그리고 강릉 등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김해로 이주하였다. 그의 비문에는 전란을 피하기 위해 운수행각을 훌쩍 그만두고 명주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김해의 서쪽에 복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명주를 떠났다. 이처럼 심희가 여러 곳을 다니게 된 것은 전란을 피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결국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단월을 김해에서 만났던 것이다. 이 단월이 바로 김인광과 소율희였다.

여엄선사도 909년(효공왕 13)에 귀국하였는데, 전라도 승평에 도착한 이후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그의 비문에는 그가 충주 월악산에 이르렀는데 세상이 시끄러워 편안히 수도할 곳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펴보니 모두가 도탄에 빠져 있고, 인간을 돌아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비탄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이엄이나 심희의 경우와 같이 그도 전란을 피해 다닌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영주를 거쳐 소백산에 도착해 호족인 강공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상의 몇몇 예로 볼 때 선승들이 호족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신라를 떠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귀국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단월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명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는 생활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였고 더구나 전란까지 겹쳤으므로 쉽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족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사정이 이와 같았다고 해도 호족들이 주도적으로 선승들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선승들이 주도적으로 호족들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점이 유의된다. 선승들은 호족의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다음 움직였다. 이는 선승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음을 말한다. 따라서 상황의 변화나 다른 호족의 초청이 있을 경우 미련 없이 떠나는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엄이나 심희 그리고 여엄의 경우에 김해의 호족인 김인광·소율희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단월을 쉽사리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김해의 호족이 선승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갔던 것이다. 김해의 호족이 선승들에 대해 적어도 우호적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 선승의 왕건에의 귀부

김인광이나 소율희의 도움을 받은 선승들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김해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났다. 이러한 사실은 호족의 선승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호족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합집산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보호를 받고 있던 선승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래서 후원해 주던 호족이 몰락하거나 좀 더 세력이 강한 호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런 호족을 찾아 나섰다. 예컨대, 도현선사는 단월이었던 아질미가 문경이나 가은 지역으로 진출한 견훤의 침공을 받아 몰락하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또 사자산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월 흥녕사의 경우에도 명주로 진출하는 궁예 세력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불타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예로 미루어 볼 때 선승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는 결

국 아무데도 없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자 일부 선승들은 신라 왕실로 귀의하거나 혹은 더 힘이 있는 호족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태조 왕건의 선승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있자 전국의 많은 선승들이 개경 근처로 모여 들었다. 후삼국 시기의 각지 호족들은 선승들의 후원자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선승들이 호족과 연결된 이유로 호족이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설명은 그 자리를 잃게 되었다. 도리어 선승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종을 전파하는 데 단월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강력한 후원세력을 얻는 것이 선종을 전파하는 데 매우 유리하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호족들과 연결되었다. 더구나 후삼국의 혼란한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호족의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그렇지만 호족들이 서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란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선승들 또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새로운 국가를 세운 왕건에게 선승들이 의지하게 된 것은 당시 군소 호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데에 기대어 많은 선승들이 고려로 가게 되었다. 이엄선사는 김해에서 머물다가 전란을 피해 그곳을 떠나 영각산 북쪽의 토굴에서 머무는 중에 왕건의 초청을 받았다. 이에 그는 왕명을 거역할 수 없으며 국사를 돕고 그리고 불교의 보호를 위해 왕경으로 갔다. 그의 이러한 말과 태도는 왕건에게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편안하게 지낼 장소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왕건을 적극적 보호자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엄선사는 왕건이 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란에 대해 적극적 자문을 하였다. 그는 왕건에게 제왕과 필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태조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권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여엄선사도 왕건을 요임금과 순임금에 비기면서 그를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태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을 지지하고 정치적 권위를 강화시켜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

승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자신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산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물론 견훤의 경우에도 경보선사를 지원한 것으로 볼 때 적잖은 선사들이 견훤에게 관심을 두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선승들이 왕건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상호간 보완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승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수도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고, 왕건의 입장에서는 이 승려들을 개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었던 것이다. 왕건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선승들을 한 곳에 모아 둔 것은 왕권의 독점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선승들이 주도적으로 호족을 찾았고 그들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호족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던 호족에게 변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더 이상 머물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호족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났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라 말 후삼국 시기의 선승들은 호족과 밀접하였다기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야 한다.

선승들은 좀더 안정적이고 오래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 있는 권력자를 원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이후 선승들을 적극적으로 초빙하자 이에 응하여 많은 선승들이 그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선승들은 태조의 독자적 지위와 후삼국 통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논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선승들은 한층 안정적 위치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일반 민과 선종

### 선종의 민중 파급

일반 민중들의 생활은 진성여왕대에 이르러 더욱 피폐해졌다. 물론 민중들의 생활이 이때에 이르러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대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생활이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귀족과 사원이 합법 내지는 비합법적 방법을 이용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민들이 토지에서 유리되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토지에

서 유리된 농민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사적 지배를 받거나 유민이 되어 떠돌아 다녔다.

이러한 민중들에게 선종은 쉽사리 다가갈 수가 없었다.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찾으라는 선종의 추상적 가르침은 그들이 쉽사리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선사들은 깨달음을 얻는 수행 방법이나 교리의 설명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구복 신앙이었다. 선종 사원에서는 신중법석神衆法席과 같은 신앙 의례를 행하였는데, 이는 민중을 포섭하고 민들이 선종 사원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신중법석은 참된 신중神衆들의 위호位號를 외면서 공양을 장엄하게 하는 무차대회無遮大會라고 할 수 있다. 선종 사찰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들었고 선종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동리산과 「태안사 적인선사청정조분탑비」에 의하면 872년(경문왕 12) 탑비가 세워질 무렵에는 항상 신중법석을 행하였는데 이는 본래 정해진 특별한 법석은 아니었다고 한다. 선종 사찰에서 신중법석이 행해졌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일반민중들에게 선종의 진리를 깨달아 성불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선종 사찰에서 행하는 신앙의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데 주된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선승들의 민을 배려하는 언행과 신이한 행적 그리고 토착 신앙의 포용 등은 어려운 삶에 치진 민중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선승들의 민에 대한 언행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동료들을 반드시 '선사禪師'라고 불렀으며, 손님을 접대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대우를 다르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방에 가득한 자비에 제자들이 즐거워하며 따랐다.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는 5일을 기한으로 하여 의심나는 것을 묻게 하였다.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음이 비록 몸의 주인이지만, 몸은 마땅히 마음의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음이 걱정이지, 도道가 너희를 멀리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배우지 못한) 시골뜨기라고 할지라도 속세의

업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달리면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이니, 부처와 스승이라고 해서 별다른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저 사람이 마신 것이 나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저 사람이 먹은 것이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니, 노력하여 스스로 마시고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략) (대사는) 젊어서부터 노년老年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어서 먹는 것을 남과 다르게 하지 않았고, 입는 것은 늘 같은 옷이었다. 건물을 짓고 수리할 때에는 남들보다 앞장서서 일하고 늘 "가섭조사迦葉祖師께서도 진흙을 이기신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잠깐이라도 편히 지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때로는 물을 길어 나르고 땀나무를 나르는 일까지도 직접 하시면서 "산이 나 때문에 더럽혀졌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기도 하였다.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일에 힘쓰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위의 기록으로 성주산문 무염선사의 수행자로서의 모습이자 생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손님을 대함에 있어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해탈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스스로 노력하여 먹고 마시라고 하였다. 또 그는 자발적 노동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승려들의 실천 행동이 일반 민중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통진대사 경보는 "속세에는 귀하고 천함이 있으나 불교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물과 달처럼 마음을 맑게 하고 연기와 안개 같이 고상하게 살도록 하라. 옷은 반드시 균등하게 입고 먹는 것은 양식을 달리 함이 없도록 하며 마땅히 고사리로써 식량을 삼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는 경보가 인간으로서의 평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무염선사와 경보선사는 민중들에게 신분의 평등성과 더불어 해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신분제에 얽매어 수탈을 당하는 민들의 의식을 계발함과 동시에 선종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선사들 역시 무염이나 경보처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승들은 신이한 행적을 보임으로써 민중들이 선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혜철 선사(824~890)가 무주 쌍봉사에 머물고 있을 때 주변에 가뭄이 들어 고생하자 그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향을 태우며 하늘과 땅에 빌었더니 비가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그는 지리산에 머무는 가운데 산불이 크게 일어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단정히 앉아 묵념을 하자 들 불이 꺼졌다고 한다. 이러한 선승의 신이한 능력은 불보살을 믿어 현세의 복을 구하던 민중들에게 선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선승들을 초능력을 갖춘 인물로 만들어 민들을 선종 사원으로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선종은 교종에 비하여 훨씬 자유로운 사유체계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 계층에서 수용이 가능하였다. 또 계급의 평등성 및 노동의 강조 등은 민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선종은 민중들의 욕구를 더 잘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선종 사찰의 대토지 소유와 농민들과의 격리

그러나 진성왕 이후 선종과 민중들 사이에도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진성왕 이후 유망민들로 구성된 초적들이 사원을 공격해 약탈하고 사원이 소실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선종 산문의 단월 가운데 하나였던 민중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찾아볼 차례이다.

우선 선종 사원이 토지를 집적하는 과정에서 민들이 소유한 토지까지 불법적으로 가진 데 큰 원인이 있다. 예컨대 회양산문의 경우 봉암사가 개창되면서 그 근처의 땅은 봉암사 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농민들이 살던 땅이 봉암사 소유로 되면서 쫓겨나게 되거나 토지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봉암사에 도전하였는데 이는 선종 사원의 토지 집적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선종 사원의 개창과 독자적 사역의 설정은 농민들의 삶의 근거지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선종 사원은 자체의 노동력만으로 토지를 경작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에 얽매어 있던 농민들이 계속해서 토지를 경

작하고 사찰에서 세를 받았을 것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진골귀족들에게 세를 내었으나 이제는 사원에 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사원 전의 수취는 귀족이나 국가의 수취보다 가볍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더구나 태안사와 같은 경우 소금을 생산하였는데 모두 소비한 것은 아니고 판매도 하였다.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금을 판매하여 이익을 증식한 것은 선종 사원이 재산증식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음을 드러낸다. 신라 말 고려 초에 민들이 선종 사원에 대하여 거리를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2. 교종계의 동향

### 화엄조사의 추모 결사

#### 이차돈 추모 결사

9세기 후반 화엄결사가 성행하였다. 결사의 주된 목적은 교종 비판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화엄 교단에서는 817년(헌덕왕 9) 무렵에 이차돈(異次頓) 추모 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남간사(南間寺)의 승려 일념(一念)이 지은 축향분례불결사문(觸香墳禮佛結社文)에서 알 수 있다. 결사는 수행과 불사 등을 위해 승려와 세속인들이 함께 참여해 조직하는 일종의 신앙단체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축은 염촉(厭觸)을 말하며 이차돈을 의미한다.

결사문에서는 이차돈이 단신 믿음으로 아도화상의 본마음을 이룬 것을 들어 성자로 칭송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주검을 북산의 서쪽 고개에 장례 지내고, 내인들이 이를 애닦아 하여 승지를 가려 절을 세워 이를 자추사(刺楸寺)라 하였다. 이로부터 집집마다 예를 올려 모두 세상의 영예를 얻고 사람마다 도를 행하여 마땅히 불법의 이로움을 알았다고 한다. 후대에 국통(國統) 혜릉(惠隆)과 범주(法主) 효원(孝圓)과 김상령(金相郞), 대통(大統) 녹풍(鹿風), 대서(大書) 진노(眞怒), 파진찬 김의(金寔) 등이 낡은 무덤을 수축하고 큰 비를 세우니 원화 12년(817) 정유 8월 5일, 곧 제41대 헌덕대왕 9년의 일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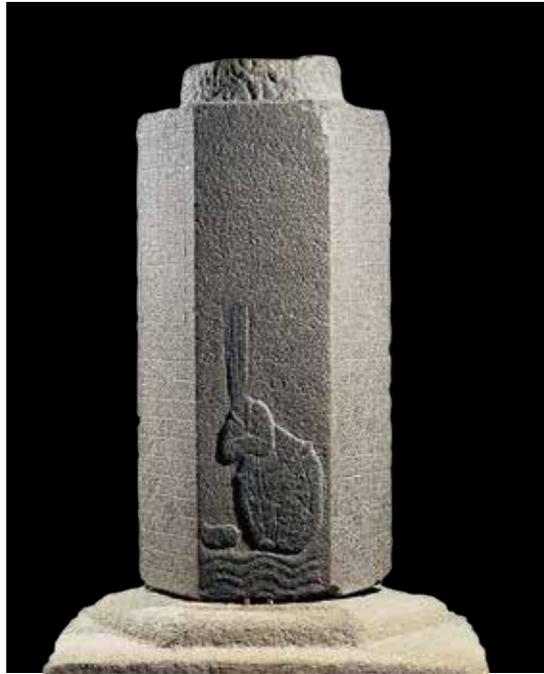


그림 4. 경주 백률사 이차돈순교비

다. 흥륜사의 영수永秀가 이 무덤에 예불하려는 향도들을 모아 매달 5일에 혼령의 신묘한 서원을 위해 단을 만들어 범패를 행하였다고 한다.

승려 영수가 주도한 이 결사는 이차돈의 불법 흥포 서원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차돈이 순교한 뜻을 기리기 위해 흥륜사를 중심으로 그를 추모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결사는 일반인들이 다수 참여해 구성된 것이며 이차돈의 무덤을 중수하고 비의 건립을 주도한 인물들은 승관의 최고위층이었다. 이러한 추모 사업은 결국 교단 전체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헌덕왕대에 백률사에 「이차돈순교비」가 세워졌다. 이 비는 높이 104cm에 1면 너비 29cm의 6면으로 되어 있다. 1면에 이차돈의 순교 장면, 2면부터 6면에 걸쳐 범흥왕과 이차돈 중심의 불법 흥포 과정이 새겨졌다. 이와 같은 이차돈 추모사업의 시행은 9세기에 들어와 신라 불교계에 일어났던 조사 추모 경향의 일환이었다.

#### 원효에 대한 추모 사업

이차돈 추모를 전후한 시기에 원효의 현창 사업이 추진되었다. 후손인 설중업薛仲業이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원효의 위상이 재인식되고 이에 따라 당시의 실력자였던 김언승(뒤의 헌덕왕)의 주선으로 800년(애장왕 원년) 고선사에 「서당화상비」가 세워졌다. 원효는 거사를 자처하며 대중교화에 주력한 인물이었으므로 교단 차원에서 현창 사업은 아니지만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의 비문을 승려가 찬술한 것으로 보아 원효의 후손들은 불교계와 일정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현창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차돈이 신라 불교의 서막을 개척하였고 원효가 신라 불교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 사실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의상에 대한 추모 사업

이러한 가운데 도의선사가 821년(헌덕왕 13)에 본격적으로 남종선을 전한 이후 홍척(826년 귀국, 이하 귀국 년도)과 혜소(830)가 그 뒤를 이었고, 840년(문성왕 2) 전후 현욱(837)·혜철(839)·체징(840)·무염(845)·범일(846)·도운(847) 등 여러 선승들이 당나라 회창 폐불을 전후하여 귀국하였다. 이들은 경주보다는 지방에서 선종 산문을 개창해 선종을 크게 일으켰고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국왕은 이 선승들을 지원하였으며 진골귀족들 또한 이들의 시주자가 되었다. 그리고 국왕은 이 선승들을 왕실로 초빙하기도 하고 심지어 국사로 삼기도 하였다. 이렇게 선종이 크게 발전하자 기존의 교학불교는 그에 대응하여 화엄을 중심으로 교단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의상의 법맥을 이은 승려들은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를 중심으로 그의 종지를 연찬하며 실천행을 아울러 지속하였다. 그리고 성기가 중심이 되어 의상에 대한 추모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의상의 법계도 사상은 다른 사상에 대해 경직성을 지녔기 때문에 미숙한 대응을 낳았다. 더구나 중앙 교단의 번영이 사회 여건에 부응하는 실천 지향적인 데에는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선종이 불같이 일어나자 교종 승려들은 의상에 대한 추모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화엄종의 문호를 연 의상의 법을 추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

은 최치원이 찬술한 「해동화엄초조기신원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한편 선종의 실천적 성향이 두드러지자 화엄종단에서는 기존의 법계도 중심 교학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중앙의 후원 계층을 재조직함으로써 조사 추모 사업의 시행을 통해 화엄 종단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법계도기총수록』으로 집성되는 교학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현재 남아 있는 화엄 관련 결사문을 통해 모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의 보은결사문과 찬문의 글 가운데 “어찌 우리 선사를 위함에 이미 좋은 모임은 이루었으나 다른 나라 조사를 위해 오래 기묘한 잔치에 이르지 못하였는가.”라고 한 데서 의상을 비롯한 신라 화엄 조사들에 대한 추모 모임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조사 추모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자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상의 스승인 지엄에 대한 추모 모임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조금 지난 때로 추정되지만 최치원이 의상의 전기인 「부석존자전」과 의상의 동문으로 중국 화엄종을 완성한 법장의 상세한 전기인 『법장화상전』을 지었다. 이러한 사실로써 신라 화엄교학이 의상 학설을 중심으로 법장 사상을 수용해 계승되던 것을 재확인하고 교학의 재정립을 의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지엄에 대한 추모사업은 당대의 지도적 화엄 승려인 결언<sup>決言</sup>과 현준<sup>賢俊</sup>이 담당하였다. 결사문은 최치원이 지었는데 왕실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앙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추진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 주고 있다.

화엄 조사들에 대한 추모 결사와 함께 화엄경을 강론하는 결사도 이루어졌다. 또 화엄경 사경에 대한 결사까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사는 결국 선종의 유행과 지방세력의 대두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왕실의 권위를 재정립하고 화엄종의 위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두 기운이 서로 맞물려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왕실의 결사와 불사

신라 하대의 결사는 주로 왕실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많으며 대체로 복을 빌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시기는 대략 정강왕대에서 진성왕대로서 신라

사회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때였다. 결국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

왕실 중심 결사의 대표적 사례로 대략 서너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화엄경 강의이다. 최치원이 쓴 「화엄경사회원문」에는 “정상께서 선택된 훌륭한 자질로써 보위를 이으셔서 형을 사모하는 남은 그리움에 슬픈 정을 억누르기 어려우신지라 그리하여 은혜에 보답하기로는 불도의 인연을 맺는 것 만한 것이 없고 명복을 빌기로는 법회를 일으키는 것 만한 것이 없다 하시어 이에 대덕 현준에게 명을 내려 화엄경을 강론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둘째, 사경을 내용으로 하는 결사이다. 이것도 최치원이 쓴 「화엄경사회원문」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즉 “재상인 서발한 김림보<sup>金林甫</sup>와 국척 중신인 소관 김공 순<sup>金公順</sup> 등은 혹은 좋은 금의 채색이요 반석 같은 공경으로 조정의 드러난 보배이며 동량의 재질을 간직한 이들입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능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향해 마음을 기울여 성상의 은총을 길이 사모해 화엄회에 같이 들어가 마침내 화엄경 의회본<sup>義熙本</sup>을 사경하였습니다. 또 국통과 승록 등은 화엄경 정원본<sup>貞元本</sup> 신경<sup>新經</sup>을 사경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셋째, 화엄종 사원에 불사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열흘도 못되어 열 질을 완성 하니 곧 우리 선대왕께서 훌륭한 교화를 펴시고 두터운 은혜를 베푸심이 사람들의 뱃속까지 깊이 들어갔음을 알겠나이다. 이리하여 여러 사람들의 바람이 모두 모여 일 년에 두 번씩 모임을 갖기로 해 능의 복사에 모여 경전을 백번 씩 돌려 읽기로 하였습니다.”라 하였다. 이러한 기록도 최치원의 「화엄경사회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신라 왕실은 어려운 때를 당하여 화엄종 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불사를 추진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엄종 사원에 불사를 일으켜 안정을 기원하였는데, 원성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갈항사<sup>葛項寺</sup> 석탑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갈항사 석탑은 왕실과 관련된 남녀 삼형제가 탑을 세운 것인데, 세운 의도는 분명치 않다. 다만 무구정경에 의거해 이미 8세기 전반부터 조탑 신앙을 실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역시 추복의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포항 법광사지 사리탑

한편 소성왕비 계화왕후는 무장사<sup>鑿藏寺</sup>에 아미타불을 조성하였는데 소성왕이 800년(애장왕 원년) 돌아가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다. 조상기에서 서방왕생을 바라는 목적에서 아미타불상을 조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서방왕생을 위한 것 만한 것이 없어 이렇게 하였다고 한다. 무장사는 원성왕의 부친 효양이 숙부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사찰이다. 이처럼 이 사찰이 추복을 위해 창건되고 불상이 조성된 것은 왕실 신앙을 뚜렷이 보여 주는 사례이다.

828년(흥덕왕 3)에는 김균정<sup>金均貞</sup>을 단월로 하여 승려 2인이 법광사<sup>法光寺</sup>탑을 조성하였다. 김균정은 상대등을 역임하고 흥덕왕 사후 왕위쟁탈전을 벌였지만 희강왕<sup>僖康王</sup>에게 패하여 죽었다. 그러나 민애왕을 이어 자신의 아들 우징이 839년(신무왕 원년) 신무왕으로 즉위하고 또 손자 문성왕이 즉위하자 탑 조성 18년 후인 846년(문성왕 8)에 추기가 작성되었다. 추기에서는 이 공덕으로 국왕은 수복과 장수를 누리기를 기원하고 단월은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신라 하대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의거해 탑을 조성하는 신앙 역시 왕실

에서 이루어졌다. 853년(문성왕 17)의 창립사탑이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창립사탑은 문성왕의 발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해 정토로 인도하고자 하는 발원에서 조성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왕실의 측근들인 중제 종숙 등이 관여하였고 또한 판정법사 등의 승관 담당자들 그리고 고위 관직자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863년(경문왕 3) 왕은 839년(신무왕 원년) 돌아간 민애왕을 위하여 동화사 원당에 탑을 세웠다. 그리고 중생들이 세세생생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하였다. 경문왕은 현안왕의 사위이고 민애왕은 현안왕의 외숙이므로 경문왕에게 있어 민애왕은 처외조가 된다. 이는 경문왕이 충공계의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척관계에서도 추복 발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70년(경문왕 10)에는 선왕인 현안왕의 극락왕생을 위해 선종 사원인 보림사에 탑을 조성하였는데 이런 것도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불사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왕실 결사와 불사는 불안한 왕위계승과 유지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왕에 대한 추복과 정토왕생의 기원이 지극하게 드러난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 3. 불교 신앙의 여러 모습

#### 아미타신앙

아미타신앙은 아미타불의 중생 구제 본원력에 의해 사람들이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염송하면 사후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내세신앙이다. 중대에는 내세적 경향보다 현실 긍정적 풍조가 두드러졌으며 사후의 극락왕생보다 현실에 극락정토를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하대에 이르러서는 중대와 달리 아미타신앙이 내세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것이 창립사 무구정탑이다. 문성왕의 지위가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에서 으뜸으로 된 것은 여러 겁劫 동안 선행善行을 행하였기 때 문이라고 합리화하고, 공덕이 멀리는 하늘이 끝나는 저편까지 미쳐 모든 영혼들에게 이익이 되고자 무구정답을 세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성왕대에 이러한 답이 만들어진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무왕은 청해진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아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즉위 후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문성왕이 즉위하였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들이고자 하였으나 진골귀족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을 원망한 장보고가 반란을 의도하였으나 암살당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847년(문성왕 9)과 849년(문성왕 11)에도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난 사실로 볼 때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성왕은 851년(문왕 13)성에 청해진을 파하고 그곳의 백성들을 벽골군으로 옮겼으며, 855년(문성왕 17) 봄에는 서남 주군에 사신을 보내어 위문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문성왕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강화할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는 창립사 무구정답에서 왕의 지위를 새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6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는 중생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기 위해 무구정답을 건립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무구정답의 현실적 이익, 즉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질병이 없게 하며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나 도적을 막아준다는 믿음 이외에도 모든 계층에 널리 퍼져 있던 아미타신앙과 관련하여 국왕의 권위와 자비심을 표출함으로써 범접할 수 없는 왕권을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내재되었던 것이다.

문성왕대의 아미타신앙은 경문왕대의 황룡사구층목탑을 수리한 사실과 더불어 883년(헌강왕 9) 중화 3년명 금동원탑 명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영답을 세우는 것은 밝으신 국왕의 규범”이라고 표현된 데서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따라서 하대의 내세적 성격을 가진 아미타신앙은 현실정토 건설을 위해 사회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의지를 억누르고 도리어 왕권을 합리화하며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은 진골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왕위 쟁탈을 예외한 심각한 정치 투쟁이 식어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문성왕에 이르러 이러한 답이 조성되고 경문왕대에 『무구정경』에 근거한 답들

이 집중적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진성왕대 이후에도 이러한 답의 조성을 엿볼 수 있다. 해인사에 건립된 「해인사묘길상탑」도 그러한 점을 보여준다. 「해인사묘길상탑기」는 895년(진성왕 9)의 일종의 것이다. 내용 중에는 ‘특별히 억울하게 죽어 고해에 빠진 영혼을 구해 올려 제사를 지내어 복을 받음이 영원히 그치지 않도록 함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승려나 속인 할 것 없이 초적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위로하고 그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하대 아미타신앙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내세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중대와 같은 불국정토의 실현이라는 이상은 없어진 채 사후의 극락왕생만이 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왕위쟁탈전을 통해 얻은 경험이 바로 국왕은 오랜 세월을 걸친 수행을 통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무구정답을 건립하여 중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이 국왕의 자비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무구정답이 설치된 국가에는 재난과 반란 등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한 「무구정경」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왕의 지위를 합리화해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에 국왕들에 의해 무구정답의 조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 미륵신앙

하대에 미륵신앙이 성행한 것은 그럴 만한 시대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하대에는 그 전과는 달리 말세의식末世意識이 크게 작용하였다. 현세의 고통에서 구제되기를 희망하는 구세주 대망의식待望意識이 만연하였는데, 이는 자연 미륵불의 하생을 기원하는 미륵하생신앙으로 나타났다. 하대의 미륵신앙은 언젠가 실현될 이상세계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고 특히 현실 사회를 개혁하려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는 바로 공예工藝와 견훤甄萱에 의한 이상세계의 건설로 나타났고 신라국가를 붕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하대의 미륵신앙은 중대말의 진표계眞表系 미륵신앙이 주로 왕도로부터 먼 옛 고구려 지역과 백제 지역을 중심으로 유포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신라의 하대 혼란기에는 반신라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진표계 미륵신앙은 미륵과 지장보살을 신앙하

면서 점찰법占察法에 의한 참회와 계행을 중시하는 실천적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고 생각하는 민중들에게 부각될 수 있는 면이 강하였다. 또 진표가 포교활동을 하는 가운데 민중을 굶주림에서 구해주려는 활동을 벌인 것은 충분히 민중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바로 하대의 혼란기에 더욱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후삼국시대의 세력가인 궁예와 견훤은 각각 자신의 세력 기반이 되었던 곳에 만연한 진표계 미륵신앙을 세력기반 확보라는 면에서 이용하려고까지 하였다.

하대의 미륵신앙 중에서는 선사들의 탑비에 미륵불의 출현을 기다리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김헌정이 찬술한 「단속사신행선사비문」에는 북중선을 전한 신행神行선사가 스스로 몸을 숨겨 선 수행을 하던 단속사에 대하여 마하가섭摩訶迦葉이 미륵을 기다린 곳으로 비유하였다. 이러한 비유는 신행이 주석하기 이전부터 전해오던 것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었다. 어쩌면 신행은 가섭이 미륵을 기다리듯이 미륵불이 나타나기를 원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봉암사 지증대사는 미륵불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곧 864년(경문왕 4)에 단의장옹주는 지증대사를 당래불當來佛이 하생한 것처럼 공경하였다.

하대의 미륵신앙은 범상종 신앙으로서의 의미보다 오히려 순수한 민중의 신앙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이는 미륵신앙의 숭앙 계층이 중고, 중대의 왕실 귀족으로부터 육두품 이하 중류계층에서 점차 민중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륵신앙이 민중의 신앙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륵신앙이 당시 민중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었기에 궁예나 견훤이 자신들의 세력기반 확보를 위해 이용하였던 것이다.

궁예가 표방한 미륵신앙은 이상세계의 건설보다는 현실사회를 개혁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는 스스로 미륵불로 자처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 하였다. 그는 궁왕이 되었는데 이는 곧 그가 전륜성왕이자 동시에 미륵이었던 셈이다. 그는 세속의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신으로서의 권위를 동시에 가지려 하였던 것이다.

견훤의 경우 익산의 미륵사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는 익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륵신앙을 크게 강조하고 나아가 진표의 미륵신앙을 통한 백제 부흥운동에까지 그 맥을 이어 나갔다. 이로써 그는 그 지역민들과 유대를 긴밀히 하고자 하였다. 견훤

과 궁예가 미륵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나말려초의 역사적 전환기에 기층을 이루었던 민중들이 구세주를 대망한 데 대해 이상세계를 지향한 미륵하생신앙을 가지고 대처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풍수지리설과 도참설의 유행

### 풍수지리설

신라 말에 이르러 풍수지리설이 크게 성행하였다. 도선道詵에 의해 널리 유포된 풍수지리설은 불교의 공덕사상이나 도교의 음양오행설 등과도 결합하였다. 이는 국가나 개인의 길흉화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풍수지리설의 기본 요소는 산·수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 산수의 순역을 살피는 과정에서 전국토를 올바르게 이해하였고, 이를 통해 인문 지리적 지식이 쌓여졌다.

그런데 풍수지리가 신라 말에 유행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때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시대부터 보인다. 탈해가 길한 땅을 찾았다는 데서 엿보인다. 당시 비록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좋은 땅을 찾는 과정에서 풍수지리가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중대에 김유신의 증손인 김암이 당나라에 숙위할 때 스승을 만나 음양기陰陽家의 법에 통달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풍수지리설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은 최치원이 지은 「송북사비문」에서도 보인다. 이에 의하면 798년(소성왕 원년)에 원성왕이 돌아간 뒤에 능지의 선택을 논하는 가운데 한 담당 관리의 말이 주목된다.

“능묘란 아래로는 지맥을 가리키고 위로는 천심을 헤아리며 반드시 묘지에다 사상을 포괄함으로써 천만대 후손에게 미칠 경사를 보전하는 것이니 자연의 이치이다. 불법은 머무르는 모양이 없고 장례에는 한창 때가 있으니, 땅을 바꾸어 자리함이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다만 청오자靑烏子와 같이 땅을 잘 고를 수만 있다면 어찌 절이 헐리는 것을 슬퍼하도록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위의 기록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묘지에다 사상을 포괄함으로써 천만대 후 손에게 미칠 경사를 보전하는 것이니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한 표현이다. 이는 명백히 풍수지리설을 나타낸다. 원성왕이 돌아가서 곡사<sup>鶴寺</sup>라는 절 자리에 왕릉을 모시도록 할 당시, 이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실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그 절자리를 왕릉으로 할 정도로 담당자가 그 위치에 집착하였다면 무엇인가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풍수지리에서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 8세기 말에는 중국의 풍수지리설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8세기 초 풍수지리설이 도입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하대 당시에 풍수지리설이 상당히 유포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그 영향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왕실 내지는 중앙 귀족이 중심이었다고 하는 점이 유의된다. 이러한 점은 하대에 왕실을 중심으로 한 중앙귀족들이 왜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였던 것일까 하는 의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라 말기 풍수지리설이 유행한 까닭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에서 찾아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대는 왕위쟁탈전을 중심으로 하는 진골귀족들의 정치적 투쟁이 치열하였던 시대였다. 이들의 정치 투쟁을 뒷받침해 준 것은 군사적·경제적 실력이었지만, 정치적 불안 상태는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항상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교적 신앙과 함께 그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풍수지리설이었다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당시 양택보다는 음택의 선정에 더 신경을 쓴 것 같이 보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지맥의 힘에 의해 권력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대에 이르러 풍수지리설이 진골인 중앙귀족들의 환영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처음 중앙의 귀족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기에 이르러 점점 지방의 호족사회로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도선<sup>道詵</sup>이었다.

도선은 827년(흥덕왕 2)에 태어났는데, 속성은 김씨이고 영암 사람이었다. 그는 20세에 동리산 태안사 혜철선사의 문하에 들어가 선을 배웠으며, 태백산 등지를 유람한 뒤 광양의 옥룡사에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 입적한 것은 898년(효공왕 2)이

고 그 때 나이가 72세였다.

그의 비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행선사에게서 풍수지리설을 직접 전수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가 중국에 유학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승인 혜철선사에게서 풍수지리설을 익혔을 가능성이 크다. 혜철은 중국에 가서 풍수지리설이 성행하고 있던 강서지방에 머문 일이 있으므로 그때에 풍수지리설을 접하였을 것이며, 태안사가 '삼한의 승지'라고 표현된 것도 그 영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도선이 활동하던 곳은 중국과의 교통로에 해당되는 나주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오히려 당나라로부터 곧바로 이 지역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신라 말에 이르러 풍수지리설은 금성(경주)를 떠나 지리산이 있는 먼 지방으로 번져갔다.

신라 말기에 각지에서 대두한 호족 세력이 풍수지리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 호족들은 중앙 진골귀족 중심의 신라 사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꿈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세력 기반인 지방의 우월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호족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설이었다.

각지에 호족들이 옹거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각 호족은 이웃하는 다른 호족들을 흡수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다른 호족들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였다. 이같은 상황은 그 호족들에게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땅의 힘에 의지하려는 심리를 빚어냈던 것이다. 이는 풍수지리설이 호응을 얻었던 또 다른 측면이다.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할 때에 산수를 두루 살펴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철원을 중심으로 하는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왕건의 선조인 강충<sup>康忠</sup>이 풍수지리설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 그의 얘기를 듣고 집을 남쪽으로 옮긴 후 군의 이름을 송악군으로 고치고 상사찬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풍수지리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음을 알겠다.

풍수지리는 이미 설정된 명당을 중심으로 전 국토를 재편성하였다. 말하자면 풍수지리는 명당을 설정하기 위해 전국 지세의 순역을 지정함으로써 명당으로 지목된 각 지역을 중심으로 전 국토를 재구성하려는 안이다. 풍수지리설에 의해 성립된

지방 중심의 지리관은 국가의 지리적 중심을 왕경에서 지방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신라 말에 지방호족이 대두된 분위기 속에서 찾아진다. 그것은 지방의 어떤 지역을 명당으로 설정함으로써, 그곳에 웅거하고 있던 지방호족 세력을 옹호하는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 도참사상

풍수지리설과 더불어 주목할 것이 도참사상이다. 도참은 장래의 일, 특히 인간 생활의 길흉화복과 성쇠·득실에 대한 예언이 징조를 보이는 것이지만, 흔히 정치와 결부되어 그 능력을 행사하였다. 그 내용은 비기의 형태로 전해졌다. 이는 신비의 측면에서 풍수지리와 통하는 것이어서, 고려 초기에 양자가 결합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 말기에 지방의 각지에서 호족 세력이 대두하면서 참위설 또한 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세력기반인 지방의 우월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궁예의 경우를 주목해 볼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참위설은 정치적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궁예가 송악이 지형적으로 유리한 점을 무시하면서까지 철원으로 환도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사실 송악은 수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세의 운송 등에 도움으로 유리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인 철원으로 환도를 한 것은 신라를 효과적으로 병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철원으로 환도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참위설을 이용하였다.

궁예는 도참에서 혁명의 해로 간주되는 891년(진성왕 5)에 칭왕하였으며, 또 도참에서 육갑의 수위<sup>首位</sup>로서 신비시하는 904년(효공왕 8)에 국호를 마진<sup>摩震</sup>으로 바꾸고 있다. 마진은 ‘마하진단<sup>摩訶震旦</sup>’의 약칭으로 범어로 마하는 대<sup>대</sup>의 뜻이고, 진단은 Chnitana의 음역으로 진인<sup>秦人</sup>의 주지<sup>住地</sup>란 뜻이다. 그러고 보면 마진, 즉 마하진단은 대동방국<sup>大東方國</sup>임을 알 수 있다. 또 궁예는 911년(효공왕 15)에 국호를 태봉으로 고치고 아울러 연호를 수덕만세로 고쳐 913년(신덕왕 2) 정개<sup>政開</sup>로 고칠 때까지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궁예는 도참설을 정치적 변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그는 도참사상을 혼란기에 민심을 끌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궁예왕은 도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궁예는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통해 인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지리와 도참의 권위를 빌렸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철원으로의 환도를 통해 풍수지리설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 건설에 노력하였던 것이다.

결국 궁예는 유학자들을 등용해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통한 통치를 추구하면서도 참위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건원도 궁예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가 광주에서 전주로 천도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참위설도 작용하였던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조범환)

---

## 참고

## 문헌

- 김영미, 1994, 『신라불교사상사연구』, 민족사.
- 김용선 역음, 2008, 『궁예의 나라 태봉 그 역사와 문화』, 일조각.
- 신호철, 2008, 『후삼국사』, 도서출판 개신.
- 조범환, 2008, 『나말려초 선종산문 개창 연구』, 경인문화사.
- 최인표, 2007,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

## 제 2 편

#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성립

제1장  
후삼국의 정립과  
후백제의 멸망

---

제2장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통일

## 제1장

# 후삼국의 정립과 후백제의 멸망

1. 후삼국의 정립
2. 후백제와 태봉의 발전
3. 고려의 성립과 후백제와의 쟁패
4. 후백제 멸망

## 1. 후삼국의 정립

### 신라 말의 혼란과 후삼국으로의 분열

#### 신라 말의 혼란

신라 말에 이르러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노출되었다. 진성왕대부터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농민의 반란이 일어나고 지방의 토착세력인 호족이 등장하면서 후삼국이 정립하였다. 이제 신라는 옛날의 권위를 상실하고 허울 뿐인 왕조를 유지해 갈 뿐이었다. 일반 농민들까지도 신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진성왕 즉위 직후부터 이미 진골 왕족은 물론이고 일반 민심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각간(角干) 위홍(魏弘)을 비롯한 미소년들과의 불륜이 거론되고, 이로 인해 기강이 문란해져 뇌물(貨賂)이 생기고 상벌이 공평치 못하다는 불평이 나타났다. 889년(진성왕 3)에는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조세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마침내 농민반란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진성왕의 즉위 자체가 이미 혼란을 자초하였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왕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였다. 이미 현안왕이 자신의 사위인 응림(膺廉)을 후계자로 삼으면서 여왕의 즉위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批雞之晨)”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비록 선덕·진덕 두 여왕의 예가 있긴 하지만 이는 가히 본받을 만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서 여왕에 대한 당시의 부정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진성왕은 조카인 효공왕에게 양위할 수밖에 없었다. 효공왕에 이어 신덕왕이 ‘국인(國人)’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신덕왕의 즉위는 신라 왕위계승상에서 커다란 이변이었다. 멀리 나물왕 이래 줄곧 김씨만이 왕위를 계승해 왔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씨가 왕위에 오른 것이다. 신덕왕에 이어 그의 두 아들인 경명왕과 경애왕까지 박씨 왕 3대가 15년간 재위하였다. 박씨 왕의 등장은 그 이전의 여왕 즉위 못지않게 신라 왕통에 있어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혼란의 시작이었다. 박씨 왕의 존재는 왕실 내에서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 도전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지방에서 성

장하고 있던 호족세력들에게도 독립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셈이 되었다.

### 호족의 성장과 후삼국으로의 분열

신라의 중앙정부는 지방의 세력가들을 제어할 만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중앙정부는 이미 조직화된 지방군을 갖지 못하게 된 지 오래였다. 중앙의 귀족들은 오랫동안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당시 왕경의 주민들은 기와로 지붕을 이은 주택에서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숯을 때서 밥을 지어 먹을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호화생활은 자연 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였고 그만큼 지방의 농민들에게 더 가혹한 수취를 강요하였다. 국가의 재정은 더욱 궁핍하게 되었고 재원이 부족한 정부는 전국에 관리를 파견해 조세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미 중앙정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항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농민 반란군은 대부분 이름 없는 초적<sup>草賊</sup>의 무리에 불과했지만, 이들을 이끌던 지휘자 중에는 지방의 세력가들도 있었다. 대부분 출신 지방에서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여러 대에 걸쳐 자신들의 권력을 거의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토착세력들이었다. 자신의 고향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주변의 농민들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성주<sup>城主</sup>'로 자칭하고 있었다. 혹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의 주민들로 조직한 사병을 거느리기도 했기 때문에 '장군<sup>將軍</sup>'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이 성주나 장군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 세력임을 내세우고 있었다. 성주와 장군을 자칭하던 지방세력들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들을 흔히 호족이라고 부른다.

농민 반란군의 우두머리는 '적수<sup>賊帥</sup>'나 '적괴<sup>賊魁</sup>'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지만, 이들 역시 성주나 장군과 차이가 없는 호족세력이라는 마찬가지였다. 죽주적<sup>竹州賊</sup> 기훤<sup>箕萱</sup>, 북원적<sup>北原賊</sup> 양길<sup>梁吉</sup>, 국원<sup>國原</sup>·청주<sup>淸州</sup>·괴양<sup>塊壤</sup>의 적괴<sup>賊魁</sup> 신훤<sup>莘萱</sup>, 평양성주<sup>平壤城主</sup> 검용<sup>黔用</sup>, 압해현적수<sup>壓海縣賊帥</sup> 능창<sup>能昌</sup>, 염주적수<sup>鹽州賊帥</sup> 유공순<sup>柳矜順</sup>, 상주적수<sup>尙州賊帥</sup> 아자개<sup>阿字介</sup>, 완산적<sup>完山賊</sup> 견훤<sup>甄萱</sup> 등은 당대의 대 세력가들이었다.

전국의 수많은 반란세력들 중에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긴 인물도 적지 않다.

견훤과 궁예 또한 처음에는 비록 농민반란군의 지휘자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정권을 수립하여 국가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다. 견훤은 의자왕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하에 백제의 부흥을 내세웠으며, 궁예는 고구려의 부흥을 부르짖으며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은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그리하여 신라와 함께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태봉, 이를 이은 왕건의 고려로 각각 삼국이 정립하게 되었다. 옛 삼국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그대로 차지하는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

### 견훤의 등장과 후백제의 건국

#### 견훤의 출신

견훤의 출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애초에는 가난한 농민출신으로 보아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과연 후백제를 건국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여, 그의 출신을 호족으로 본 것이다.

『삼국사기』 견훤전과 『삼국유사』의 견훤조에 의하면,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는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후에 집안을 일으켜 스스로 사벌성<sup>沙伐城</sup>(지금의 상주)의 성주장군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 성<sup>姓</sup>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자개는 본래 이<sup>李</sup>씨였으나 견훤이 견<sup>甄</sup>으로 성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아자개가 성을 사용하고 사벌성의 성주와 장군을 자칭하였던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상주의 대 호족세력으로 성장한 것이 분명하다. 아자개는 918년(경명왕 2) 7월에 고려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이때 왕건은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대대적 환영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그가 대단한 호족세력이었다기 때문이다. 결국 견훤은 가난한 농민출신이라기보다는 상주의 호족출신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상주의 호족인 아자개는 자신의 장남인 견훤을 신라의 중앙군으로 보냈다. 이때가 880년대 후반으로 견훤의 나이 20세 전후의 일이다. 견훤은 신라의 중앙군에 편입되어 왕경<sup>王京</sup>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아자개가 견훤을 중앙군으로 입역<sup>立役</sup>시킨 것은 신라 중앙정부와 연결을 꾀하기 위해서이다. 신라 말 지방 호족들이 자식을 경주에 보내 중앙정부와 연결을 꾀한 예는 아주 흔히 있는 일이었다. 호족들이 지방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 견훤의 초기 세력기반

신라의 중앙군이 된 견훤은 곧 서남해의 방수군<sup>防戍軍</sup>으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방수군의 '비장<sup>裨將</sup>'이 되었다. 비장은 독립 부대의 지휘관을 의미한다. 견훤이 방수군 비장이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견훤은 자신의 휘하에 독립된 병력을 거느리게 되었고, 나아가 독자적 세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서남해 일대의 방수군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독자적 세력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견훤전에 의하면, 그는 항상 전장에 나가 "창을 베개 삼아 적을 기다렸으며, 그 용기가 사졸보다 앞서 있었다."고 한다. 견훤의 야망을 읽을 수 있다.

견훤은 드디어 신라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의 상황을 견훤전에는 "은근히 반심을 품고 무리를 모아 서울의 서남주현들을 진격하니 가는 곳마다 호응하여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무리가 5천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견훤이 모은 '5천의 무리'는 단순히 견훤을 따르던 무리라기보다는 견훤의 군사적 배경이 된 핵심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견훤의 5천 병력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더구나 한 달 사이에 이러한 군사력을 확보한 것은 당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궁예와 비교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하다. 궁예는 명주에서 3천 5백의 무리를 모아 내외의 관직을 설치하고 왕을 칭함으로써 드디어 독립적 정권을 세울 수 있었다. 궁예는 처음부터 자신의 독자적 세력을 모은 것이 아니라, 즉주적 기회의 부하를 거쳐 복원적 양길의 부하가 된 후에 비로소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견훤은 서남의 주현 일대에서 반기를 든 지 불과 한 달 만에 5천의 무리를 모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견훤의 초기 군사적 배경이 궁예의 그것과 크게 달랐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5천에 달하는 견훤의 초기 군사적 기반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견훤의 초기 세력은 다양한 기반들로 구성되었다. 우선 그가 서남해 방수군의 지휘관으로 있을 때 거느렸던 휘하 병사들이 그의 초기 세력의 핵심을 이루었다. 이 방수군 병사들은 신라의 중앙군 출신이다. 당시에는 중국과의 통상무역이 서남해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곳의 방수 임무를 띤 군대는 일반 지방군이 아

닌 중앙군을 파견하였다. 신라는 교통·군사상의 요지에 일찍부터 진흥을 설치하였다. 창해진이 그 대표적 예이다. 견훤이 파견된 곳 또한 대중국무역의 통로였던 서남해상의 요충지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중앙에서 방수군을 파견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남해 일원에서 해상활동에 종사하던 해도 출신의 인물들도 견훤의 초기 군사적 배경이 되었다. 이들은 견훤이 신라에 반기를 든 후에 점차 그의 세력에 흡수되었다. 대표적 인물로 압해현의 적수<sup>賊帥</sup> 능창을 들 수 있다. 그는 수전<sup>水戰</sup>을 잘하여 수달이라고 불렸으며 주변의 해적들이 그를 추대하여 괴수로 삼았다고 한다.

한편 무주<sup>武州</sup>(지금의 광주) 일대의 토착세력들도 견훤의 세력기반이 되었다. 견훤이 처음 반란을 일으켜 서남 주현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주에 이르렀을 때 가는 곳마다 메아리쳐 호응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이곳 일대의 토착세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견훤의 군사적 기반 중에 신라의 중앙군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이 견훤 병력의 핵심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일반 반란군의 적수<sup>賊帥</sup>들이 거느렸던 이른바 초적의 무리들과는 그 구성 자체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궁예의 초기 병력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취약한 군대였다고 한다. 기회를 거쳐 양길의 부하가 된 후에 양길을 타도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병력들은 충성심이 없이 상급자의 대우라든가 세력의 크기 등에 좌우되어 언제든지 배반하고 다른 실력자에게 투항할 수 있는 그런 무리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견훤의 군사력은 군대의 조직이라든가 충성심 또는 전투 경험 등 여러 면에서 궁예의 군대를 비롯한 다른 반란군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후백제가 태봉과 고려와의 전투에서 월등하게 우세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견훤의 초기 병력이 지닌 성격에 있었다.

## 후백제의 건국과정

견훤이 서남해에서 반기를 든 후 후백제를 수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삼국사기』 견훤전 및 연표,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sup>王曆</sup> 및 후백제견훤조 등 여러 사료에 따르면,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마치 한해에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다. 즉 견훤이 서남해 일대에서 남몰래 반

심을 품고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킨 일, 이후 무주를 습격하여 왕을 칭한 일, 완산주 完山州(지금의 전주)로 천도한 일, 국호와 연호를 제정한 일 등이 모두 892년(진성왕 6) 한 해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후백제의 건국 과정은 10여 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정치적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견훤이 서남해 방수군의 비장으로 자신의 휘하 병사들을 중심으로 신라에 반기를 든 것은 889년(진성왕 3)의 일이다. 다음 내륙으로 이동하여 무주를 점령하였다. 이는 892년(진성왕 6)이다. 이때 견훤은 스스로 왕이라 하였지만(自王), 아직 감히 공공연히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不敢稱王), 다만 '신라서면도통지휘병마제치절도독전무공등주행전주자사겸어사중승상주국한남군개국공식읍이천호 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持節都督全武公等州行全州刺史兼御史中丞上柱國漢南郡開國公食邑二千戶'라고 하는 긴 직함을 스스로 사용하였다고 한다(自署).

그 후 견훤은 무주를 떠나 내륙으로 세력을 확대해 갔다. 점차 북상하여 전라 일대의 주민들을 포섭하면서 완산주에 이르렀는데, 이때가 900년(효공왕 4)이다.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호응하면서 견훤을 맞이하자, 그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도움을 정하고 어찌 의자왕의 원한을 씻지 않겠는가.”라 하고 드디어 도움을 정하고 후백제왕을 칭하였다고 한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 견훤이 후백제를 수립하기까지 크게 네 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견훤이 은근히 신라에 반심을 품고 자신의 세력을 규합해 나가던 단계이다.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889년(진성왕 3) 처음으로 신라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서남해로부터 이동하여 892년(진성왕 6) 무주를 점령하기까지이다. 세 번째 단계는 무주를 점령한 후 스스로 왕이라 하였으나 감히 대외적으로는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다만 '신라서면도통' 운운하여 신라의 지방관을 자임하던 단계이다. 이 시기는 892년(진성왕 6)에서 900년(효공왕 4)까지로 무주정부 시절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무주에서 전주에 천도한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단계이다. 900년(효공왕 4) 이후 전주정권 시절에 해당된다.

견훤은 전주에 천도한 후 백제부흥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국호를 '백제'라 하고 자신을 '백제왕'이라 칭하였다. 사실 견훤이 제정한 국호의 정식 명칭은 '후백제'

가 아니라 '백제'이다. 『삼국사기』 찬자 등 후세의 사가들이 삼국시대의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 궁예가 처음 칭한 국호 또한 '후고구려'가 아니라 '고려'이다. 오늘날의 사가들 또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후백제, 후고구려라 부르고 있다. 이는 중국사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 궁예의 성장과 후고구려의 건국

### 궁예의 출신

궁예의 출신 또한 분명하지 않다. 『삼국사기』 궁예전에는 신라 헌안왕의 아들 혹은 경문왕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궁예의 출신·신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궁예가 신라의 왕자 출신이 아니라 스스로 칭했을 것으로, 실제로는 몰락한 진골귀족 출신 정도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두 견해는 궁예전의 기록에 따라, 각각 경문왕 혹은 헌안왕의 왕자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 궁예의 신분이 적어도 진골귀족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의의가 없다. 그러한 점에서 궁예는 호족 출신인 견훤이나 왕건과는 크게 달랐음이 분명하다.

궁예는 태어나면서부터 정쟁으로 인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숨어 사는 신세였으며 왕경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영월의 세달사 世達寺에서 출가하여 승려로 살았는데, 장성한 후에는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여권의 불교경전을 저술하고 강설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불교에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미륵신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궁예전에는 그가 “승률 僧律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기상이 활발하고 담기가 있었다.”고 한다. 또 그가 세달사에 있을 때 “까마귀가 바닷가에 떨어뜨린 아침 牙籤에 '왕'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내심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궁예가 일반 승려들과는 달리 현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일찍부터 반신라적인 마음을 품고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 궁예의 세력형성

궁예는 891년(진성왕 5)에 드디어 영월의 세달사를 떠나서 죽주 竹州(지금의 안성)의 세

력가인 기훤의 부하가 되었다. 궁예가 영월을 떠나 멀리 죽주까지 가서 기훤의 부하가 된 것은 일찍부터 품고 있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기훤에게 의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궁예는 기훤의 부하가 된지 1년 만인 892년(진성왕 6)에 그를 떠났다. 그 이유를 궁예전에는, “기훤이 오만하여 예로써 대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마도 기훤은 야심을 품고 있던 궁예를 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훤을 떠난 궁예는 북원北原(지금의 원주)으로 가서 그곳의 대 세력가였던 양길에게 의탁하였다. 양길은 기훤과는 달리 궁예를 “잘 대우해주고 일을 맡겼다.”고 한다. 양길에게 귀부한 궁예는 이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사실 양길에게 귀부하기 이전부터 궁예는 나름대로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삼국시대 지방세력들 간에 귀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흔히 두 세력의 결합을 의미한다. 궁예가 양길에게 귀부한 것 또한 궁예 혼자만 아니라 그가 거느리고 있던 무리들과 함께였음을 뜻한다.

양길에게 귀부한 궁예는 군대를 거느리고 주변의 여러 지역을 정벌하는 데 앞장섰다. 궁예는 주천酒泉(지금의 영월), 나성奈城, 울오鬱烏(지금의 평창), 어진御珍(지금의 정선) 등 강원도 일대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애초부터 양길의 부장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궁예는 얼마 안가서 양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였다.

궁예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독자적 세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명주溟州(지금의 강릉)를 점령하면서부터이다. 궁예는 894년(진성왕 8) 10월에 6백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명주에 들어갔다. 명주에 들어간 궁예는 이후 3천 5백 명의 병력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병력을 14개의 부대로 나누고, 각 부대에는 부대장 격인 ‘사상술사’를 두었으며, 자신은 장군으로 추대되었다. 궁예가 이제 자신의 독자적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장군이 되었고, 마침내 양길의 휘하에서 벗어나 자립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 후고구려의 건국

궁예가 894년(진성왕 8) 명주에서 자립한 것이 물론 국가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공식적으로 국호와 도읍을 정하고 왕을 칭하며 통치체제를 수립한 것은 이후의 일이다. 궁예는 명주에서 자립한지 얼마 안가서 그곳을 떠나 점차 서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가 명주를 떠난 이유는 양길의 세력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길은 북원北原(지금의 원주)과 국원國原(지금의 충주) 일대에 강력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 서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궁예는 895년(진성왕 9) 8월 철원을 비롯하여 저족猪足(지금의 인제)과 성천狹川(지금의 화천), 그리고 부약夫若(지금의 금화)과 금성金城(지금의 금화군 금성면) 등, 한주漢州 관내의 10여 군현을 점령하였다. 궁예는 명주에서 자립한 후 해안을 끼고 북상하여 영서로 넘어와 자신의 세력기반을 더욱 확대해 갔던 것이다.

이제 궁예는 “나라를 열어 왕을 칭할 수 있다(‘개국칭군開國稱君’),”고 생각하고 드디어 내외의 관직을 설치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철원에 도읍을 정하였다. 철원에 도읍을 정한 궁예는 이어 승령僧嶺(지금의 연천)과 김강臨江(지금의 장단) 지역을 장악하였고, 다음 해인 897년(진성왕 11)에는 인물현仁物縣(지금의 개풍)의 항복을 받는 등 한산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처럼 궁예가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지배 영역을 크게 확대하여 그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자 패서 일대의 호족 세력들이 다투어 귀부하였다고 한다. 패서 호족들의 귀부는 궁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패서도와 한산주 관내의 30여 성을 차지한 궁예는 마침내 898년(효공왕 2) 7월에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다. 송악으로 옮긴 궁예는 공암孔巖(지금의 서울 양천구), 김포黔浦(지금의 김포), 혈구穴口(지금의 강화) 등 한강 일대까지 점령하였다.

궁예는 송악으로 옮긴 지 꼭 1년 후인 899년(효공왕 3) 7월에 양길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 당시 양길은 북원을 근거지로 하여 국원 등 30여 성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궁예를 압박하고 있던 강력한 세력이었다. 양길은 이 30여 성의 병력을 동원해 궁예를 공격하였으나 비뇌성非腦城(지금의 안성)에서 오히려 패배하고 말았다. 양길에게 승리한 궁예는 다음 해인 900년(효공왕 4)에 세력을 남쪽으로 확대해 광주廣州와 당성唐城(지금의 남양)을 비롯하여 한강 하류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 해 10월에는 국원, 청주, 괴양 일대의 호족들이 성을 들어 궁예에게 투항하였다. 이제 궁예는 패서지역을 비롯하여 한산주 일대를 확보한 데 이어, 북원·국원·괴양 등 충청도의 양길 세력권을 포함하

고 광주·남양 등 경기 남부의 한강하류와 남한강 일대 및 남양만까지 광범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림 1. 후삼국의 영역지도

궁예는 901년(효공왕 5) 드디어 ‘고려’를 건국하였다. 이때 궁예가 “지난날 신라가 당의 군사를 청해 고구려를 격파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고 고구려 계승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그가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점령지역 대부분이 고구려의 고토였으므로 이 지역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궁예보다 1년 전인 900년(효공왕 4) 견훤은 의자왕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후백제를 건국하였는데, 궁예가 고구려 계승을 내세운 것은 견훤에게서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견훤은 892년(진성왕 6) 무주를 점령한 후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공공연히 칭왕하지 못하다가 900년(효공왕 4)에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궁예 또한 896년(진성왕 10) 철원을 도읍으로 삼고 건국의 태세를 갖추었지만 901년(효공왕 5)에 가서야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즉위하였다. 궁예는 건국 과정에서 항상 견훤보다 몇 년 늦게 그를 뒤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견훤은 궁예에게 있어 선배이자 스승이었던 셈이다.

## 2. 후백제와 태봉의 발전

### 후백제의 발전

#### 전주 천도와 국호·연호의 제정

견훤은 서남해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여 무주에서 건국하였다. 자연히 무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 남부 일대가 그의 세력 중심지가 되었다. 견훤은 900년에 자신의 세력기반인 무주를 떠나 전주로 천도하였다. 전주로 천도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나주를 비롯한 서남해의 지방세력들이 불만을 품고 견훤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즉 후백제 배후 지역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견훤은 자신의 초기 세력기반을 버리고 내륙으로 점차 북상하여 전주를 새로운 세력 중심지로 삼았다. 다른 하나는 백제의 부흥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신라 정부에 불만을 가진 백제계 유민들을 흡수하고 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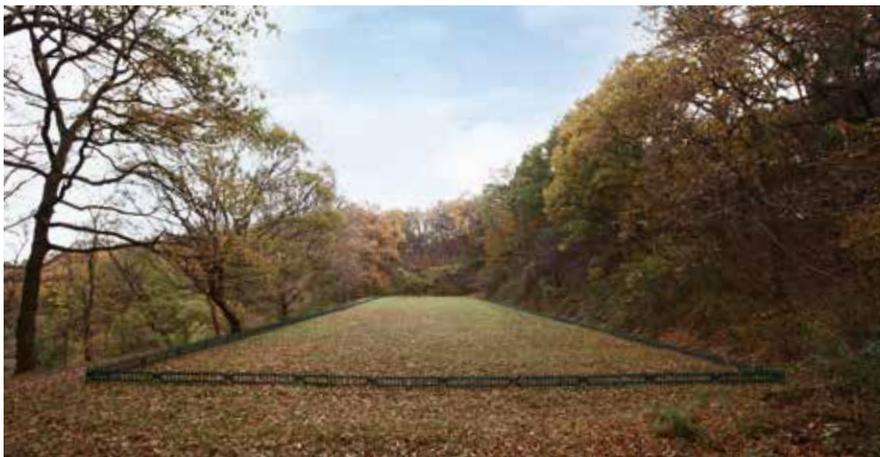


그림 2. 후백제 중심지 전주 동고산성 전경(상)과 내부 건물지 발굴 후의 정비된 모습

결국 전주 천도는 후백제에 있어 정치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건훤은 전주로 천도한 후에 비로소 본격적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 전까지는 주로 지배영역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민심의 흡수와 주변 호족세력들과의 결합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치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주 천도 후에 국호와 연호를 제정하였다.

후백제의 연호에 대해서는 일반 사서에 전혀 기록이 없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남원군 입석리 실상사 조계암曹溪庵 터에 있는 편운화상片雲和尚의 부도浮屠에 후백

제 연호가 새겨져 있다. 이 부도의 명문에는 ‘정개正開 10년 경오庚午’라는 연대가 보이는데, 이 해는 부도를 건립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정개는 후백제 건훤의 연호임에 틀림이 없다. 정개 원년을 환산하면 전주로 천도한 다음 해인 901년에 해당된다. 건훤은 전주 천도 후 백제라는 국호와 함께 정개라는 연호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통치체제의 정비

천도와 함께 도읍으로서 필요한 여러 기능을 정비하였다. 도성과 궁궐의 건축 등 외형적 설비뿐만 아니라, 관부와 관직의 설치라든가 왕경 수비군의 조직과 운영, 경찰·치안 유지 등의 기능을 정비하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관부官府를 설립하고 관직의 나누어 정했다는 ‘설관분직設官分職’의 내용이다. 설관분직은 분명 후백제의 정치조직을 뜻하는 것일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 구체적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후 백관百官을 두고 광평성과 병부를 비롯한 여러 관부를 설치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광평성체제’라고 불리는 궁예의 정치조직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데 비해, 후백제 고유의 관부나 관직명은 전혀 알 길이 없다.

후백제 고유의 관부와 관직명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대체로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훤이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습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그가 스스로 칭한 관직이나 중국으로부터 받은 직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훤은 처음 스스로 왕을 칭한 후에도 대외적으로는 ‘신라서면도통’ 운운하면



그림 3. 태봉 수도 철원의 왕궁 추정지

서 한낱 신라의 지방관임을 자처하였다. 국가체제를 수립한 후인 925년(경애왕 2) 중국의 후당(後唐)으로부터 받은 직함 또한 '신라서면도통' 운운의 관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견훤이 궁예와 달리 신라의 제도를 따른 것은 그의 출신 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는 신라의 중앙군 장교 출신이었고, 초기의 군사적 기반 역시 신라의 군사체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권을 세운 후에도 독자적 정치조직을 수립하지 못하고 신라 체제를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 호족연합과 지방통치

후백제는 전주 천도 후 한때는 후삼국 중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에 두었다. 후백제가 새롭게 정복한 지방의 지배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은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경우이다. 왕도에서 가까운 곳은 중앙의 직접 통치하기가 용이했다. 도읍인 전주를 비롯한 김제나 익산 등 전라 북부 일대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김제와 익산은 각각 금산사, 미륵사와 같은 대 사찰이 있던 곳으로 일찍부터 견훤은 이 지역을 중시하였다. 금산사와 미륵사는 견훤이 민심의 수습을 위해 자신이 직접 순행하며 불교행사를 주관했던 사상적 기반이 된 곳이다.

한편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 통치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군사적 요충지에 대해서는 '도독(都督)'을 파견해 통치하였다. 무주와 강주(康州)(지금의 진주)가 그 대표적 예이다. 견훤의 두 아들인 양검과 용검이 각각 이곳의 도독으로 파견되었다.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 통치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 강력한 호족세력이 존재하던 지역으로 그와 같은 지역은 그 지방의 호족들에 의해 독자적 지배권이 행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은 그곳 호족세력과 연합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일종의 호족연합을 통한 지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호족과의 연합은 '귀부(歸附)'나 혼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귀부의 대표적 예는 매곡현(味谷縣)과 같은 경우이다. 매곡현은 후백제와 태봉의 접경지역으로 지금의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일대이다. 이곳에는 성주장군을 자칭하던 공직이라는 대 호족이 웅거하고 있었는데, 일찍이 그는 후백제에 귀부하여 견훤의 심복이 되었다. 견훤과 공직은 귀부의 형식을 통해 서로 연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혼인을 통한 호족연합의 경우는 승주 및 무주와 같은 예이다. 승주(昇州)(지금의 순천)는 남쪽으로는 바다와 인접해 있고 나주의 동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일찍부터 견훤과 관련을 맺은 인물이 많은 곳이다. 이곳의 대 호족인 장군 박영규(朴英規)는 견훤의 딸과 혼인해 그의 사위가 되었다. 나주 호족이 왕건과 결합함으로써 서남해 일대가 취약해진 데에 대한 보완책으로 견훤은 박영규와 혼인 연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무주는 견훤이 892년에 건국한 곳으로, 무주의 호족인 성주 지훤(池萱)은 견훤의 사위였다. 그 또한 혼인정책을 통해 견훤과 결합한 인물이다.

이처럼 견훤은 정복을 통한 무력지배 못지않게 호족세력과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많은 지역의 호족들과 연합하여 지방을 통치하였다. 따라서 견훤정권의 정치적 성격은 호족연합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견훤은 전주 천도 후 대내적으로는 국가체제를 수립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견훤은 900년 오월(吳越)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 후에도 오월을 비롯해 후당·거란·일본 등에도 외교사절을 보내는 등 궁예에 비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견훤이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에 사신을 파견하는 데 힘을 쏟은 이유는, 후백제의 건국 사실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였다.

### 태봉의 발전

#### 국호·연호의 제정과 변경

궁예는 기훤에게 투신한 지 꼭 10년만인 901년 '고려'를 건국하였다. 궁예가 처음 제정한 국호는 고려지만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호와 연호를 바꾸었다. 고려라고 칭한 것은 고구려를 부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신라 진골(왕자) 출신인 궁예는 고구려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자신의 세력기반 대부분이 옛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유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이다. 상주 출신인 견훤이 백제 부흥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궁예는 국호를 고려라고 한 지 3년 후인 904년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바꾸고, 연호를 제정하여 '무태(武泰)'라고 하였다. 다음 해 905년에는 다시 연호를 '성책(聖冊)'으

로 바꾸었다. 궁예가 국호를 마진으로 고친 것은 송악에서 철원으로 환도한 후의 일이다. 마진으로의 국호 개정은 환도와 함께 새로운 정치 개혁의 실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환도한 이유는 왕건을 비롯한 패서 일대 호족의 근거지인 송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환도 후에도 이에 따른 지배층 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새로운 지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호와 연호의 개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궁예는 911년 국호를 다시 '태봉(泰封)'으로,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로 바꾸었다. 이어 914년에는 연호를 '정개(政開)'로 개정하였다. 국호와 연호를 다시 변경한 배경은 무엇일까? 궁예는 처음에는 가난한 농민층과 사원세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력기반을 마련하였지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유력 호족세력들과의 연합이 필요했다. 호족세력들과의 연합은 '고려'·'마진' 정부시절 궁예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의 궁예정권은 호족연합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절대적 권력을 추구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궁예는 미륵불을 자처하고 두 아들을 각각 청광보살·신광보살이라고 칭하였다 한다. 더구나 그는 외출할 때마다 백마를 타고 동남동녀를 앞세우고 비구니들로 하여금 범패를 부르며 따르게 하였다고 한다. 자신을 신격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궁예의 정치를 '신정적(神政的) 전제정치'로 부르고 있거나, 궁예가 전제정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태봉'이라고 국호를 변경한 것이다.

위와 같이 궁예는 처음에 고구려 부흥을 부르짖으며 국호를 고려로 정한 후에 마진, 태봉으로 세 차례 변경하였고, 연호 또한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개 등 네 차례나 고쳤다. 이에 비해 견훤은 백제 부흥을 내세워 국호와 연호를 각각 백제와 정개로 제정한 후에 일관되게 백제 계승을 추구하였다. 궁예와 견훤의 정치이념 차이를 이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 통치체제의 정비

궁예가 정치조직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송악에서 철원으로 환도한 904년부터이다. 이때 궁예는 백관(百官)을 두고 광평성(廣評省)과 병부(兵部)를 비롯한 여러 관부를 처음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처음으로 궁예정권의 정치조직이 만들

어진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관부가 설립되었다. 896년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였을 때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에 관직을 두었다고 한 궁예전의 기록을 보면, 이때 이미 관부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904년 철원 환도 후에는 기왕에 설치된 정치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태봉의 최고 통치기구는 광평성이다. 특히 광평성은 설치 당시부터 정치적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제1의 관부라는 점에서 궁예정부의 중앙 정치조직을 '광평성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광평성을 비롯한 태봉의 관제가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태봉의 관부 명칭은 신라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실제 병부와 조위부를 제외하면 모든 관부의 명칭이 신라와 달리 태봉 고유의 것이다. 이러한 태봉의 통치기구는 궁예가 신라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태봉의 관제가 신라의 그것보다 세분화되어 있었다는 점도 그 특징의 하나이다. 태봉의 관제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사정부(司正部)에 해당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궁예가 형벌을 관장하는 기구를 중요시한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즉 궁예 자신이 형벌 중심의 통치를 통해 전제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광평성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신라의 집사부와 같은 기구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신라의 집사부에 시중이 임명된 것과 마찬가지로 광평성에도 시중이 임명되었다. 집사부체제의 성립이 신라 중대의 전제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광평성체제도 궁예정권의 전제주의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광평성은 글자 그대로 널리 평의하는 기구로서 신라의 화백회의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화백회의가 중앙의 진골세력을 대변하였던 기관이라면 광평성은 지방의 호족세력을 대변하였고 그것이 중서문화성으로 변함으로써 다시 중앙의 귀족세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해 갔다는 것이다.

한편 광평성이 설치 당시에는 호족들을 대변하는 기구였지만, 점차 전제주의를 뒷받침하는 성격으로 변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궁예정권은 처음 호족연합정권의 성격을 갖고 시작하였지만 후에는 전제정치를 추구하였다. 광평성체제가 성립되었던 904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궁예정권은 호족연합정권의 성격으

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광평성은 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설치되었고 적어도 한동안은 그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호족세력과의 연합

궁예는 지방의 호족세력들과 연합하여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궁예가 명주에서 자립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일대의 하층 농민들은 물론 호족세력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명주는 일찍이 왕위계승전에서 패배한 김주원이 퇴거한 이래 그의 후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궁예는 이 김주원(金周元)계 호족들의 협조를 받아 자립할 수 있었다. 김주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경신(金敬信)과 왕위계승전에서 패배한 후 명주로 은퇴해 '명주군왕'이 되었던 인물이다. 신라 말 명주 일대는 김주원의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순식(順式)은 궁예에게 협력하였다. 후일 그는 왕건에게 귀순하여 통일전쟁에 공이 컸으므로 왕씨 성을 사성(賜姓)받았다.

명주를 떠난 궁예는 896년 철원에 도움을 청하였다. 이때 많은 패서 지역의 호족들이 궁예에게 귀부하였다고 한다. 궁예에게 귀부한 패서 호족으로는 평산 박씨 가문을 들 수 있다. 평산 박씨의 세력 근거지는 패서지역의 중심지인 평주(平州, 지금의 평산)이다. 평산 박씨가 이곳에 정착한 것은 박직윤(朴直胤) 때부터인데, 그는 패강진의 군사조직을 통해 호족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그는 평주의 읍장(邑長)으로 스스로 대모달(大模達)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대모달은 본래 고구려의 장군직이다. 신라 말 지방의 호족들이 성주나 장군을 자칭하던 것과 같은 경우이다. 박직윤의 아들인 박지윤(朴遲胤) 대에 이르러 패서지역 일대의 13군현을 지배하게 되었다. 박지윤이 895년(진성왕 9)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이는 패서지역의 다른 호족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이 지역 호족 대부분이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한편 송악의 왕건 가문도 896년(진성왕 10)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왕건의 아버지 왕룡(王隆)은 당시 송악군의 사찬(沙漣)이었다고 한다. 사찬은 본래 신라의 17관등 중에 제8관등이지만, 이 왕룡이 사찬을 칭한 것을 보면 송악군 일대의 유력자였음을 뜻한다. 왕룡이 귀부하자 궁예는 그를 금성 태수로 삼았다. 또 그의 설득에 따라 왕건으로 하여금 송악에 발어참성(勃髮誓城)을 쌓게 하고 그 성주로 임명하였다. 일찍부터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왕건 부자의 귀부로 궁예는 패강 일대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한편 궁예는 충청도 청주의 호족들과도 결합하였다.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환도하기 1년 전인 904년에 '청주인호(淸州人戶 1천-千)'을 철원성으로 옮겨 도읍을 설비하였다고 한다. 궁예정권에서 활약한 청주 출신 인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들은 바로 이때 옮겨간 일천호 가운데 포함된 청주 사람들이었다. 청주 호족이 궁예 병력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청주가 궁예세력의 온상과 같은 곳이었다는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궁예는 이외에도 여러 지역의 호족들과 제휴하였다. 궁예가 신라의 진골출신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몰락한 진골귀족 중에 지방으로 낙향한 호족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 궁예는 일찍이 영월의 호족들과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초기 세력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다. 영월은 궁예가 승려생활을 한 세달사가 있던 곳으로 이곳의 사원세력을 비롯하여 호족과도 결합하였다. 세달사는 당시 상당한 경제적 규모를 갖고 있던 대 사찰이었다.

### 후백제와 태봉의 각축

#### 서남해 제해권을 둘러싼 대립

견훤은 892년(진성왕 6) 무주에서 나라를 세운 후 900년에 전주에 천도하였다. 한편 궁예는 894년(진성왕 8) 명주에서 자립한 후 901년 철원에서 건국하였다. 견훤과 궁예가 서로 각축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901년 궁예가 건국한 직후부터이다. 견훤과 궁예 사이의 영토 확장을 위한 각축은 주로 두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는 후백제의 배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해 일대이고, 다른 하나는 두 나라의 접경 지역인 한강 상류 충청도 내륙 지역이다.

후백제와 태봉이 제일 먼저 전투를 벌인 곳은 서남해 일대였다. 견훤은 전주에 천도한 직후인 901년 8월에 금성(錦城, 지금의 나주) 남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연변 부락을 공략하였다. 한편 궁예는 그보다 2년 후인 903년에 왕건으로 하여금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나주를 비롯한 인근 10여 군현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이처럼 후백제와 태봉이 처음으로 각축을 벌인 곳이 나주 일대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남해 일대의 제해권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중국과의 해상교통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견훤과 궁예는 이 일대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나주를 비롯한 서남해 일대는 견훤의 초기 세력기반이 된 곳이다. 그러나 이곳의 지방세력들은 견훤의 세력이 강성해져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들이 견훤을 이반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오히려 왕건과 결합하였다. 따라서 견훤은 전주에 천도한 후에 제일 먼저 자신의 초기 세력 근거지였던 나주 일대를 공략하였던 것이다. 나주의 호족 세력들은 자진해서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견훤의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대의 해상세력들이 일찍부터 왕건의 선대<sup>先代</sup>와 대중국무역을 통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후 궁예는 913년 나주에 있던 왕건을 시중에 임명하여 수도인 철원으로 불러들였다. 대신 그의 부장인 김언<sup>金言</sup>을 해군장군에 임명하여 나주로 내려 보냈다. 그러자 견훤은 서남해 제해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나주를 공격해 차지하였다. 이 일대의 지배권이 잠시 견훤에게 돌아가자 궁예는 다음 해인 914년 왕건을 시중 직에서 해임시키는 대신 해군장군에 임명해 나주로 내려 보냈다. 이때 왕건은 정주<sup>貞州</sup> 포구에서 전함 70여 척을 정비해 나주 공략에 나섰다. 왕건이 나주에 이르자 백제의 해상 도둑들이 왕건이 다시 온 것을 알고 모두가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곳에서의 왕건의 영향력을 시사해 준다. 더구나 궁예가 왕건을 해군장군에 임명하면서 “수군장수가 미천하여 능히 적을 위압할 수가 없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왕건의 역할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왕건이 군공을 세운 곳은 주로 서남해 일대였다. 그는 903년(효공왕 7) 처음 나주로 진출한 이후 918년(태조 1) 고려를 건국하기까지 15년 동안 거의 대부분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궁예정권하에서 왕건이 개경에서 활동한 것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왕건은 나주를 자신의 안거지<sup>安居地</sup>로 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출신지인 송악보다도 오히려 나주를 더욱 든든한 근거지로 여겼던 셈이다. 그것은 후일 왕건이 “내지<sup>內地</sup>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서 정벌에 종사함으로써 일신을 보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여 자진해서 나주 정벌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왕건이 궁예의 미륵관심법에 의해 모반죄로 죽을 뻔하다 겨우 모면한 후 나주

로 피신했던 것을 보면 나주가 그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었음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편 나주 일대의 지방세력들은 후백제와 태봉 사이에서 때로는 협력과 견제를 하면서 독자적 지배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후삼국기 내내 나주의 호족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견훤과 궁예(후일은 왕건)에게 반부를 거듭하면서 강력한 토착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 중부 내륙에서의 대립

후백제와 태봉의 쟁패는 서남해지역 다음으로 중·북부 내륙지방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광주<sup>廣州</sup>·당성<sup>唐城</sup>(지금의 남양) 등 경기도 일대와 보은·청주·괴양<sup>塊壤</sup>(지금의 괴산)·충주 등 충북지역, 그리고 운주<sup>運州</sup>(지금의 홍성)·웅주<sup>熊州</sup>(지금의 공주)·연기<sup>燕岐</sup> 등 충남 일대를 연결하는 지점이 양국의 접경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일대는 저절로 영토 확장의 대상이 되었다.

이곳은 남한강 상류와 금강일대의 평야지대이자 호서와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 일대의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곳의 호족들은 그 세력이 매우 강력해서 처음부터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두 나라가 처음에는 주로 서남해의 제해권 장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이곳 공략에는 소홀했었다. 중부 내륙에서 궁예와 견훤 군이 직접 전투를 벌인 일은 거의 없었다.

경상도 일대에서는 견훤과 궁예가 서로 대립하였다. 위로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남쪽 지방과, 아래로는 낙동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신라를 둘러싸고 후백제와 태봉, 뒤 이어 고려와의 사이에 끊임없이 쟁패가 벌어졌다. 특히 상주·고창·의성·진보성·조물성 등지의 경상 북부 지역과 고을부(영천)·진례군·청도 등지의 경주와 인접한 지역이 주로 공략의 중심 대상이었다. 경상 북부 지역에 먼저 진출한 것은 견훤이었다. 903년 양주<sup>良州</sup>의 호족인 김인훈이 태봉에 구원을 요청하자, 궁예는 왕건으로 하여금 원병을 보내 주었다.

후백제와 태봉의 본격적 대결은 상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견훤은 906년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 왕건과 상주 사화진<sup>沙火鎭</sup>에서 대결하였으나 패하였다. 이

때는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환도한지 1년 후의 일이다. 사화진은 사불성(沙弗城)과 같은 곳으로, 이곳은 일찍이 889년(진성왕 3) 원종(元宗)과 애노(哀奴)가 반란을 일으켜 전국적 농민봉기의 서단을 열었다. 견훤의 아버지인 아사개(阿慈介)가 자칭 장군이라고 칭한 곳도 바로 사불성이었다. 이곳 일대는 신라 하대 이래 지방세력이 강성한 곳으로 반(半)신라적 성향이 특히 강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나 태봉 모두 이곳 일대를 차지하고자 노력한 이유는 대신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후 후백제와 이곳 일대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일 때까지 대체로 궁예는 상주일대를, 견훤은 선산일대를 차지하여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궁예는 건국한 후 911년 국호를 태봉으로 고칠 때까지 끊임없이 영토를 확대해 나갔다. 강원·황해·경기·충청일대를 지배함으로써 후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이 궁예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911년 태봉국 건설 이후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은 거의 소강상태를 맞고 있었다. 918년(태조 1) 고려가 건국되기까지 일단 후백제·태봉·신라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잠정적 평화 상태를 유지하였다.

## 왕건세력의 성장과 궁예의 몰락

### 왕건세력의 성장

궁예는 미륵신앙을 내세우며 자신은 물론 두 아들까지 신격화하면서 점차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호족세력들과의 연합정치를 포기하고 전제정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연히 궁예의 전제정치에 반발하는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고, 반대세력의 확산은 궁예정권이 붕괴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궁예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던 세력들 가운데 왕건을 비롯한 패서 일대의 호족세력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환도하면서부터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사실 궁예의 철원 환도는 왕건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궁예정권 하에서 왕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져 갔다. 특히 그는 서해안에서 후백제와 벌인 전투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점차 그 지위가 올라 913년에는 파진찬 겸 시중이 되었다. 그는 모든 관리의 우두머리인 '위관백료(位冠百僚)'의 지위에 올

랐던 것이다. 왕건은 왕권을 보좌하는 행정적 수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면서 국왕 궁예의 경쟁자로 대두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왕건은 서남해안에서 해군세력을 장악한 '백선장군(百船將軍)'이자 '출장입상(出將入相)'하는 지위에 있었다. 궁예와 왕건의 관계는 군신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대립·경쟁하는 관계로 변모해 갔다.

『고려사』에는 왕건이 “나이 30에 9층의 금탑을 보고 스스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왕건의 정치적 야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왕건은 20세 되던 896년(진성왕 10) 궁예에게 귀부하였으므로, 이는 그로부터 꼭 10년 후인 906년(효공왕 10)의 일이다. 궁예와 왕건의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되어 909년(효공왕 13)에 이르러 표면화되었다. 이 해에 왕건은 “궁예가 날로 교만하고 탐학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외방에 뜻을 두었다.”고 한다. 그는 수도인 철원에서 정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일단 자신의 안거지인 나주로 물러났다. 911년 태봉국 수립 이후 궁예가 전제정치를 실시하자 그에 대한 불만은 점차 확산되어 갔다.

궁예와 왕건의 관계는 913년 '아지태(阿志泰) 사건'을 계기로 크게 변화되었다. 아지태는 일찍부터 궁예에게 협조한 그의 측근이었다. 아지태 사건이란 개경에 있던 청주세력들 간의 권력다툼을 말한다. 즉 청주사람인 아지태가 같은 청주 사람들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관부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왕건이 개입해 정리한 사건이다. 왕건이 아지태를 처형하자, “원문장교(源門將校)·종실훈현(宗室勳賢)·지계유(智計儒雅)의 무리들이 바람에 쏠리고 그림자가 따라다니듯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보이는 원문장교·종실훈현·지계유아의 무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원문장교는 무인세력을, 종실훈현은 왕실 및 공신세력을, 지계유아란 유학자와 승려 등 지식인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왕건은 중앙정부에까지 많은 지지파를 확보하게 되었다.

### 궁예의 몰락

왕건세력의 성장은 자연 궁예를 크게 자극하였다. 궁예는 이후 의심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반역죄로 몰아 죽였다. 그 결과 장상(將相) 중에 해를 입은 자가 '십중팔구'였다고 한다.

궁예의 숙청 대상은 자신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세력이었다. 왕건이 바로 반대 세력의 중심이었다. 궁예는 소위 미륵관심법을 내세워 왕건을 처형하고자 하였다. 이때 왕건은 최웅崔凝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 궁예의 의심은 점차 노골화되어 915년에는 마침내 자신의 부인과 두 아들까지 무참하게 살해하였다고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궁예의 잔인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가 살해한 두 아들은 일찍이 '신광보살'·'정광보살'이라고 하여 자신과 함께 신격화한 인물들이다. 또 부인 강씨는 신천의 호족세력 출신으로 그 가문은 왕건 가문과 일찍부터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궁예가 부인과 두 아들을 처형한 것은 전제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에 반발하던 패서 지방의 호족들에 대한 숙청이었던 셈이다. 궁예가 미륵관심법을 앞세워 무고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가 미신적이었다거나 혹은 포악한 성격 때문이라기보다는 확대되고 있던 왕건세력에 대한 대응이었던 셈이다.

이후에도 궁예는 자신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많이 숙청하였다. 궁

예에 대한 불교계의 불만도 확산되었다. 궁예에게 숙청된 승려들은 대부분 궁예의 신정적神政의 전제정치에 반발했던 인물들이다. 궁예의 강설을 비난하다 철퇴를 맞아 죽었다는 석총釋聰이라든가, 917년 궁예에게 죽임을 당한 해동의 사무외대사四無畏大師 중의 한사람인 형미迴微는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궁예의 전제정치에 반발하는 세력은 더욱 확산되었다. 왕건의 즉위를 예언한 참문諫文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 왕창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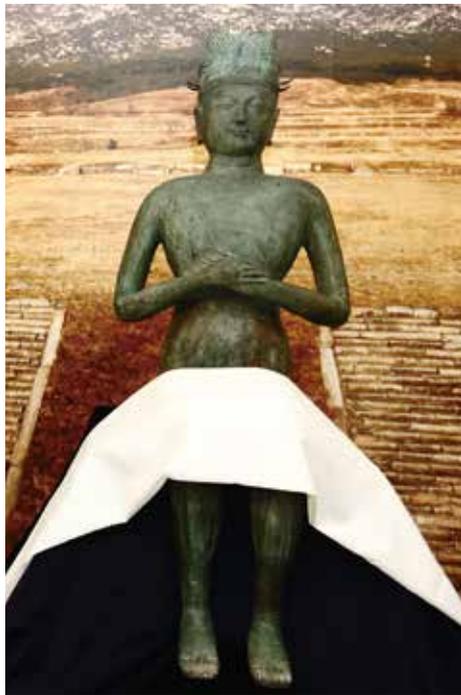


그림 4. 개성 왕건릉 뒤에서 출토된 왕건 동상



그림 5. 개성 왕건릉

의 고경古鏡을 세상에 유포시킨 인물들도 궁예의 몰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경의 참문은 정변을 주도한 인물들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민심을 왕건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918년(경명왕 2) 6월 왕건은 마군장군 홍유洪儒, 배현경裴玄慶, 신승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 등과 함께 정변을 일으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궁예는 894년(진성왕 8) 명주에서 자립한 지 20여 년 만에 자신의 부하였던 왕건의 6월 정변에 의해 몰락하고 말았다.

### 3. 고려의 성립과 후백제와의 쟁패

#### 타협과 대립-‘우호정책’에서 ‘화전 양면책’으로

##### ‘우호정책’의 추구

후백제와 고려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기본적으로는 후백제와 고려 모두 전쟁을 통해 상대편을 정복하는 것이 공통 목표였다. 그러나 세

부적으로 보면 양국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양국이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서신과 선물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인질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왕건이 즉위하자 후백제의 견훤은 918년 8월에 사신 민합(閔合)을 파견해 왕건의 즉위를 축하해 주었다. 이에 대해 고려에서는 광평시랑 한신일(韓申一)을 보내 후백제 사신을 영접하였고, 이들이 돌아갈 때에도 후한 예를 하여 돌려보냈다 한다. 즉 고려의 건국 직후에는 양국 모두 화친외교를 통한 적극적 우호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화친외교는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되었다. 920년 9월에 후백제에서는 사신 아찬 공달(功達)을 보내 공작부채(孔雀扇)와 지리산의 대나무화살(竹箭)을 선물로 보냈다. 924년 8월에도 견훤은 왕건에게 절영도의 총마(聽馬)를 선물로 보냈다고 한다.

사서에는 후백제 견훤이 더 적극적으로 화친관계를 추구한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사실 고려에서 더욱 더 우호적 관계 유지를 원하였다. 정변을 통해 궁예를 축출하고 즉위한 왕건에게 새로운 난관들이 닥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친 궁예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반란을 진압하는 일이다. 따라서 왕건은 자신보다 20여 년이나 먼저 후백제를 건국해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견훤과 대립할 형편이 아니었다. 왕건의 즉위 직후 지방 호족세력들의 반발 또한 계속되었다. 특히 청주지역 호족들의 반발이 컸으며 웅주(熊州)와 운주(運州) 등 10여 주현(州縣)은 고려를 배반하고 후백제에 귀부하였다. 이 때문에 왕건은 918년 8월 전 시중인 김행도를 '동남도초토사(東南道招討使)'로 삼아 운주에 파견함으로써 후백제의 변경지역에 대비하게 하였다.

한편 후백제에서도 고려와 적극적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견훤은 당시 신라왕실의 내분을 틈타 경주와 가까운 낙동강 동쪽 신라영토에 대한 침공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생 고려와 화친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양국 사이의 초기 우호관계는 모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외교정책의 산물이었다.

#### ‘화전 양면책’으로의 전환

그러나 양국의 초기 우호정책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양국의 접경지역인 중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전투가 먼저 벌어졌다. 특히 신라에 가까운 경상도 일대에서

고려군과 후백제군 사이에 대립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났다. 후백제는 낙동강 동쪽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일대의 공략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이곳의 호족세력들이 후백제에 반발하면서 고려로 귀부하였다. 922년(경명왕 6) 6월에 하지현(下枝縣, 지금의 풍산) 장군 원봉(元奉)이, 11월에는 진보성주(眞寶城主) 홍술(洪術)이, 이듬해 3월에 명지성(命旨城) 장군 성달(成達)이, 이어 8월에는 벽진군(碧珍郡) 장군 양문(良文)이 연이어 고려에 귀부한 것이다.

이에 견훤은 924년(경명왕 8) 7월 두 아들인 수미강과 양검을 보내 대야성(大耶城, 지금의 합천)과 문소(聞召, 지금의 의성) 2성(城)의 군사를 동원해 조물성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 장군 애선(哀宣)이 전사하였다. 이듬해인 925년 10월에는 고려가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금필을 보내 연산진에서 후백제 장군 길환(吉喚)을 죽이고, 이어 임존군을 공격하여 후백제군 3천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국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전면전이 아니라 부분적 충돌에 불과하였다. 아직도 우호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양국의 관계는 화친관계에서 점차 대립관계로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결국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화전(和戰) 양면책’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925년 10월에 있었던 조물성전투이다. 이때 견훤과 왕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왕건은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견훤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왕건은 견훤을 상부(尙父)로 존대하는 한편 왕족을 인질로 교환하기를 청하였다. 견훤도 이를 받아들여 고려에서는 왕건의 아우(堂弟)인 왕신(王信)을, 후백제에서는 견훤의 외조카(外甥)인 진호(眞虎)를 각각 인질로 교환하였다.

이처럼 ‘우호정책’에서 ‘화전양면정책’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양국이 당면하고 있던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왕건은 건국 후에 빈발했던 반란사건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한편 각 지방의 호족세력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다. 왕건은 사신을 지방의 호족들에게 보내 ‘중한 선물과 겸손한 말(중폐비사: 重幣卑辭)’로 화합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호족들과 정략적 혼인을 하거나 왕씨를 사성(賜姓)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정치는 안정되고 왕권도 어느 정도 확립할 수 있었다. 한편 후백제에서는 낙동강 이동의 신라 영역을 공략하고

있었고, 이에 신라가 고려에 원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려와 우호정책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점차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 대립과 정복-‘화친 양면정책’에서 ‘정복정책’으로

### 인질의 죽음

그동안 유지되던 양국 사이의 화친 양면책은 이제 전면적 정복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925년 10월 양국에 교환되어 있던 인질들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고려에 인질로 가 있던 견훤의 외조카인 진호가 926년 4월 갑자기 죽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견훤은 후백제에 인질로 와 있던 왕신을 죽였다. 이를 계기로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 비록 표면적으로나마 지속되어 오던 화친 외교는 끝이 났고 전면적 전쟁으로 변하였다. 진호가 죽은 이유에 대해 고려에서는 병사病死로, 후백제에서는 고의로 죽였다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그의 죽음은 전쟁 선포의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이로써 양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돌입하였다. 정복전쟁은 견훤과 왕건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각각 주변 호족들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는 전면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전면전은 초기에는 후백제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후백제군이 군사적으로 고려군에 비해 훨씬 우세하였기 때문이었다.

926년(경애왕 3) 4월 견훤은 군대를 이끌고 웅주를 공격하였다. 다음 해 9월에는 근품성(近品城, 지금의 문경)을 공격하고 이어 경주에 근접한 고울부(高鬱府, 지금의 영천)까지 쳐서 빼앗았다. 927년(경애왕 4) 11월에는 대목군(大木郡, 지금의 약목)을 공격하였고, 이어 벽진군을 공격하여 고려의 장군 색상(索相)을 전사시켰다. 다급해진 신라는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견훤은 이어 신라의 경주에 쳐들어가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하였다.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원병을 이끌고 내려오던 왕건은 견훤군과 공산 동수(公山桐藪, 지금의 대구 팔공산)에서 대결하였다. 그러나 이곳 전투도 견훤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고려의 장군 신숭겸(申崇謙)과 김락(金樂)이 전사하였고 왕건은 겨우 말 한필을 타고 구사일생으로 도망하였다. 경주 침공 직후인 927년 12월에 견훤이 왕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기약하는 바는 평양의 누상에 활을 걸고

패강의 물을 내 말에 먹이고자 함이다.”고 하여 고려 정벌을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후백제는 928년 5월에 강주를 습격하여 고려의 장군 유문(有文)의 항복을 받았으며, 11월에는 오어곡성(烏於谷城, 지금의 군위)을 공격하여 고려군 1천을 죽이고 장군 양지(陽志·명식, 明式) 등 6인의 항복을 받았다. 929년에는 견훤이 갑병 5천을 거느리고 의성을 공격하여 홍술(洪術)을 전사시켰다. 이때 왕건이 “나의 양팔을 잃었다.”고 애통해 했다고 한다. 의성의 함락과 홍술의 전사가 고려에 커다란 타격을 준 것이다. 이어 견훤군은 순주성(順州城)을 공격하였는데 순주성 장군 원봉(元奉)은 도주하고 말았다. 929년 12월에는 고창군을 포위하였다. 이처럼 929년 말까지 후백제와 고려의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연전연승하는 등 견훤의 군사력은 고려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 고창전투 이후의 상황

그러나 후백제에 유리했던 전쟁 양상은 갑자기 역전되었다. 그 결정적 사건이 930년 1월에 있었던 고창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견훤과 왕건이 직접 대결하였는데 결과는 후백제의 대패였다. 후백제의 시랑(侍郞) 김익(金湮)은 생포되고 병사 8천여 명이 전사했으며 견훤은 겨우 도망하였다.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가 패배하자 주변 호족들은 대거 왕건 측으로 기울었다. 이를 계기로 영안(永安, 지금의 영주)·하곡(河谷, 지금의 하양)·직명(直明, 지금의 안동)·송생(松生, 지금의 청송) 등 30여 군현이 고려에 귀부하였고, 다음 달인 2월에는 명주에서 흥례부(興禮府, 지금의 울산)에 이르기까지 110여개의 성(城)이 고려에 항복하였다고 한다. 고창전투의 영향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중부 내륙지방에서의 전투도 고려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932년 6월 매곡성의 성주이자 장군인 공직이 고려에 귀부해 왔다. 공직은 본래 일찍 견훤에게 귀부해 그의 심복이 된 인물이었는 데 그가 견훤을 배반하고 왕건에게 귀부해온 것이다. 공직의 고려 귀부는 중부 내륙지방의 다른 호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후백제 지배하에 있던 중부 지방의 많은 호족세력들이 견훤을 배반하고 고려에 귀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공직이 귀부한 다음 달에 왕건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매곡성과 인접한 일모산성(一牟山城, 지금의 문)을 정벌하였다. 934년에 이르러서는 웅주 이북의 30

여성이 스스로 고려에 항복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후백제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후백제가 멸망하고 드디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 4. 후백제 멸망

### 왕실의 내분과 신검의 정변

#### 왕실의 내분

후백제는 후삼국 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고려와 신라를 줄곧 압도하고 있었고, 대외적인 면에서도 중국의 오월이나 후당과의 외교를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는 등 유리한 국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말기 1, 2년 동안에 갑자기 몰락하고 말았다. 특히 930년 1월 고창전투에서 고려에게 패한 후 전세는 역전되어 급격히 쇠퇴하였다. 주변의 호족들도 다투어 후백제를 이반하고 고려에 투항함으로써 마침내 멸망하였다. 이처럼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후백제 왕실의 내분 때문이다.

『삼국사기』 견훤전에 의하면, 왕실의 내분은 견훤 자식들 간에 벌어진 왕위 쟁탈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견훤은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넷째인 금강을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장자인 신검과 2·3자인 양검·용검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 결국 신검 3형제는 정변을 일으켜 견훤을 유폐시키고 금강을 죽였다. 이런 왕실 내분으로 인한 후백제의 정치적 혼란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후백제 멸망의 결정적 원인은 신검 3형제와 금강 사이의 왕위쟁탈전이다. 그러나 왕위쟁탈전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내분의 원인을 단순히 견훤이 4자인 금강을 편애한 데서 온 형제간의 알력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장자인 신검을 제쳐두고 금강이 견훤의 후계자로 등장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야말로 후백제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견훤 아들 간의 정쟁은 930년 전후부터 시작되었다. 고창전투 이후 후백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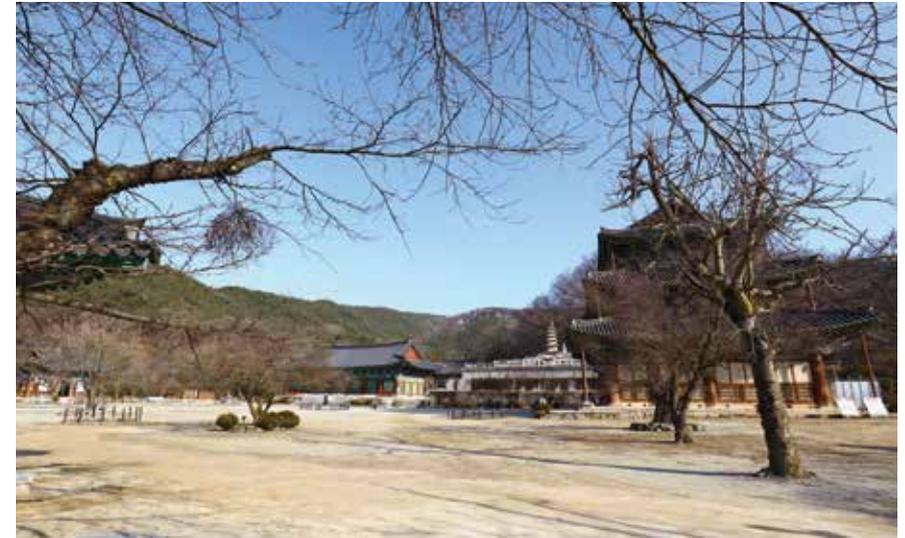


그림 6. 견훤이 유폐되었던 김제 금산사



그림 7. 논산 견훤왕릉 ©경주문화재연구소

서는 고려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지배세력들 간에 서로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였다. 견훤은 고려에 대한 유화정책을 추구한 데 반해 신검 3형제는 이에 불응하고 강경정책을 주장하였다. 신검의 말에 의하면, 견훤은 초기에는 “뛰어난 무용과 지모로 가히

그 공업<sup>功業</sup>이 중흥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천려일실<sup>千慮一失</sup>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갑자기 천려일실하게 된 이면에는 “간신이 권세를 농락하여 암혼<sup>昏暗</sup>과 미혹<sup>迷惑</sup>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견훤이 갑자기 천려일실했다고 한 것은 930년 이후의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권세를 농락하던 소위 ‘간신’들은 바로 금강을 왕위에 추대하려던 세력을 뜻한다. 당시 고려와의 전투에 나가 활약하던 신검 3형제를 제쳐두고 넷째 아들인 금강을 견훤의 후계자로 삼고자 한 사람들은 소위 권세를 농락하던 간신들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검 형제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결국 정변을 일으킨 주요 이유가 되었다.

### 신검의 정변

금강이 왕위에 추대된 이유를 『삼국사기』 견훤전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넷째 아들 금강은 키가 크고 지략이 많아 견훤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여 왕위를 전해 주곤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실상과는 다르다. 금강은 당시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에 불과했다. 신검이 935년 정변을 일으킨 후 금강을 가리켜 ‘유자<sup>幼子</sup>’ 또는 ‘완동<sup>頑童</sup>’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검의 정변이 있기 10여 년 전인 924년에는 신검과 양검은 조물성전투에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고, 또 그보다 앞서 양검과 용검은 각각 군사요충지인 강주와 무주의 도독<sup>都督</sup>으로 나가 있었다. 즉 당시 이들 3형제는 장성한 나이로 920년대 중반에 이미 대고려전의 최전방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던 데 반해, 이보다 10여년 후인 935년에 금강을 ‘어린 아이’로 표현한 것을 보면 연소한 어린이가 분명하다. 따라서 신검 3형제와 금강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나이 차가 있었다. 금강이 ‘키가 크고 지략이 많아 왕위에 추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금강이 왕위에 추대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견훤은 여러 명의 부인과 자식을 두고 있었다. 견훤은 무주와 전주에서 각각 그곳의 호족세력과 결합하기 위해 정책적 혼인을 했다. 그 결과 후백제 왕실에는 여러 외척세력이 존재했다. 신검 3형제와 금강은 서로 모계를 달리하는 이복형제였던 것이 분명하다. 신검 3형제와 금강이 연령에 있어서도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에서도 차이가 난다. 신검·

양검·용검은 모두 ‘검<sup>劍</sup>’자 돌림인 데 비해 금강<sup>金剛</sup>은 불교적 색채가 강한 이름을 갖고 있다. 신검 3형제는 후백제 초기, 즉 무주 정부 시절에 출생한데 비하여 금강은 전주로 천도한 후에 새로 맞아들인 부인의 소생일 것이다. 신검 3형제의 외척세력은 무주의 호족이었던 반면 금강의 외척세력은 전주 일대의 호족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실의 내분은 결국 두 외척세력 사이에 왕위를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 쟁탈전이었던 셈이다.

935년 3월 신검 3형제는 정변을 일으켰다. 정변의 주모자는 이찬인 능환<sup>能喚</sup>이었다. 이때 양검과 용검은 각각 강주와 무주에 도독으로 나가 있었고 신검만이 수도인 전주에 머물러 있었는데, 능환이 강주와 무주에 있던 양검과 용검에게 각각 사람을 보내 정변을 모의하였다. 양검과 용검이 거느리고 있던 병력을 동원하고자 했을 것이다. 한편 파진찬 신덕<sup>新德</sup>과 영순<sup>英順</sup>은 신검과 함께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다. 이어 금강을 죽이고 드디어 신검이 왕위에 올랐다.

### 신검정권의 몰락

#### ‘유신정치’의 표방

신검은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을 추대했던 세력들을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신검이 추구했던 정치 개혁의 내용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 내렸다고 하는 그의 ‘교서<sup>敎書</sup>’에 잘 나타나 있다. 교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대체로 신검 자신이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고, 후반부는 신검이 왕위에 오른 후 새로운 정치 질서를 위해 ‘유신정치<sup>維新之政</sup>’를 표방한 것이다. 유신정치란 말할 것도 없이 신검정권이 추구한 정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검정권이 추진한 정치 개혁 중의 하나는 죄수들의 대대적 사면 조치이다. 이때의 죄수 대사면은 왕의 즉위년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던 의례적 행사와는 달리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반대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신검은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신검은 교서를 발표한 지 2개월 후인 936년 1월에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선물을 바쳤다고 한다. 후당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신검의 즉위 사실

을 알리고 자신의 지위를 공인받음으로써 국내에서의 정치적 혼란을 외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신검정권은 대내적으로는 유신정치를 표방하면서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외교를 추진하였지만, 사태는 크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우선 견훤을 따르던 세력과 금강을 추대했던 정치세력들의 반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구나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던 견훤이 3개월 만인 935년 6월에 금산사를 탈출해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견훤의 고려 귀부는 신검정권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견훤의 고려 귀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도 물론 큰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금강을 추대했던 세력들이 신검정권에 반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견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지방 호족들의 반발 또한 신검정권의 커다란 불안 요소였다.

승주와 나주를 비롯한 서남해지역의 호족들이 신검정권에 반발하고 있었다. 견훤의 고려 귀부에 이어 936년 2월 견훤의 사위인 승주의 대 호족 박영규도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그가 고려에 귀부하면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만약 우리 임금을 버리고 적자賊子를 섬긴다면 무슨 낮으로 천하의 의사義士를 대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신검정권에 불만을 품고 견훤을 따라 고려에 귀부한 것이다. 나주 호족 또한 신검정권에 등을 돌렸다. 나주는 신검정변 이전 6, 7년 동안 후백제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정변 직후 고려의 유금필에 의해 장악되었다. 나주의 호족 세력이 호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라왕실의 태도 또한 신검정권을 불안하게 하였다. 견훤이 고려에 귀부하자 경순왕 또한 왕건에게 귀부하기 위해 시랑 김봉휴를 보내 상황을 타진하고 있었다. 결국 경순왕은 견훤에 이어 935년(경순왕 9) 11월 고려에 귀부하였다.

### 일리천에서의 마지막 전투

936년 9월 고려의 왕건은 귀부해온 견훤을 앞세워 후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대대적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다. 연산連山의 일리천一利川 전투에서 왕건이 고려군을 직접 지휘하였다. 견훤이 선도하고 강릉의 호족인 왕순식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세함으

로써, 총 병력 8만 7천 5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가 출동하였다. 고려의 통상 병력 수가 2, 3천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전군을 동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백제 내에서는 승주의 호족인 박영규를 비롯한 반신검세력들이 내응하였다. 후백제군을 이끌던 장군들 중 효봉, 덕술, 명길 등은 고려군에 참여한 견훤에게 와서 자진 항복하였다. 항복 후백제 장군들의 제보를 받아 중군中軍에 있던 신검 3형제를 비롯한 3천 2백 명을 생포하고, 5천 7백여 명을 참하여 후백제군을 토벌함으로써 후백제 정복은 쉽게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후백제는 몰락하였다.

(신호철)

---

### 참고

### 문헌

- 김갑동, 1990, 『나말여초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출판부.
- 김용선 편, 2008, 『궁예의 나라 태봉』, 일조각.
- 류영철, 2005,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 문경현, 1987, 『고려태조의 후삼국통일연구』, 형설출판사.
- 신호철, 1993,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 신호철, 2002, 『후삼국시대 호족연구』, 도서출판 개신.
- 신호철, 2008, 『후삼국사』, 도서출판 개신.
- 이재범, 2007, 『후삼국시대 궁예정권 연구』, 해안.
- 정청주, 1996, 『신라말 고려초 호족연구』, 일조각.
- 조인성, 2007,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 제2장

#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통일

1. 경애왕의 친고려 정책과 견훤의 경주 침공
2.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 귀부
3. 신라 멸망의 원인
4. 고려의 후삼국 통일
5. 멸망 후 신라계 세력의 동향

## 1. 경애왕의 친고려 정책과 견훤의 경주 침공

### 경애왕의 친고려 정책

신덕왕, 경명왕의 뒤를 이어 924년(경애왕 원년) 역시 박씨인 경애왕景哀王이 즉위하였다. 그의 이름은 위응魏膺으로 경명왕의 동생이었다. 아버지는 신덕왕이었고 어머니는 의성왕후義成王后였다. 그는 일찍이 917년(경명왕 원년) 지금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상대등上大等을 지낸 바 있으며 그 영향력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사신을 고려 태조 왕건에게 보냈다. 아마도 경명왕의 죽음과 자신의 즉위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한편으로는 전왕의 뒤를 이어 고려와의 친선 외교를 닦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후백제에는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후백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924년(경애왕 2) 10월에 고을부高鬱府(지금의 경상북도 영천) 장군將軍 능문能文이 고려 왕건에게 내투來投하였다. 왕건은 그를 위로만 하고 다시 돌려 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명분상으로는 고을부의 성이 신라 왕도王都에 가까웠기 때문이지만 실상은 신라와의 친선관계를 깨지 않고 신의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해 11월 고려 왕건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조물군曹物郡에서 견훤과 교전하였는데 유금필이 자기 군사를 끌고 와서 응원하였다. 그러나 서로 호각지세를 이루면서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였다. 그러자 서로 인질을 교환하며 화친을 약속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견훤은 자신의 사위 진호眞虎를 고려에, 왕건은 자신의 사촌 동생인 왕신王信을 후백제에 인질로 보내는 등 상호 교환이 이루어졌다. 경애왕은 이 소식을 듣고 사절을 파견하였다. 그리고는 “견훤은 이랬다저랬다 거짓이 많아 화친할 사람이 못된다.”고 하며 후백제와의 화친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왕건도 그 말에 동조하면서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하였다.

925년(경애왕 3) 4월 견훤이 보낸 인질 진호가 병으로 죽었다. 왕건은 익환翼桓을 시켜 그 시체를 보내 주었다. 견훤은 왕건이 그를 죽인 것으로 생각하여 고려측의 인질 왕신王信을 죽이고 웅진熊津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왕건은 여러 성들에 명령하여 성을 고

수하고 나가 싸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에 경애왕은 다시 사절을 파견하여 말하기를, “견훤이 맹약을 위반하고 고려에 출병하였으니 하늘이 반드시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만일 대왕이 그를 한 번 반격하면 견훤은 반드시 스스로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 사절에게 말하기를, “내가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죄악이 가득 차서 스스로 넘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애왕은 자신의 허약함을 깨닫고 왕건을 이용해 신라를 반역한 견훤을 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앞서 견훤은 “절영도의 명마(名馬)가 고려로 가면 백제가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들었는데 이때에 와서 전일 고려에 말을 선사한 것이 후회되어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왕건은 웃으면서 그것을 허락하였다. 견훤은 이처럼 도장을 깊이 믿었으나 왕건은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시세에 순응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926년(경애왕 4) 정월에는 고려가 신라의 요청대로 먼저 군사작전을 감행하였다. 왕건이 친히 후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용주(龍州, 지금의 경북 용궁)를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때에 견훤이 맹약을 위반하고 누차 출병하여 고려의 변강을 침범하였다. 왕건은 오랫동안 참다가 견훤이 고려를 병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여 선제 공격을 하였던 것이다. 이 작전은 신라와 고려가 긴밀히 연락을 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애왕도 출병하여 고려를 도왔기 때문이었다.

927년(경순왕 원년) 7월에는 왕건이 원보 재충(在忠), 김락(金樂) 등을 보내 대량성(大良城)을 격파하고 장군 추허조(鄒許祖) 등 3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대량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으로서 후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요지에 있는 성이었다. 일찍이 삼국시대에 백제의 윤충 장군이 이곳을 지키고 있던 김춘추의 사위 품석과 그 아내를 살해함으로써 김춘추에게 외교 작전을 감행하게 한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을 고려가 확보함으로써 견훤이 신라로 진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견훤의 신라 침공과 경애왕의 죽음

그러자 견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번번이 고려를 편들며 협조하는 신라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였다. 견훤이 근품성(近品城)을 공격하여 불태우고 나아가 신라 고을부(高鬱府)를 습격하여 신라의 서울 가까이까지 육박하였다. 급보를 접한 경애왕은 고려에 연

식(連式)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고려 태조는 시중 공훤(公萱), 대상 손행(孫幸), 정조 연주(聯珠) 등에게 말하기를 “신라가 우리와 친선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지금 위급한 지경에 처하였으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공훤 등에게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이들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견훤은 신라의 서울로 불의에 쳐들어갔다.

그때에 경애왕은 왕비, 궁녀, 종실들과 함께 포석정(鮑石亭)에 나가 있었다. 기록에는 연회를 차려 즐겁게 놀고 있었다고 전하지만, 최근에는 호국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포석정에 행차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여하튼 경애왕과 그 일행은 갑자기 적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졸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은 부인과 함께 달아나서 성 남쪽 별궁에 숨어 있었다. 시종한 신하들과 악공(樂工), 궁녀들은 다 붙잡혔다. 견훤은 군사들을 놓아서 약탈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자신은 왕궁에 들어앉아서 측근들로 하여금 왕을 찾아내 협박해 자살하게 하였으며 자기는 왕비를 강간하고 그 부하들을 시켜서 궁녀들을 간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의 외종제 김부(金傅)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가 곧 경순왕(敬順王)이었다. 견훤은 왕의 아우 효렴(孝廉)과 재상 영경(英景) 등을 포로로 잡아 자녀들과 각종 장인, 병기, 보배들을 모조리 탈취하여 돌아갔다.

왕건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절을 시켜 조문, 제사하고 친히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公山) 동수(桐叢, 지금의 대구 팔공산)에서 견훤을 맞아 큰 싸



그림 1. 경주 삼릉계 경애왕릉 ©문화재청



그림 2. 대구 지묘동 지묘사

움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왕건은 견훤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사태가 매우 위급하였다. 이때에 고려의 장군 신숭겸(申崇謙)과 김락(金樂)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희생되고 각 부대는 패배를 당하였으며 왕건은 겨우 몸만 피하여 달아났다. 신숭겸은 왕건과 옷을 바꿔 입고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측은 신숭겸을 비롯한 8명의 장군을 잃었다. 이때부터 공산을 팔공산(八公山)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지금도 대구광역시 지묘동(智妙洞)에는 신숭겸 장군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신숭겸 장군의 '지혜가 교묘하였다.'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 2.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 귀부

### 경순왕의 즉위와 정책

경애왕의 뒤를 이은 경순왕(敬順王)은 김씨로서 그의 아버지는 김효종(金孝宗)이었다. 그는 일찍이 화랑이 되어 많은 문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진성여왕대에 품팔이로 어머

니를 봉양하던 효녀 지은(知恩)에게 상당량의 곡식을 보내준 바 있었다. 그 소식이 전해져 마침내 헌강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902년(효공왕 6)에는 시중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의 증조는 김민공(金敏恭)으로 880년(헌강왕 6)에 역시 시중을 지낸 바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문성왕의 후손이었다. 또 그의 형은 김억렴(金億廉)이었다. 경애왕의 어머니 역시 헌강왕의 딸이었으니 경순왕은 경애왕의 외종제(外從弟)였다. 이로써 박씨 왕은 3대로 끝을 맺고 김씨인 경순왕이 왕위에 올랐다.

경순왕은 즉위하자마자 경애왕의 시체를 서당(西堂)에 모시고 신하들과 함께 통곡한 후 시호를 올려 경애(景哀)라 하고 남산(南山) 해목령(蟹目嶺)에 장사지냈다. 이에 왕건은 사신을 보내 전왕의 죽음에 대해 조문하였다. 927년(경순왕 원년) 11월에는 자신의 아버지 효종(孝宗)을 추존하여 신흥대왕(神興大王)이라 하고 어머니를 왕태후(王太后)라 하였다.

이즈음의 신라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리하여 신라의 영역 내에서는 고려와 후백제의 쟁패만이 존재하는 형국이었다. 당시에는 대체로 후백제가 우세한 상황이었다. 즉 927년(경순왕 원년) 12월에 견훤이 대목군(大木郡, 지금의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침입하여 쌓아놓은 곡식을 모두 불태웠다. 928년(경순왕 2) 정월 고려의 장수 김상(金相)이 초팔성(草八城, 지금의 경남 합천군 초계면)의 후백제 장수 흥종(興宗)과 싸우다가 전사하기도 하였다. 5월에는 강주장군(康州將軍) 유문(有文)이 견훤에게 귀부하였다. 8월에 견훤이 장군 관흔(官昕)에게 명하여 양산(陽山)에 성을 쌓으니 고려 태조가 명지성(命旨城)의 장군 왕충(王忠)에게 명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쳐서 퇴각케 하였다. 그러자 견훤은 대야성(大耶城)으로 물러나 주둔하면서 군사를 보내 대목군의 곡식을 빼앗아 갔다. 그해 10월에는 견훤이 무곡성(武谷城, 지금의 경북 군위군 안계면)을 공격하였고, 11월에는 정병을 선발하여 오어곡성(烏於谷城)을 공격, 함락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신라의 영토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929년(경순왕 3)에도 견훤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7월에 견훤이 의성부성(義城府城, 지금의 경북 의성군)을 치니 고려 장군 홍술(洪述)이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어 순주(順州,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면)의 장군 원봉(元逢)까지 견훤에게 항복하였다. 10월에 견훤이 자신의 이전 근거지였던 가은현(加恩縣, 지금의 경북 문경군 가은면)을 공격했으나 함락하지는 못하였다.

930년(경순왕 4) 고려에게 반전의 기회가 왔다. 신라의 재암성(載巖城, 지금의 경북 청송군 진보면) 장군 선필(善弼)이 고려에 귀부한 것이다. 그는 일찍이 왕건이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으려 할 때 중개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새 시대의 주인공은 고려의 왕건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힘을 얻은 왕건은 고창군(古昌郡, 지금의 경북 안동시)의 병산(瓶山)에서 견훤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 그러자 신라의 영안(永安, 안동시 풍산면)·하곡(河曲, 안동시 임하면)·직명(直明, 안동시 일직면)·송생(松生, 청송군 청송면) 등 30여 군현이 차례로 태조에게 항복하여 붙었다. 2월에 왕건이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고창군전투의 승첩을 고하니 왕은 사신을 보내 답례하는 동시에 서로 만나보기를 청하였다. 이 지경에 이르자 9월 신라의 동쪽 연해 주현들이 다 왕건에게 귀부(歸附)하였다.

신라의 요청으로 왕건이 931년(경순왕 5) 2월에 50여 기병을 거느리고 신라를 방문하였다. 경순왕이 백관과 더불어 교외까지 마중나왔다.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 서로 대면하고 예를 다하였으며 임해전(臨海殿)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주연이 한창 무르익자 경순왕이 말하였다. “나는 하늘의 도움을 입지 못하여 화란(禍亂)을 발생케 하고 견훤이 불의(不義)를 자행하여 우리 국가를 침략하니 얼마나 통분한 일인지 모르겠다.”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좌우의 신하들이 누구나 목메어 울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왕건도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고 수십 일 동안 머물다가 어가를 돌렸다. 경순왕은 혈성(穴城, 위치 미상)까지 전송하고 사촌동생 김유림(金裕廉)으로 불모를 삼아 왕건의 어가를 수행케 하였다. 이때 왕건 휘하의 군사들은 경주에 있으면서 추호도 사람들을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경의 사대부와 여자들이 서로 기뻐하며 말하기를 “전일에 견훤이 왔을 때는 여우와 호랑이를 만난 것 같더니 지금 왕공(王公, 고려 태조)이 오자 부모를 대한 것 같다”고 하였다 한다. 돌아온 후 왕건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경순왕에게 비단과 말안장을 주고 또 그 신하와 장수들에게 옷감을 선물하였다. 이로써 고려와 신라의 우호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932년(경순왕 6) 4월에는 정사(正使) 집사시랑(執侍郎) 김불(金瞞)과 부사(副使) 사빈(沙賓) 경시(京師) 이유(李儒)를 후당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마지막까지 독립국으로서의 체통은 지키려 한 것 같다. 이때에 고려에서도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후당의 명

종(明宗)도 사태의 추이를 알고 있었는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고려에는 사신을 보내어 고려왕으로 책봉하였다. 이제 신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934년(경순왕 8)에는 후백제 영역에 있었던 운주(運州, 충남 홍성) 인근의 30여 군현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대세는 고려로 넘어간 상태였다.

## 경순왕의 고려 귀부와 그 배경

### 경순왕의 고려 귀부

935년(경순왕 9) 10월 왕은 사방의 토지가 다 후백제나 고려의 소유가 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하들과 회의하여 국토를 들어 고려에 항복하려 하였다. 신하들의 의론은 어떤 이는 가(可)하다 하고 어떤 자는 불가(不可)하다 하였다. 특히 왕자(王子, 麻衣太子를 말함)는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天命)이 있으니, 오직 마땅히 충신(忠臣), 의사(義士)와 더불어 민심을 수합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지키다가 힘이 다한 후에야 말 것인데, 어찌 천년 사직(社稷)을 하루 아침에 쉽사리 남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하면서 끝까지 항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순왕은 대답하였다.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아 형세는 능히 온전히 할 수 없으니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아주 약하지도 못하여 무죄한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게 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할 바다.” 하였다. 그러고는 시랑(侍郎) 김봉휴(金封休)로 하여금 국서를 가지고 가서 고려 태조에게 귀부를 청하게 하였다. 왕자는 통곡하며 왕과 이별하고 곧 개골산(開骨山, 금강산)으로 들어가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삼베옷(麻衣)을 입고 나물을 뜯어먹으며 일생을 마쳤다.

그해 11월에 왕건은 경순왕의 항복문서를 받고 대상(大相) 왕철(王鐵) 등을 보내어 맞게 하였다. 신라왕은 백관을 이끌고 왕도인 경주를 떠나 왕건에 귀의할 때, 수레와 말이 30여 리에 뻗쳐 도로는 호위하는 사람들로 막히고 구경꾼은 담장을 두른 것 같았다. 왕건은 교외까지 마중나가 신라왕을 위로하고 그에게 궁궐 동쪽의 좋은 집 1채를 내렸으며 장녀 낙랑공주(樂浪公主)를 그의 아내로 삼았다. 12월에는 신라왕 김부(金傅)를 봉하여 정승(正丞)으로 삼으니 그 지위가 태자의 위에 있게 되고, 녹봉 1,000석을 주었다. 그 시종(侍從)·호위장수들에게도 다 관직을 주었으며 신라를 고쳐 경주(慶州)라 하고 경순왕 김부의 식읍(食邑)으로 주었다.



그림 3. 파주 경순왕릉

처음 신라가 귀부할 때에 왕건은 매우 기뻐하여 후한 예로 경순왕을 대우하고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지금 왕이 나라를 나에게 주니 그 주고받음이 대단히 크오. 바라건대 우리 종실과 혼인을 맺어 친척의 의리를 길이 하고 싶소.”라고 하였다. 그러자 경순왕은 답하기를, “나의 백부(伯父) 김억렴(金億廉)은 지대야군사(知大耶郡事)로 있었는데 그의 딸은 덕이 있고 얼굴도 예뻐 이가 아니면 왕실 내의 일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오.”라고 하였다. 왕건은 드디어 그 여자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가 곧 현종(顯宗)의 아버지로서 후에 안종(安宗)이라 추봉(追封)하였다. 경종(景宗) 헌화대왕(獻和大王)에 이르러서는 정승공(正承公)(신라왕 金傅)의 딸을 맞아 왕비를 삼고 이내 그를 봉하여 상부령(尙父令)을 삼았다. 김부는 송(宋)의 태종(太宗) 흥국(興國) 3년 무인(戊寅) 978년(경종 3)에 돌아가니 시호를 경순(敬順)이라 하였다.

### 귀부의 배경

여기서 신라 말기의 역대 왕들은 왜 견훤과 친교하지 않았으며 경순왕은 왜 나라를 들어 견훤이 아닌 왕건에게 주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당시 후삼국 간의 세력관계에서 찾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라는 왕건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했을 때에도 견훤에게는 사신을 파견

한 예가 없기 때문이다. 즉 신라는 처음부터 후백제를 하나의 독립된 정권이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태도는 후백제가 고려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견훤의 출신이나 세력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견훤은 경북 상주(尙州) 가은현(加恩縣) 출신이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신라의 영토였다. 즉 견훤은 원래 신라 지역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가 세력을 키운 후 후백제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물론 그는 이러한 결점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이 전라도 광주(光州) 출신이라는 설화를 만들어 유포시켰지만 출신을 속일 수는 없었다. 신라 출신으로서 신라를 부정하고 백제 부흥을 내걸었다. 그래서 그를 신라 정부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훤의 출신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신라의 군인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는 군인으로 종군하면서 서남해의 방수(防戍)에 공을 세워 비장(裨將)이 된 인물이다. 그 후 신라의 기강이 문란하고 도적들이 별떼같이 일어나자 반심(叛心)을 품고 서남쪽 군현을 공략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신라 정부를 보호하고 방어할 임무가 있는 군인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반기를 든 것은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반역행위였다. 자신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리하여 기록에 의하면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감히 공공연히 왕을 일컫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견훤정권을 신라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외교적 교섭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그가 신라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애왕을 살해한 일은 신라인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이 점을 가장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만 견훤에 의해 옹립된 경순왕이 견훤과 교류하지 않은 이유가 제대로 설명된다.

그러면 왕건은 어떠한 인물이었으며 고려는 어떠한 성격의 국가였기에 신라 말기의 여러 왕들이 친교를 계속한 것일까? 그리고 중국에는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 바친 것일까?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왕건의 출신과 관련된 문제다. 왕건은 그 자신이 고구려의 후예였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그의 5대조인 호경(虎景)이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가 활을 잘 쏘았다는 기록은 왕건의 선조가 고구려 지역에서 살았고 원래 고구려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고 했다. 국호를 고려라 한 것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던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지역이 옛고구려 영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구려의 후예였기 때문이다. 또 왕건은 옛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하여 제2의 수도인 서경西京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 역시 왕건이 고구려의 후예로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왕건은 궁예나 견훤과는 달리 고구려의 후예였기에 신라 측에서도 고려를 독자적 세력이나 국가로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도 있었지만 경순왕이 왕건에게 귀순한 더 큰 이유는 왕건이 취한 친신라親新羅 정책 때문이었다. 그것은 전왕인 궁예가 취한 극심한 반신라정책에 대한 반동이기도 했지만 신라인들의 민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고도의 정책이었다. 궁예는 자신이 신라 왕실에서 쫓겨난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신라에 대해 극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라의 군현 명칭과 관부 체계를 모두 바꾸었다. 그리고 영주 부석사에 가서는 거기에 걸려있던 신라왕의 초상을 갈기갈기 찢었으며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고 신라로부터 오는 자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궁예를 내쫓고 즉위한 왕건은 궁예가 바꾸었던 관계官階와 군현의 명칭을 대부분 환원하였다. 신라에서 귀순해 오는 자들도 잘 대우해 주었다. 그러자 최연위와 같은 신라의 지식인이 고려로 와 왕건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왕건의 우호적 태도에 신라도 920년(태조 3) 사신을 보내 고려와 친교를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왕건은 여러 차례 군사를 파견하여 신라를 도와주었다. 920년(경명왕 4) 견훤이 신라의 대량大良, 구사仇史 지역을 침입하자 신라의 요청을 받고 군사를 출동시킨 적이 있으며 921년(경명왕 5)에는 달고적達姑狄이 신라를 침입하자 이들을 물리쳐 주기도 하였다. 또 견훤이 신라에 들어와 경애왕을 살해했을 때에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공산公山(대구)에서 견훤군과 대적하기도 하였다. 이 전투에서 왕건은 대패하여 신승겸申崇謙, 김락金樂 두 장수를 잃고 자신은 겨우 목만 살아오는 위험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원조에 대해 신라도 감사하는 한편 고려를 도와준 적도 있다. 즉 927년(경애왕 4) 왕건이 후백제의 용주龍州를 치자 경애왕이 군사를 보내 도와주었던 것이다. 930년 고창군古昌郡(경북 안동)전투에서도 이 지역의 호족들이었던 김선

평·권행·장길 등이 고려를 도와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경순왕 때에도 계속되어 결국 나라를 왕건에게 바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순왕이 고려에 귀순한 직접적 요인은 신라의 쇠약과 견훤의 고려 귀순이었다. 신라는 이제 꺾이기만 남게 되었고 영토도 후백제나 고려에 의해 마음대로 침탈당하는 상황이었다. 935년 6월 견훤이 금산사를 탈출하여 고려에 귀부한 것은 후백제도 이제 기울었음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었다. 잘못하다가는 후백제의 신검이 신라를 침공하는 모험을 감행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순왕은 깊이 생각한 끝에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하였으며 백성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를 끝까지 도와주려고 애썼던 왕건에게 귀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신라 말기의 여러 왕들은 김씨 왕에서 박씨 왕으로의 교체, 그리고 다시 견훤에 의한 김씨 왕의 등장이라는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견훤과는 교류하지 않았다. 그것은 견훤이 신라의 군인 출신으로서 나라를 배반하고 나중에는 왕까지도 살해하였기 때문이었다. 반면 왕건은 그 자신이 고구려의 후예였을 뿐 아니라 통치영역도 옛고구려 지역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신라 측에서 보면 고려를 하나의 독자적 국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명분이었다. 거기에서 왕건이 취한 친신라 정책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견훤의 고려 귀부는 경순왕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라를 들어 고려의 왕건에게 귀순하였던 것이다.

### 3. 신라 멸망의 원인

#### 귀족들의 권력쟁탈전과 부패

그렇다면 1천여 년 간 지속된 신라는 왜,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을 들 수 있다. 이는 우선 왕위 쟁탈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중대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惠恭王대에 대공大恭의 난을 계기로 하여 전국에서 96명의 각간角干들이 권력다툼을 벌

이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결국에는 김양상<sup>金良相</sup>·김경신<sup>金敬信</sup> 등이 혜공왕과 김지정<sup>金志貞</sup>을 살해하고 김양상이 왕위에 올랐다. 이가 곧 선덕왕<sup>宣德王</sup>으로서 이때부터 하대가 시작되었다. 선덕왕이 죽은 후에도 김경신과 김주원<sup>金周元</sup> 사이에 왕위를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김경신이 승리하여 즉위하였으니 곧 원성왕<sup>元聖王</sup>이다.

이후에도 왕위계승을 둘러싼 권력 쟁탈전은 계속되었다. 소성왕<sup>昭聖王</sup>의 뒤를 이은 애장왕<sup>哀莊王</sup>대에는 그의 삼촌이었던 김언승<sup>金彦昇</sup>이 왕을 살해하고 헌덕왕<sup>憲德王</sup>으로 즉위하였다. 822년(헌덕왕 14)에는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그 아들인 김헌창<sup>金憲昌</sup>이 반란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헌덕왕의 뒤를 이은 흥덕왕<sup>興德王</sup> 말년에 왕위쟁탈전은 극에 달하였다. 그가 후사없이 세상을 떠나자 시중 김명<sup>金明</sup>과 상대등 김균정<sup>金均貞</sup>과가 대립하였다. 여기에서 김명 일파가 승리하여 김제룡<sup>金梯隆</sup>이 회강왕<sup>僖康王</sup>으로 즉위하였다. 이 회강왕도 꺾박받아 자살하고 김명이 민애왕<sup>閔哀王</sup>이 되었다. 그러나 일시 패배하였던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sup>金祐徵</sup>은 장보고<sup>張保臯</sup>의 청해진 군대의 힘을 빌려 민애왕을 살해하고 신무왕<sup>神武王</sup>으로 즉위하였다. 이후 효공왕의 뒤를 이어 박씨인 신덕왕·경명왕·경애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신라의 왕이나 귀족들은 창조적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치·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그리하여 806년(애장왕 7)에는 호화로운 불사<sup>佛事</sup>와 금은 그릇의 사용을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또 귀족들은 화려한 집인 금입택<sup>金入宅</sup>이나 지금의 별장에 해당하는 사절유택<sup>四節遊宅</sup>까지 소유하였다. 헌강왕대의 「처용가<sup>處容歌</sup>」는 당시 귀족들의 퇴폐적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진성여왕<sup>眞聖女王</sup> 때에도 몇 명의 신하들이 정사를 좌우하여 뇌물이 공공연히 오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비방하는 투서가 나붙기까지 했다. 이렇듯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어 결국은 신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 골품제의 모순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골품제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진골 신분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다른 신분은 능력이 있어도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이렇게 차별 받은 계층

에서 가장 불만이 큰 세력이 바로 6두품이었다. 6두품은 여러 면에서 진골과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관등으로는 아찬<sup>阿飡</sup>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으며 관직으로도 각 중앙관부의 차관이나 당<sup>堂</sup>·정<sup>停</sup>의 대감<sup>大監</sup>직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신라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 했다. 특히 그들이 도당유학생<sup>渡唐留學生</sup>으로서 당의 개방된 사회체제를 보고 왔을 때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일부는 기울어가는 신라의 내부를 개혁하려 했는가 하면 새롭게 등장한 지방세력 쪽으로 기울기도 하였다. 최치원<sup>崔致遠</sup>·최승우<sup>崔承祐</sup>·최언위<sup>崔彦瑒</sup> 등 이른바 신라말의 3최가 대표적 예였다.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sup>賓貢科</sup>에 급제하여 전중시어사<sup>殿中侍御史</sup>까지 지냈다. 그러나 신라에 귀국하여 중앙에서는 군사를 관할하는 병부<sup>兵部</sup>의 차관급인 시랑<sup>侍郎</sup>에 그쳤으며 지방관직으로는 군태수<sup>郡太守</sup>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골품제의 한계였다. 그는 894년(진성왕 8) 10여 개 조의 시무책<sup>時務策</sup>을 바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회의를 느낀 그는 해인사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다 일생을 마쳤다.

최승우도 당에 유학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신라의 부패상과 골품제적 제약에 염증을 느끼고 새롭게 등장한 견훤정권에 참여하였다. 여기에서 주로 외교문서 작성을 담당했던 그는 견훤의 몰락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최언위<sup>崔彦瑒</sup>는 당에서 돌아와 신라에서 관직을 역임하다 왕건에게로 귀순하였다. 왕건 휘하에서 그는 태자사부<sup>太子師傅</sup>·한림원령<sup>翰林院令</sup> 등의 관직을 지냈다. 이밖에 최은함<sup>崔殷含</sup>·최승로<sup>崔承老</sup> 부자도 왕건정권에 많은 기여를 한 6두품 출신자였다. 이처럼 골품제의 모순에 따른 6두품의 불만이 신라의 멸망을 재촉하였던 것이다.

### 대토지 소유와 소농민의 몰락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부<sup>富</sup>의 편재 현상도 신라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토지가 일부 귀족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였다. 원래 귀족들은 관직 복무의 대가로 녹읍<sup>祿邑</sup>을 받았다. 녹읍은 신문왕<sup>神文王</sup> 때에 문무관료<sup>文武官僚</sup>로 대체되기도 했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경덕왕<sup>景德王</sup> 때에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다가 하대의 정치적 혼란상이 계속되면서 불법적 토지의 탈점이나 약탈, 고리대를 통한 토지와 인민의 점유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형성된 귀족들 소유의 대토지는 전장<sup>田莊</sup>이

라 불렀다. 전장에는 지장<sup>知莊</sup>이라는 관리인이 파견되어 있었고, 지장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장사<sup>莊舍</sup>라 칭하였다.

이러한 토지의 편제 현상으로 일반 백성들은 토지를 잃고 유민<sup>流民</sup>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한발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유민 발생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 유민들은 때로 도적이 되기도 하였고 지방세력의 휘하에 들어가 사병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 불교계의 타락

불교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는 신라 멸망의 한 요소이다. 이는 당대부터 지적되어 왔다. 특히 사찰의 난립은 국가의 재정을 좀 먹었고 농민의 생활을 피폐하게 하였다. 왕건도 죽으면서 남긴 훈요 10조에서 사원의 남설을 걱정하면서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함부로 많이 세워서 지덕<sup>地德</sup>을 훼손시켰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제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김부식도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부도<sup>浮屠</sup>(부처)의 법을 받들어 그 폐해를 알지 못하고 거리에는 탑과 사원이 늘어서고 평민들은 사찰로 도망하여 승려가 되었으니, 병사와 농민은 점점 줄어들고 국가는 날로 쇠하여 가니 어찌 어지러워 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평가하였다. 사원이나 탑의 남설과 더불어 승려 수의 증가로 인한 군사와 농민의 감소 때문에 신라가 멸망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불교계의 사치함도 지적할 수 있다.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불경을 필사하고 불상을 만드는 것은 다만 오래도록 전하게만 하면 될 것이지 하필 진귀한 보물로 장식해 도적들의 마음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불경은 모두 누런 종이를 사용하였고 또 전단목으로 축<sup>軸</sup>을 만들었으며 불상은 금, 은, 동, 철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돌과 흙과 나무를 썼습니다. 그런 까닭에 도난당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라 말년에 불경과 불상들에 모두 다 금, 은을 썼으며 사치가 과도하였기 때문에 끝내 멸망하였으며 장사치들은 불상을 절취하고 파괴하며 이리저리 상호 매매하여 제 살림을 꾸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래에 와서도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바라건대 이것을 엄금하여 그 폐단을 없애 버리십시오.”라고 성종에

게 간언하였다. 신라 말기에 금이나 은으로 불경을 필사하는 풍조가 있었으며 불상에도 금, 은, 동, 철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도심<sup>盜心</sup>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재물을 낭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원이나 승려의 대토지 소유도 문제가 되었다. 이는 대개 왕이나 귀족의 기증에 의해 형성되었다. 애장왕이 2,500결이나 되는 토지를 사원에 시납한 것이 그 예이다. 승려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헌강왕대의 승려 지증<sup>智證</sup>은 500결이나 되는 자신의 토지를 봉암사에 희사하였다. 이렇듯 불교 세력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장을 경영함으로써 소농민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 고구려, 백제 유민들의 원한

고구려나 백제 유민들의 불만과 원한도 신라 멸망의 한 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백제 유민들의 불만이 컸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고 그 땅이 신라에 의해 통합되자 신라는 이 백제의 관인들에게 신라의 관등<sup>官等</sup>을 주어 회유하였다. 또 백제인들이 숭배하던 산천<sup>山川</sup>을 사전<sup>祀典</sup>에 편입하여 치제<sup>致祭</sup>함으로써 백제인들의 민심을 달래려 하였다. 그러나 백제인들은 신라식 관등 받기를 거부했는가 하면 국가는 망했어도 스스로 백제인임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자존심은 언젠가는 쇠망한 조국을 되찾겠다는 국가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향을 잘 이용한 것이 바로 김헌창<sup>金憲昌</sup>의 난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김주원<sup>金周元</sup>이 왕이 되지 못한 데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시중직에서 외직으로 쫓겨나자 반란을 도모하였다.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백제 유민의 반신라 감정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옛 백제의 수도였던 웅천주<sup>熊川州</sup>에서 난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관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의 아들 김범문<sup>金梵文</sup>이 고구려 유민의 반신라 감정을 이용해 남평<sup>南平壤</sup>에 도읍한다는 명분하에 고달산의 산적과 통모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으나 당시 통일신라 체제내에서 백제 유민의 동향과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러한 반신라 감정이 결국에는 후백제와 고려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

그러나 신라 멸망의 직접적 원인은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라 할 수 있다. 농민봉기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것은 889년(진성왕 3)이었다. 이때 공부眞賦의 독촉이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농민봉기가 일어난 곳은 사벌주沙伐州(경북 상주)였다. 이 농민들의 봉기가 얼마나 크고 거세었는지 출동했던 관군의 지휘자 나마奈麻 영기命奇는 농민군들의 진용을 보고는 두려워 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한다.

농민들의 봉기는 급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농민봉기는 신라 사회의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생계의 위협도 커다란 요인 중의 하나였다. 농민들은 전쟁과 흉년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당했다. 최치원은 「해인사묘길상탑기海印寺妙吉祥塔記」에서 “당나라 19대 임금 소종昭宗이 중흥할 무렵에 전쟁과 흉년 두 재앙이 서쪽[중국]에서는 멈췄으나 동쪽[신라]으로 와서 악惡중의 악이 없는 곳이 없었다. 굶어서 죽고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널려 있었다.”라 하여 당시 신라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농민봉기는 왕경 근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896년(진성왕 10) 붉은바지를 입고 횡행하던 적고적赤袴賊이 서부지역인 모량리牟梁里까지 쳐들어오기도 하였다. 결국 진성여왕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위 11년 만에 왕위를 태자인 요曠에게 선양하였으니, 이가 곧 효공왕孝恭王이다. 그러나 혼란 상황은 가라앉지 않고 더욱 가속화되어 급기야는 후삼국의 성립과 신라의 멸망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농민들을 규합하여 신라의 멸망을 재촉한 세력이 바로 각 지방의 호족豪族들이었다. 호족들은 진골귀족 중심의 골품체제 속에서 소외된 집단이었다. 그들은 외위外位를 받음으로써 경위京位를 받은 경주귀족들과 구별되었다. 그러다가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세력을 증대시켜 나간 집단이었다. 그 후 나말려초의 전란기에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호족은 지방의 대토지소유자로서 경제력뿐 아니라 무력이나 권력까지 갖춘 존재들이었다. 호족의 기원은 지방으로 낙향한 진골귀족이나 6두품계층, 주州나 군郡의 이직자吏職者들, 그리고 촌의 행정을 담당한 촌주村主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나말의 전란 속에서 지역민들을 규합해 스스로 무장한 자위집단으로 변모하였다. 신라말 벽진군碧珍郡(경북 성주)의 장군이 된 이충언李忠言이 대표적 예이다. 이처럼 스스로 무장집단화한 호족들도 있었고, 관망의 자세를 취하면서 지방의 군사집단과 결합한 부류도 있었다. 그러다가 왕건의 우세가 확정되자 고려에 귀부하여 신라의 멸망을 재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호족들은 새롭게 탄생된 고려 왕조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주귀족 중심의 골품체제는 무너지고 지방의 지배자집단인 호족들이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체제가 마련되었다. 결국 귀족들의 권력 쟁탈전과 사치 및 부패, 이로 인한 농민들의 반란과 호족의 대두가 신라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4. 고려의 후삼국 통일

### 후백제의 멸망과 고려의 후삼국 통일

#### 공격준비

신라말기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전국적 농민봉기와 지방세력의 대두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결국 이른바 후삼국시대가 연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신라는 명맥만 유지했을 뿐으로 초기에 세력을 좌우한 것은 태봉의 궁예와 후백제의 견훤이었다. 이 중 새롭게 대두하였던 궁예의 경우는 신하들에게 내쫓기는 신세가 되어 새로이 왕건에 의한 고려가 건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왕건과 견훤의 세력다툼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두 세력가는 처음에는 서로 우호적이었으나 얼마 안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 여러 번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다가 930년(태조 13) 고창군古昌郡 전투에서 왕건이 크게 승리하면서부터 전세는 고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결국 935년(태조 18) 견훤이 자신의 아들에게 유폐 당하였다가 고려로 귀순하게 되었고 신라의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후백제의 신검뿐이었다. 그

리하여 왕건은 마지막 여세를 몰아 936년(태조 19) 신검과의 결전을 단행하게 되었다.

왕건이 후백제 신검을 토벌하게 된 동기는 기록에는 견훤의 요청인 것처럼 나와 있다. 그러나 견훤의 요청이 있기 전부터 왕건은 나름대로 전투 준비를 하였다. 그것은 견훤이 고려에 온 직후 왕건이 서경을 비롯한 황주, 해주 등지를 순행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때의 순행 목적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군사력 동원이었지 않나 한다.

서경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 제2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으로 이미 왕건대부터 중요한 군사적 거점지역이었다. 그리하여 왕건의 종제인 왕식렴이 지키고 있던 곳이었다. 황주, 해주 역시 신라시대부터 중요한 군사지역이었다. 이 지역들은 신라 782년(선덕왕 3)부터 설치된 패강진의 관할 구역이었던 것이다. 특히 황주는 왕건의 왕비였던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의 고향으로 그의 부(父)인 황보제공(皇甫梯恭)은 왕건 휘하에서 많은 활약을 한 바 있다. 즉 그는 기록에 따라 제궁(帝弓·弟弓)으로도 되어 있는데 925년(태조 8)의 조물군(曹物郡) 전투시 대상(大相)으로써 상군(上軍)을 지휘하였으며 930(태조 13)년에는 천안도독부사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935년(태조 18)에는 나주의 탈환 책임자로 유금필을 천거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의 관계가 대광(大匡)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그의 정치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조 19년 신검과의 결전 시에 견훤과 함께 좌강(左綱)의 마군(馬軍)을 거느렸던 황보금산(皇甫金山)도 황주 출신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당시 서경 등지의 순행이 군사력 동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착실한 준비를 해온 왕건은 견훤의 사위였던 박영규(朴英規)의 내용과 형식상 견훤의 요청에 의해 우선 태자인 무(武)와 박술희(朴述熙)로 하여금 보기(步騎) 1만을 거느리고 천안에 가게 하였다. 이 선발대를 보낸 것은 936년(태조 19) 6월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 대비한 군사훈련이나 정보 수집, 군량미 확보 등과 같은 일을 준비하였다.

### 일리천전투

936년(태조 19) 9월에는 왕건이 3군을 거느리고 천안부에 나아가 먼저 와 있던 박술희의 군대와 같이 일선군(善郡)(현재의 경북 선산)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신검 역시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길을 막음으로써 양군은 일리천(利川)을 사이에 두고 대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왕건은 왜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를 직접 공략하지 않고 선산까지 나아갔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왕건이 천안을 거쳐 전주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가 홀연히 동쪽을 침으로써 신검의 의표를 찌른 공격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물론 그러한 기만전술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회 방향이 선산까지 내려갔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왕건이 선산 방향으로 진격한 것은 낙동강 줄기를 이용해 후백제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물자를 동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즉 왕건의 군대는 아직도 신검군보다 충분히 우세하지 못하였고 또 장거리 행군을 필요로 하는 기동이었다. 그런데 왕건 자신의 군대는 기병이어서 보병은 현지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낙동강은 훌륭한 조운로(漕運路)로서 물자 수송에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다. 태조가 선산에 이르러 군사를 모집하자 그 지역의 향리로서 응모한 김선궁(金宣弓)이나 김훤술(金萱述)의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시뿐 아니라 그때까지 추구해온 고려와 후백제의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왕건과 견훤과의 대결 상황을 살펴보면 양 세력의 결전장은 충청도 일대도 있었지만 주로 경상도 일대가 중심이었다. 즉 강주(康州)(경남 진주), 대량성(大良城)(경남 합천), 근품성(近品城)(경북 문경군 산북면), 고을부(高鬱府)(경북 영천), 공산(公山)(대구), 벽진군(碧珍郡)(경북 경산), 의성부(義城府)(경북 의성), 순주(順州)(경북 안동군 풍산면), 고창군(古昌郡)(경북 안동) 등이 주요 전투장이었다. 이 외에도 왕건은 일찍이 밀양(密陽), 청도(淸道) 지역도 경략하였다. 그것은 밀양의 향리였던 손공훈(孫兢訓)이 태조를 도와 공신이 되었다는 기록과 청도의 견성(犬城)에서 보양대사(寶讓大師)의 도움으로 산적들을 물리쳤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특히 강주를 둘러싼 양국의 쟁탈전은 치열하였다. 그것은 920년(태조 3) 정월 강주장군(康州將軍) 윤웅(閔雄)이 그 아들 일강(一康)을 인질로 보내 귀부하자 일강을 아찬(阿餐)에 제수하고 경(卿)인 행훈(行訓)의 누이동생을 아내로 삼게 한

조치에서 알 수 있다. 후백제 견훤 측에서도 그의 둘째 아들 양검(良劍)을 강주도독(康州都督)으로 삼아 이 일대를 장악하려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기울어져 가는 신라 영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935년(경순왕 9)에 견훤이 그 아들 신검에 의하여 내쫓기고 신검이 정권을 잡았지만 경순왕이 귀순해버린 신라 지역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즉 신검이 북방으로 고려 영역을 침범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경순왕이 귀순하고 공백상태가 되어 버린 경상도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다. 물론 완전한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경순왕이 귀순할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잔류한 부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검군은 경상도 지역으로 출동했거나 아니면 그러한 조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상황을 왕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후백제의 서울인 전주를 직공하지 않고 선산으로 출동한 것이었다.

또 이러한 고려군의 작전에는 왕순식(王順式)과 박영규(朴英規)와의 관계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왕순식이 명주를 출발하여 왕건군에 합세하려면 서남방 지역은 너무 멀고 동남방인 현재의 경상도 일대가 적당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왕순식은 경북 봉화나 용궁에 있는 대현(大峴)을 넘어 고려군에 합세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승주(昇州)에서 내용할 것을 약속해온 박영규와의 합동작전도 이 지역 일대가 유리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왕건이 결코 단순한 병력, 물자의 동원을 목적으로 선산으로 회동한 것이 아니었음은 일리천(利川) 전투에 참가한 무장(武將)들의 출신지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 참가한 무장들 중 이름을 알 수 있는 자들은 모두 38명이다. 이 중 출신을 알 수 있는 자는 12명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고려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대체적 병력동원 상황은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지방의 토착세력이었다. 자들로 원래부터 자신이 거느렸던 부하들을 인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왕건의 군대는 크게 중군(中軍)과 좌강(左綱) 및 우강(右綱), 그리고 예비병력이라 할 수 있는 3군의 원병(援兵)으로 편성되었다. 우선 좌강에 편입되어 군사를 지휘한 장군 중 견훤은 다 아는 바와 같이 후백제의 왕이었다. 견권(堅權)은 고려 개국 2등 공신으로 천령현(天寧縣) 출신이었다. 술희, 곧 박술희(朴述熙)는 현재의 충남 당진군 면천 출

신이며 일찍이 궁예의 위사(衛士)를 지냈던 인물이다. 이로 미루어 박술희 휘하에는 궁예에게서 물려받은 왕건의 직속군이 편입되었을 것이다. 황보금산(皇甫金山)은 태조의 후비와 같은 고향인 황주(黃州)이거나 아니면 황보능장(皇甫能長)과 같이 영천(永川) 출신으로 생각된다. 또 지천군대장군(支天軍大將軍)으로 나와 있는 능달(能達)은 일찍이 태조 즉위 직후 청주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고한 청주 출신 인물이다. 우강에 편입되어 있던 김철(金哲)은 황해도 중화현(中和縣) 출신이었다. 홍유(洪儒)는 개국 1등 공신으로 경상도 의성 출신이었다. 박수경(朴守卿)은 평산(平山) 출신으로 패강진의 무장출신이었다. 그리고 중군의 왕순식(王順式), 왕렴(王廉), 왕예(王乂)는 강원도 명주(溟州) 출신이었다. 중군(中軍)은 일찍이 운주(運州)(현재의 충남 홍성)의 성주(城主)로 있다가 왕건에게 항복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유검필(庾黔弼)은 평산 출신으로 왕건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힘을 다해 보좌한 인물이다. 또 3군의 원병을 지휘했던 공훤(公萱), 즉 강공훤(康公萱)은 지기주제군사(知基州諸軍事)로서 현재의 경상북도 풍기(豊基)에 주둔하였던 자며 고창군 전투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이름과 출신을 알 수 있는 무장들 중에는 선산(善山) 출신은 없다. 즉 대부분의 무장들은 왕건이나 왕순식의 휘하에 있던 자들이다. 따라서 그 휘하 군사들도 다 원래부터 데리고 있던 자들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김선평이나 김훤술과 같이 선산 현지에서 응모한 군사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최소한 병력 동원이 선산으로 출동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하여 일리천(利川) 전투에서 양군이 일대 접전을 벌였지만 결과는 왕건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신검군은 3,200명이 포로로 잡히고 5,700여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당하였다. 여기에서 승리한 왕건군은 신검군을 쫓아 황산군(黃山郡)까지 진격하였다.

### 신검의 연산 퇴각과 항복

황산군은 본래 백제의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에 황산군으로 개명되었으며 고려초에 연산군(連山郡)으로 개명된 지역이다. 현재는 충남 논산군 연산면 일대이다.

그러면 신검군은 왜 바로 수도인 전주로 도망하지 않고 연산 방향으로 도망하였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후백제와 고려의 쟁탈전은 경상도 서남방 지역이 주 전투지였지만 직접적 경계 지역인 충청도 중부 지역도 중요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고려가 후백제를 직접 칠 경우 수도인 전주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목이었다. 고려가 개경에서 군대를 출발시킨다면 현재의 서울을 거쳐 과천果川-소사素沙-성환成歡-천안天安을 지나 차령車嶺을 넘어 공주公州-노성魯城-은진恩津-여산礪山-삼례參禮-전주全州로 직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려나 후백제는 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태조 왕건은 태자 무武와 박술희朴述熙로 하여금 먼저 군대를 거느리고 천안에 가 주둔하도록 하여 후백제의 복진에 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가 뒤에 합류해 3군을 거느리고 선산으로 간 뒤에도 일부 병력은 천안에 주둔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천안에 먼저 와 있던 무장 중 박술희는 선산의 일리천전투에 참가했지만 태자 무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누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가 일리천전투에 참가했다면 그 이름을 빠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는 천



그림 4. 충남 논산 개태사 ©경주문화재연구소

안에 그대로 남아 일부 병력을 거느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고려군의 동향에 대해 신검군도 주력부대는 선산으로 갔지만 일부 병력은 현재의 연산 방면에 주둔했으리라 짐작된다. 연산 지역은 은진까지의 거리가 26리, 공주까지의 거리가 32리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공주를 거쳐 천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충지였다. 이미 926년 견훤의 인질인 진호眞虎가 죽자 견훤도 왕건의 인질인 왕신王信을 죽이고 웅진(공주)까지 진군한 전례가 있는 것이다. 또 천안에서 내려올지도 모르는 태자 무의 병력을 방어할 수도 있는 좋은 지역이었다. 그렇기에 신검군은 연산의 병력과 합치기 위하여 이 방면으로 퇴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검은 중과부적으로 그 동생 양검, 용검과 함께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왕건은 양검, 용검은 진주眞州로 귀양보냈다가 죽였지만 신검은 살려주었다. 이 소식을 듣고 견훤은 근심과 번민으로 등창이 나서 얼마 후에 황산의 어느 불사佛舍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그 묘가 황산군 옆의 은진현恩津縣에 있게 되었는데 일명 그것을 왕묘王墓라고도 하였다. 이리하여 왕건은 무사히 전주에 입성함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후삼국 통일 후 왕건은 견훤이 죽은 절을 전면 개축하여 개태사開泰寺를 지었다.

## 후삼국 통일 요인

### 호족 포섭

그렇다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어떠한 정책이 후삼국 통일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우선 왕건은 지방 각지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썼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이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신을 보내 후한 선물을 보내고 말을 낮추어 회유하였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호족들이 귀순해 왔다. 골암성鵝巖城의 성주 윤선이 귀순해 온 것도 이때문이었다. 벽진군碧珍郡(경북 성주)의 이충언도 이 무렵에 귀순해 왔다. 그러자 그 아들을 중앙 세력가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었다. 이처럼 왕건은 귀순해 온 호족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 주었던 것이다.

920년(태조 3)에는 강주장군 윤옹이 그 아들 일강을 보내 귀순해왔다. 그러

자 왕건은 일강에게 아찬이란 품계를 주고 행훈의 누이동생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그리고 낭중郎中 춘양春襄을 강주에 보내 귀순한 자들을 위로하였다.

이처럼 호족들이 귀순의 표시로 그 일족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었던 것 같다. 호족들은 충성의 표시로 아들을 보냈고 중앙에서는 그들이 반역하지 않는 한 잘 대우해 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반역을 할 경우 중앙에 올라와 있는 호족의 일족은 위협에 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종의 인질이었던 셈이다. 고려시대 기인제도其人制度의 기원도 실은 여기에 있었다.

이에 따라 각지의 호족들이 계속 귀순해 왔다. 922년 하지현下枝縣 장군將軍 원봉元奉과 명주장군溟州將軍 순식順式·진보성주眞寶城主 홍술洪術, 이듬해에는 명지성장군命旨城將軍 성달城達과 벽진군장군碧珍郡將軍 양문良文이 귀순하였다. 왕건의 호족들에 대한 포섭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한편 지방의 대호족들이 귀순해올 경우에는 ‘왕王’성을 하사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명주의 장군이었던 김순식의 경우가 그 경우였다. 그는 명주의 대호족으로 왕건이 왕위에 즉위하자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 허월許越의 설득으로 922년 맏아들 수원守元을 보내 귀순해 왔다. 그러자 왕건은 수원에게 ‘왕王’성을 하사하고 토지와 집도 마련해 주었다. 928년 김순식이 직접 중앙에 올라오자 왕건은 그와 그의 소장小將 관경官景에게도 ‘왕王’성을 하사해 주었다. 호족과 의제가족擬制家族적 관계를 맺어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함이었다.

각 지역 호족의 딸과 결혼하는 혼인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명주의 김순식에게는 딸이 없었는지 그의 부하장수였던 관경官景의 딸과 혼인하였다. 기록에는 그 이름이 왕경王景으로 나오나 이는 928년 그가 태조로부터 ‘왕王’성을 하사받았기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명주의 또 다른 호족이었던 왕예王義(원래 이름은 金義)의 딸과도 혼인을 하였다. 이밖에도 황해도 정주의 유천궁, 충주의 유궁달, 평안도 평산의 박지윤, 경기도 광주의 왕규 등의 딸과 혼인을 하였던 것이다. 때로는 호족의 요청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호족들과 태조의 관계가 긴밀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총 29명의 후비를 갖게 되었고 거기에서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얻었다.

표 1. 태조의 후비 일람표

	후비명칭	성씨	출신지	현지명	후비의 아버지
1	신혜왕후	류씨(柳氏)	정주	풍덕	천궁(天弓)
2	장화왕후	오씨(吳氏)	나주	나주	다려군(多憐君)
3	신명순성왕후	유씨(劉氏)	충주	충주	금달(兢達)
4	신정왕태후	황보씨(皇甫氏)	황주	황주	제공(悌恭)
5	신성왕태후	김씨(金氏)	경주	경주	억렴(億廉)
6	정덕왕후	류씨(柳氏)	정주	풍덕	덕영(德英)
7	헌목대부인	평씨(平氏)	경주	경주	준(俊)
8	정목부인	왕씨(王氏)	명주	강릉	경(景)
9	동양원부인	유씨(庾氏)	평주	평산	검필(黔弼)
10	숙목 부인		진주	진천	명필(名必)
11	천안부원부인	임씨(林氏)	경주	경주	언(彦)
12	홍북원부인	홍씨(洪氏)	홍주	홍성	규(規)
13	대량원부인	이씨(李氏)	협주	합천	원(元)
14	대명주원부인	왕씨(王氏)	명주	강릉	예(乂)
15	광주원부인	왕씨(王氏)	광주	경기 광주	규(規)
16	소광주원부인	왕씨(王氏)	광주	경기 광주	규(規)
17	동산원부인	박씨(朴氏)	승주	승주	영규(英規)
18	예화부인	왕씨(王氏)	춘주	춘천	유(柔)
19	대서원부인	김씨(金氏)	동주	서흥	행파(行波)
20	소서원부인	김씨(金氏)	동주	서흥	행파(行波)
21	서전원부인				
22	신주원부인	강씨(康氏)	신주	신천	기주(起珠)
23	월화원부인				영장(英章)
24	소황주원부인				순행(順行)
25	성무부인	박씨(朴氏)	평주	평산	지윤(智胤)
26	의성부원부인	홍씨(洪氏)	의성부	의성	유(儒)
27	월경원부인	박씨(朴氏)	평주	평산	수문(守文)
28	몽량원부인	박씨(朴氏)	평주	평산	수경(守卿)
29	해량원부인		해평	해평	선필(宣必)

### 부민정책

왕건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백성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도 백성들이 편안해야 유지되는 것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영을 내려 조세제도를 바로잡았다. 천하에 통용되는 10분의 1세법을 적용하였

다. 또 그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당시 식량이 없어 굶주려 자신의 몸을 팔아 남의 노비가 된 자가 많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왕건은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자들 1천여 명을 파악하여 양인으로 해주었다.

한시적으로 조세를 면제해주고 죄인들을 특별히 사면하는 정책도 취하였다. 또 그의 즉위와 더불어 중죄인을 제외하고 죄수들을 사면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이는 새로운 왕의 즉위 시 연례행사처럼 했던 것이었다. 사면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표시인 동시에 농업노동력의 확보라는 이중의 의미가 있었다. 죄인들이 풀려나 농사를 지으면 그들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이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일이었음은 틀림없다.

왕건은 또 흑창(黑倉)을 설치하여 빈민들을 구제하였다. 이는 국가에서 곡식을 저장하면서 궁핍한 백성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추수가 끝난 뒤에 갚도록 하는 시책이었다. 아마 흉년이 심할 때는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태조가 민심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후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 뛰어난 외교 정책

그의 탁월한 대외 정책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왕건은 신라에 대해 자신은 그 신하임을 자처했다. 그리고 신라를 끝까지 존중하고 우대하였다. 이는 928년 후백제 견훤에게 보낸 조서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견훤이 927년(경순왕 원년) 신라를 침공하여 경애왕을 죽인 점을 극렬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신라 왕실을 도와 기울어져 가는 조정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은 진 문공이나 제 환공이 주(周) 나라 왕실을 받들었던 것처럼 신라 왕실을 존중했으나 견훤은 왕망이나 동탁이 한(漢) 왕실을 도모한 것처럼 신라를 침략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사실이였다. 그는 신라를 가능하면 손상치 않으려 했다. 그리하여 신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 군사를 파견해 도와주었다. 920년(경명왕 4) 견훤이 신라의 대량(大良(합천)·구사(仇史(초계)의 고을을 침략하자 신라가 아찬 김율(金律)을 보내어 구원 요청을 해온 적이 있었다. 이에 왕건은 군사를 보내 이를 구원하였다.

925년(태조 8, 경애왕 2) 10월에는 고을부(高鬱府(경북 영천)의 장군(將軍) 능문(能文)이 군사를 거느리고 내투(來投)하였다. 그러나 태조는 그 성이 신라의 왕도에 인접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해 노고를 위로하여 돌려보내고 다만 휘하의 시랑(侍郎) 배근(裴近)과 대감(大監) 명재(明才)·상술(相術)·공식(弓式) 등만을 머물게 하였다. 그의 귀순을 받아들이면 당장에는 이익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먼 앞날을 내다보고 돌려보낸 것이었다. 신라를 도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927년(경순왕 원년) 정월에는 왕건이 후백제의 용주(龍州)를 치자 신라가 군사를 내어 도와주기도 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견훤이 신라를 침략하자 구원 요청을 받은 왕건이 출동하였다. 견훤은 신라의 서울인 경주를 침공해 경애왕을 죽이고 돌아오다 공산(公山(대구 팔공산)에서 왕건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왕건은 대패하여 목숨을 겨우 건졌다. 견훤의 입장에서는 909년(효공왕 13) 덕진포(德津浦) 전투에서의 참패를 설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오히려 왕건이 신라인들의 민심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목숨을 걸고 신라를 도우려 했다는 평가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3년 뒤 고창군(古昌郡(안동) 전투에서 김선평(金宣平)·권행(權幸)·장길(張吉) 등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였다. 그리고 중국에는 신라의 귀순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후백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평화정책을 취하였다. 그러자 관망을 하고 있던 견훤도 왕건의 즉위 두 달 만에 일갈한 민합(閔郃)을 보내와 즉위를 축하하였다. 이후 둘 사이에는 평화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920년(경명왕 4) 신라의 구원 요청으로 고려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평화는 깨어지고 둘 사이가 소원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924년(경애왕 원년) 견훤이 그 아들 수미강(須彌康)과 양검(良劍) 등을 보내어 조물군(曹物郡)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왕건은 장군 애선(哀宣)과 왕충(王忠) 등을 보내 이를 구원케 했다. 이 전투에서 애선이 전사했으나 견훤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 조물성 전투에서 양군은 평화조약을 맺었으나 대결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공산 전투에서는 견훤군이 대승하였다. 왕건은 참패하여 신승겸이나 김락 같은 측근의 장수를 잃었다. 그러나 3년 뒤인 고창군(안동) 전투에서 왕건군이 대승하여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창군 지역 호족인 김

선평·권행·장길 등의 도움 덕분이기도 했다. 이후 후백제의 내분으로 견훤은 고려에 귀순해왔다. 고려와 신라의 연합세력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자 신라의 경순왕도 곧 이어 나라를 들어 왕건에게 바쳤다. 결국 936년 왕건과 견훤은 같이 출정해 후백제의 신검을 물리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 고려 후삼국 통일의 의의

### 지방세력의 중앙 진출

신라 사회는 진골 중심의 폐쇄된 사회였다. 골품에 따라 입는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달랐다. 또 관직이나 관등官等에 있어서도 승진의 제약이 받았다. 관등상으로 진골은 최고위인 이별찬伊伐漣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6두품은 6관등인 아찬阿漣까지, 5두품은 대나마大奈麻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다. 그리고 4두품은 사지舍知가 그 상한선이었다. 관직상으로도 차별을 받아 6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각 관부의 차관급까지밖에 오를 수 없었다.

국가의 중용한 큰 일은 화백和百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 화백회의의 구성원인 대등大等 또한 진골귀족들이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신라 사회는 골품에 따른 생활의 제약을 받았다. 그리하여 6두품인 설계두薛麗頭는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에 불만을 품고 당나라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러나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였다. 이미 왕건대에 지방의 세력가였던 호족들이 중앙에 많이 진출해 있었다. 진골귀족 중심이었던 신라 사회와는 자못 다른 모습이었다. 이는 물론 호족들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많은 기여를 한 대가였다.

이러한 대세는 결국 고려 광종대에 이르러 과거제도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능력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다. 제술과製述科를 제외한 명경과明經科나 잡과雜科에는 일반 양인까지 응시할 수 있었다. 일반 양인들도 과거를 보아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술과의 경우도 지방의 향리 계층은 응시할 수 있어 지방세력이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고려시대 고위 관리들 중에는 향리 가문에서

입신한 자들이 많았다. 특히 향리층의 최고위층인 호장戶長층은 과거를 통해 중앙의 요직에 오르는 데 유리하였다. 제술과나 명경과의 경우 부호장副戶長 이상의 손孫이나 부호정副戶正 이상의 자子로 그 자격을 한정시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호장층으로 중앙에 진출한 가문도 많았다. 고려시대 향리층은 중앙관료의 끊임없는 공급원이 되었다. 결국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경주 진골귀족 중심의 신라 사회를 무너뜨리고 지방민들도 지배세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 다양한 종교와 사상의 조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사상·문화 면에서도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그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유학이나 다른 사상은 크게 꽃피지 못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병존하게 되었다. 불교가 여전히 융성했지만 다른 사상과 종교도 활발하였던 것이다. 가히 다종교多宗教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선 유교사상의 역할이 증대하였다. 유학사상은 신라말기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유학사상은 당나라에 유학했던 6두품 학자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었다.

이미 고려 초기에 최응崔凝과 같은 유학자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유학자로서 명성을 떨친 것은 후삼국기에 활약했던 이른바 3최崔, 즉 최치원崔致遠·최승우崔承祐·최언위崔彦瑒였다. 이처럼 유학사상은 정치세계에도 널리 퍼졌다. 그리하여 고려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지만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최충이나 김부식과 같은 유학자가 탄생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한편 도교사상도 유행하였다. 현종대에 초제醮祭를 지낸 사례가 보이고 그 이후에도 도교행사가 계속적으로 벌어졌다. 예종대에 이르러서는 복원궁福源宮이 건립되어 도교가 성행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도사道士 10여 명이 거처하며 도교 관계 일을 보았다. 그는 또 옥축정玉燭亭에다 원시천존상元始天尊像을 안치하고 매달 초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풍수지리와 도참사상도 크게 유행하였다. 이미 왕건의 즉위 전부터 그의 등극을 예언한 글귀가 거울에 있어 참언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의 훈요 10조

에서도 새로 세운 사원은 모두 도선의 풍수지리에 의해 세웠다거나 서경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워 대업만대大業萬代의 땅이라 한 것은 당시 풍수지리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말한다. 정종定宗 때 서경으로 천도하려 한 것이나 현종 때 동경을 설치한 것도 풍수지리에 의한 것이었다. 동경 설치에 『삼한회토기』라는 책 속에 고려에는 3경京이 있다는 문구에 의한 것이었다. 문종대 남경의 설치도 지리도참 사상에 의한 것이었다. 『도선기』·『답산기』·『삼각산명당기』·『신지비사』 등의 설을 빌어 김위제가 건의한 것이었다. 인종 때에는 묘청이 지리도참설에 따라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신앙도 유행하였다. 산을 주관하는 산신에 대한 숭배가 계속되었다. 문종대까지 정부에서는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를 파견해 봄·가을로 산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최충헌은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하여 산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에서 이런 산신에 대해 존호尊號나 작호爵號를 수여하는 예도 있었다.

성황신앙도 유행하였다. 고려 성종대부터 기록에 보이기 시작하는 성황신앙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에 들어와 매우 성행하였다. 김부식은 1135년(인종 13)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후 전승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러 성의 성황묘城隍廟에 제사를 지냈다. 고종대에는 온수군溫水郡에 침입한 몽고군을 격퇴한 후 성황신의 덕택이라 하여 신호神號를 더해 준 예도 있다.

무격신앙巫覡信仰도 성행하였다. 현종대부터 무당들을 모아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다. 산신사나 성황사의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려시대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병존하였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것이다. 이는 불교 중심 국가였던 신라가 멸망한 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 한 가지 사상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과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조화시켰던 것이다. 이는 사상·문화적으로 한 단계 진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동북아시아사의 전개에 있어 중국 및 북방민족과 함께 삼각의 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高麗-송宋-요遼 또는 금金의 삼각 구도를 형성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주고 받는 초석이 되었다. 통일 왕조로서 동북아시아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요遼의 침략과 금金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 5. 멸망 후 신라계 세력의 동향

### 태조와 신라계 세력

935년(경순왕 9)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은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세력도 많았다. 그리하여 신라 멸망을 전후한 경주세력의 동향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는 경순왕을 비롯해 그를 따라 고려에 온 부류가 있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왕이 백료百僚를 거느리고 왕도를 출발하였는데 사사士庶들이 다 그를 따랐다. 향나무로 만든 수레와 구슬로 장식한 말이 30여 리에 뻗쳐 길을 가득 메웠다.' 한다. 이 표현으로 미루어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귀부한 부류는 귀족들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서민들에게야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 테지만 왕족이나 귀족들은 고려왕실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이는 고려에서 그들을 임용하고 전택田宅과 녹봉을 주었다는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먼저 경순왕을 비롯한 왕족들은 고려왕실과 혼인함으로써 인척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다. 경순왕이 귀부하자 왕건은 그를 정승政丞으로 삼고 해마다 녹祿 1천 석을 주는 한편 자신의 딸인 낙랑공주와 혼인시켰다. 그리고 경순왕의 본거지 경주를 식읍으로 줌과 더불어 그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러자 경순왕은 그의 백부 김억림의 딸을 왕건에게 시집보냄으로써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다.

경순왕의 종제從弟였던 김유렴金裕廉도 이 부류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그는 930년(경순왕 4) 왕건이 고창군古昌郡(안동) 전투에서 승리한 후 경주를 방문하였을 때 경순왕의 인질로 고려에 갔던 인물이다. 물론 그가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와서 공신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인질로 갔다가 그대로 정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유렴은 경명왕 원년 집사부의 시중侍中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듯 그는 고려왕조에서도 공신으로 책봉됨으로써 그의 후손인 김한충金漢忠이 예종 조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중 2품)의 지위에까지 오르는 배경이 되었다.

같은 김씨이면서도 원성왕元聖王의 후예로 되어 있는 김인윤金仁允은 일찍이 태

조를 섬겨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워 삼한공신<sup>三韓功臣</sup>이 되기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경순왕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태조를 따라 고려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김인윤도 김유립처럼 931년(경순왕 5) 경주를 방문하였을 때 따라간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그의 후손들은 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컨대 고려 전기에 문하시중<sup>門下侍中</sup>(중 1품)을 지낸 인물만 해도 김원충<sup>金元冲</sup>, 김원정<sup>金元鼎</sup>, 김경용<sup>金景庸</sup> 등 3인이나 되었다.

이밖에 김예겸<sup>金禮謙</sup>도 경순왕의 일족으로 그를 따라 고려로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후손인 김의진<sup>金義珍</sup> 등이 문종 조에 현달하였기 때문이다. 또 고려 후기에 명문으로 성장한 김봉모<sup>金鳳毛</sup> 가문도 경순왕의 후예였다. 아마 그의 선조도 경순왕과 같이 고려에 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와 같이 신라의 진골귀족이었던 김씨 중 경순왕 계열과 원성왕 후손의 계열은 고려에 귀부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번성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신라의 6두품 계열 중에도 고려에 귀부한 이들이 있었다. 6두품으로서는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이<sup>李</sup>, 정<sup>鄭</sup>, 손<sup>孫</sup>, 최<sup>崔</sup>, 배<sup>裴</sup>, 설<sup>薛</sup>씨가 그 대표적 가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경주 최씨로서 이 계열에 드는 인물로는 최은함<sup>崔殷諫</sup>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는 중생사<sup>衆生寺</sup>라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한 후 아들을 낳고 후에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온 인물이다. 그의 아들이 바로 최승로<sup>崔承老</sup>였다. 그는 이미 나이 12세로 왕건에게 불려가 『논어』를 읽고 원봉성학생<sup>元鳳省學生</sup>에 편입되었으며 성종 때에는 그 유명한 시무 28조를 올렸다. 그의 후손인 최숙<sup>崔肅</sup>이나 최제안<sup>崔齊顔</sup> 등도 현달했음은 물론이다.

또 신라 말의 3최 중 하나였던 최언위<sup>崔彦撫</sup>는 고려가 개국되자 가족을 데리고 와서 태자사부<sup>太子師傅</sup>가 된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빈공과<sup>賓貢科</sup>에 합격하였으며 그러한 실력 덕에 고려에서도 문한지임<sup>文翰之任</sup>을 담당하였다. 그의 아들 최광윤<sup>崔光胤</sup>, 최행귀<sup>崔行歸</sup>도 각각 후진<sup>後晉</sup>과 오월<sup>吳越</sup>에 유학하였으며 그의 손자인 최항<sup>崔沆</sup>은 현종 조에 평장사<sup>平章事</sup>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금서<sup>李金書</sup>도 태조에게 많은 협조를 하여 삼한공신<sup>三韓功臣</sup>이 된 인물이다. 그의 선조인 이알평<sup>李謁平</sup>은 신라 6부 중 급량부<sup>及梁部</sup> 출신으로 경주 이씨의 시조였

다. 그는 또한 경순왕과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신란궁부인<sup>神鸞宮夫人</sup>과 결혼하였다. 그리하여 이금서는 왕건에게는 외손녀 사위였으며 경순왕에게는 사위가 되어 신라 왕족은 물론 고려 왕실과 혈연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후손으로는 목종 조에 판어사대사<sup>判御史臺事</sup>(정 3품)를 지낸 이주좌<sup>李周佐</sup>와 원 간섭기에 많은 활약을 한 이제현<sup>李齊賢</sup>이 있다.

두 번째 부류로는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오지 않고 경주에 남아 있던 일파이다. 경순왕은 935년(경순왕 9) 고려에의 귀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하였다. 이때 이에 찬성하는 일파와 반대하는 파가 있었는데 중립을 지키면서도 경순왕을 따라가지 않은 무리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의 대표자가 김부식의 증조부인 김위영<sup>金魏英</sup>이라 하겠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경순왕이 귀부한 직후 신라의 서울을 경주로 개편할 때 주장<sup>州長</sup>이 되었던 인물이다. '주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후일 호장<sup>戶長</sup>이라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호장층 중에서 제일 세력이 큰 자였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경주의 사심관에 임명된 경순왕은 부호장 이하만 통제하였으므로 주장이 뒤의 호장이라 하더라도 경순왕은 김위영을 통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고려 초의 어느 시기에 고려에 온 이 일족은 실력을 바탕으로 현달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김부식, 김부일<sup>金富佺</sup>, 김부의<sup>金富儀</sup>와 같은 후손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결국 경순왕의 귀부로 신라는 멸망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주세력은 다시 고려 조정에서 세력을 떨쳤다. 즉 고려의 건국으로 황해도나 충청도 등 중부지역 세력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편입되기도 했지만 신라세력도 지배세력의 일부를 차지함으로써 그 전통을 면면히 이을 수 있었던 것이다.

### 경종과 경주 세력

경주 세력은 경종<sup>景宗</sup> 대에 와서 다시 전성기를 맞는다. 광종의 아들인 경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경순왕 김부<sup>金傅</sup>의 딸인 현숙왕후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런데 태조 때 김부에게 시집갔던 낙랑공주는 광종의 친누이였으니 광종과 김부는 처남 매부 사이였다. 따라서 광종의 아들 경종은 김부에 있어 외사촌 조카였으며 김부의 딸인

헌숙왕후는 경종과 외사촌 남매였다. 그러나 헌숙왕후 김씨는 김부의 딸이었지만 어머니가 낙랑공주는 아니었던 것 같다. 김부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는 태조와 성무부인<sup>聖茂夫人</sup>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였다. 성무부인 박씨는 평주<sup>平州</sup> 출신으로 박지윤<sup>朴智胤</sup>의 딸이었다. 박지윤은 박수문<sup>朴守文</sup>, 박수경<sup>朴守卿</sup> 형제의 아버지였다. 박수경은 후삼국 통일전쟁시 많은 활약을 하였는데 그와 그의 형 박수문 역시 왕건에게 딸 하나씩을 바쳐 그의 장인이 되었다. 월경원부인<sup>月鏡院夫人</sup> 박씨와 몽량원부인<sup>夢良院夫人</sup> 박씨가 그들이다. 김부와 성무부인 박씨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바로 경종과 혼인한 헌숙왕후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경종은 두 갈래의 세력과 연합하는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 신라에서 귀순한 경주 김씨 세력과 북쪽의 평산 박씨를 후원세력으로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 세력인 충주 유씨와 어머니 세력인 황주 황보씨는 물론 경주 김씨 세력, 평산 박씨 세력과의 연합 내지 후원을 받았다. 헌숙왕후와의 결혼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한편 이는 경종 측보다도 경순왕 김부 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김부와 낙랑공주의 결혼은 태조 왕건 측에서 자신이 신라 왕실의 인척으로 정통을 이어받았음을 보여 주기 위해 추진한 결혼이었다. 그러나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고 혜종을 거쳐 정종, 광종대에 이르자 경주 김씨 세력은 고려에서 별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경순왕이 고려로 올 때 왕족을 비롯한 신라 귀족들이 자신을 따라왔지만 광종대까지는 고려에서 현달한 인물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려 왕실과 다시 혼인을 함으로써 그 후손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가 경종과 헌숙왕후의 혼인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경순왕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한 뒤 978년 죽었다.

### 성종과 경주 세력

경순왕은 죽었지만 경종의 뒤를 이은 성종<sup>成宗</sup>대에도 경주 세력은 나름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우선 성종의 혼인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성종은 960년(광종 11) 대종<sup>戴宗</sup>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경종보다 5살 아래

였다. 그가 왕위에 오른 981년에는 나이가 21살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문덕왕후와 결혼한 후라고 생각한다. 광종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죽기 전에 과부가 된 자신의 여동생을 성종과 맺어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서경 세력인 황주 황보씨의 적극적 공작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하여 성종은 경종의 외사촌 동생이면서 매제가 되었다. 경종의 아들인 목종은 당시 2살이었으므로 왕위를 물려줄 수 없었다. 또 자신의 동생인 효화태자가 있었지만 무능력한 존재였던 것 같다. 그는 “역사에 그 이름이 보이지 않으며 후사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종 후반기에 죽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신의 매제인 성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황주 황보씨와 정주 유씨의 노력도 작용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성종은 당시 문덕왕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즉위 후에는 근친혼을 기피하는 한편 서경 세력 쪽과의 혼인도 피하였다.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2, 3비는 모두 종실에서 맞지 않았다. 두 번째 후비는 문화왕후 김씨로 시중<sup>侍中</sup> 김원숭<sup>金元崇</sup>의 딸이었다. 셋째 부인인 연창궁부인 최씨는 좌복야<sup>左僕射</sup> 최행언<sup>崔行言</sup>의 딸이었다. 문화왕후 김씨의 아버지 김원숭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또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전주<sup>善州</sup>(경북 선산) 출신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김선궁<sup>金宣弓</sup>의 후예가 아닌가 한다. 김선궁은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선산에 이르러 군사를 모집하자 이에 응모한 인물이다. 그 후 그는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는데 그 장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향리가 되었지만 차자는 중앙에서 계속 관직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지역 출신의 사족<sup>士族</sup>과 이족<sup>吏族</sup>은 다 선궁의 후예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연창궁 부인의 아버지 최행언은 983년(성종 2) 과거에 장원급제한 인물이다. 그가 어디 출신이며 정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최언위<sup>崔彦瑀</sup>의 아들 중에 행귀<sup>行歸</sup>, 행종<sup>行宗</sup>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경주 출신으로 추정된다. 성종은 근친혼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경주 세력의 후비를 맞아 서경 세력에 대한 경계와 견제를 하였다.

이는 그의 정치적, 학문적 성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는 최승로<sup>崔承</sup>

老를 등용해 개혁 정치를 실시하였다. 최승로는 982년(성종 원년) 행선관어사(行選官御史)로서 그 유명한 시무 28조를 올려 성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듬해에는 문하시랑평장사,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올랐고, 988년(성종 7)에는 문하수시중(門下守侍中)까지 올랐던 것이다.

그는 당시 신라계 세력의 대표자였다. 원래 경주 출신이었던 것이다. 최승로의 아버지는 최은함(崔殷咸)이었다. 그는 늦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중생사(衆生寺)에 가서 기도해 낳은 아들이 바로 최승로였다. 그런데 최승로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채 못 되어 건훤이 경주를 습격하니 성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그러자 최은함은 아들을 중생사의 관음상(觀音像) 사자좌(獅子座) 밑에 감추어두고 왔다. 반 달이 지나 적병이 물러가서 근심스럽게 돌아와 보니 살결이 고와지고 젓 냄새가 입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에 최승로를 안고 돌아와 기르니 총명하고 슬기로움이 남보다 뛰어났다. 그러다가 경순왕이 고려에 귀순하자 그를 따라 와서 고려의 대성(大姓)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태조 때부터 궁중생활을 하였고 광종 대에도 소극적이거나 개혁정치에 참여했던 것 같다. 이는 왕의 총애를 받고 성은(聖恩)에 감사하는 마음을 읊은 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가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오조(五朝)의 정적(政績)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그의 관력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경주가 성종대에 동경으로 승격하는 것도 최승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서경 중심의 정치를 지양하고 새로이 동경을 중심으로 한 유교정치를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원구단(圓丘壇)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적전례(籍田禮)를 행하는 등 “요순의 유풍을 계승하고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도를 닦으며 나라의 헌장과 제도를 설정하고 군신 상하의 의례를 분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989년(성종 7) 최승로의 죽음은 경주 세력의 일시적 약화를 가져왔다.

### 현종과 경주 세력

목종(穆宗) 때에는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千秋太后)의 섭정으로 황주 황보씨를 중심으로 한 서경세력이 실질적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모진 역경 끝에 현종(顯宗)이 왕위에 오르면서 경주 세력이 다시 부상하였다. 현종대의 경주 세력 동향은 그의 혼인을 통

해 엿볼 수 있다. 현종은 13명의 후비와 결혼을 하였다. 그 상황을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려 현종의 후비 현황

왕명	후비순서	칭호	성씨	출신지(현지명)	후비의 아버지
현종	1	원정왕후	김씨		성종
	2	원화왕후	최씨		성종
	3	원성태후	김씨	안산	김은부
	4	원혜태후	김씨	안산	김은부
	5	원용왕후	유씨		경장태자
	6	원목왕후	서씨	이천	서눌
	7	원평왕후	김씨	안산	김은부
	8	원순숙비	김씨		김인위
	9	원질귀비	왕씨	청주	왕가도
	10	귀비	유씨		
	11	궁인	한씨	양주	한인경
	12	궁인	이씨		이연술
	13	궁인	박씨	전주	박온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3명의 현종 후비 중 종실에서 맞은 후비가 3명, 일반 귀족의 딸이 10명이었다. 먼저 3비 원성왕후 김씨, 4비 원혜왕후 김씨, 7비 원평왕후 김씨는 모두 안산인(安山人) 김은부(金殷傅)의 딸이었다. 이는 거란의 침입으로 나주에 피난갈 때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즉 현종이 피난 길에 공주에 들렀을 때 김은부가 어의를 지어바치는 등 많은 도움을 얻었기에 취해진 조치였다. 이를 제외하고는 신라계 세력 즉 경주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왕비가 3명이었다. 제1비 원정왕후 김씨와 제2비 원화왕후 최씨, 제8비 원순숙비 김씨 등이 그들이다.

제1비 원정왕후 김씨는 성종의 딸로 현종 즉위 직후 혼인하여 거란병을 피해 나주로 갈 때 동행한 바 있다. 그는 성종과 선주 출신 김원숭(金元崇)의 딸 문화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 김씨가 되었다. 문화왕후 김씨의 아버지 김원숭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또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선주 출신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김선궁(金宣宮)의 후예가 아닌가 한다. 김선궁은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선산에 이르러 군사를 모집하자 이에 응모한 인물이다. 그 후 그는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는데 그 장자는 고향으로 돌아와 향리가 되었지만 차자는 중앙에서 계속 관직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지역 출신의 사족(士族)과 이족(吏族)은 다 선궁의 후예였다는 기록이 있다. 선주는 원래 신라 지역으로 경주 세력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제2비 원화왕후 최씨도 성종의 딸이었다. 그도 현종이 남행할 때 동행하였으니 혼인시기는 제1비 원정왕후와 비슷하였다고 본다. 그는 성종과 원창궁부인 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따라서 그는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 최씨가 되었다. 원창궁부인의 아버지이며 원화왕후의 외조부는 최행언(崔行言)이었다. 최행언은 983년(성종 2) 과거에 장원급제한 인물이다. 그가 어디 출신이며 정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최언위(崔彦撫)의 아들 중에 행귀(行歸), 행종(行宗)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경주 출신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이 이자연의 어머니이며 이한의 처인 최씨 부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8비 원순숙비 김씨는 김인위(金因渭)의 딸이었다. 김인위는 1021년(현종 12) 8월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로 치사(致仕)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시 1024년(현종 15) 9월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치사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이미 복직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미루어 1024년(현종 15) 직전에 현종과 혼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김인위의 또 다른 딸은 이자연과 혼인하였다. 이자연(李子淵)의 처이며 이정(李頤)의 어머니가 경주 출신 김인위(金因渭)의 딸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종은 자신의 할머니인 김여림의 딸 신성왕후 김씨와 같은 가문에서 후비를 맞아들인 것이라 하겠다. 이는 또한 현종의 등극으로 경주 김씨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정의 어머니는 문종의 후비 인예왕후·인경현비·인절현비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문종 이후의 왕들은 모두 문종의 후손이었으니 김인위 가문도 나름대로 영화를 누렸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종대 경주 세력의 부상은 현종 자신의 출생 및 왕위 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성종이 26세의 젊은 나이로 죽으면서 비롯되었다. 그에

게는 이미 4명의 후비와 1명의 부인이 있었다. 즉 신라 경순왕의 딸인 현숙왕후 김씨와 현의왕후 충주 유씨, 그리고 황주 황보씨인 현애왕후·현정왕후 및 대명궁부인 유씨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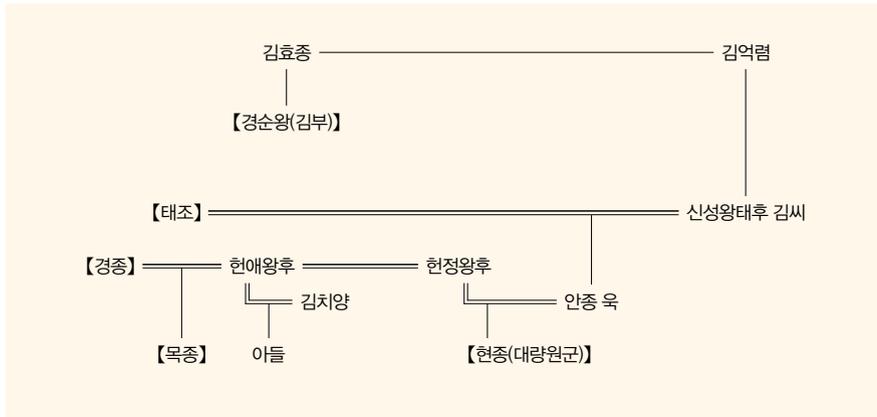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981~997)대에 김치양(金致陽)이 현애왕후(일명 천추태후(千秋太后))와 사통하고, 또 태조의 아들인 안종(安宗) 옥(郁)이 현정왕후와 통해 대량원군(大良院君)을 낳게 되면서 사태가 복잡하게 되었다. 즉 성종의 제4비 현정왕후 황보씨는 성종이 죽은 후 왕륜사의 남쪽 자기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얼마 후 곁에 살던 태조의 아들 안종 옥이 그 집을 왕래하다 불륜의 관계를 맺어 급기야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아이를 임신한 현정왕후가 만삭이 되었을 때 안종의 집 종들의 기지로 성종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현정왕후는 울며 집으로 돌아오다 문 앞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그 자신은 죽었다. 대량원군(뒤의 현종)은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난 것이다. 그가 태어난 때는 992년(성종 11) 7월 1일이었다.

한편 성종은 안종 옥을 사수현(泗水縣)으로 귀양 보냈다. 안종 옥은 태조와 신성왕태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신성왕태후는 신라 경순왕의 백부였던 김여림(金德廉)의 딸이었다. 그러니 안종 옥은 대종(戴宗) 옥(旭)의 아들이었던 성종에게는 숙부뻘이 된다. 따라서 성종은 안종 옥을 숙부라 불렀던 것이다. 이리하여 대량원군은 아버지 얼굴도 거의 보지 못하고 보모에 의해 고아처럼 길러졌다. 그러나 그가 2살 될 무렵 사수현에 있던 아버지 곁으로 보내졌다. 사수현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안종 옥도 996년(성종 15) 죽음으로써 이듬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 후 그는 12세 때인 1003년(목종 6)에 대량원군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그해에 천추태후 황보씨와 김치양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자 대량원군을 강제로 스님이 되게 하였다. 그러다가 목종의 배려로 어렵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현종은 태조 왕건의 손자이면서 경주 출신 신성왕태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신라계 세력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종의 계보를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고려 현종의 계보



요컨대 현종대에는 경주 출신을 비롯한 신라 계열이 재등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원화왕후 최씨나 원순숙비가 경주 출신이며 원정왕후도 경북 선산 출신으로 신라 계열의 후비가 3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현종의 아버지 안중 옥이나 할머니 신성왕후 김씨가 신라 왕족인 김씨 계열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대신 황주 황보씨 계열의 서경 세력은 1명을 제외하고는 없다. 신라 계열의 부상과 대조를 이룬다.

『삼국사기』를 저술한 경주 출신 김부식의 다음과 같은 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순왕이 태조에게 귀의함과 같은 것은 비록 마지못해 한 일이지만 또한 가상하다 하겠다. 만일에 (그가) 힘써 싸우고 죽을 힘을 다하여 지킴으로써 왕사(王師, 고려의 군사)에 항거하다가 힘이 다하고 형세가 궁핍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그 종족(宗族)이 소멸되고 해가 무고한 백성에게까지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명(諱命,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창고를 봉하고 군현을 기록하여 (태조에게) 바치니 그의 조정에 대한 공(功)과 백성에게 대한 덕(德)이 매우 컸다 하겠다. 옛날 당말 오대 때의 전씨(錢氏, 오월왕)가 오월(吳越)의 땅을 들어 송(宋)에 바친 것을 소자침(蘇子瞻, 蘇軾의 字)이 ‘충신(忠臣)이구나.’라고 말

한 일이 있지만, 지금 신라의 공덕은 저 오월보다 훨씬 뛰어난 바가 있다. 우리 태조의 비빈(妃嬪)이 많고 그 자손도 번성하였는데 현종(顯宗)은 신라의 외손으로 왕위에 올랐거니와, 그 후 대통(大統)을 이은 이가 모두 그 자손이었으니 어찌 그 음덕(陰德)의 깊음이 아니겠느냐.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경순왕)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한 일은 잘한 일이고 특히 신라의 외손이었던 현종의 후손이 계속 왕위에 올랐으니 결국 신라와 고려는 그 계통이 한 가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로 신라의 왕족이나 귀족이 고려에 와서도 현달한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김갑동)

참고 문헌

김갑동, 1990, 『나말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갑동, 2005,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김갑동, 2010,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김창경, 2003, 『신라시대 왕위계승연구』, 경인문화사.  
 류영철, 2005,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신호철, 2002, 『후삼국시대 호족 연구』, 도서출판 개신.  
 신호철, 2008, 『후삼국사』, 도서출판 개신.  
 전기웅, 1996, 『나말려초의 정치사회와 문인지식층』, 혜안.  
 전기웅, 2010,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혜안.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서원.

신라에서  
고려로

## ㄱ

개칭	017, 164
견훤(견훤왕)	013, 014, 015, 017, 018, 105, 111, 119, 126, 128, 210, 211, 212, 213, 214, 215, 219, 220, 221, 222, 223, 224, 227, 228, 229, 230,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5, 246, 247, 248, 249, 250, 252, 253, 254, 255, 257, 261, 262, 263, 264, 267, 270, 271, 272, 280
경덕왕	104, 176, 257, 265
경명왕	013, 017, 018, 029, 055, 056, 058, 067, 068, 08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90, 091, 092, 093, 097, 119, 126, 127, 139, 147, 158, 159, 182, 183, 209, 211, 233, 235, 245, 254, 256, 270, 271, 275
경문왕	011, 012,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9, 042, 048,

경문왕	053, 070, 091, 135, 137, 146, 171, 172, 174, 177, 178, 179, 180, 188, 197, 200, 215
경보	017, 189
경순왕	015, 018, 029, 030, 037, 053, 055, 060, 080, 083, 092, 093, 094, 096, 097, 099, 111, 127, 146, 147, 156, 157, 159, 161, 209, 236, 242,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61, 264, 270, 271, 272, 275, 276, 277, 278, 280, 283
경애왕	015, 017, 018, 023, 029, 037, 058, 068, 090, 091, 092, 093, 094, 095, 096, 097, 119, 121, 127, 147, 148, 183, 209, 222, 236, 245, 246, 247, 248, 249, 253, 254, 256, 270, 271
경유	017, 164
경휘	012, 037, 040, 041, 042, 045, 048, 050, 051, 055, 056, 058, 068, 074
계강	042, 054, 055, 056, 073, 074, 077, 078
고려	012, 013, 014, 015, 016, 018, 019, 037, 055, 060, 063, 066, 068, 085, 086, 087, 088, 090, 092, 093, 094, 096, 097, 099, 110, 111, 119, 121, 126, 127, 128, 131, 146, 147, 157, 158, 159, 160, 161, 166, 182, 186, 209, 211, 213, 215, 219, 223, 224, 228, 229, 230,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2, 243,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3, 254, 255, 259, 261, 262,

고려	263, 264, 266,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80, 285
고을부(영천)	094, 095, 096, 121, 122, 124, 127, 229, 236, 245, 246, 263, 265, 271
고창(안동)	015, 018, 127, 254, 263, 271, 275
골법	024, 026, 029, 030, 048, 051
골품제	011, 019, 046, 053, 065, 128, 135, 143, 164, 256, 257, 272
공산전투	271
공식公式	028, 047, 114, 125, 217, 223, 236
국인	035, 036, 037, 040, 042, 045, 053, 055, 058, 067, 068, 073, 077
국학	131, 142
궁예(궁예왕)	014, 015, 016, 017, 047, 048, 056, 057, 058, 059, 061, 063, 069, 080, 085, 110, 111, 112, 118, 119, 120, 121, 126, 149, 159, 160, 161, 166, 182, 185, 187, 199, 200, 201, 203, 204, 205, 211, 212, 213, 215, 216, 217, 219,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54, 261, 265
금산사	015, 222, 241, 242, 255
금성	011, 018, 019, 056, 079, 100, 118, 126, 203, 217, 226, 227
금입택	082, 100, 101, 256
기훤	112, 210, 212, 213, 216, 223
김경신	113, 115, 226, 256
김균정	113, 196, 256
김명	113, 256

김범문	259
김부	068, 080, 083, 092, 093, 096, 247, 251, 252, 277, 278
김부식	019, 258, 273, 274, 277, 284
김수종	082
김순식(왕순식)	017, 060, 061, 115, 242, 264, 265, 268
김양	113, 115
김양상	256
김억렴	037, 055, 056, 060, 061, 080, 249, 252, 275, 282, 283, 284
김언승	193, 256
김예(왕예)	115, 121, 122, 265, 268
김우징	113, 256
김제룡	113, 256
김주원	113, 115, 226, 256, 259
김현정	200
김현창	113, 256, 259
김효종	067, 071, 073, 074, 076, 092
김흔	101, 102
남종선	016, 173, 176, 180, 183, 193
낭해	142, 171, 181
녹읍	101, 104, 112, 257
녹진	142
농장	013, 101, 105, 107, 259
능문	121, 127, 245, 271
능창	120, 121, 210, 213
당대동	122, 123, 124
대동	014, 122, 123, 124, 126, 272
대모달	117, 118, 226
대야성	013, 055, 056, 057, 061,

## ㄴ

남종선	016, 173, 176, 180, 183, 193
낭해	142, 171, 181
녹읍	101, 104, 112, 257
녹진	142
농장	013, 101, 105, 107, 259
능문	121, 127, 245, 271
능창	120, 121, 210, 213

## ㄷ

당대동	122, 123, 124
대동	014, 122, 123, 124, 126, 272
대모달	117, 118, 226
대야성	013, 055, 056, 057, 061,

대야성	080. 085. 126. 235. 249
도령	115. 122. 124
도선	017. 165. 169. 201. 202. 203. 274
두품	044

口

마진	014. 057. 126. 204. 223. 224
말세(말세의식)	013. 106. 199. 200
문벌귀족	019. 128
미륵	199. 200
미륵관심법	228. 232
민공	040. 050. 055
민애왕	113. 196. 197. 256

ㅂ

박경휘	066. 068. 070. 071. 073. 074. 075. 076. 077
박유	016. 159
박직운	117. 226
부호장	124. 273. 275. 277
빈공과	131. 132. 134. 135. 137. 143. 150. 151. 159. 257. 276

ㅅ

사병	014. 072. 104. 114. 115. 117. 124. 210
사사위표	040. 044. 049. 135. 141
삼대목	026
상수리	116
서서원	135. 141. 148
선덕왕	013. 113. 117. 256. 262
선문禪門	017
선종	017. 091. 169. 170. 171. 172. 173. 177. 178. 183. 186. 188. 189. 190. 193. 194. 197
성주	046. 055. 056. 057. 059.

성주	060. 061. 062. 115. 116. 117. 126. 127. 210. 211. 226. 237. 265
----	---

승군	013. 109
시무(책)	011. 016. 019. 043. 044. 059. 125. 135. 140. 143. 175. 257. 258. 276. 280

신검	015. 238. 239. 240. 241. 255. 261. 262. 263. 264. 267. 272
----	--

신덕왕	012. 013. 029. 037. 041. 042. 053. 055. 056. 057. 058.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3. 074. 075. 076. 077. 078. 079. 080. 081. 082. 083. 084. 085. 088. 089. 091. 092. 093. 181. 182. 183. 204. 209. 245. 256
-----	---

『신라총각문서』(『총각문서』) 032

신무왕	099. 113. 114. 174. 196. 197. 198. 256
심희	017. 084. 085. 089. 182. 183. 184. 185

ㅇ

아자개	105. 115. 119. 126. 210. 211. 230
-----	--------------------------------------

애노	013. 034. 103. 104. 116. 136. 155. 230
----	---

양길	056. 059. 110. 210. 212. 213. 216. 217
----	---

양위표	041. 044. 049. 051
-----	--------------------

여염	017. 185
----	----------

연수유전담	105
-------	-----

예겸	012. 040. 041. 042. 044. 045. 050. 051. 053. 054. 055. 057. 058. 063. 068. 070. 074. 075. 076. 077. 078. 276
----	--

오묘	092
----	-----

왕거인	015. 035. 036. 042. 043.
-----	--------------------------

왕거인	151. 152. 153. 155
왕건	014. 015. 016. 017. 018. 067. 085. 086. 087. 088. 090. 093. 094. 095. 096. 097. 115. 117. 118. 119. 121. 126. 127. 128. 147. 148. 149. 157. 158. 159. 160. 161. 164. 165. 166. 182. 186. 187. 203. 211. 215. 223. 224.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42.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7. 258.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5. 276. 277. 278. 279. 282. 283

왕경	023. 032. 033. 034. 035. 036. 037. 039. 040. 042. 043. 045. 046. 053. 055. 057. 058. 071. 080. 089. 092. 100. 101. 102. 110. 112. 115. 116. 123. 126. 127. 128
----	--

왕릉	118. 119. 226
왕봉규	060. 061. 062. 089. 119. 161

우련	034. 104. 116
운주	015. 061. 229. 234. 251. 265

6두품	036. 042. 043. 044. 045. 046. 049. 116. 123. 125. 134. 135. 137. 142. 143. 148. 151. 155. 156. 161. 257. 260. 272. 273. 276
-----	---

원봉	016. 087. 127. 235. 237
원성왕	017. 018. 078. 113. 115. 196. 201. 202. 256. 275. 276

원종	013. 034. 103. 136. 155. 230
----	---------------------------------

위홍(김위홍)	011. 025. 026. 027. 028. 035. 036. 037. 040. 041. 045. 050. 054. 076. 107. 153. 209
---------	--

유금필	015. 235. 242. 245. 262
-----	-------------------------

유민	105. 124. 188. 219. 223. 258. 259
----	--------------------------------------

유조遺詔	024. 026. 039. 048. 054
------	-------------------------

은영	058. 069. 070
----	---------------

이엄	017
----	-----

이재	115. 116. 126. 162
----	--------------------

이총언	116. 117. 162. 261. 267
-----	-------------------------

일리천	015. 242. 263
-----	---------------

일어진	018. 127
-----	----------

ㅈ

작제건	118
-----	-----

창군	014. 105. 115. 117. 118. 119. 120. 121. 126. 127. 210. 216. 230. 236. 237. 243. 245. 246. 248. 261. 264. 268. 271
----	---

장보고	113. 114. 117. 131. 136. 174. 198. 256
-----	---

적고적	013. 034. 109. 110. 120. 260
-----	---------------------------------

조물군	245. 262. 271
-----	---------------

존왕	081. 157. 182
----	---------------

준흥	042. 045. 054. 055. 056. 058
----	---------------------------------

지은	023. 031. 038. 039. 040. 050. 071. 072. 073. 101. 108. 249
----	--

지주제군사	011. 012. 046. 059. 060. 061. 062. 063. 119. 125
-------	---

진성여왕	011. 012. 013. 015. 016. 028. 030. 035. 036. 039. 040. 041. 045. 046. 047. 048. 104. 111. 125. 140. 143. 156. 180. 181. 184. 187. 248. 256. 260
------	--

진표	200
----	-----

집사성	121
-----	-----

**ㄸ**

청해진	113, 114, 117, 118, 174, 198, 213
초적	059, 102, 106, 190, 199, 210, 213
춘주	034, 062, 104, 113, 116, 117, 260
최승로	257, 276, 279, 280
최승우	016, 137, 150, 156, 157, 158, 257, 273
최언위	016, 018, 132, 135, 145, 146, 147, 148, 149, 153, 156, 157, 254, 257, 273, 276, 279, 282
최응	016, 157, 160, 232, 273
최지몽	016, 164
최치원	011, 016, 040, 043, 044, 049, 051, 052, 056, 059, 061, 107, 111, 125, 131, 132,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9, 150, 155, 156, 157, 164, 167, 173, 181, 194, 195, 201, 257, 260, 273

**ㅍ**

태봉	211, 213, 222, 224, 225, 227, 229, 230, 261
태자	012, 013, 018, 026, 040, 041, 045, 046, 048, 051, 052, 053, 077, 081, 082, 154, 251, 260, 262, 266, 267, 279
태조	014, 015, 016, 017, 018, 037, 055, 061, 099, 112, 115, 117, 118, 119, 121, 126, 127, 128, 145, 146, 148, 158, 159, 160, 161,

태조	166, 167, 186, 187, 245, 247, 249, 250, 251, 254, 261, 262, 263, 265, 266, 267, 268, 270, 271, 273, 275, 276, 277, 278, 280, 283
----	--

**ㅊ**

패강진	117, 118, 226, 262, 265
풍수지리설	017, 137, 165, 169, 201, 202, 203, 204, 205

**ㅎ**

한화정책	176
해인사	013, 016, 107, 108, 109, 111, 137, 141, 142, 155, 199, 257
해인사 묘갈상탑기	107
향리	019, 128, 263, 272, 279, 282
향직	124
현강왕	011, 012, 015, 023, 024, 025, 026, 028, 029, 030, 031, 039, 040, 041, 042, 044, 045, 046, 047, 048, 050, 051, 052, 067, 069, 070, 071, 072, 073, 075, 076, 093, 100, 101, 105, 107, 132, 135, 137, 138, 139, 140, 142, 149, 150, 152, 153, 158, 169, 171, 172, 173, 174, 175, 176, 178, 179, 180, 198, 249, 256, 259
현안왕	024, 031, 033, 039, 082, 137, 176, 197, 209, 215
현춘	120
현휘	148
형미	017, 232
해성대왕	107
혜소	016, 193

호장	124, 273, 277
호족	209, 210, 211, 217, 222, 223, 224, 225, 226, 227, 229, 232, 234, 235, 236, 237, 238, 241, 242, 243, 254, 260, 261, 267, 268, 271, 272
홍술	087, 127, 159, 235, 237, 249, 268
홍척	016, 193
화랑	026, 029, 030, 031, 032, 033, 036, 037, 038, 071, 072, 101, 152, 248
화엄(화엄사상/ 화엄종)	017, 107, 171, 176, 177, 193, 194
효공왕	012, 014, 025, 026, 028, 029, 030, 034, 037, 039, 040, 041, 042, 044, 045, 046, 047,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3, 066, 067, 068, 069, 070, 071, 073, 074, 075, 076, 080, 081, 083, 091, 110, 111, 115, 120, 126, 132, 135, 140, 141, 146, 147, 148, 150, 156, 157, 181, 182, 184, 202, 204, 209, 214, 217, 219, 228, 231, 249, 256, 260, 271
효종	029, 030, 031, 037, 038, 039, 040, 042, 045, 048, 050, 051, 054, 055, 056, 058, 071, 072, 073, 078, 080, 083, 096, 249
후고구려	012, 014, 111, 211, 215, 218, 219, 221
후백제	012, 014, 015, 016, 017, 055, 056, 057, 060, 061, 063, 085, 087, 090, 093, 096, 097, 110, 126, 127, 137, 156, 158, 182, 211, 213, 214, 215, 218, 219,

후백제	220, 221, 222, 223, 227, 228, 229, 230, 233, 234, 235, 236, 237, 238, 240, 241, 242, 243, 245, 246, 249, 251, 253, 254, 255, 259, 261, 262, 263, 264, 266, 270, 271, 272, 279, 282
흥덕왕	032, 099, 100, 102, 110, 113, 143, 151, 169, 171, 196, 202, 256
희강왕	113, 131, 196, 256

## 편찬위원회

### 위원장

이기동 동국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부위원장

노중국 계명대

### 위원(가나다순)

김동소 대구가톨릭대  
김리나 홍익대  
김명자 안동대  
문명대 동국대  
성호경 서강대  
신형식 이화여대  
이희준 경북대  
주보돈 경북대  
최병현 서울대  
최병현 송실대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 편집위원회

### 위원장

노중국 계명대

### 부위원장

주보돈 경북대  
이희준 경북대

### 위원(가나다순)

김복순 동국대  
김세기 대구한의대  
이강근 서울시립대  
이영호 경북대  
이임수 동국대  
이한상 대전대  
임영애 경주대  
임재해 안동대  
경상북도 문화유산국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 총서 07

## 신라에서 고려로

**편저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발행인** 경상북도지사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 054-880-3176 F. 054-880-4229

**발행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8874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 38  
T. 070-7113-9011 F. 054-336-8323

**디자인** 전명철, 천진영, 이종선, 김새얼,  
임소라, 김다영, 최셋별

**사 진** 오세운

**제 작** 디자인공방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메트로시티 616호  
T. 02-2285-4132 F. 02-266-9821  
<http://www.designgb.co.kr>

**인 쇄** ㈜태웅씨앤피

**인쇄일** 2016년 11월 1일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ISBN** 978-89-6176-196-3 98910  
978-89-6176-189-5 98910(세트)

이 책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제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opyright@2016 by Gyeongsangbuk-do